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

≪계승본≫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제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마당거우 밀영
족제비사냥군
독립군의 마지막부대
왕촌장과 왕서장
열하원정
양정우와 만나
이보익할머니
남패자의 수림속에서

■ 시기 : 1937. 11 ~ 1938. 11

1. 마당거우 밀영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동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정우현의 지난날 이름은 몽강현이다. 그 현에는 패자라고 부르는 광대한 밀림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 동쪽 패자(동패자)의 밀림속에 마당거우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있다.

바로 거기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7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무려 4개월에 걸치는 집중적인 동기군정학습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청소년학생들이나 간부들과 군인들의 학습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항일혁명시기의 학습경험을 자주 말씀해주군 하시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추억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한 단락이다.

1937년 겨울에는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이 군정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마 한 너덧 달쯤 품을 들여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 해 봄에 동강밀영에서도 한 달 남짓하게 집중학습을 했다는데 또 무슨 집중학습인가 하고 동무들은 좀 별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상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단순한 군사집단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를 다같이 중시하는 혁명군대입니다. 문과 무를 겸비해야 무장투쟁도 잘할 수 있고 인민들과의 사업이라든가, 통일전선사업이라든가 적군와해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의 교육과 교양에 많은 힘을 넣은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군인들을 육성하는데서도 힘있는 수단은 학습입니다.

동무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상의식에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이 동양천지를 다 삼키는 줄로 알고 맥을 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관내의 넓은 땅덩어리를 어렵지 않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투쟁을 좀 하던 사람들조차도 뒤골방에 틀어박혀 우국지사행세를 하거나 살아갈 구멍수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혁명군대오안에서도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동요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이나 군사교육에 힘을 넣지 않는다면 주체적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혁명의 자주노선을 끝까지 배심있게 밀고나갈 수 없었습니다. 국제당의 간판을 달고 나도는 이러저러한 노선이 일으키고 있는 혼란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당에 앉아 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열하원정노선을 내리먹이어 조중 두 나라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속에서는 조선공산당발기자그룹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라는 것과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국제당 제7차대회에서 한 연설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당이 해산된 다음 올바른 지도노선을 찾느라고 좌왕우왕하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이나 국제당대회의 연설에서 그 어떤 시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이해할만한 일입니다.

국제당대회의 연단이나 기관잡지에서 조선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도 물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공산당발기자들이 작성한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이나 국제당대회의 연설에는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지 않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을 정식화하였으며 유격구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을 관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자주노선에 관한 지식부터 똑바로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쓰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집중적인 정치학습을 조직했던 이유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논문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임무를 또다시 서술하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군정학습을 다시금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의 통치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마당거우는 혁명군이 한 해 겨울 군정학습을 하며 지내기에는 알맞춤한 장소였습니다.

마당거우에 들어서던 날 선발대대원들이 만들어놓은 화독에 감자를 구워먹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몽강지방도 무송이나 안도에 못지 않게 감자가 잘됩니다. 어떤 감자는 목침만해서 바가지 하나에 한 알밖에 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맛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그 해 겨울동안 매개 병사, 지휘관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정해준 다음 부대별, 조직별, 학습반별 회의를 가지고 학습을 잘

할 데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학습도 전투다!≫라든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는 그때 우리가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구호입니다. 나는 그 구호를 병실마다 큼직하게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유격대오에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동희, 최경화, 김영국, 강돈 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유식해서 대학생이라는 별명을 받기는 했지만 학력이라야 소졸, 중졸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서철이 그 중 높은 편이었는데 그도 돈이 있어서 전문학교까지 나온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도 이악하고 직심스러운 덕에 고학으로 전문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박소심이나 차광수나 대통영감만큼 다문박식한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신입대원들은 군사훈련에만 참가하고 정치상학에는 잘 참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의 하나가 박창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는 까막눈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글은 모르지만 싸움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곧잘 큰 소리를 치군 했습니다. 그러다나니 학습시간도 뚜꺼먹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학습에 자꾸 빠지는가고 물으면 ≪머리속이 캄캄해서 통 글을 배워낼 수 있어야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사격연습이나 잘해두었다가 일본놈을 많이 잡는 것이 상책일 것 같수다.≫하고 대답하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박창순을 불러다놓고 담화를 하던 도중에 앞에 서있는 고로쇠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는 무엇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박창순은 도끼자루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를 길러 부림소로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다시 물었더니 ≪코뚜레를 꿰야 합지요.≫하였습니다.

실농군인 박창순은 그런데서는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아주 잘했다, 동무가 농사를 지어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야 그런 이치를 알겠는가, 혁명사업에서도 꼭같은 이치가 작용한다, 무엇이 어디에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야 혁명을 잘할 수 있다, 모르고서는 고로쇠나무를 보고도 그것이 훌륭한 도끼자루감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적을 많이 잡는 묘리를 모르는 사람은 적을 많이 잡을 수 없다, 총만 가지고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동무가 정 공부를 못하겠다면 우리는 동무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학습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혁명을 해낼 수 있겠는가, 총을 바치고 집에 가서 농사나 짓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으니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몽강현
마당거우밀영

혁명을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인 것만큼 박창순은 공부를 하기 싫다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머리를 싸매고 학습에 달라붙었습니다.

신입대원들가운데는 머리타발을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권 무엇이라고 하는 그는 동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귀담아들을 대신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홍범도장군도 자기같은 무식쟁이였지만 독립군대장노릇을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글을 몰라

혁명을 못한다는게 무슨 소린가고 반박하군 하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데서는 박창순을 찜쪄먹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나 찔통을 부리며 애를 먹였던지 그 사람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골머리를 앓다 못해 나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그 신입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전령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그 편지를 읽어주지 않도록 미리 모든 중대들에 단단히 침을 놓게 하였습니다.


김영국

전령병이 나의 편지를 전달해주자 신입대원은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습니다. 하나의 평대원으로 사령관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연이 적혀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으니 야단이 아닙니까. 그는 아는 동무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구실저구실 붙여가면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그는 이 소대에서 저 소대에로 또 이 중대에서 저 중대에로 발이 닳게 돌아다니며 편지를 봐달라고 빌붙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권동무는 하는 수 없이 나를 찾아와서 편지에 적힌 사연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을 몇 시까지 하고 사령부에 와서 보고하라는 긴급지시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고온 때는 이미 지령이 적힌 시간이 퍽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령관이 자기에게 준 과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그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나는 자 봐라, 무식하다보니 사령관의 명령도 집행 못했다, 동무가 적구에 나가 사업할 때 내가 편지로 어떤 명령을 떨구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대원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학습에 열성을 내였는데 훗날 아주 유식한 군정간부로 자라났습니다.

말이 난 김에 글을 모르던 사람이 학습을 잘해서 투사로 자라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왕청시절의 우리 부대에 김만익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꾸냥이란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녀를 중국말로 꾸냥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결도 맑고 얌전하고 또 곱게 생겨서 왕청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달았는데 꾸냥답지 않게 키는 구 척이나 되었습니다.

김만익은 초기에 청년의용군에 속해서 소왕청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유격대에 정식으로 입대한 다음에는 최춘국이네 중대에 배속되었는데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어오도록 기차도 구경해본 적이 없는 소박한 시골태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때가 묻지 않았던지 마음이 백지장같았습니다.

그가 한번은 열차습격전투에 나갔다가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습니다. 김만익이 전투를 앞두고 레일장에 귀를 대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전우들이 이상해서 그에게 뭘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만익은 응, 기차란게 뭔가 했더니 별게 아니구나, 이런 쇳덩이줄을 타구 발구처럼 미끄러 다니는 새발구구만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식하던 김만익이도 우리한테서 글을 배우고 후날에는 중대청년간사가 되어 대원들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중국 동북해방 전투에 참가하고 조국에 돌아온 그는 강건의 사단에서 대대장으로도 사업했고 연대장으로도 복무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취급한 우리의 책자들에 김만익이 서울과 대전을 해방하는 전투때 부대지휘를 잘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희생된 곳이 낙동강계선일 것입니다. 그는 배와 목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이틀동안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김만익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느라고 비서처와 출판소 일군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출판소를 꾸려놓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과 참고서들을 적지 않게 찍어냈습니다. ≪종소리≫의 주필사업을 하던 최경화나 ≪서광≫의 발행사업을 책임졌던 김영국은 모두 비서처의 쟁쟁한 문필가들이였습니다. 그들이 주동이 되어 대통영감과 함께 교재내용을 해설하는 글이나 학습에 도움이 될 문학작품들을 부지런히 써서 우리 대내출판물들에 싣기도 하고 또한 열성독자들을 발동하여 땀내가 나고 화약내가 나는 생동한 글들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습반성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자반에 망라된 대원들까지도 그 해 겨울에는 신문, 잡지들에 낼 글들을 쓰느라고 이만저만 열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느라면 안목도 넓어지고 학습열의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정치학습의 기본문제는 혁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와 혁명적 신념문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문제들이였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다 중일전쟁발발후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것들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자주노선을 견지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와 같은 문헌들이 마당거우군정학습에서 주되는 학습교재로 이용된 것은 바로 그 문헌들에 혁명



청강전자전투약도
(1938.1)

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이 똑똑히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당거우에서 군사학습에도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군사상학의 중심은 유격전법들이 종합되어있는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였습니다. 지휘성원들은 전술학습에 주력하게 하였고 대원들은 사격훈련과 제식훈련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기를 연마해나가게 하였습니다.

마당거우에서는 유격전술과 함께 정규군전술도 동시에 학습시켰습니다. 과정안에 정규군전술학습을 포함시킨 것은 적을 전술적 측면에서 더 깊이 파악하려는데도 있었지만 해방된 조국에서의 정규군건설이라는 대과제를 앞에 두고 그것을 담당하여야 할 우리들자신이 사전에 필요한 지식을 섭취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경화

우리는 자주 야외에서 실전의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전술연구모임을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평대원들에게도 전술학습을 시켰습니다. 지도의 가치를 모르는 신입대원들에게 지도를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지남침에 의한 방위판정법도 배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이 군사상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을 통해서 잘 다져나갈 수 있게 이따금 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청강전자전투와 정안툰전투는 우리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하는 기간에 조직한 전투들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은 후방물자를 해결하느라고 한차례의 매복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정안툰을 칠 때 최경화동무를 잃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발 건사를 잘하지 못해서 동상을 입었던 강돈도 그 후에 전사하였습니다. 최경화와 강돈은 둘 다 장백에서 입대한 대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신대원들과는 달리 장백지방에서 큼직큼직한 지하조직들을 몇 개씩 맡아서 지도하다가 혁명군에 들어온 지식인출신의 전도가 촉망되는 대원들이였습니다.

최경화는 권영벽이 왕가골에 내려가서 서간도일대의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사업을 지도할 때 찾아내어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가 왕가골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강돈도 우리가 서간도에 나와서 찾아내고 육성해낸 사람입니다. 강돈은 소학교 고등과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자습으로 중학강의록과 사회발전사를 떼고 일찍부터 군중계몽사업에 뛰어들어 반일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립하고 지도한 야학들이 유명했습니다. 강돈은 그 야학들을 통해 수많은 혁명가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 부대에 강돈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을설도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영웅을 한 명만 키워내도 크게 떠듭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강돈은 큰 공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돈은 영화동에서 조국광복회조직에도 참가하고 반일청년회도 조직하였습니다. 그가 꾸린 조직들이 원군운동을 잘했습니다. 강돈은 십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가치있는 군사정보들도 무시로 수집해 보내주었습니다. 강돈이 원군물자를 지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나는 곰의골밀영에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강돈은 혜산사건이 터지자 혁명군중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다음 마을청년들을 인솔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가 신입대원이였지만 우리는 그를 중대선전간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선전간사의 직분에 맞게 대원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전문섭동무도 아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강돈은 학습토론과 논쟁에 늘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대내출판물들에 글도 여러 번 써냈습니다. 종소리에 실린 그의 글이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 혜산사건을 도발한 후 장백땅에서 일제가 감행한 만행을 폭로한 글이였는데 필자의 체험이 아주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부대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하는 기간 나는 4사부대와의 연계를 위해 강돈을 화전현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마당거우에서 화전현까지는 300리가 넘었습니다. 적의 경계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4사부대의 소식을 몰라서 안타까와한다는 말을 듣자 강돈은 자진해서 화전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강돈이 화전에서 귀중한 정찰자료들을 한 보따리나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충실성과 용감성에 탄복하였습니다.


강돈

우리 부대가 정안툰을 칠 때에도 강돈은 수류탄으로 포대를 까부시며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포대를 까부신 다음 방차대로 나갔다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영에 돌아오자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강돈은 동상을 입은 몸이였지만 편안히 누워서 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의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신문에 글도 써내군 했습니다. 문자그대로 불면불휴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밀영에 쳐들어오자 총을 들고 서슴없이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돈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였는데 분하게 잃었습니다.

강돈의 영웅적 생애는 학습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혁명실천에서도 모범을 발휘하게 되고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은 빨치산영웅들은 예외없이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학습을 게을리한 사람들속에서는 후대들앞에 모범으로 내세울만한 영웅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양식을 풍족하게 마련하고 있은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반드시 혁명을 위해 큰 위훈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인민무력부간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수복영웅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습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념이 강한 것을 보지 못했고 신념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혁명적 의리에 충실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야 신념도 강해지고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높아집니다.

김정일동무가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한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군정학습기간에 대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이였습니다. 혁명가요보급과 오락회도 자주 조직하고 혁명적인 소설작품이나 전기실화작품들을 소개선전하는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것도 자주 열어 대원들로 하여금 낙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밀영에서 오락회가 조직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인간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숙영지에서도 울리고 가설무대들에서도 울리고 전장에서도 울리였습니다. 노래소리가 높다는 것은 사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기가 높

은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래소리가 높아야 혁명대오가 흥하고 강해집니다.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활문화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정갈하지 못한 육체에서 건전한 넋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산만무질서한 대오에서는 강철같은 전투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적들은 우리 부대가 숙영한 자리, 불피운 자리만을 보고도 추격을 중지하였습니다. 그것만을 보고도 우리 군대의 규율과 질서,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당거우밀영에 들어온 초기에는 탕개를 풀어헤치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중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땔나무조차 미리 해다놓지 않고 태평스럽게 지내다가 끼니때가 되어서야 밀영주변에서 아무 나무나 망탕 찍어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밀영생활에서 온 부대가 다 따라배울 수 있는 모범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하고 오중흡을 불렀습니다. 그가 맡고 있은 7연대 4중대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핵심중대였습니다. 오중흡에게 밀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은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말해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자기 중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중흡은 중대에 돌아가자 생활문화바람을 되게 일으켜 중대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사흘 후 다시 내앞에 나타난 그는 자기가 중대를 좀 꾸리느라고 해봤는데 한번 나와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달 군정간부들을 데리고 4중대에 나가보았는데 중대의 면모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밀영주변이 어찌나 깨끗이 정리되어있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취사장앞에 연기가 안나는 강대를 패서 몇 달 쓰고도 남을만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중흡에게 중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대를 정렬시킨 오중흡은 먼저 자기의 무기를 1소대장에게 검사시키고 합격을 받은 다음 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관중에 있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그와 함께 중대의 무기상태와 복장상태, 병실, 취사장, 세면장의 정돈상태를 다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참관이 끝난 후 군정간부들에게 부족점을 찾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했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만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중대들에서도 4중대의 모범을 본받아 부대관리와 생활문화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생활문화를 세우던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때 거기서 벌어졌던 금연운동도 생각납니다. 우리 주력부대에서 두 번째로 전개된 금연운동입니다. 백두산기슭에서 싸울 때 이두수가 주동이 돼서 벌이었던 제1차 금연운동은 나의 권고에 따라 벌인 것이지만 마당거우밀영에서 벌어진 제2차 금연운동은 애연가들 자신이 자원적으로 조직하고 벌인 것이였습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집중군정학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총적인 목표로 잡은 것은 우리의 모든 장병들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공산주의적 혁명투사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교육과 교양의 기본사명은 사람들을 당대의 사회제도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키우는데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교육하는 흉내를 좀 냈는데 그것은 조선의 청소년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알맞춤할 정도로 길들이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선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데는 최소한의 실용적 기능이나 가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학문 그 자체는 대체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써먹는가에 따라서 덕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식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으로 되고 인민에게 이로운 것으로 되게 하자면 교육이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나 기술문화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참사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상도덕교양을 잘해야 합니다. 인간애와 인민애, 조국애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한 사상과 신념에서 배양됩니다. 나는 도덕품성이 저열한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당과 국가가 물질본위의 경제건설에만 주력하지 않고 사람본위의 사상교양을 선행시기면서 기술실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도 잘 준비된 참다운 인간들을 육성해낸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제일주의자가 아니고 인간제일주의자인 것만큼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제일 큰 재부로 여깁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의 군정학습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의 풍모와 품성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인간개조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안툰전투를 치르고 마당거우밀영으로 돌아올 때 한 신입대원이 무기를 잃어버린 사고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강돈의 총이였습니다. 강돈은 방차대로 나갔다가 동상을 입고 밀영으로 후송될 때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보총을 중대정치지도원인 주재일에게 맡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전장에서 철수할 때 무기를 수여받지 못한 한 신입대원이 짐을 덜어주려고 그가 메고 있던 강돈의 총을 자기가 메겠다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의 요구대로 총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대가 정안툰에서 퍼그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주재일은 마음씨 고운 신입대원의 어깨에 총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유를 알아본즉 중간휴식장소에서 무기를 벗어놓았다가 그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대원과 함께 몇 십리길을 되돌아가서 3시간동안이나 어둠속을 헤맸지만 종시 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밀영에 돌아오자 나를 찾아와서 그 사연을 보고하고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에게 책벌을 주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엄격한 책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혁명군의 규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책벌을 적용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니 주재일은 아직 복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어떤 책벌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심사숙고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의 실수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엄중하다고 생각된 것은 그 신입대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무기를 그냥 맡겨버린 정치지도원 자신의 경솔성과 무책임성이었습니다.

주재일은 투쟁경험도 풍부하고 매사를 심중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매사에 용의주도하고 책임성이 높은 그가 신입 대원들과의 사업에서 그런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그가 자기자신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재일은 나를 찾아와 책벌은 총을 분실한 신입대원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자기의 부주의와 무책임성이 결국은 신입대원으로 하여금 사고를 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함을 옳게 찾아냈고 자기자신을 허심하

게 비판하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일의 문제를 상정시키였습니다.

회의에서 그를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의 직무에서 떼고 비서처보조성원으로 보낸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회의소식을 큰 감동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무기분실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지지 않고 지휘관이 지고 철직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혁명군대안에서의 상하관계가 얼마나 고상한 도덕의리에 따라 맺어지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은 고민끝에 주재일을 찾아가 울면서 사죄하였습니다.

주재일은 그 대원앞에서도 자기를 반성하였습니다.

나는 내 과오 때문에 철직한 것이지 동무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 아니다. 사고는 동무가 저질렀지만 그 근원은 나한테 있다, 나는 정치일군으로서 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고서도 사고의 책임을 전우에게 전가하자고 하였으니 동무를 대하기도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비서처에 가서 새로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정학습을 결속하던 날 나는 그에게 준 책벌을 해제하고 그를 경위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령부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되였던 김주현도 사상수양과 학습을 잘해서 같은 시기에 연대장으로 임명되였습니다.

마당거우에서의 군정학습은 이처럼 매개 병사,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적 자질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높이는데서도 큰 은을 냈습니다.

우리는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가 있은 후 백석탄이라는 곳에서도 40일가량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백석탄밀영에서 한 달 이상이나 군정학습을 하게 된 주되는 이유는 육과송과 쟈신즈에서 200여명의 목재소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입대한 사정과 관련되어있였습니다. 그들을 훈련시기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활동에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판화 ≪사령부의 불빛≫

신입대원들가운데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는 높았지만 대체로 의식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우리 나라에서 왜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벌목노동자로 일하다가 우리 부대에 입대한 손종준도 그 당시에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안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

다. 그런데 유격대가 한총구를 친 다음부터 손종준은 각성하였습니다. 안도에서 한총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가 안도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벌목노동자로 일하다가 입대한 사람이였지만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농민이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농민이 노동자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입대원들의 대부분은 총을 다룰줄도 몰랐고 제식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인민혁명군에서는 각종 경무기만 해도 10여종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제기관총이 있는가 하면 독일제기관총도 있었고 체코제기관총도 있었습니다. 보총도 여러 가지 종류였고 권총은 4가지 이상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이 되자면 이 모든 무기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전투에선가 일본군의 기관총을 여러 정 빼앗아낸 일이 있습니다. 일본제기관총가운데는 탄창을 우로 꽂는 기관총도 있었고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있는 기관총도 있었습니다. 탄창을 우로 꽂는 기관총은 쏘기가 좋았지만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있는 기관총은 사격법이 까다로왔습니다. 일본군기관총수를 한 명 생포하여 사격교범을 설명하라고 하니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총수는 아편만 먹으면 비밀을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편을 주고 사격교범에 대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나는 기관총교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기관총 한 종의 사격원리와 분해결합법에 정통하자고 해도 이와 같은 곡절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목재만 다루던 노동자들에게 군정학습을 시기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백룡을 시켜 적들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실컷 골탕을 먹이다가 백석탄으로부터 400-500리 되는 곳에 따돌리게 하고 각지에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예비로 저장해두었던 후방물자들과 무기들을 운반해오게 한 다음 밀영에 들어박혀 군정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신입대원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최현도 수십 정의 무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백석탄에서의 학습은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는 소정된 과목을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배워주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하여 공고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구대원들의 학습목표를 지식수준을 한 등급이상씩 높이며 신입대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두었습니다. 신입대원들에게는 한 달동안에 문맹을 퇴치하고 각종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연대와 연대사이, 중대와 중대사이, 개인과 개인사이에 경쟁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구호는 ≪학습도 전투다!≫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후 모두가 문맹을 퇴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학습정형을 요해하려고 고향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더니 누구나 자기의 사상감정을 우리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총과 권총, 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의 사용법과 분해결합법에도 정통하였습니다. 어떤 신입대원들은 대내출판물들에 글도 써냈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구대원이건 신대원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신문, 잡지들에 낼 글을 썼습니다.

제1기 군정학습을 총화하는 날에는 시상식도 크게 하고 오락회도 하였습니다.



학습총화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급시계와 금반지, 만년필 등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해 겨울에 우리는 백석탄에서 콩비지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밀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포시하라는 고장이 있었는데 대포시하 아래쪽에 가을하지 않은 콩밭이 있었습니다. 지방 농민들의 주선으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콩을 가을해왔더니 다들 비지를 해먹자고 하였습니다.

백석탄밀영에는 적들의 토벌에 쫓겨와 사는 집이 한 집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있으면서 언배추시래기를 썰어넣고 콩비지를 만든 다음 주먹만큼씩 덩어리를 빚어 얼구어두었다가 식사할 때 하나씩 남비에 끓여먹군 하였습니다. 하루 세끼씩 비지를 먹었는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절약하느라고 강냉이는 조금씩 넣어 먹었는데 별맛이였습니다.

백석탄에서의 군정학습은 홍기하전투와 대마록구전투를 비롯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와 소부대활동시기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군사정치활동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일군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울 데 대하여 늘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정일**동무가 내놓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관철하는 과정에 누구나 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혁명적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2. 족제비사냥군

우리가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다 썼습니다. 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백두산지구를 떠나 몽강지구로 진출했다는 것을 때늦게나마 내탐한 일체의 첩보모략기관들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였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김주현이 소부대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난날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던 모모한 영감이 몽강에 살면서 족제비덫을 놓으러 다니는 것을 만나 선전사업을 했는데 경향이 좋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족제비사냥군영감한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립군출신이라는 말에 귀가 당기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중일전쟁발발 후 일본군대가 중국본토를 막 들이쳐서 북경을 먹었다, 상해를 점령했다 하는 바람에 대가 약한 사람들이 혁명을 거의나 포기하고 바람이 잠잠한 안방이나 뒤골목으로 몸을 사릴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애국지사가 그리워 옛날 독립운동을 좀 했다는 사람만 만나면 반갑다고 무작정 손을 잡아 흔들던 때였습니다.

더구나 몽강에서 독립군출신 영감과 접촉했다고 하니 그 영감을 통해서 심룡준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룡준은 만주땅에서 정의부니, 신민부니 참의부니 하는 독립군 3부가 세력다툼을 할 때 참의부에서 거물급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심룡준이 참의부시절에 휘남, 화전, 몽강 일대에서 활동했고 3부가 국민부로 통합된 후부터는 몽강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룡준을 알게된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학시절에는 길림의 상의가에 있는 복흥태정미소나 삼풍여관에서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자들과 독립군 지도자들은 3인1당, 5인1파, 8단9회의 난립상태를 해소하고 각당, 각파, 각계 역량의 집결을 목적으로 하는 3부 통합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합의 중심지가 길림이였습니다. 정의부와 신민부, 참의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표회의를 할 때 심룡준은 참의부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족제비사냥군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영감이 심룡준을 아는가, 안다면 지금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요해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주현은 밀영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다시 만나보았는데 영감이 비록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애국심만은 버리지 않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룡준의 주소와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 하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은 심룡준이 독립군에서 물러난 후 색시를 얻어 가지고 몽강에 와서 살지만 변한 것은 없고 뜻은 여전하다는 것까지 자신있게 보증해 나섰다고 합니다.

나는 김주현의 말을 듣고 심룡준이 나이는 많지만 독립운동에 나설 때의 조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거기다가 줄을 좀 달아서 몽강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주장은 다르지만 그도 애국심을 간직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통일전선에 꼭 합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룡준이라는 인물을 그처럼 중시하고 그와 접선하기 위한 방도를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구한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군대가 중일전쟁의 수렁창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일역량과의 공동전선을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정계통의 반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임정계통의 반일역량과 손을 잡자면 우리와 임정사이에 줄을 놓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심룡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왕덕림

심룡준은 한때 상해임시정부에 드나들던 사람이다. 그가 속한 참의부는 육군주만참의벽라는 이름을 가진 임정의 직속산하단체였고 그 안의 적지 않은 간부들은 임정에서 직접 파견되어온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룡준과 함께 독립군활동을 하다가 중국관내에 들어가 있은 사람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임정과 관계되어있을 것이고 중국국민당과도 기맥을 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미 그때 우리 부대에는 왕덕림의 특사가 와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편제에도 없는 경위중대 교관이라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그를 보고 이교관, 이교관 하고 불렀습니다. 그가 중국장기를 잘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자주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왕덕림이 중일전쟁발발적 후 혁명군사위원회 별동대 제2로군지휘로 있으면서 장개석과 연결되어있고 장개석이 또한 임정과 내통하고 있은 조건에서 왕덕림과의 선을 잡아쥐기만 하면 임정과의 합작을 성사시킬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왕덕림이 관내에서 이교관을 특사로 보내준 것은 실로 예상치 않았던 행운이였습니다.

리교관의 말을 들어보면 왕덕림은 환갑나이가 다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그냥 일선에서 항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한장도 나에게 왕덕림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진한장은 구국군부대에 있을 때 오의성의 명령을 받고 천진에 가서 왕덕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왕덕림은 진한장에게 자기가 그 전날 동북땅을 떠나 관내로 들어간 것은 장개석이나 장학량의 도움을 받아 반일투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진한장이 왕덕림에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심룡준과의 접선을 위해서는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더 검열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에게 몇 번 과업을 주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과업을 매번 착실하게 수행하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의 검열을 통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룡준에 대한 공작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족제비사냥군영감을 통하여 그에게 나의 명의로 된 편지도 보내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도 보내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심룡준에게 갔다와서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다른 반응이 없던가고 물으니 편지회답을 인차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서 이런 보고를 받고 심룡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있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바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심룡준이 편지를 받으면 밀영으로 직방 찾아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응만은 아주 크게 보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좀 냉담하게 나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총을 메고 돌아다니며 국권회복을 위해 힘쓰다가 가정에 묻힌 사람이니 왕년처럼 반일전선에 또다시 나서 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받게 되자 머리가 좀 뗑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반일전선에 나서 달라는 것은 이전처럼 독립운동에 몸을 적셔달라는 뜻인데 운동을 중도반단한 사람이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룡준이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보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혁명을 중도반단했던 사람이 혁명의 길에 두 번 다시 나설 때에는 물론 결심을 인차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룡준이 회답을 뒤로 미루는데는 제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편지를 보낸 이상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답장을 받아보아야 심룡준의 정신상태도 알 수 있고 그 정신 상태에 알맞은 처방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후 몽강현에 나갔던 소부대동무들이 족제비사냥군영감에게서 심룡준의 회답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심룡준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산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고 문안인사를 간단히 한 다음 김형직선생의 자제가 이제는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싸우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일무장투쟁노선이 아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있은 것이 양심에 가책된다고 하면서 나의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에 다시 나설 결심을 했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심룡준은 나이로 볼 때 우리 아버지네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937년이면 그 세대의 독립운동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인으로 되었거나 해외로 망명했거나 감옥에 끌려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대오에서 물러나 초부로도 되고 농사군으로도 되고 시정배로도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독립운동자들가운데 이름난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벌써 1920년대 말이나 1930년대초에 길림일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참의부 무장부대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 관내로 활동지역을 옮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아버

지의 친지가 아마 손정도목사일 것입니다. 무장투쟁을 하느라고 간도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무송시절이나 길림시절에 자주 보군하던 3부소속의 독립군지도자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데 가서나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생각을 할 때면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론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애국지사들의 얼굴도 눈앞에 그려보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사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그들의 행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몽강에서 심룡준을 찾아낸데다가 그와 줄이 닿아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편지까지 받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대내신문에도 실었습니다.

몽강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백두산근거지의 위력과 영향력을 이 일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역량을 여러 방면으로 더 늘여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는 족제비사냥군영감을 통하여 심룡준에게 돈을 좀 보내서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와 같은 정기간행물들을 사보내게 하였습니다. 심룡준은 며칠사이에 우리가 요구한 신문, 잡지들을 다 사서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와 심룡준사이에는 편지도 여러 번 오갔고 돈과 물건도 여러 번 왔다갔다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심룡준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를 지하조직활동에 빨리 인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령부당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룡준과의 사업을 더 판이 크게 벌이자,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몽강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광범히 꾸리자고 토의하였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이제는 심룡준에게 과업을 맡겨도 될 것 같다, 몽강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하나 꾸려보라고 하자, 그리고 부상자치료에 필요한 약재도 부탁해보자, 이것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로 될 것이며 동시에 그가 정치적 생명을 되찾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참가자들도 내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심룡준의 고문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작원으로 누구를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도 토의되였습니다. 심룡준이 한 때 참의부의 거두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조직건설경험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3부통합에 참가한 것뿐이였는데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는 비합법적인 지하조직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룡준에게 유능한 정치일군을 한 사람 파견하여 뒤에서 그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적임자로 정치사업경험이 풍부한 김일동무가 선발되였습니다.

심룡준도 우리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김장군의 부탁대로 조국광복회조직을 당장 꾸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와의 직접적인 상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심룡준의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몽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성원들이 다 반대하였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곱절이나 많은 심룡준을 밀영에 불러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룡준과의 대화를 성사시키자면 몽강시내도 아니고 밀영도 아닌 제3의 지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고 소부대를 파견하

여 적당한 장소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장소만 고르게 되면 거기에 김일을 보내여 심룡준과의 대화를 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작전까지 짜놓은 다음 김주현소부대를 시켜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밀영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두도송화강쪽에서 사령부가 있는 밀영까지 들어오자면 여러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강골로 얼음을 타고 들어오다가 벼랑을 기여오른 다음 7연대밀영, 8연대밀령, 경위중대밀영을 차례로 거쳐야 사령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령부에 오려면 반드시 이 통로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사령부가 정해놓은 엄격한 밀영출입질서였습니다.

밀영의 출입자들이 강골의 얼음을 타면 발자취를 남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설사 눈우에 발자국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강판우의 눈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눈우에 신발을 몇번 비비고 얼음강판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낸 겨울철행군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당거우밀영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했고 백석탄밀영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몽강현 청장전자로부터 마당거우로 가던 날 그 해의 첫눈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밀영근처의 벼랑바위앞에 이르니 두꺼운 얼음강판 가운데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을 보고 그날 어떤 대원들은 두도송화장복판에 온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마당거우의 관문에 서있는 벼랑이 대단히 가파롭고 험했습니다. 전부대가 이 바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대원들은 땀을 철철 흘리며 나무가지와 마른 풀뿌리들을 휘여잡고 한치한치를 힘들게 톺아올랐습니다.

눈섭에 성에가 불리는 추운 겨울날 두도송화강얼음판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물을 보니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도송화강이 별난 강입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도 우리가 마당거우로 들어올 때 개척한 밀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소부대와 함께 7연대밀영의 보초앞을 지나다가 얼결에 보초병들이 요즈음 밀영에 데리고 들어오는건 간첩밖에 없는데 저 영감행색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영감이 정탐군이 틀림없다면 내가 한번 쏴봐야겠다고 농삼아 한 말을 듣고 공포에 질리였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밀영에 절대로 사민들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밀영밖에 나가서 만났지 밀영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죄상을 조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밀영에 데려왔습니다. 이런 실정에 습관된 보초병들은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정탐군으로 보았습니다. 보초병들이 그런 말을 마음놓고 할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중국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이 그날 입은 옷은 조선옷이 아니라 중국옷이었습니다. 그가 왜 조선옷을 입지 않고 중국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보초병들로 하여금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중국사람으로 잘못 보게 했고 그가 들어서는 안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이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말을 듣고도 꿈만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초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유격대가 자기의 내막을 다 알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심룡준과의 대화를 준비하던 시기에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일본사람들의 위협과 공갈에 못이겨 본의 아니게 사령부를 해칠 임무를 받았습니다. 소부대와 함께 밀영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우리를 해칠 때 사용할 흉기까지 휴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

음이 태평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족제비사냥군영감이 사령부에 나타났을 때 나는 왕덕림의 특사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족제비사냥군을 만나주었는데 그 영감의 얼굴색이 왜 그런지 밝지 못했습니다.

후날 족제비사냥군영감도 고백했지만 그날 그는 보초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김일성**장군이 석 달천기를 내다본다더니 아마 우리끼리 꿍꿍이한 것을 다 아는 모양이다. 나를 이런데로 끌고들어올 수 없겠는데 이런데로 끌고들어오는 것을 보니 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레 짐작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무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었는데 보초소에서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으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의 신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몽강과 같은 벽지에 들어와 족제비잡이로 생계를 이어가자니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극진하게 대우해주었습니다. 대원들에게는 수수밥을 먹이면서도 그에게만은 기장밥을 해먹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대견학도 시키고 오락회며 강연회며 학습토론회도 구경시키었습니다. 이렇게 며칠동안 훈련도 주고 계몽도 시킨 다음 김일과 함께 심룡준과의 대화를 하게 되어있는 제3의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영감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향을 많이 주느라고 했지만 그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경위대원들은 그 영감이 기장밥을 해줘도 먹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밀영에서 언제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족제비사냥군영감과 김일을 제3의 지점에 제때에 보내지 않은 것은 적들이 마당거우일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시소조들을 여러 곳에 보내여 높은 고지나 나무꼭대기우에서 망원경으로 주위를 세심히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감시소조들은 밀영부근의 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과 처처에 적들이 집결되어있는 것을 제꺽 알아내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연기를 내지 않고 밤에만 불을 조금씩 피워 밥을 지어먹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담화를 하려고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담화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이 사업보고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업정형을 간단히 보고한 다음 공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탐군 두 놈을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놈은 자기 정체를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설복하여 그 자리에서 놓아주었고 다른 한 놈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자기가 받은 임무와 죄과에 대해 전혀 실토하지 않고 숨기면서 반항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부대책임자의 보고를 듣고나서 정체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처리한 것도 잘한 일이고 솔직하게 자백한 사람을 놓아준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머리를 연방조아리면서 밑도끝도 없이 ≪장군님, 제죄를 용서해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책임자도 영문을 몰라서 영감의 거동만 지켜보았습니다. 영감이 용서를 빌 땐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곡절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감에게 무슨 사연인지 어서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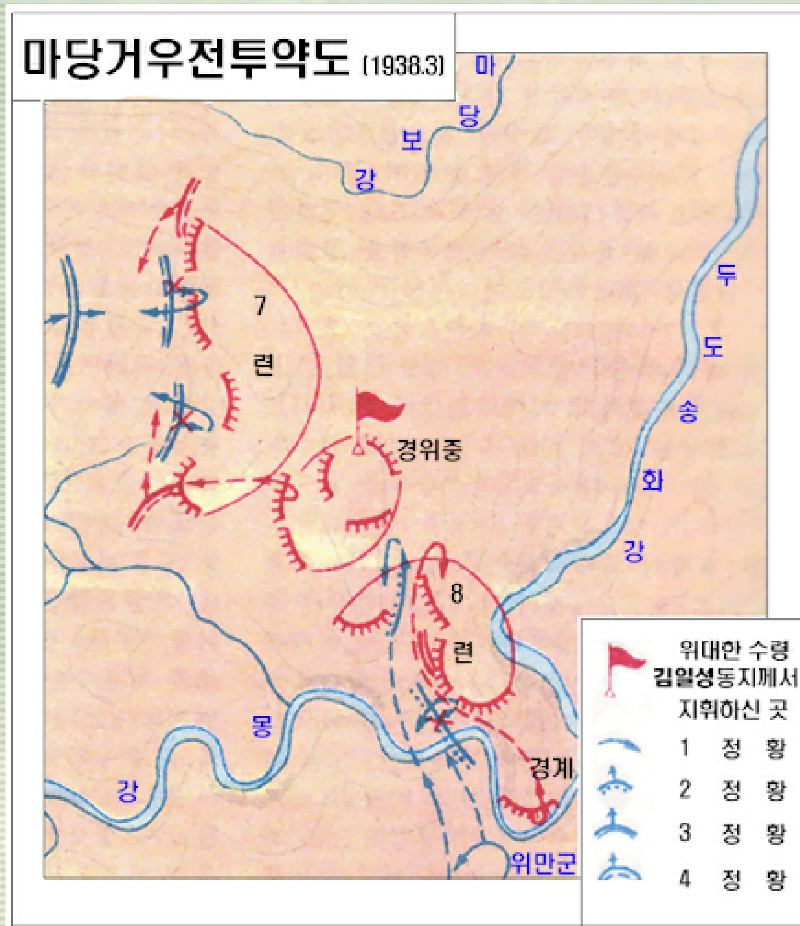
영감은 그 말에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계십시오.≫하고는 밖에 나가서 봇나무밑에 감춰두었던 도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첫째 죄가 일본놈들한테서 사령부를 해치고 돌아오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밀영에 들어와 귀빈대접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뉘우치고 사령부에 자수할 대신 도끼를 감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심룡준이 변절한 것을 알면서도 사령부에 귀띔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심룡준이 변절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해졌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이 일본사람들한테서 임무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닥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 백두산밀영에 있을 때에도 몇 번 체험해보았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날의 참의부 거물급인 심룡준이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였습니다.

3부시절의 심룡준은 명망도 높았고 민중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는 반일을 선동하는 씨가 박힌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제의 개가 되었다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나는 족제비사냥군영감에게 심룡준이 변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고 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심룡준이 일본놈들과 모의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였습



니다. 어떤 모의를 했는가고 물으니 사령부를 유인할 방도를 모의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심룡준에게 유격대대표가 가게 되면 우선 그를 억류하고 강박하여 사령관과 모 지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사령부에 보내며 편지를 받고 사령관이 약속된 지점에 나타나면 포위해서 붙잡는다는 것이 심룡준이 일본사람들과 함께 짜놓은 사령부유인방안이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의 고백에 의하면 심룡준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그가 뒤골방에서 일본사람들과 토의하고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거리를 하나씩 맡길 때마다 심룡준은 일본사람들한테 꼭꼭 찾아가서 혁명군이 무슨 부탁을 해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지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은 심룡준이 왜놈들에게 투항변절한 다음부터 장춘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적의 토벌대도 여러 번 끌어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족제비사냥군영감이 사전에 자백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일도 녹아나고 나도 녹아나고 다 녹아날 뻔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역시 믿음의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밀영에도 들여놓고 부대생활의 이모저모를 통째로 개방해놓고 마음대로 구경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영감의 흑심이 인간본연의 양심으로 되돌아섰던 것입니다. 인간심리의 변증법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주장가운데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명언입니다.

불신을 해서 덕을 볼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아의 구별이 없이 염통까지 다 뽑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되 실천을 통해 검열해야 합니다.

영감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다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무들은 그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감을 관대히 용서해주었습니다. 자기 죄과를 솔직히 반성하는 사람한테야 왜 아량을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겪고나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혁명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환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룡준의 실례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관계로부터 혁명을 추동할 수도 있고 훼방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지만 혁명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안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인차 변질되고 맙니다. 어려운 때에 혁명을 제일 쉽게 배신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중독된 인간들입니다.

나는 심룡준의 실례를 통하여 사람이 근본을 잊고 자기보신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엄중한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친구도 동지도 이웃도 민족도 나라도 서슴없이 팔아먹습니다.

3. 독립군의 마지막 부대



독립군의 마지막사령 최윤구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몸부림치던 망국조선의 역사무대에 무력항쟁의 기발을 들고 등장한 독립군은 의병투쟁과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비롯하여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의 각이한 투쟁을 통하여 국권수복의 뜻을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싸워온 이 나라 애국지사들의 피끓는 독립 열망과 눈물겨운 노고의 열매였다. 비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중적 지반이 박약한 것으로 하여 조락의 길을 걷기는 하였지 독립군은 민족운동진영의 유일한 반일무장력이였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청원이나 구걸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총검으로써 일제를 타승하려한 독립군의 지향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항일혁명의 봉화를 추켜드신 첫날부터 그들과의 사업에 시종 많은 힘을 기울이시였다.

일찍이 남만의 양사령을 찾아가시던 그때로부터 항일일선에서 독립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게 되기를 갈망하시던 수령님의 그 숭고한 경륜과 투철한 애국의지는 여러 해가 지나서야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립군과의 합작제휴노선을 받들고 독립군부대들앞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조선인민혁명군측으로 의거시키는데서 크게 역할한 사람은 최춘국과 최윤구였다.

그렇다면 최윤구는 어떤 사람인가.

1975년 10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최윤구의 반신상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 대한 귀중한 회상교시를 하시었다. 최윤구의 인간상과 그가 방향전환을 하게 된 과정은 그때에 더욱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옮겨놓는 글은 그날 수령님께서 당역사연구소 일군들과 혁명열사릉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그밖의 여러 기회를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과 작가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을 추려서 묶은 것이다.

최윤구는 평안북도 의주사람입니다. 오동진, 양세봉, 장철호, 이관린, 김시우, 최동오, 공영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압록강유역일대에는 명망높은 독립운동자들이 많았습니다.

1925년에 우리가 무송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대영까지 마중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최윤구도 있었습니다. 그가 독립군말기에는 부사령, 사령으로 활약하였지만 우리가 무송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낮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그 고장 사람들은 최윤구를 가리켜 최참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불렀고 그의 직속상관들인 장철호, 오동진, 양세봉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사란 최윤구에게 붙어있는 군사칭호였습니다. 그가 소대장이 된 후에도 나는 그를 참사아저씨라고 불렀고 부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후에도 우리 둘만 있을 때에는 소년시절의 버릇 그대로 참사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참사아저씨라고 하면 최윤구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소대장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오히려 서먹서먹해하였을 것입니다.

최윤구는 지지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 가슴속에 많은 말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속이 깊고 통이 크고 배짱이 센 그는 전형적인 무관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스스로 무술훈련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 무술훈련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일찍부터 뜻을 크게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록강반에 의병과 독립군이 자주 나타났으니 소년시절부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윤구의 아버지는 야장간일을 하였습니다. 최윤구도 서당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10살을 넘기기 바쁘게 아버지를 도와 야장간에서 일하였다고 합니다. 한번은 그가 추운 겨울에 웃통을 벗어내치고 냉수마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격술선수들처럼 온몸에 힘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사나이구실을 하려면 체통이 저쯤 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윤구는 17살인가 18살 때 독립군을 따라 임강현 모아산에 갔습니다. 모아산은 백산무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언제인가 오동진영감은 우리 아버지와 마주앉아 최윤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대장감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력 뿐 아니라 인품과 성미를 보아도 최윤구는 대장감이라는 말을 들을만하였습니다. 그는 전투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독립군시절에 최윤구의밑에서 복무한 김명준은 그가 부사령으로 승급한 다음에도 싸움마당에만 나서면 앞장에 서서 돌격하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송시절에 최윤구를 독립운동의 큰 인물로 존경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극진하게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최윤구는 장철호와 함께 매일같이 문병을 오군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상을 하였습니다. 그도 베감투를 쓰고 몹시 울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따뜻이 위로해준데 대하여 나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윤구가 정의부시절에 무슨 주의주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연공이냐 반공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이념을 해부한다면 그는 반공보다 연공에 더 가까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윤구는 공영이나 박진영과 같이 공산주의운동에로 일찍이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변에는 새 사조를 동경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기발을 바꾸어 들고 공산주의자들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만과 중부만주 지방에서 새 사조를 지향하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에게 포위되어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왕청문에 갔을 때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인물들한테서 테러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만지방에서는 공산주의사상이 민족주의사상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침투되자마자 민족주의사상이 반기를 들 사이도 없이 이 지역을 휩쓴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었습니다. 동만에서는 남만이나 중부만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두 사조의 심각한 대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최현, 윤창범, 박동근, 김일룡, 박두경 등의 경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일대에서는 적지 않은 독립군출신들이 특별한 곡절을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고 령솔하는 혁명군대오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구사조의 교체가 유혈이나 사생결단의 사상전을 동반하지않았습니다. 이 지방의 인민대중은 공산주의사상에 접하게 되자 그것을 자기 계급의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조선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대하여 역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응당한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통화성 삼원포의
독립군훈련장

1932년 여름에 나는 통화에서 최윤구를 잠깐 만나보았습니다. 양세봉과 합작문제를 의논하느라고 그때 그와는 별로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만에 가서 양세봉과 합작문제를 토론하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립군의 사상동향에서는 연공의식보다 반공의식이 지배적이였습니다. 독립군상층의 반공의식과 적들의 이간책동 때문에 우리가 목적했던 합작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통화를 떠난 뒤 최윤구는 몹시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만에 가서 큰 소득이 없이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자들과의 합작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힘이 약할 때에는 하고 강할 때에는 하지 않는 문제도 아니며 주권을 잡기 전에만 하고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완전한 화합과 통일단결을 실현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이고 노선이였습니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나라가 해방된 때로부터 수십 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명활동초기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민족의 완전한 대단결이 실현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전략문제로 본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양세봉과의 담판에서 실패했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군과의 연합이 실현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완고한 중국인반일부대들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공동전선을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제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서간도에 진출한 후 나는 여러 갈래의 경로를 통하여 남만에 있는 독립군의 소식을 계통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제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우선 통신원을 파견하여 조국광복회창

립선언과 10대강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독립군과의 합작공작을 남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동지들이 맡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동광은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자격을 가지고 독립군과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군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양세봉이 희생된 다음 독립군사령자리는 김활석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완고한 반공분자였습니다. 물론 독립군내부에는 새 사조를 동경하고 연공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부시절부터 고이허나 현묵관과 같은 지독한 반공광신자들을 추종해오던 우익계층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고 있어 그들과의 합작공작이 잘 진척될 수가 없었습니다. 양세봉이 살아있을 때 양정우부대와의 공동행동을 한 일이 있었지만 모처럼 싹텄던 그 연공대사가 김활석사령의 대에 와서 줄기차게 이어지지 못한 것은 군상층에 틀고 앉아있던 반공분자들의 탓이었습니다.


김명준

김활석을 연공의 길로 돌려세우는 것은 그의 수하에 있는 수백명 부하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서 한시도 지체시킬 수 없는 중대사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가 그 당시 독립군과의 합작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그들의 덕이나 보자고 그런 것이 아니였습니다.

1936년이면 조선인민혁명군이 역량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대단히 강성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독립군은 그 당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때인 것만큼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대오가 자꾸 줄어들고 무기도 모자라서 더러는 창이나 몽둥이를 들고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력이 몹시 약해진 독립군은 적들과 별로 싸우지 않고 슬슬 피해다니기만 하다나니 무기와 탄약을 보충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김명준은 김활석의 수하에 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최윤구의 동행자였다.

김명준은 1960년에 쓴 자기의 수기에서 독립군에 입대하던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군이 처하였던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1932년 가을에 우리는 ... 연통산근처에 주둔하고 있은 독립군부대를 찾아갔다. 마을에서는 독립군환영잔치준비가 한창이었다. 나와 짝패는 우선 돼지를 잡는 곳에 나타나 이것저것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군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는 보초의 잔심부름을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독립군지휘관들은 애숭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입대청원을 부결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강심을 먹고 이동하는 부대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쫓아갔다. 나와 짝패는 독립군이 가닿는 마을마다에서 그들의 시중을 열성스럽게 들어주었다. 우리의 끈덕진 시중과 참군열의에 감동된 중대장은 마침내 입대를 승인하였다. 그때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입대 후 우리는 얼마 안가서 독립군이 우리가 꿈꾸던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였다 무리가 그렇게도 동경하던 독립군에는 무기가 없어 몽둥이를 들고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입대하면 곧 총을 받을줄 알았는데 나 역시 처음에는 총이 없다 보니 보초근무에 나갈 때마다 매번 선배군인의 보퉁을 빌리군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김명준은 소부대활동시기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몸가까이에서 몇 해동만 생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명준을 통하여 김활석사령이 이끌던 독립군의 생활을 이모저모로 깊이 요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독립군이 최윤구를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것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발전의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독립군은 무기를 인민들한테서 징수한 모연금으로 해결한 것처럼 먹고 입고 쓰는 문제도 인민들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관할구역의 주민들에게 연조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징수를 맡은 사람들은 대장을 펼쳐놓고 세대별로 주민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납부정형을 따지었습니다. 지정된 납부액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설을 하든가 볼기를 쳤습니다.

과거에 정의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부의 군대도 남만에 틀고 앉아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습니다.

김명준의 말에 의하면 독립군은 1930년대 중기부터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점차 토비처럼 되어갔다고 합니다. 독립군의 한 소부대는 식량사정이 곤란해지게 되자 압록강가에 나가 떼목군들의 식량까지 털어냈습니다. 토비로 가장한 다음 물목을 지키다가 공포를 몇 방 쏘아 떼목을 강제로 기슭에 끌어다붙이게 하고 막무가내로 식량을 빼앗아내군 했는데 이거야 어디 독립군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궁여지책이라 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의 보호자, 구원자가 되어야 할 독립군이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부패변질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독립군내부에서는 점차 군기가 문란해지고 도주자가 연달아 생기였습니다. 김명준네 소대장도 지휘부의 궤짝속에서 사령의 도장과 총, 돈 등을 훔쳐낸 다음 직일병과 보초병을 데리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산림대도 독립군을 만나면 무턱대고 무장해제를 하였습니다. 독립군의 처지는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괴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이 망하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나 좋아했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지않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적들의 노복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을 때 그래도 독립군이 창군당시의 초지를 버리지 않고 하나의 군사역량으로서 존재를 유지해간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였습니다.

존재를 유지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립군은 민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무렵에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였지만 활동 초기와 중기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전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군지휘관들은 일만군경들의 거듭되는 토벌과 내부의 사상적 혼란으로 하여 생긴 군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애를 태웠습니다. 독립군의 사상적 변질에서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패배주의였습니다. 패배주의사상은 적들에게 투항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고 대오에서 도주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으며 애국군대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토비행세를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활석을 비롯한 군의 일부 상층인물들과 부분적인 장병들은 장개석군대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당에 대해 환상을 품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군을 유지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란 별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할 때 남을 쳐다보거나 남들의 덕으로 살아갈 구멍수를 찾게 되면 스스로 사대주의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대주의라는 병은 선

천적인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던 사람도 사대주의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독립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사상적 제한성이 바로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데 있었습니다.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 사대주의가 안내하는 길이 매국과 반역입니다.

사대주의자들치고 조국과 민족을 깔보지 않는 자가 없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깔보는 사람들치고 매국과 반역에로 가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가 충분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독립군의 모든 병사, 지휘관들이 다 국민당의 돈과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사령은 장개석을 하느님처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국민당군대와의 연합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연합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병사, 지휘관들은 소문을 통해서만 우리 부대의 면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실지체험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똑똑히 이해하였습니다.

김명준이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들려주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느 해인가 김명준이 소속되어있던 독립군의 소부대는 즙안현의 어느 산간부락에서 우연히 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밤중에 마을을 찾은 독립군소부대는 잠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어떤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인민혁명군의 소부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독립군의 소부대가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이집저집 돌아다니던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진해서 자기들이 들었던 집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쌀도 덜어주었습니다.

밤중에 소변을 보려고 밖에 나간 독립군대원들은 놀라운 정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이 꺼져가는 우등불두리에 따바리모양으로 빙 둘러누워 서로 껴안고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포단도 없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냉짚을 깔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서야 어느 누가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독립군대원들은 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이 우등불두리의 강냉짚을 거두고 물을 긷는다, 나무를 팬다, 마당을 쓴다 하면서 주인집늙은이들의 일손을 돕느라고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더 감동되였습니다. 집주인인 중국인노인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소행에 감동되어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내 평생 이런 군대는 처음 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 우리의 군대입니다.≫ 하고 치하했습니다.

이 사실은 김명준네 소부대성원들의 입을 통하여 독립군의 상하층이 다 아는 유명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윤구도 그 일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립군병사들의 마음이 인민혁명군편으로 쏠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독립군이 살아나는 길은 인민혁명군과의 연합밖에 없었습니다. 연공만이 살길이요, 합작만이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독립군이 장성해서 독자적으로 투쟁을 계속하든가 인민혁명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항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였습니다.

독립군측의 형편으로 볼 때 인민혁명군과의 합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였습니다. 문제는 반공을 휘두르면서 장개석에게 기대를 걸고 있은 김활석사령

과 그 추종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세우는가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작원들과 남만동무들이 보내준 통보에 의하면 최윤구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읽고 아주 만족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립군과의 합작을 결정적으로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후였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에 진출한 후였습니다.

그전에도 인민혁명군측에서는 독립군지휘부와 주동적으로 몇 차례 접촉하였습니다. 독립군측에서는 민족반일역량이 서로 합작할 데 대한 우리의 사상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과의 연합과 관련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남만으로 떠나가는 최춘국에게 독립군과의 합작을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남만에 도착한 최춘국은 먼저 최윤구에게 나의 편지를 전달한 다음 두 군의 합동에 대한 문제를 내 걸고 그와 비밀리에 담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춘국이 공동항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자 최윤구는 두 부대를 합치는데 대해 대뜸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나하고 연고관계도 깊었지만 독립군안에서 반일의지가 제일 견결하고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허울만 있지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파먹은 김치독이요. 내 개인의 심정을 말한다면 부대를 데리고 당장 김성주대장한테로 찾아가고 싶소. 사령영감이 정 고집을 부리면 나 혼자서라도 혁명군을 찾아갈 작정이요.≫

그때 최윤구는 최춘국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춘국은 우리는 독립군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 부사령선생이 자기 지지자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 사령영감을 잘 이해시켜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을 하게 해보라고 최윤구를 설복하였습니다.

최윤구는 사령을 구슬릴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동항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공동전선을 해야 살길이 열린다는 것은 그가 다년간 독립군에서 민족운동의 부패변질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김활석은 부대를 세 개로 쪼개여 분산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군의 손실을 덜려고 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중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독립군은 역량을 보충할만한 후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최윤구는 어찌하여 독립군은 쇠퇴해가는데 인민혁명군은 번성해가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군기가 문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데 인민혁명군은 군기가 점점 더 강해져 적들조차 아우성을 치게 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백성을 노략질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먹고 입고 쓰고사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일본군만 만나면 연전연패하는데 인민혁명군은 연전연승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인민혁명군을 쓴외 보듯 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독립군을 우군으로 보는가 하는 고민에 잠기였습니다.

최윤구는 그 원인을 민중적 기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것도 민중적 기초가 약한데 있고 부패변질과정을 멈춰세우지 못하는 것도 민중적 기초가 견실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최윤구는 민중을 떠나서 민중위에 군림하고 있는 독립군의 전망은 암담하지만 민중속에서 태어나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혁명군의 앞길은 무한히 창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립군의 민중적 기초가 약한 것은 달리는 될래야 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였습

니다. 독립군의 활동과 지향은 민중중심의 사상과는 인연이 먼 부르조아민족주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근로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데 있었으며 그로부터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역량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배척하는데 있었습니다.

최윤구는 독립군이 쇠퇴, 고립, 붕괴되어가는 근본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실현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이 구축해놓은 민중적 지반우에서 활동할 때만이 민족앞에 지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활석은 인민혁명군과 연합하면 이득은 공산주의자들이 얻고 독립군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고 하면서 합작제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독립군이 설사 명이 모자라서 망하게 되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는 한 가마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김활석의 입장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속지 말라, 그 사람들은 계급투쟁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들이 통일전선을 한다는 건 일시적인 속임수이다, 안팎이 다른 사람들이니 그들과는 등을 돌리고 지내는게 상책이다.≫라고 하면서 반공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드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과 부사령의 담판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은 사이에 부대의 형세는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식량과 피복이 떨어진데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빠져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도주하는 사람, 귀순하는 사람, 굶어죽는 사람들이 연방 생겨나는 바람에 장병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최윤구는 마지막 결판을 낼 작정으로 사령과 최종담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의 제의에 응해나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대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곁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이상 더여기에 앉아뭉개다가는 우리가 전멸당하고 만다, 장개석을 찾아가든지 **김일성**을 찾아가든지 각자가 소망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고 들이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김활석은 그 제의에 동의해 나섰습니다. 그의 지령에 따라 독립군의 전체 병사,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령은 부대가 겪고 있은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비장하게 설명하고 나서 ≪당신들 중에서 **김일성**부대를 찾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앞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처음에 그런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령의 속심을 알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혹시 연공분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어찌 알겠습니까.

맨처음으로 대열앞에 나선 것은 김명준이였다고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대원들이 대열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선구자가 있으면 꼭 풀리는 법입니다. 김명준은 그야말로 선구자였습니다. 내 그래서 그 사람이 인민혁명군에 편입한 다음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때 내 결심을 부채질해준 분은 최윤구부사령이였습니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결심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 후날 김활석사령의 수하에서 떨어져나가던 때를 회상하여 김명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부대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갈라지고 나서는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김활석사령도 울고 최윤구부사령도 울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둘로 갈라진 셈이니 그 아픔과 고통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독립군은 두 패로 나뉘어 조선이 독립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는 각각 다

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한 대오는 최윤구의 인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떠났고 몇십 명밖에 안되는 다른 한 대오는 김활석의 지휘하에 봉황성부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남만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저항하던 국민부의 군대는 이렇게 해체되었습니다.

≪나는 먼길을 에돌아서 이렇게 성주대장의 곁으로 찾아왔소. 곧바로 올 수도 있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도 우유부단했거든.≫

이것은 최윤구가 남패자에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그의 의거를 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홍춘수

최윤구가 단행한 거사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와 민족통일전선역사에 대서특필할만한 의의를 가진 경이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실시해온 통일전선정책의 승리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또 하나의 탑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의 연합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우고 참고로 삼아야 할 하나의 선구적인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그 본보기를 창조한 공로자들인 최춘국과 최윤구의 업적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역사와 민족대단결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윤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구는 연공의 선구자이며 그 실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량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항일무장투쟁사를 전문하는 역사가들은 민족통일전선운동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최윤구의 업적을 큼직이 써넣어야 할 것입니다.

최윤구의 의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혁명운동선상에서는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의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윤구는 사조로 볼 때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였습니다. 아버지네 세대가 대부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면 우리네 세대는 대체로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수화상극이라고 보던 두 세대의 애국자들이 결국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항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윤구의 거사는 이념이 다르고 신앙과 정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얼마든지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줍니다.

최윤구는 인민혁명군에 넘어온 후 공산당에도 입당하였습니다. 그는 참모일군의 요직에서 항일혁명의 승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1938년 말에 화전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전우였던 동시에 나의 혁명동지였던 그를 나는 슬픈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그가 연공의 길을 개척해놓고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아팠습니다.

최윤구와는 다르게 김활석은 장개석을 만나러 가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독립군사령으로서의 사명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김활석을 장개석에게 환상을 가지고 그에게 붙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고 계교를 꾸몄습니다. 장개석의 특사로 가장한 특무를 보내여 김활석을 꾀여냈습니다. 특무는 장개석이 보냈다는 위조신임장을 내보이면서 장총통이 김활석사령과의 회견을 고대하고 있으니 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장개석에 대한 기대로 눈이 어두워진 김활석은 상대방의 신분을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특무를 따라나섰습니다. 특무는 그를 곧장 헌병사령부로 유인해갔습니다.

김활석의 운명을 망친 것은 결국 반공병과 사대주의병이였습니다.

우리의 민족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대주의자들과 반공분자들은 예외없이 매국과 반역,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법입니다.

손중산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지도자이지만 연공을 하였기 때문에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는 인생말년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에로 새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활석도 그들처럼 연공을 하였더라면 일본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자로 삶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반공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공은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민족과 인민을 등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군 합니다. 인민의 편에 서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인민을 등지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공이 애국, 애족, 애민으로 될 때 반공이 나라를 등지고 민족을 등지고 인민을 등지는 길로 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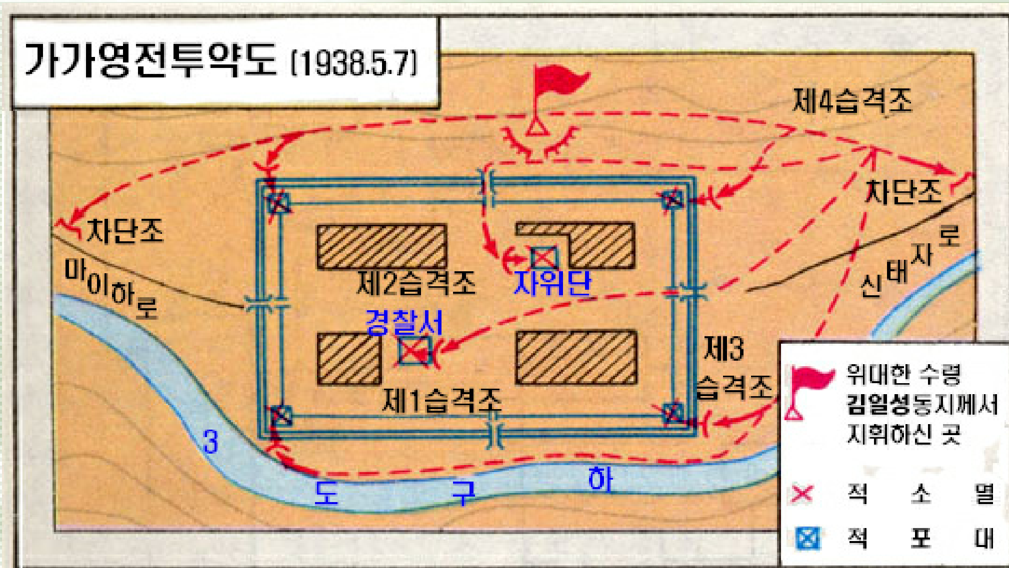
최윤구를 따라 인민혁명군으로 넘어왔던 김명준도 일생동안 혁명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오래동안 나의 부관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는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인데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정일동무는 김명준이 독립군에 있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내세우고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홍춘수도 독립군에 있다가 인민혁명군에 편입하였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나날 독립군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합류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역사적 경험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애국역량이 사상과 이념, 정견을 뛰어넘어 하나로 단합하여 외세와 공동으로 싸워야 하며 또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4. 왕촌장과 왕서장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준 중국의 벗들 중에는 적기관복무자들인 두 명의 왕씨도 있었다. 한 왕씨는 임강현 대황구에서 촌장노릇을 하였고 다른 한 왕씨는 임강현 가가영이라는 곳에서 위만경찰분서의 분서장으로 있었는데 그 고장 주민들은 그를 그저 왕서장이라고 불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말단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던 두 왕씨가 어떻게 되어 조선인민혁명군과 연계를 맺게 되었고 나중에는 항일혁명의 동조자, 지지자로까지 되었는가. 그 두 사람에 대한 공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일전쟁발발 후 친히 포치하신 정치사업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촌장과 왕서장을 만나신 것은 각각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였다.

나에게 왕촌장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 주재일이였습니다. 그가 임강현 대황구에 적구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 대황구일대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자면 왕촌장부터 쟁취해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주동무에게 왕촌장의 내력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전에 그가 화룡현 삼도구 우심산이라는 곳에서 당지부서기로 활동할 때 입당시킨 조직원이였습니다. 그 조직원

이 정체가 노출되어 화룡땅에 더 배겨있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조직은 그를 임강현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임강현에는 그 조직원의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은 대황구근처에 농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지고 있었으나 임강현에 와서도 조직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당지부서기였던 중대정치지도원을 만나서 조직선을 다시 이어달라고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1중대 정치지도원에게 대황구에 당장 가서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되 그가 보증하는 사람들로 조직을 무어주고 조직선을 달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중대정치지도원은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 사령부가 직접 동무의 사업을 보아주게 되니 마음놓고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여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대황구에 우리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임강현에 가서 처음으로 내온 조국광복회조직일 것입니다.

나는 1중대 정치지도원에게 왕촌장을 쟁취할 데 대한 과업도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촌장은 우리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의 지하조직을 통하여 그를 반년이상 깊이 요해해 보았습니다.

왕촌장에 대한 우리의 공작이 열매를 맺은 것은 1938년 봄이었으니 1938년 봄이면 우리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끝마치고 장백으로 진출할 때였습니다. 부대의 행군노정에 대황구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임강에 가면 어떻게 하나 짬을 내여 왕촌장을 한 번 만나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으로 남하하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황구로부터 3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식량마저 떨어져 행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원들도 몹시 피곤해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부대를 데리고 장백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행군도 하고 싸움도 하겠는데 식량이 한 되박도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해서 식량을 노획했으면 좋을 텐데 대원들은 모두 지쳐서 싸움은커녕 몸도 가누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왕촌장에 대한 공작을 한 매듭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왕촌장과의 사업만 잘하면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활동에 좋은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황구 옆에는 소황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지하조직들이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소황구의 조직도 1중대 정치지도원이 우심산에서 당지부서기를 할 때 입당시켰다는 그 사람이 관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일을 잘해서 소황구 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도 새끼를 많이 쳐가고 있었는데 그만 적들에게 꼬리를 잡히었습니다. 적들은 부락에 달려들어 조직원들을 마구 살해하고 집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도 총에 맞아죽고 총창에 찔려죽었습니다.

학살을 면한 몇몇 조직원들과 주민들만이 살길을 찾아 대황구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왕촌장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때 왕촌장은 자위단장노릇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 가에 따라 소황구 조직성원들과 피난민들이 덕을 볼 수도 있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왕촌장을 빨리 우리의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에 왕촌장과의 사업을 할 공작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공작원들은 왕촌장을 꼭 쟁취하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위단장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작이 암초에 부딪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작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왕촌장이 양심인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촌장이 양심

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 그는 촌장과 자위단장으로 된 후 관할지역의 인민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는 매우 주요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개인의 보신과 영달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자위단장이나 촌장과 같은 벼슬자리를 따기만 하면 실적을 높이려고 애국자 한두 명쯤 해치는 것은 식은죽 먹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촌장은 그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황구에서 온 피난민들과 유가족들도 아직까지는 다치지 않고 자기의 관할구역에서 살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네 마을 에 공산당마을에서 도망쳐온 빨갱이들이 있는데 잡아가라고 고자질하거나 직접 자위단원들을 시켜 피난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상금을 타먹었을 것입니다.

일본군경들이 학살하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을 마을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착하여 살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것은 사실 어지간한 담력이나 결심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이 들장나는 날이면 촌장자신이 엄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촌장은 이런 것까지도 다 각오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황구로 떠나가는 공작원들에게 왕촌장은 다소간 양심도 가지고 있은 사람 같다, 대담하게 접근하여 우리 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목적을 잘 해설해준다면 그를 반드시 우리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대황구에 내려간 공작원들은 농막주인의 도움으로 왕촌장을 만나 우리와의 합작을 제의하였습니다. 왕촌장은 그 제의에 기꺼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는 나와의 상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혁명군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주겠으니 **김일성**장군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자거니 들어주면 안된다거니 하면서 입씨름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령부에 대한 암해공작이 빈번해지면서 지휘관들이나 대원들이 모두 신경을 바싹 도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밑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휘관들을 설복하여 왕촌장을 우리 밀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왕촌장은 비밀리에 마을인민들을 동원하여 식량과 신발을 비롯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보니 서른네댓 살 나보이는 미남자였는데 예절도 바르고 몸가짐도 점잖고 행동거지도 활달하여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는 왕촌장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두고 얼마간 대화를 나눈 다음 그가 그 동안 민족적 양심을 잃지 않고 지성인답게 살아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고 앞으로도 촌장의 간판을 가지고 우리를 더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일본도 만주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은 촌장자리는 만주국이 준 벼슬이지만 당신은 그 벼슬을 일본이나 만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혁명군을 잘 도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왕촌장은 내가 자기를 믿어주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일생 잊지 않고 장군님말씀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그는 우리한테로 올 때에 술과 안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다심하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막안에서 빼주를 나누었습니다. 왕촌장은 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자기가 먼저 한잔 마시고 그 다음 나에게 한잔 권하였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가정사를 터놓았습니다.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딱 째인 이야기였는데 다 듣고나니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동녕현에서 나서 자란 만주족이었습니다. 생활이 하도 가난해서 나이 40이 다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그들의 가정에는 귀여운 아들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바로 미래의 왕촌장이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는 용모가 의젓하고 총명한 남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하도 어렵다보니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늘 만주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은 없을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아들애를 데리고 만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강동으로 돈벌이를 가던 중 로비를 마련하느라고 자기네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청년들한테서 러시아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네 세대 사람들가운데는 러시아를 아라사나 강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조선청년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러시아에 갔습니다. 청년들은 돈벌이를 하려고 금전판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데 모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조선인부락이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중국사람이였지만 거기서 조선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민족은 달랐지만 그들은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그 부락에서 학교를 다니다나니 조선풍습에도 익숙해지고 조선말도 곧잘 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에서는 신구당파바람이 되게 불었습니다. 신당이란 볼셰비키당을 말하는 것이고 구당이란 백파도당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왕촌장네 마을사람들도 신구당파바람에 숱한 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볼셰비키세력이 우세하여 반혁명세력을 내쫓으면 볼셰비키세상이 되었다가도 백파가 득세하면 하루아침사이에 마을이 백파세상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점차 공산당지지세력과 백파지지세력으로 갈라지고 지어는 한 집안에서도 맏이가 신당파라면 둘째, 세째는 구당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싸움끝에 희생자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구당파들의 걸이대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의지가지할 데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지지하다가 죽은 사람의 자식이어서 구당의 눈에 날까봐 누구도 그를 돌보아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당파는 신당파의 씨종자를 말리워야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아준 사람은 동녕현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러시아로 들어갔던 조선청년이었습니다. 추운 가을날 그 청년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동녕현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그만 마적들한테 붙들리게 되였습니다. 마적들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아두고 돈이나 물건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혈혈단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적의 부두령이 불쌍한 아이를 죽여서 뭘하겠는가, 조선사람은 제갈 데로 가게 하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마적들에게 노비를 털리우고 아이마저 떼운 조선청년은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가고 아이는 마적의 소굴에 남아 부두령의 보호를 받게 되였습니다. 부두령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그를 욕심냈기 때문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마적의 소굴을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도망쳐간 곳이 다름아닌 임강땅이였습니다. 그는 대황구의 산속에 와서 밭과 집을 사고 부자질을 하면서 아이를 양자로 키웠습니다. 부두령이 부자가 될 수 있은 것은 그가 마적단을 뛰쳐나올 때 집단의 공금으로 간수하고 있던 거액의 돈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이였습니다.

아이의 양아버지로 된 부두령은 산동지방출신의 왕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아들에게도 왕가라는 성을 달아주었습니다. 권세를 쥐여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였습니다. 부두령은 양아들을 권세가로 키우기 위해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는 촌장자리에까지 내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왕촌장은 양아버지의 은혜도 아주 크지만 친아버지가 죽은 다음 자기를 보호해주고 만주에까지 데리고 나온 조선사람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신세를 갚을 길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저 그분의 은덕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하고 가슴아파할 뿐입니다. 소황구의 피난민들 중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셈치구 말입니다.≫

왕촌장은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심정으로 조선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그의 말은 나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해주고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은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를 만주국을 위한 촌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촌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왕촌장은 우리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왕촌장이 마을로 돌아갈 때 그에게 호위원 두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은데 행처도 모르고 생사여부도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왕서장을 쟁취한 과정도 왕촌장을 쟁취한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왕서장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7연대 정치위원인 김평이였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한때 최일현이네 중대를 데리고 장백, 임강현계에 가서 소부대공작을 지도하였습니다. 각지에 소부대들을 파견하고는 그를 장악지도하면서 자기도 지방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파견한 소부대들가운데서 한 소조는 임강현 5도구와 3도구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대원은 소조책임자를 찾아와 가가영의 위만경찰분서 때문에 소조활동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가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분서를 한번 되게 들이치고싶었던 모양입니다. 임강이나 몽강, 무송지방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가영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경찰분서라는 것이 떡 틀고앉아있으니 문제는 문제였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그 대원을 만난 다음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가가영의 위만경찰분서를 장악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후환도 생기고 오히려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대담하게 접근하여 분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7연대 정치위원은 가가영근처의 수림속에 있는 산전막에 자기가 연길현에서 구당서기로 활동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를 중개자로 내세우면 분서장과 접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길현일대에서 적위대소대장까지 한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이 민생단연루자로 몰려 죽을 뻔했을 때 구당에 있던 조선사람들이 그를 적구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을 김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가가영에 와서 짐승사냥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분서장이 사냥을 즐기다나니 자연히 그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산전막주인을 아는 사람은 동무밖에 없으니 동무가 직접 그 사람을 통해 왕서장에게 접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왕촌장을 쟁취할 때와 경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조직성원이 경찰과 친교를 맺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친교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왕서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직통 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산전막주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가 비록 유격구를 떠난 지는 오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새빨갛더라고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나타난 이 전날의 구당서기를 보자 혹시 변절해서 왜놈의 밀정이 된게 아닐가 하고 경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다니던 사람이 사복을 입고다니면 종종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이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한 다음에야 산전막주인은 그를 이전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위대에 있을 때 민생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적구로 나온데 대해 몹시 절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연대 정치위원에게 나를 **김일성**장군한테로 데리고가달라, **김**장군앞에서 내가 민생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당신도 옆에서 그것을 보증해달라, **김**장군이 나를 신임하면 나는 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김**장군덕에 민생단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말고 혁명전선에 나서서 가슴을 쭉 펴고 쇠소리가 나게 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었다고 합니다.

산전막주인이 왕서장과 친교를 맺은 것은 한 해 전부터였습니다. 그의 사냥구역에 왕서장이 이따금씩 나타나 사냥을 하였습니다. 서장은 짐승을 한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산전막주인은 늘 네댓 마리씩 잡군 했습니다.

어느 날 왕서장은 그 비결을 알고싶어 산전막에 들리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해박한 사냥지식에 감탄한 나머지 당신은 보통사냥군 같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사상가나 인텔리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사냥군인가 가짜사냥군인가 하는 것은 내일 사냥경기를 해서 시험쳐보는게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왕서장은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전막주인이 경기에서 이기자 왕서장은 술을 냈습니다. 산전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왕서장은 주인에게 의형제를 맺자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은 내가 당신네 쟈잘리에 들어가면 당신의 형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건 좀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분서장이라는 무거운 벼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주 분서를 떠나 사냥까지 할 수 있는 여가를 내는가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시간이 많아서 사냥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서 나온다, 저 왜놈들이 못된 종자들이다, 죽을 자리에는 만주경찰을 세우고 같은 별을 달고도 만주경찰한테는 걸핏하면 호령과 욕설질이다,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7연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가가영일대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꾸릴 임무를 주고 당면하게는 왕서장을 만날 수 있게 교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산전막주인은 왕서장을 데리고 정치위원이 지정해준 접선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왕서장도 왕촌장처럼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술은 만주국관리들의 중요한 교제수단이였습니다.

왕서장은 왕촌장보다 몸도 우람지고 성격이 우락부락했지만 결심이 빠른 사람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재는 것이 별로 없고 대답도 명확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왕서장과 첫인사를 할 때 자기가 **김일성**부대의 한 정치위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히었습니다. **김**사령의 영을 받고 공동항일을 의논하자고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우리와 손을 잡을 의향이 있는가고 직방치기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처음에 놀라서 눈살이 꼿꼿해졌으나 인차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아, 만나자마자 뭘 그러는가, 술이나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술이 몇잔 들어가게 되자 정치위원의 무릎을 탁치면서 ≪유격대정치위원이 키는 작지만 마음에 드오. 칼찬 사람앞에서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신분을 소개하다니 참 놀랍소.≫하고 감탄했습니다.

정치위원은 ≪**김일성**사령관의 부하들은 다 그렇소.≫하고 말했습니다.

왕서장은 정치위원의 귀에 대고 **김**사령을 만나게 해달라, **김**사령만 만나게 해주면 내 그분앞에서 결심을 말하겠다, 그러되 당신이 쟈잘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담판을 통해 왕서장은 산전막주인도 정치위원과 같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전막주인이 쟈잘리에 들어 자기하고 한 형제가 된 다음에도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했는데 쟈잘리의 비밀이 제일인줄 알았더니 공산주의자들의 비밀이 최고이구만 하고 탄복했습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쟈잘리에 들었다고 하여 성이 바뀌는것도 아닌데 의형제를 맺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서장을 사령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가가영부근에서 왕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역시 왕촌장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였습니다. 그가 나한테 올 때 선물이라고 하면서 산삼 세 뿌리를 가져왔던 생각이 납니다.

왕서장은 공동항일을 하자는 나의 제의에 인차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언행이 아주 활달했습니다. ≪나는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경찰이 된 사람이지 공산당을 반대하자고 경찰모자를 쓴 사람이 아니다. 일본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총을 벗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난다, **김**사령이 손을 잡고 공동항일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가 없다, **김**사령이 분서장벼슬을 버리지 말고 항일을 하라고 하니 영대로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경찰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유격대원모두가 **김**사령처럼 나를 대해주겠는가, 양쪽 총알에 맞아죽지 않겠는지 모르겠다≫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왕서장에게 그건 염려말라,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 알아

본다, 우리 혁명군은 비록 적기관에 가담한 사람들일지라도 항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한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줄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방해하지 않으면 그것도 항일로 된다, 때때로 정보를 보내주고 산전막주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왕서장은 그 후 우리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의 우산밑에서 가가영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왔습니다.

우리는 왕촌장과 왕서장의 도움으로 쓸모있는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황구자위단은 우리 부대 동무들을 만나면 손수건을 흔들면서 환영까지 하였습니다.

왕촌장과 왕서장에 대한 공작과정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우리가 쌓은 또 하나의 체험이였습니다.

세상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제일 힘든 것은 인간개조입니다. 그러나 품을 들이면 다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 정의로운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상교양을 잘하면 누구나 다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개조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간판이나 복장을 보고 사람의 사상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사람의 신분이나 직급을 보고 사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주, 자본가들에게 착취계급의 사상이 있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종우와 같이 경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건 간에 양심이 있고 진보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양심도 결국은 이런 사랑속에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간판 뿐 아니라 국적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면 중국사람들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았고 중국인적기관복무자들까지도 대담하게 포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조선인적기관복무자들을 교양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곧 중국인적기관복무자들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원리는 국적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조선인경찰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면서 중국인 경찰이나 촌장이라고 하여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항일혁명당시 우리와 손을 잡은 중국의 벗들 가운데는 위만군의 고위장교들과 중하층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왕촌장이나 왕서장처럼 그들도 우리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우리와 이념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과 관리, 기업가,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이 각이한 계층들과 한 강토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버리고 공산주의자들끼리만 살수야 없지 않습니까.

설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통일조국을 건설해나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 공통분모를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열하원정

열하원정은 중일전쟁발발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과 국내혁명운동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항일운동선상에 큰 손실을 가져다준 하나의 교훈적인 사변이다. 이 원정은 1930년대중엽 세계각국에서의 혁명운동방략이 국제노선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던 정황에서 매개 나라 민족혁명이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반적인 난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반증하는 하나의 산 실례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자주노선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고수되고 관철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특기할 역사적 사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당으로부터 열하원정계획이 처음으로 시달되던 때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열하원정으로 알려져있는 요서, 열하 지구에로의 원정계획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와닿은 것은 1936년 봄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증민이 국제당의 지시라고 하면서 열하방면에로의 원정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열하원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부대들이 요서와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여 동정항일, 실지회복의 구호밑에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노농홍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으로 중국관내에 쳐들어가는 일제침략군을 제압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국제당이 추구한 이 원정의 전략적 목적은 북상동정하는 노농홍군(후에는 8로군)과 서정하는 항일연군부대들이 열하계선에서 합류함으로써 중국관내



동북항일련군 기병대

와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투쟁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전반적 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만의 1군과 길동지구의 4, 5군, 북만의 3, 6군 등 동북지방의 항일연군 부대들은 장춘의 동쪽과 동남부 그리고 동북부지역에 반원호모양으로 분포되어있었습니다. 국제당의 전략적 의도는 이 반원호를 서쪽으로 압축하여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공격하고 열하계선까지 진출하여 북상하는 노농홍군부대와 합세하여 중국관내로 쳐들어가 는 일제침략군을 타격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국제당은 열하원정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관내혁명과 관외혁명이 통일적인 연관속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가 동북 3성을 강점하고 만주국을 조작할 때만 하여도 중국에서의 반일투쟁은 주로 동북땅에 국한되어있었습니다.

2만5천리 장정과정에 중국당안에서 좌경기회주의노선이 분쇄되고 새로운 지도체계가 수립된 때로부터 중국인민의 항일투쟁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관내에서의 항일운동의 급격한 장성은 동북지방사람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열하원정계획이 시달됨으로써 열하땅은 다시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일대결의 열점으로 되었다.

발해만쪽에 있는 열하는 청나라시기의 열하성 소재지로서 만청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있는 도읍이다.

열하가 중국 청나라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거기에 강희황제가 지은 청조의 이궁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광한궁이라고 불리우던 그 이궁에서 청조의 이름난 건륭황제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하는 천험의 군사요충지로도 유명하였다. 열하서남쪽기슭의 산줄기들이 만리장성의 거점으로 되고 있은 것만 보더라도 이 고장이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시되어왔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열하가 이처럼 인상깊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19세기 실학사상가의 한 사람이었던 박지원도 이조봉건정부가 파견한 사신의 수원으로 중국에 갔다가 열하일기라는 장문의 기행문을 남기였다. 이 글에는 중국의 문물제도나 풍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열하의 실상이 매우 실감있게 서술되어있다.

열하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고장으로 된 것은 9.18사변 이후 일제가 관내에로의 침공의 길을 열기 위해 금주와 열하를 점령한 때부터였다.

국제당으로부터 열하원정계획이 시달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각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덕태는 처음부터 서정계획을 회의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몇천 명밖에 안되는 유격대의 역량을 가지고 적의 군력이 밀집되어있는 만주국의 수도를 포위하라는 것도 그렇고 산악지대의 본래 근거지들을 떠나 멀리 평원지대로 진출하라는 것도 다 께름직한 일이다, 그것은 유격전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관내에서 노농홍군이 동정을 한다고 하여 우리가 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대도시에 대한 공격전도 실패하였는데 우리더러 그 전철을 다시 밟으라는 것은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군벌들사이에 혼전이 벌어지고 있던 1930년대초 중국당중앙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립삼은 혁명정세발전의 유리한 측면을 일방적으로 과장하여 우선 한 개

성 또는 몇 개 성에서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는 모험주의적 결의를 채택하게 하고 여러 주요도시들에서 정치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당지도부의 이 조치에 따라 홍군은 몇 개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국제당의 작전계획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응당한 일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항일연군부대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공명정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일부 지휘관들이 원정계획을 시답지 않게 본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양정우

그러나 위증민은 이러한 의견을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령의 전달자로서 국제당의 계획을 변호해 나섰습니다. 이번 원정에는 남만, 동만, 북만의 모든 항일연군부대들이 다 참가하게 되어있다, 국내의 형세도 매우 좋다, 그러니 승산이 영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가볍게 논박하였습니다. 위증민은 그 후 금천현에 가서 동북항일연군 1군의 군정간부들에게도 국제당의 열하원정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양정우는 그 계획을 받자 몹시 흥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원래 양정우는 관내혁명과의 연계를 실현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오던 사람입니다. 남만의 유격근거지가 관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내의 노농홍군은 전국항일구국운동의 고조를 일으키기 위해 이미 북상하여 동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정우는 동정하는 관내의 항일선봉군과 힘을 합쳐 적들의 봉쇄를 분쇄하고 동북항일유격전쟁과 관내항일전쟁의 직접적 연계도 실현하고 협동작전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양정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하원정계획을 지지해나섰는가 하는 것은 그 후 두 차례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열하방면에로 진출한 사실과 서정승리가까지 만들어 대원들을 원정에로 고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당에 앉아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우리에게도 열하원정을 단행할 데 대한 지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달하였습니다.

1936년 봄에 처음으로 열하원정을 요구한데 이어 중일전쟁이 발발된 1937년 여름과 1938년 봄에 또다시 열하원정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제당이 1, 2차 원정을 요구하던 1936년과 1937년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일대에 진출하여 당창건준비와 통일전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시기는 한편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면서 기세를 올리던 때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견지하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때였습니다. 혁명의 전도는 창창하였지만 우리앞에는 실로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압록강연안과 국내에서는 혁명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고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혁명가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이 조직들과 혁명가들의 활동을 무장으로 보호해주고 백두산지구와 서간도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일대앙양에로 이끌어올려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승산이 없는 열하원정을 하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국제당이 원정을 하라고 강요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무모한 것이라



열하로 진격하는 8로군

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우리가 내세운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면서 백두산근거지를 새롭게 꾸리고 조국안의 1군 2사와 협동하여 서간도일대에서 큰 전투도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또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군이 차지하고 있던 남만의 일부 지역들의 군사적 공백도 메우면서 요서와 열하 방향으로 진출한 원정부대들의 활동을 성실하게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에로 확대할 데 대한 자주적인 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면서도 국제당이 제시한 노선집행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였습니다.

남만의 무장부대들이 열하와 요서쪽으로 한창 진출하고 있을 때 국제당지령의 전달자인 위증민 자신은 1군부대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로 우리와 함께 다니었습니다.

열하원정계획이 매우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은 중일전쟁발발 후 더욱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지만 국제당은 이 시기에 와서도 반달형포위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항일연군부대들에 승산없는 서정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중일간의 대결이 전면전쟁으로 번져지고 그것을 계기로 항일운동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제당은 또다시 반달형포위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였습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노농홍군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수원, 차하르, 열하에로의 진격을 지향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당은 열하원정과 관련된 새로운 지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그전날 1군이 차지하고 있던 해룡, 길해선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하는 작전에 직접 참가하며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1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백

두산근거지를 떠나 멀리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국본토전체가 싸움터로 된 조건에서 8로군 열하진격대와의 합류라고 하는 문제설정은 솔직히 말해서 별 의의가 없는 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열하에로의 원정계획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유격전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있었습니다. 유격대가 산악지대를 떠나 벌방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 뭍에 오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였습니다. 동만과 남만, 북만의 산악지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개척해온 고장이어서 군중토대가 좋고 지리적 파악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항일연군부대들이 본래의 활동구역을 떠나 열하나 요서까지 가려면 적의 요충지들이 집결되어있는 남만철도계선의 넓은 평원지대를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서 대포나 탱크와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있은 적의 정규군과 맞다든다면 경무기밖에 없는 유격대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입니다.

열하땅은 8로군측으로 볼 때에는 만리장성만 넘어서면 지척에 있는 고장이지만 동북에 있는 항일연군측으로 볼 때에는 수천 리 떨어진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격대가 수적으로 수십수백 배나 되는 적들이 처처에 집결되어있는 평야지대를 지나 그처럼 먼 거리를 행군해간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열하원정이 군사전략상 무모한 원정이라는데 대해서 위증민에게 여러 번 말해주었습니다.

열하원정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민도 점차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조건에서 원정의 성공이 전중국적 판도에서 항일고조를 일으키게 되고 항일제일주의의 기치를 시종일관하게 고수하고 있은 공산주의자들의 견실한 반일정신과 참된 애국주의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는 한 가닥의 미련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하원정이 성공하면 장개석을 적극적인 항일에로 이끌어가는데서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나는 위증민에게 중국전체에서 항일고조를 일으키는 것도 필요하고 공산당의 진면모를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 장개석을 적극적인 항일에로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북혁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그런 결과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북혁명을 위해서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의 입장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전략상의 견지에서 볼 때 열하원정계획이 일정한 약점을 내포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크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회피할 수야 없지 않는가, 물론 원정을 하느라면 아까운 희생도 내고 예상치 않았던 손실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희생이나 손실이 없이 어떻게 대사를 치를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주보중의 5군과 4군도 중일전쟁반발을 서정실현의 좋은 계기로 보고 지령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증민의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길동지구에서 활동하던 주보중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의 중국 본토와 동북지방의 정치군사 정세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사변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사변의 확대발전과 동시에 즉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열하지경에 진출하는 8로군 유격군과 직접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서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군 부

사령으로 었던 채세영은 처음부터 서정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을 회의적으로 대하였다고 합니다.

위증민은 열하원정계획에 모험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정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중국혁명에 대한 위증민식의 충실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증민은 화북의 산서성출신이지만 1930년대초부터 만주에 들어와 동북혁명에 참가한 지도적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북의 당사업과 항일연군건설에 심혼을 바치었으며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군사작전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였습니다. 동북혁명에 대한 그의 애착과 관심은 보통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증민

그러나 위증민은 동북혁명에만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북혁명을 중국혁명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지역혁명을 중시하면서도 전반적 중국혁명발전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중국혁명을 앙양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이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열하원정을 성사시키고싶어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나는 국제당이 원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때 동북의 현실과 중국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 계획의 군사적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타산하였는가 타산하지 않았는가, 더욱이는 그들이 시도하는 원정이 유격전의 특성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당이 시달한 열하원정계획에는 중국혁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선혁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왕명이 국제당에 가서 중공당대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주관주의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왕명이 주관주의가 강한 사람이라는데 대해서는 위증민도 수긍하였습니다.

열하에로의 원정계획은 국제공산당의 지령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작성 시달한 사람은 왕명이었다.

왕명은 모스크바에 가있으면서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노선들을 계속 작성 시달하였다. 왕명의 노선에서 주되는 병폐는 국제노선이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좌경이었다. 그러나 중일전쟁발발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의 노선은 우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국민당과의 합작과 통일전선을 통해서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하원정에 관한 지령을 조선혁명과 국제혁명과의 연관속에서 용의주도하고 영활하게 집행해나간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고하시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왕명노선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설사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그 집행을 노골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은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위원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당비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작성한 모든 지령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제당의 명의로 하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열하원정계획이 중국 동북지방의 혁명운동발전에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선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매우 일면적이고 해독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 그러면서도 그 집행에서는 신중성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증민과 함께 1군산하의 항일연군부대들과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활동방향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우리 부대가 1군의 활동지역인 해룡, 길해선 일대에로 나가주었으면 하였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는 백두산지구에서 달성한 군사정치적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충안으로 우선 당분간은 임강, 무송, 몽강 일대에서 유동작전을 벌이면서 조선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그 당시 서간도와 국내에서 입대한 신입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한 조건에서 부대가 본래의 활동지역을 떠나 생소한 고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국내에 꾸려진 혁명조직들을 보존확대하며 앞으로 국내진공을 더욱 적극화하기 위해서도 서간도와 백두산지구를 멀리 이탈하지 않겠다고 내놓고 말해주었습니다.

위증민은 나의 입장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당시 양정우는 중일전쟁의 발발로 급격히 앙양되는 항일기세를 이용하여 기어이 열하원정을 성사시켜보려고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봄 1군의 부대들은 원정을 개시하자마자 포위속에서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사사장 정빈이 부대를 데리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비상사태까지 일어나 1군의 서정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7월중순에 양정우는 노령에서 1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서정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군내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 필요한 개편조치를 취하였습디다.

정빈의 투항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1군이 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군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마련한 다음 일부 부대들로 하여금 몽강현을 에돌아 금천, 유하현을 거쳐 통화계선으로 부분적인 군사적 이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군사적 이동은 1군부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1군의 전우들에게 포위를 돌파할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적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원정계획을 어떻게 집행하는가하는 문제에 앞서 1군의 전우들을 구출함으로써 동북항일역량을 보존하고 여러 해 동안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두터이하는데 목적이 있였습니다.

우리의 일부 부대들이 적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화계선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은밀히 국내깊이 들어와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편 주력부대는 여러 방면에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깊은 전투의 하나가 8도강부근의 도로공사장습격전투였습니다. 8도강에는 일본군, 위만군, 무장경찰대와 자위단을 비롯하여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장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은 임강지구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자주 동원되는 한편 조선의 강계와 중강으로부터 임강을 거쳐 만주의 내륙지대로 통하는 군용도로와 철도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화–임강사이에서 큰 공사장을 습격하여 삽시간에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경비병력을 소멸하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지휘하고 있던 몇 명의 일본인청부업자들이 나와의 회견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자 몸값을 후하게 치를 터이니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의 침략행위를 돕는 것으로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몸값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혁명군은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마적들이나 할 짓이다, 몸값은 내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라, 그러되 이 공사장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청부업을 하겠거든 다른 청부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을 친 후 **김일성**빨치산이 임강서부에 나왔다는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일본인청부업자들이 돌아가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후 계속하여 8도강, 외차구, 내차구 일대에서 적을 소멸하고 이어 무송현 서강전투를 벌려 적들의 역량을 우리에게로 쏠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열활한 전술적 이동은 적들로 하여금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종잡을 수 없어 여기저기 병력을 끌고다니며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군을 곤경에서 구출하려는 우리의 전술적 이동과 일련의 작전적 공세가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양정우와 위증민도 임강, 무송, 몽강 일대에서 우리가 울린 총소리가 1군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데서 결정적인 도움으로 되었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도 서정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북만에서 활동하던 여러 개의 군이 원정의 길에 처음으로 오른 것은 1937년 7월이었고 본격화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만에서의 원정도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몇해 동안 동북혁명에 혼선을 일으키고 무모한 전투와 희생을 강요하던 열하원정은 남만에서는 1938년에 그리고 북만에서는 1939년에 이르러 막을 내리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정력과 인력, 물력의 소모를 가져온 열하원정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열하원정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일만통치질서의 수립과 적역량의 압도적 우세로부터 온 객관적 조건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 적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한 집단부락정책은 이른바 비민분리라는 말대로 유격대와 군중의 연계를 철저히 끊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일만통치질서를 공고히 하는 반면에 항일무장부대들의 활동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원정은 군중들과의 연계와 식량보급로가 거의나 단절된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단부락에 갇힌 인민들은 원정부대들과 연계를 가지고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군물자의 지원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원정부대들은 부득불 적을 쳐서 식량이나 천같은 후방물자들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를 내게 되니 원정부대들의 전략적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적들에게 시시로 알려지지 않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정부대들앞에는 걸음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포대, 험한 봉쇄선들과 병영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정이 실패한 원인을 객관적 조건에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원정의 주체는 동북의 항일연군부대들입니다. 열하원정을 노선으로 내리먹인 국제당도 넓은 의미에서는 원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당은 노선작성과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였고 항일연군부대들은 그 집행과 실천에서 맹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와 모험주의가 원정을 실패에로 이끈 기본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접수되지 않거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노선은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노선을 채택할 때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관에만 사로잡히면 눈뜬 소경이 되고 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래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갈량도 이름난 재사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은 그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주은래

노선과 방략이란 만사람에게 그 정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은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접수되지 않는 노선과 방략이란 무용지물입니다. 대중은 정당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노선을 위해서만 심장을 발동시키는 법입니다. 하물며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군사작전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열하원정이 무모한 작전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적들도 인정하였다.

... 그들은 사변 후의 객관적 정세가 저들의 유격행동에 유리한 것처럼 경솔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도 재작년(1938년) 가을경부터 작년 봄에 걸쳐 동변도 ...금천, 유하, 임강 일부로 빠져서 화북의 열하진격군과 합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 대담한 행동에로 나오는 형세가 있었으나 너무나도 빠르게 일만군경의 토벌을 만나 다시 북상하여 화전, 몽강, 돈화 교하, 무송, 안도 등의 현경 즉 백두산기슭의 백색지대를 중심으로 적구건설을 의도한 것입니다.(사상월보 제77호 사법성형사국 소화 15년(1940년) 11월 136－137페지)

국제당이 내린 지령들 가운데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 지령들을 심중하게 대했으며 그것을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켜 이행하면서 국제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이라는 양자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사색하고 영활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혁명앞에 장벽이 가로놓이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 때일수록 주체적 입장을 더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국제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갈지자로 걷지 않고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 수 있은 것은 이런 요인 때문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가 열하원정문제를 두고 취했던 입장과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가을에 나는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측에서는 우리 당 창건기념일을 축하하여 베이징에서 연회를 차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명과 같이 국제당에 가있던 사람도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중국간부들에게 지난날 조선혁명이 주위의 압력으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그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큰 고뇌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기에는 일부사람들이 국제당에 들어앉아 실정에 맞



항일전에 나가는 8로군 기병

지않는 노선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항일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손실을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주은래가 그에 대한 책임은 왕명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고보면 왕명은 중국혁명에도 많은 손실을 주었지만 조선혁명발전에도 적지 않은 저해를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국제당이 주관주의적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스탈린도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국제당이 열하원정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서간도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서간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혜산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때에 수습하고 손실도 최대한으로 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력부대가 서간도에 그냥 있으면 적들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에 손을 대고싶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설사 손을 댄다 하더라도 체포를 면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와서 부대에 입대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달도 체포되지 않고 산으로 돌아다니었는데 우리와 제때에 접선하지 못하다나니 붙잡히었습니다.

열하원정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원정에 대하여 회상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하는 시비를 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른대야 제소할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제당도 없고 그 무슨 지휘봉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주관주의와 맹목성으로 하여 손실을 보았던 열하원정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혁명의 이치를 무시하고 주관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선사하지 않는 법입니다.

6. 양정우와 만나


양정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중국인민들과의 공동투쟁,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국제주의적 유대를 중시하시었으며 중국의 각계각층 애국역량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었다. 그 과정에 중국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혁명가들, 군사간부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었다.

동북지방의 저명한 항일연군지휘관이었던 양정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동항일의 나날에 생사를 같이한 중국의 명망높은 혁명투사들 중 한 사람이다. 양정우와 관련된 수령님의 회상교시들에는 중국인민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뜨거운 우애의 정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양정우는 이홍광, 이동광과 더불어 남만유격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남만유격대는 항일연군 1군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군장이 바로 양정우였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에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하고 항일연군 각 부대들과의 연합과 협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이것은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도 하고 조국안이 지휘하는 1군 2사 부대와의 협동작전도 하였으며 남만부대들과의 연계도 확대해나갔습니다.

남만부대들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만동무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품을 들여 육성한 군정간부들도 많이 파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남만공산주의자들과의 유대가 깊어졌고 남만군정간부들과의 동지적 친분관계도 두터워졌습니다. 양정우는 우리가 남만부대들을 잘 도와준 사실을 두고 여러 경로를 거쳐 감사를 표시해왔고 나도 인편을 통해서 양정우에게 문안인사를 종종 하였습니다. 나와 양정우는 공동투쟁과정을 통해 이처럼 부단히 친분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나는 1938년 가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군정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양정우를 처음으로 만나보았습니다. 남패자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몽강현에 가면 패자라는 대수림지대가 있습니다.

패자의 특징은 수림이 무성하고 흔들레판이 유달리 많은 것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림속에 감탕물이 고인 곳을 흔들레판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레판에는 흔히 고지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잡초가 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망탕 발을 들이밀면 안됩니다. 흔들레판이 사람을 잠깐사이에 삼켜버리기 때문입니

다. 이런 흔들레판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오른쪽의 풀밭에도 흔들레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패자의 대수림지대를 방향별로 동패자, 서패자, 남패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1937년 겨울에 군정학습을 한곳은 동패자부근이고 양정우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 간부들과 함께 열하원정의 후과를 청산할 데 대한 안건을 가지고 중요회의를 한 곳은 남패자였습니다. 사람도 말도 순간에 삼켜버리는 흔들레판이 무수히 있고 지세가 험한 남패자는 부대들이 은밀히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남패자회의를 일명 몽강회의라고도 하는 것은 남패자가 몽강현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남패자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 혁명앞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국이 조성되어있었습니다. 하나의 난국은 우리 혁명을 압살해버리기 위한 적의 공세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의 난국은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의 좌경모험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침략군은 그 당시 중국 남방으로 공격의 예봉을 돌리는 한편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동북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적의 반혁명공세는 우리의 무장투쟁과 전반적인 항일혁명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열하원정의 후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열하원정의 결과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국제당의 지령이 실정에 맞지 않는 무모한 것이고 열하원정으로 하여 항일혁명이 엄중한 손실을 당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흑백을 가르고 그 후과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자면 적의 공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방안과 좌경모험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과 항일연군 1군산하의 부대들은 남패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양정우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가 열하원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였고 또 몽강으로 오는 노상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정우도 우리와 만나게 될 날을 고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정우부대의 길안내를 해줄 사람들도 미리 파견하고 숙식조건도 충분히 마련해놓았으며 그들에게 공급할 피복까지도 다 준비 해두고 있었습니다.

고생끝에 이루어진 상봉이었던 것만큼 나와 양정우와의 상봉은 실로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양정우의 어글어글한 두 눈은 첫 순간부터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팔백냥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양정우의 두 눈을 보고 그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나이라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닥불곁에서 간단한 담화를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몸을 좀 녹이고나자 느닷없이 1군에 있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1군부대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소문난 싸움군들이었다, 그런데 그 동무들이 여기에 다 오지 못했다, 아까운 동무들을 잃었다고 거듭 통탄하였습니다.


양정우가 활동하던 지대

그가 조선동지들을 잃은데 대하여 얼마나 아프게 생각했던지 내가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였습니다.

나와 양정우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운명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 남만일대에서는 대도회군이였던 요녕구국의용군총사령 왕봉각이 양정우와 더불어 영웅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변도일대를 휩쓸며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였습니다.

우리가 서간도일대를 타고앉은 다음부터 적들은 우리와 양정우, 왕봉각의 이름을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왕봉각이 안해와 함께 적들에게 피살된 후에는 시선이 우리와 양정우에게 집중되였습니다. 적들이 **김일성**군이라고도 부른 조선인민혁명군과 양정우부대는 동남만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실력으로 압도한 2대무장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적측의 극비문건들을 보면 나와 양정우의 이름을 나란히 놓은 소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 잡지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楊靖宇と東北抗日連軍

양정우를 소개한
일본출판물자료

일본의 어떤 양정우연구가는 길림에 대하여 쓰면서 청년 **김일성**이 반일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던 거리, 양정우가 유격구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것이라는 식으로 썼으며 어떤 글에서는 항일운동이 거세찼던 만주지도에 양정우와 **김일성**이 항일유격전쟁을 전개한 남만주지역이라는 설명문을 달기도 하였다.

양정우의 희생에 대하여 쓴 글에서는 그가 항일게릴라의 지도자로서 일본에서는 **김일성**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아래에 당시의 자료를 더 소개한다.

김일성은 순수한 공산유격대로서 30살도 안되는 젊은이이나 ... 임강, 무송, 몽강, 장백 등 소위 미토벌지대에 반거하여 현재 약 5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동변도에서 첫째가는 집결세력이다

(철심 1937년 5월호 106페지)

담화를 끝내고나서 나는 우리가 꾸려놓은 숙영지로 양정우네를 데리고 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쳐놓은 천막들을 보자 1군의 전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가 들 천막이라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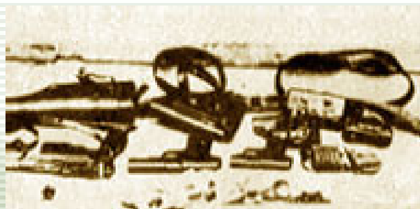
우리가 1군간부들이 사용할 지휘부천막으로 양정우를 안내하였을 때 그는 감격해하였습니다.

김사령네 부대가 손님대접을 잘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골안에 와서 이런 환대를 받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겨울이 어떤 겨울인가고 하면서 천막안으로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속에 들어가서 몇 달 묵은 피곤을 풀고 잠도 자라고 하였지만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 부대의 전우들에게 아직 도착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피곤부터 풀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양사령이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접부대들에서 우리 부대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갔지만 양정우처럼 숙소에 행장을 풀어놓기도 전에 도착인사부터 하겠다고 서두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에게 양정우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동장영이였습니다. 동장영은 대련에서 당사업을 할 때 양정우에 대한 소문을 좀 얻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순탄광 노동자들이 양정우를 친형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2사 사장 조국안도 부대를 데리고 우리 밀영에 와있을 때 양정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무순당특별지부 서기로 갈 때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 마상덕이라는 본명을 장관일로 고치고 산동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동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은 무순 지방에 발을 튼튼히 붙이려면 같은 산동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양정우가 휴대하였던 무기, 탄약과 인장

무순탄광에서 한번은 노동자들이 일본인광주들을 반대해서 파업을 일으킨적이 있다고 합니다. 파업을 당장 해야겠는데 탄광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 나설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부들은 대바른 소리를 잘하는 양정우를 자기네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양정우는 자기의 주견대로 파업을 줄기차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끌려가서도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해서 주장할 것은 다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문이나 위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조직은 광부들과 함께 적들의 손에서 양정우를 구원해냈습니다.

나는 양정우의 소원대로 그를 우리 부대가 있는 밀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밀영은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1군의 전우들이 있게될 밀영과 잇닿아있었습니다. 나의 연락을 받고 전부대가 밀영앞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양사령은 그 동안 거듭되는 열하원정으로 모두가 큰 피해를 보았는데 역량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한 것은 김사령이 주견을 가지고 부대를 잘 이끌어온 덕이다, 그런데 나는 부하들을 거의 다 잃었다, 먹을 것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잠도 변변히 자지 못하면서 열하로 진격하다가 중도에 쓰러진 부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내 오늘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왔더라면 얼마나 떳떳하겠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가 희생된 대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정우는 부하들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양정우를 위해 간단한 주연을 마련했습니다. 주연이라야 탁상에 마른 안주를 놓고 술 한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혁띠를 풀어본다고 하면서 허리에서 권총과 전투가방까지 벗어놓았습니다.

양정우와 함께 남패자에 도착한 서철은 그 광경을 보자 나에게 귀속말로 슬그머니 저것은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 양사령은 누구앞에서나 군복을 단정히 입고 무관다운 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오늘은 격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대면이었지만 양정우는 그날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때 공업학교에 들어가 방직날염에 대하여 학습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미래의 항일연군사령이 방직날염을 연구했다는 사실자체가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양정우의 말에 의하면 그가 공업학교에서 방직날염을 연구한 것은 대대로 헐벗고 못살아온 중국의 동포들에게 고운 천으로 옷을 해 입히고 싶은 욕망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급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투쟁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런 계급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양정우는 10살 남짓한 학창시절에 벌써 학교당국의 불공정한 교육시책에 항거해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남달리 대가 바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정우는 원래 동북사람이 아니고 하남성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위임에 따라 동북지방에 와서 지하당사업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무순지방에서 중국공산당 무순당특별지부사업을 하였고 후에는 하얼빈에서 지하당사업을 하였습니다.



서철

만주사변이 터지고 동북각지에서 항일무장부대들이 연속 태어나고 있던 1932년 가을에 중국공산당 만주당조직에서는 양정우를 남만에 순시공작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가 남만에 파견되게 된 것은 남만유격대의 구성상 특성과도 관련되어있었습니다.

남만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조직된 남만유격대는 초창기에 전부가 조선사람들로만 이루어져있었습니다. 남만유격대의 조직자들인 이홍광과 이동광도 조선사람들이였고 그 휘하의 대원들도 모두 조선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남만유격대는 초기에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한족과 만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고장에서 순수히 조선사람들로만 유격대가 꾸려지다보니 광범한 주민대중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고 인적 후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만유격대에 파견되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하얼빈에서 공청사업을 할 때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활동한 서철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서철은 조선사람이지만 중국사람행세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만유격대에 군의관으로 파견되어갔습니다. 조직에서는 그에게 남만에 가면 이홍광과 이동광에게만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앞에서는 철저히 중국사람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인 서철은 하얼빈에서 고학으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지식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중어에 매우 능하였고 중국사람들의 생활풍습에도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중국사람들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철이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된 과정을 보면 재미나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가 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루종일 들판에 나가 소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다가 경찰들에게서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당치도 않은 트집을 걸어 행패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철을 다짜고짜로 소잔등에서 끌어내려 발길로 차며 경찰나리들이 지나가는데 건방지게 인사도 하지 않고 소를 타고 거들먹거린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철이 한나라 당의 정치국위원으로까지 되었지만 그때에는 꼼짝못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혈로 몇 달 동안 애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경찰들을 미워하였고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돌아가는 지주나부랭이들과 벼슬아치들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풍토에 순화되어있고 동북사람들의 생활관습에 인이 박힌 서철은 중국사람으로 둔갑하여 남만유격대를 곤경에서 구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철은 조직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중국인군의행세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유격대의 권위를 높이고 군민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정우가 남패자에 왔을 때는 그가 데리고 온 부하들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하원정에서 당한 손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양정우네 부대는 원정과정에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즙안으로부터 몽강으로 빠져나오는 행군과정에서도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비행기와 대포를 비롯한 중무기까지 다 동원하여 그의 부대를 숨쉴 사이 없이 추격하였습니다. 온 부대가 포위속에서 고전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공격하지 앞에서는 정빈이 투항을 권고하는 나발을 불어대지 사처에서 대포를 꽝꽝 쏘아대며 포위망을 좁혀들지 정말 빠질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정우는 1군에 속한 조선인전투원들이 특별히 잘 싸웠다고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외차구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박선봉연대와 박성철중대에 대해서 거듭 찬양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자기가 외차구에서 최후를 각오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선봉

외차구돌파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박성철이 인솔한 중대였습니다. 박성철중대의 결사대원들은 모두가 육탄이 되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양정우네 부대를 구출하는데서 박성철의 공로가 컸습니다.

양정우는 그때 자기네 부대에 조선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외차구에서 적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전멸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조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연군을 내오지 않고 따로따로 갈라서 활동했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남패자에 와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선인간부들을 많이 양성하여 자기네한테 파견해준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패자에서 회의를 10여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패자회의에서는 열하원정의 좌경모험주의적인 본질과 그 엄중한 후과가 신랄하게 분석비판되고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대규모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데 대한 문제와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 데 대한 문제, 혁명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을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그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부대들의 활동구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남패자회의의 정치군사적 의의를 잘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패자회의는 남호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은 질적으로 한 걸음 더 비약하였습니다. 인민혁명군의 전체 장병들이 이 회의에서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을 의지나 인내성 하나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패자회의의 정신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행군 전과정에서 나와 나의 전우들을 줄곧 앞으로, 앞으로 떠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1939년 봄에 북대정자회의에서 남패자회의의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내에로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남패자회의에서 중요한 노선적 문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10겹, 20겹으로 포위하고 있던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 장백의 설령과 설원을 헤치고 조선에 나가서 총소리를 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남패자회의와 북대정자회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남패자에서 우리 부대의 대원들로 양정우와 위증민에게 경위연대를 새로 개편해주었습니다. 그 연대에 숱한 인원을 보충해주었습니다. 그때 지휘관들도 재임명하고 양정우에게 전령병도 넘겨주었습니다. 경위연대의 개편과정을 통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친선과 우애는 더 깊어졌습니다.

남패자회의가 끝난 후 각 부대들은 분담된 작전지역들로 떠나갔습니다. 양정우와의 작별은 상봉의 날처럼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혁명가들의 명예를 걸고 기어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승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1939년 4월 북대정자회의가 있은 장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후 나는 양정우를 다시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정우는 우리와 헤어진 다음 화전, 돈화, 몽강, 휘남, 무송, 금천 등지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감행된 적들의 대토벌로 하여 그의 부대는 중첩되는 곤란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겨울나이준비였다고 합니다. 겨울나이준비를 하자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양정우는 분산활동의 방법으로 대토벌을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결심을 내린 것은 물론 유격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보아 옳은 전술도 정황에 맞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정황이라는 것은 천태만상이고 천변만화하는 법입니다.

소부대로 분산활동을 하게 되면 적들의 시야에서는 비교적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양정우도 이 점을 타산하고 이정화령과 이령화정을 능란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적을 타승하고 부대앞에 가로놓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황의 요구에 따라 흩어졌던 소부대들을 대부대역량으로 집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적의 포위속에 있는 상태에서 분산활동만 하게 되면 적이 대부대로 공격해올 때 그것을 쉽게 격파할 수 없습니다. 적을 격파하지 못하면 결국 추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피동에 빠지게 됩니다. 분산활동을 하다가 대부대와 맞다들어 부득이 조우전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불리해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산활동을 하는 측입니다. 적들은 양정우네 부대가 소부대로 분산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는 종전보다 큰 규모의 역량을 투입하여 포위소멸작전을 악착스럽게 벌였습니다. 게다가 양정우는 유동작전을 벌이지 않고 밀영을 지어놓고 겨울 한철 그곳에 머물러 있다보니 적들의 집중적인 토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의 최선두에 선 자가 양정우의 수하에서 사장을 하다가 반변한 정빈이라는 것입니다. 1939년 정월에 통화성경찰대 대장이 된 정빈은 양정우부대의 주력과 조우하여 몽강현 서강에서 무려 6시간동안의 교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는 다른 하나의 경찰대대와 함께 또다시 양정우의 주력과 교전하였습니다.

양정우는 1940년 2월 몽강현의 한 수림속에서 적토벌대와 맞서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였습니다. 양정우가 마지막결전을 벌이던 그 시각에 그의 곁에는


김주현


김택환


김영국

경위대원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투항하라고 연속 웨쳐댔습니다. 그러나 양정우는 손에 두 자루의 권총을 틀어잡고 적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다가 쓰러졌습니다.

양정우를 마지막까지 호위한 사람은 우리가 남패자에서 넘겨준 전령병 이동화였습니다. 이동화는 양정우가 전사하는 순간까지 그와 운명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양사령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에 접한 것이 아마 대마록구전투 직후일 것입니다. 적들을 치고 노획한 신문에 그가 전사한 소식이 실려있었는데 나는 그 신문을 읽은 다음부터 밥맛을 잃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지만 나는 그때 양정우와의 상봉을 회고하며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적들은 양사령의 머리를 잘라내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만주도처에 뿌리였습니다. 그들은 양정우의 배까지 갈라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산중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그처럼 초인간적인 투지를 발휘했는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 알의 낟알도 보이지 않는 양정우의 위장속에는 마른풀과 풀뿌리, 나무껍질을 삭인 것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근목피뿐이였습니다.

남패자에서 양정우와 함께 우정을 나누던 그 시기 나는 김주현, 김택환, 김영국 등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세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패자를 더더구나 잊지 못합니다.

해방 후 중국에서는 양정우의 이름을 따서 그가 전사한 몽강현을 정우현이라고 고쳤습니다.

중국에서 양정우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통화시에 정우릉원을 꾸리고 개원식을 할 때 나는 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해방 후 중국당지도자의 한 사람은 동북항일유격전쟁의 위치를 밝히는 글에서 20여 년간의 중국공산당의 역사에서 가장 간고한 세 싸움은 첫째는 2만5천리장정이고 둘째는 노농홍군 주력이 장정한 후 남방에 남은 홍군의 3년간의 유격전이고 셋째는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고투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 진행한 영웅적 항전의 기발에는 중국인민이 낳은 열렬한 공산주의자 양정우의 피도 스며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항일의 길에서 양정우가 이룩한 빛나는 투쟁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7. 이보익할머니


이보익여사

이보익여사의 생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낳아키운 만경대일가의 혁명투쟁사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슬하에 많은 자손들을 두신 여사께서는 그분들 모두를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 후에도 김보현선생과 함께 고향집사립문으로 쓸어드는 비바람을 모두 막아내며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고생의 흔적은 만주의 산야와 설원에도 점점이 찍혀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하는 자손들의 뒤바라지를 평생토록 해오시다가 소문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가신 할머니에 대해 아프게 추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중일전쟁을 시작한 이후시기부터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공작에 학창시절의 나의 동창생들과 교사들, ≪ㅌ·ㄷ≫시절의 연고자들, 옥중에서 전향한 자들, 친지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이였습니다. 나중에는 만경대에 가서 우리 할머니까지 끌어내다가 백두산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오만가지 고생을 다 시키였습니다. 혈육들을 미끼로 하는 귀순공작은 그놈들의 마지막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인방나라들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예절바르고 인정이 많고 충효심이 높다는 것은 옛날 우리 나라에 와본 서방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구한국말기 우리 나라를 편답한 제정 러시아의 학자들은 자기네 나라에 돌아간 다음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조선은 예의도덕에서 으뜸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들이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끌어들인 것은 조부모님들에 대한 손자의 효성을 악용하여 우리를 좀 어째보자는 것이였습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인정사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의 미풍양속과 전통적인 윤리도덕까지도 다 자기들의 강도적인 전략에 악용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기에 양인들이 대원군을 굴복시켜 우리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보려고 그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에 달려든 것도 다 그런 것이였습니다.

나는 부대를 데리고 몽강일대에서 활동할 때 우리 할머니가 장백현 가재수마을에 끌려와 연금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밤에는 할머니를 가두었다가 날이 밝기만 하면 매일같이 산으로 끌고다

니면서 ≪성주야, 할머니가 왔다. 이 할미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산에서 나오너라.≫ 하고 함화를 하라고 강박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가재수사람들이 보내온 쪽지에는 장백의 여러 마을들에 나붙었다는 적들의 방문내용도 첨부되어있었습니다. **김일성**의 할머니가 가재수에 와있다, **김일성**은 지체말고 산에서 나와 할머니를 만나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적들은 빨치산의 밀영이 있을만한 대수림지대와 맞다들릴 때마다 할머니더러 손자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따위 요구에 응할 할머니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뒤따를 것은 구박과 행패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들은 그 무슨 형사범이라도 다루듯이 총부리로 할머니의 등을 쿡쿡 찔러대며 위협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할머니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촌노친이니 한두 번 발을 구르고 눈만 부라리면 겁에 질려 저들의 요구를 곰상곰상 들어주리라고 타산했겠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가재수인민들이 유격대에 식량을 보낼때의 신호바위에 그 위에 놓인 돌

가재수의 지하조직성원들은 할머니의 정상이 말이 아니니 부대를 파하여 구출작전을 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대를 파할 형편이 못되면 자기네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구원하겠으니 양단간에 결심을 내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기별을 받고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몸이 떨리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빙천설지에 60고령의 노인을 끌고 다니며 고생시킨다는게 사람의 가죽을 쓰고 할 일입니까.

분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부대를 끌고 가서 적들을 요정내고 할머니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누르고 참기로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혜산사건이 터져서 서간도와 국내에 있는 혁명조직들 이 한참 시련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백 명 혁명가들이 철창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태를 외면하고 친할머니부터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혁명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투를 조직하면 할머니를 일단 구출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적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김평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소부대를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작지로 빨리 돌아가서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원들을 구원할 대책이나 취하라고 설복했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떠나가던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간 다음 사실은 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참자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몇 포대의 쌀이나 몇 자루의 총을 얻으려고 싸움을 한 때도 있었고 한두 명의 애국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서슴없이 전투를 조직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 붙잡혀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다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참아야 했던 내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구원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억지로 묵새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것이 바로 사령관으로서의 나의 남다른 고충이였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으로 조련치 않은 일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나로서는 가재수지하조직의 통보자료를 받아본 순간부터 도무지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에서 할머니는 어머니 못지 않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 본 풍경들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의 하나는 엿장사들이 엿이 담긴 목판을 메고 엿사시오! 엿사시오! 하면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는 광경이였습니다. 어떤 날은 리어카에 넝마나 파고무신 같은 것을 실은 엿장사도 우리 마을에 오군 했습니다. 그들이 엿을 자르는 넙적가위를 절컥거리면서 엿을 사라고 하면 온 동네의 조무래기들이 다 모여들군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달달한 엿생각이 간절해서 군침을 삼키였지만 우리 집에야 돈이 있습니까, 고포가 있습니까, 헌 고무신바닥이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도 모두 짚신을 신고 다녔지 고무신 같은 것은 신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조무래기들이 엿장사의 목관이나 리어카를 둘러싸고 떠들어댈 때에도 나만은 그 속에 끼우지 않고 뜨락에서 닭의 모이를 주든가 뒤울안의 장독대곁에 가서 개미들이 기여다니는 모양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러는 내 심리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할머니는 귀한 쌀을 퍼가지고 나가 엿을 바꾸어온 적이 있습니다. 엿가락 몇 개를 들고와서 내 손에 쥐여주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고마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타개죽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집안에서 몇 가락의 엿 때문에 쌀을 퍼들고 나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이 어린 그 쌀바가지와 엿가락들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잔등에 업혔던 기억보다는 왜 그런지 할머니나 형실고모한테 업혀다니던 일들이 더 기억에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친정집에 나들이를 갈 때에도 곧잘 나를 업고가군 하였습니다.

남아의 나이 6-7살이면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나이에는 부끄러움도 알아서 업혀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봉화리에 올 때마다 우리 증손이가 그새 얼마나 컸나 보자고 하면서 내앞에 잔등을 돌리군 하였습니다. 내가 쑥스러워 하건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에 업히면 머리카락과 적삼에서 풀냄새 비슷한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런 냄새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노동속에서 한 생을 살아온 할머니들한테서만 맡아볼 수 있는 특이한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만경대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나를 독차지하다싶이 하였습니다. 어린시절의 나는 할머니곁에 있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투실투실한 팔은 어린시절의 나의 베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팔베개를 베면 어째서인지 잠이 잘 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주무실 때마다 신기한 옛말을 들려주면서 공상을 키워주군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끼니때 간수해두었던 누룽지나 대추 같은 것을 내 입에 슬그머니 넣어주기도 하였는데 그 맛이 별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몇 곱절 더 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문의 장손인 나의 성장을 보는데서 인생의 유일한 락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낙이 있었다면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는 낙이 있었습니까, 산천유람같은 것이나 하며 호강하는 낙이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품고 있던 소박하나 간절한 꿈은 나라의 독립이였습니다. 조선의 독립

을 기다리며 그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뒤바라지를 성실하게 해주는 것이 할머니의 일이고 낙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많은 경우 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표현되였습니다. 1926년이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한 해입니다. 그 해 여름 무송의 양지촌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할머니는 묘앞에 엎드려 슬프게 곡을 한 다음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증손아,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 있던 짐을 네가 메야겠구나.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

나는 할머니의 그 말씀에서 큰 충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조선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할 생각이나 하라고 하였더라면 나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것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할머니의 뜻이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나라의 독립과 같은 중대사를 부탁한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만경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무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도로 이사한 다음에는 거기에도 가있으면서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특징은 한마디로 강의한 늙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의 여성들치고 보기드문 강자였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사람같지 않은 자들에게는 추상같은 것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것이 할머니의 성미이고 기개였습니다.

할머니가 소심하고 나약한 노인이였다면 나는 가재수지하조직이 보낸 통보를 받았을 때 그처럼 큰 충격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며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인질로서 당하게 되는 온갖 고초와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내가 할머니를 그렇게 믿은 것이 백번 옳았습니다.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인 박차석이 남패자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정우를 비롯한 1군, 2군의 간부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귀순공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종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박차석은 자기가 진 죄를 솔직히 자백하면서 우리 할머니를 끌고 서간도땅을 돌아다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내가 믿었던 그대로 적들에게 조금도 굽혀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인질로 끌고다닌 것은 귀순공작반 패거리들이였습니다. 이종락과 박차석은 그 공작반에 속해있었습니다. 일본모략군들은 그들에게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동원시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종락과 박차석은 만경대에 나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를 만나보고 싶지 않는가, 손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있다고 말하라, 손자는 헛고생만 하다가 신세를 망치게 됐으니 그를 구원할 생각이 있거들랑 자기들이 하라는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신문에 죽었다고 광고까지 난 손자가 살아있다니 웬 소린가, 그런 허튼 소린 듣기도 싫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댔습니다.

이종락이 바빠나서 그 광고는 거짓광고다, 성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데 성공하지도 못할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험한 산속에서 공연히 헛고생만 하고 있다, 동양천지가 다 일본세상이 됐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백두산에서 소금도 없이 생쌀과 솔잎만 먹고 지내다나니 짐승처럼 온몸에 털이 나고 발은 닳고 몽드라져 그 형체가 사람같지 않게 되었다, 성주가 묘한 축지법을 써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싸우기때문에 그를 산에서 데려내올 수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성주가 자기네 편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관동군대장자리도 좋고 조선군사령관자리도 좋고 무슨 벼슬이든 달라는대로 다 주겠다고 한다, 물론 집안식구들도 궁궐같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주를 빨리 돌려세워야겠는데 그 일에는 할머니가 나서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뭉치돈 수백 원을 내놓으며 이건 일본사람들이 보내는 초벌인사인데 이 돈으로 우선 집안살림에 요긴한 물건부터 사고 식모도 부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성이 독같이 올라 이 천하에 고현놈들, 그래 우리보고 제 손자의 목숨을 돈과 바꾸라는거냐, 그런 개수작질은 싹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돈뭉치를 뜨락에 활 내던지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우리 성주한테 일본군대장이 아니라 그 하내비자리를 준대도 데리러 안가겠다, 내 아들 형직이와 형권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이 터진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들 가라고 호령했습니다.

판이 이렇게 되자 이종락과 박차석은 더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이나 돈으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적들은 총대로 할머니를 끌어내어 만주로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는 좋다, 너희들이 억지로 날 데리고 가겠거든 가자, 그렇다고 너희들을 도와줄 줄 아느냐, 그대신 나는 나대로 이 기회에 손자가 싸우고 있은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이나 실컷 돌아보겠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배짱이 정말 보통배짱이 아니었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1년 가까이 서간도의 산악지방으로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고생시켰습니다. 그런즉 육순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고된 신역을 치르었겠습니까.

한번은 박차석이 할머니의 발이 부르튼 것을 보고 할머니, 이렇게 억울한 고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자니 사실은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하고 할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박차석이 비록 전향은 하였지만 동정심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도 내 손자가 싸우고 있은 산천을 보니 기운이 솟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총대로 몸을 쿡쿡 찌르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할 때마다 할머니는 매번 나는 그런 미친 소리는 할 줄 모른다. 네놈들이 나를 죽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 손자의 총알을 받고싶거든 어디 네놈들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맞받아 위협하군 하였습니다.

사실 귀순공작반 패거리들도 자기네가 하는 일이 승산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유격대의 습격을 받을 지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혁명군사령관의 할머니를 인질로 끌고다니는 자기네 행각이 어떤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어떻게 하나 유격대의 총알만은 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자기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호해줄 터이니 그 대신 열댓

살 되는 사내아이를 시동삼아 데리고 다니며 손자를 찾아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적들이 겁에 질려서 몸을 사리려 한다는 것을 간파한 할머니는 왜 하필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다닌단 말이냐, 나는 꼭 볼따귀에 살이 유들유들한 너희들과 같이 다녀야겠다, 혁명군이 겁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의 상관을 불러 사실대로 말해주겠다고 을러메였습니다.그 바람에 특무들은 할머니에게 도리어 코를 꿰워다니며 설설 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보익녀사께서 드시였던 후주려관

할머니는 특무들에게 호령질을 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였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산에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목욕탕물이 좀 미지근하거나 그 물을 일본놈들이 먼저 사용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김장군의 할미를 무얼로 알고 네놈들이 나를 이렇게 허술히 대하는가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고 특무들이 끼니때에 일본음식이나 중국음식을 내놓으면 조선음식을 가져오라고 위엄있게 분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순공작에 동원된 놈팽이들은 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쩔쩔매며 바삐 돌아치군 하였습니다.

설명절때 귀순공작반을 맡은 일본인독찰관은 이종락과 박차석을 불러 **김**장군할머니에게서 설인사를 받고싶은데 그 늙은이더러 와서 세배를 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독찰관의 말을 전달받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세상에 별소릴 다 듣는구나, 버릇없는 놈! 그 놈더러와서 **김**장군할미한테 세배를 하라구 해라!≫하고 불호령을 내리였습니다.

독찰관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손에 들고 있던 술잔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수틀리면 흉기부터 뽑아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야료를 부리는 독종이었다는데 그날만은 기가 꺾여 아무 행패질도 못하고 ≪과시 **김일성**의 할머니가 다르긴 다르다. 손자가 백두산의 호랑이라더니 그도 역시 할미호랑이가 틀림없다.≫고 감탄해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대바르고 도고하게 처신하는 우리 할머니앞에서 박차석은 매일같이 나약한 변절자로서의 죄를 문책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솔직히 실토하였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결국 헛물만 켜고 할머니를 만경대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박차석을 통하여 그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귀순공작정형을 들으면서 조부모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향의 조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었습니다. 박차석은 그때 밀영을 떠나면서 왜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비록 전향은 하였지만 조국과 민족앞에, 더욱이 산에서 고생하는 내앞에 부끄러울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산삼 몇 뿌리와 편지를 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만히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산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가고 물어보니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삼만은 받지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박차석을 우리 군영에 들여보냈던 일본인독찰관이 가로챘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밀영에서 박차석을 통하여 보낸 편지를 만경대 조부무님들은 손자분이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개선할 때까지 고이 보관해두었다. 그 편지는 1946년 5월 29일부 정로의 지면에 실림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신문 정로는 노동신문의 전신이다.

혁명을 배신한 전향자에게 처벌이나 처형대신 밀서의 전달이라는 어려운 부탁을 하신 이 세상에 다시없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도량과 관용을 가늠할 수 있다. 박차석도 한 가닥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도량앞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가 상전들에게 편지를 바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한 것을 보면 밀영에서 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조국해방위업에 대한 신념과 의리앞에서 언제나 투철하고 낙관적이었던 혈기왕성한 20대장군의 기백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이 짤막한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편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 할머니의 극진한 심정은 잘 알았습니다.
>
> 남아 한번 국사에 몸을 바친 이상 그 몸은 완전히 나라의 것이요, 민족의 것인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
> 이제 멀지않아 반가이 할머니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계십시오.

만경대에서 살고 있던 **김일성**동지의 일가분들은 그 편지를 받고 모두다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이보익할머니께서는 임수산이 소속되어있는 또 하나의 다른 귀순공작반 놈들에게 끌려가 북간도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었다.

정전 후 이보익할머니의 영구앞에 모인 일가친척들과 친지들은 이 부분을 회고하실 때 수령님의 안광에 매우 침통한 빛이 어려있었다고 하였다.

할머니가 두 번째로 만주땅에 끌려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안도현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를 데리고 다닌 귀순공작반의 구성을 보면 일본인특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공작반에 우리 주력부대에서 참모장을 하던 임수산도 속해있었습니다. 그가 투항하면서 일본상전들앞에 어떻게 하나 나를 잡아보겠다고 단단히 맹세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 공작반에서는 처음에 형록삼촌을 인질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끌고갔대야 이가 들지도 않고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형록삼촌은 우리 조부모님들 슬하에 남아있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놈들이 만경대에 나타나서 삼촌을 마구다지로 끌고가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주먹으로 구들장을 치며 그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였고 할머니는 내 슬하에 하나밖에 남지 않

은 아들을 내세워 우리 장손을 잡겠다는 너희들도 사람새끼들이냐, 천벌을 받을 줄 알라고 되게 꾸짖었습니다. 형록삼촌 역시 집에서 죽으면 죽었지 조카를 잡는 놀음에는 나설 수 없다고 버티였습니다.

적들의 강압으로 결국은 할머니가 또 속절없는 만주걸음을 하게 되였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네놈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김장군의 할미를 이길 것 같으냐 하는 배심이 있었습니다. 형록삼촌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까지 품고 집을 떠난 할머니는 이번에도 북간도의 험한 산천을 몇 달 동안 강제로 끌려다녔지만 적들앞에서는 한 번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수산이 숙소나 노상에서 저들의 지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다몰아댈 때면 할머니는 네놈은 내 손자를 배반했지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 손자편이고 조선편이다, 어디 네 명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두고보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할머니가 인질로 재차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를 많이 조직하였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에게 내가 건재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최상의 방도였고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나의 만단심회를 담아 할머니에게 올린 인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가 곁에서 듣건말건 조금도 상관치 않고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 하고 기세를 올리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이번에도 할머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인질로 나를 낚기 위한 놀음을 더는 벌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 할머



이보익여사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귀순≫시켜 보려는 일제놈들과 견결히 맞서 싸우신 압강여관

니가 총 한 자루 없는 노인의 몸으로 적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집사람들에 대한 군경들의 박해와 수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문에 애국자들이 많은데다가 내가 혁명군사령관을 하다나니 우리 집안사람들이 수십 년동안 실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정말기에 형록삼촌은 간단한 어구를 마련해가지고 놈들의 폭압을 피해 남포앞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해가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와 상봉하시는 김일성동지

해방 후 만경대고향집에 처음으로 들어서던 날 내가 할머니를 보고 ≪나때문에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내 고생이야 네가 한 고생에 어찌 비기겠느냐. 고생으로 말하면 왜놈들이 더 많이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단 말이냐. 너는 나라를 찾는 싸움을 하느라고 숱한 고생을 했구. 왜놈들은 내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고생했지. 네 덕에 나는 산천구경만 실컷하다가 돌아왔다. 그거야 호강이지 어디 고생이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20년만에 고향집에 오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빈손으로 왔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나를 타일렀습니다.

≪왜 빈손이란 말이냐.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네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 왔으니 나는 그 이상 더 바랄게 없다. 네가 크고 해방이 크지 세상에 더 큰게 뭣이 있겠니.≫

70이 다되어오는 촌늙은이의 말치고는 너무나도 호방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할머니로구나 하고 탄복하였습니다.

일제의 총검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때 할머니가 적들의 강권과 위협에 휘여들지 않고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존엄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할머니들 가운데는 우리 할머니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하군 합니다.

할머니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직업적인 혁명가도 아니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조직적인 혁명교양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되어 글도 모르는 촌늙은이가 적들과 그처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었으며 매사에 처신을 그처럼 지혜롭고 대바르게 할 수 있었는가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집안가풍이 그리고 혁명이 할머니를 그런 여걸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가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나라와 백성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여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손들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아들이나 손자들이 모두 혁명을 하였기 때문에 할머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혁명을 하는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대체로 혁명을 하기마련입니다. 혁명을 하지 못하면 혁명의 동조자, 방조자로라도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이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그 영향밑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똑똑한 자식들을 두게 되면 계몽되고 각성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군 합니다.

물론 선친들이 혁명을 했다고 하여 그 후손들도 저절로 혁명가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혁명을 하자면 부모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주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에라도 조상덕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젊은 세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친들과 선열들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년까지 농사일에 전념한 것도 결국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대적투쟁을 잘할 수 있은 다른 요인의 하나는 우리의 힘이 장대했다는데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을 벌일 때 조선인민혁명군은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혁명군의 위용과 명성이 할머니에게 힘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혁명무력을 건설한 다음 적들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의 전과를 쌓지 못했거나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의 기발밑에 묶어세우지 못하고 현상유지나 하면서 산속에 배겨있었더라면 할머니는 그처럼 고압적으로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을 많이 하고 힘을 크게 길러야 조국이 부강해지고 인민이 높은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존엄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이 위대하고 수령이 위대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존엄이라는 것도 생기고 자부심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력이 되어 당과 수령을 잘 받들고 일을 많이 해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1946년 6월 9일 만경대마을사람들과 항일빨치산참가자들, 평양시의 당, 행정기관 일군들은 만경대인민학교에서 할머니의 생신 70돐을 축하하는 연회를 마련하였다. 그 연회석상에는 평양에 와있던 쏘련군대의 로마넨코소장도 참가하였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여러 내빈들의 뒤를 이어 축사까지 하였다.

할머니의 70돐 생일연이 큰 사회적인 관심속에서 성대히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만경대에 나오시었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계 대표들의 진정에 넘친 축사까지 받게 되자 할머니의 장손으로서 가족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게 되시었다.

할머니의 70평생의 생애를 몇 마디의 말씀으로 집약하신 그 답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촌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조카,

손자들이 혁명사업에 나섰을 때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해주었으며 그들이 혁명활동을 위해 슬하를 떠나서 혹은 원쑤들에게 잡혀죽고 혹은 옥에 갇히고 혹은 행처불명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놈들한테 붙들려 만주에까지 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처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할머니가 비록 글자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머니는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날을 보기 위하여 오늘까지 살았으며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연회가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할머니도 더욱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보익할머니께서는 1959년 10월 8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었다.

광복 후 14년을 제외한 이전의 근 70성상은 가난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외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풍랑사나운 세월이었다. 총검의 압박하에 강행된 두 차례의 만주행은 그 무엇에도 대비할 수 없는 최악의 수난이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장장 수십 년에 달하는 그 암흑의 시대를 적수공권으로 꿋꿋이 헤쳐오시어 손자분께서 안고오신 해방의 날을 맞으시었고 이 땅에 세워진 사회주의낙원을 보시었다.

그 숨막히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할머니께서 장수하실 수 있은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80여성상에 달하는 할머니의 수난많은 생애의 증견자이며 보증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새겨보자.

우리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은 하나의 요인은 노동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일생을 노동으로 늙어왔습니다.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중단없는 노동, 이것이 할머니의 육체와 의지를 단련시켜주었습니다. 육신을 부지런히 놀려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사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 꿈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생애가 속절없이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의가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한평생 그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해방전에는 독립의 날을 기다렸고 해방 후에는 나의 귀향을 기다렸으며 나를 만난 다음에는 만민이 잘사는 날을 기다렸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생을 기대와 희망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도 잘 이겨냅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은 꿈이 많고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꿈이 많고 이상이 높아야 위대한 발명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꿈이 많은 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은 것은 꿈이 많은 덕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이 확고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것, 꿈이 많은 것, 근면한 것, 이것이 우리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할머니는 국가수반의 조모였지만 일생을 소박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조국에 돌아온 후 당을 꾸리고 국가건설이나 끝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평양에 데려다가 모시고 함께 살려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한 연세면 손자의 부양이나 받으며 여생을 편히 쉬어도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혁명열사의 유가족들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우대만 받아도 여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국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손자의 덕으로 호강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수한 평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말년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라.≫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소박한 철학이였습니다.

일생을 노동으로 늙어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문 얼마간의 휴식이라도 시키고 싶어 나는 이따금씩 조부모님들을 우리 집에 모셔오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부모님들은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깨진 바가지를 갖다주며 그걸 기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손자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맛이 별맛이고 증손자, 증손녀를 안아보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면서도 할머니는 일거리가 없으니 갑갑해서 야단이고 흙을 밟지 않고 지내자니속에서 불이 나 못견디겠다고 하면서 매번 한 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만경대로 돌아가군 하였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림에 보탬을 주려고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할머니는 이 할미걱정은 안해도 되니 백성들 걱정이나 하라고 하면서 노상 그것을 사양하군 했습니다. 수상도 사람인데 나라고 왜 제 할머니를 호강시키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사지판을 헤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할머니가 아닙니까.

한 생을 홑옷을 입고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두툼한 솜옷도 지어드리고 생일이 되면 소주나마 한두 병 차고가서 할머니의 장수도 빌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의 성의마저도 마다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내가 만일 수상이 아니고 평범한 보통공민이였더라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지 좀더 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손으로 나무를 찍어 기와집도 지어드리고 극장에 모시고가서 심청전구경도 시키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국사에 파묻히다보니 할머니에게 솜옷 한 벌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증조할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소박한 초가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나는 나라의 모든 마을들에 기와집을 지어주고 천지개벽을 일으키면서도 제 할머니한테는 새 집을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해드린 일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돋보기를 하나 사드린 것뿐인데 그것만은 할머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일을 돌보느라고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세월도 가고 할머니도 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나니 후회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앞에서도 그랬지만 할머니앞에서도 나는 역시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생전에 솜옷 한 벌이라도 변변히 지어드렸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8. 남패자의 수림속에서


남패자회의가 진행된 장소

항일무장투쟁이 고조에 이르고 있던 1930년대 후반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총포로 얻지 못한 것을 회유공작으로 얻어보려고 짓궂게 책동하였다. 적들은 혁명에서 배신한 자들을 유격대오에 들이밀어 귀순공작만 잘하면 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귀순공작의 앞장에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탈락분자들과 배신자들을 내세웠데 그 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옛 동창생들과 혁명활동연고자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패자회의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마다 화성의숙시절의 동창생들이며 ≪ㅌ·ㄷ≫시절의 동지들이었던 이종락과 박차석이 귀순공작임무를 받아가지고 밀명에 들어왔던 일을 회고하시었다.

남패자에서 회의를 할 때 이종락과 박차석을 만나던 일에 대하여 여담삼아 말하겠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은 나와 화성의숙에도 같이 다니였고 ≪ㅌ·ㄷ≫와 ≪건설동지사≫도 같이 조직하고 조선혁명군을 꾸릴 때에도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였습니다. 혁명을 몇 해만 같이하면 형제나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나와 혁명을 4-5년동안이나 같이하였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은 김혁이나 차광수와 같은 길림패들보다 한발 앞서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전에서 ≪ㅌ·ㄷ≫를 무었을 때 거기에 아직 김혁과 차광수는 망라되지 않았댔습니다. 그러나 박차석과 이종락은 둘 다 그 조직의 핵심인물이였습니다. 그런 연고를 보더라도 박차석과 이종락은 내가 혁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귄 동지인 동시에 첫 동행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청년운동과 지하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곡절끝에 서로 헤어져 한쪽은 산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다른 한쪽은 적들에게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여러 해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의의있는 해후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상봉은 즐거운 상봉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락과 박차석은 일본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귀순공작 임무를 받아가지고 밀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혁명동지로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되어 귀순흥정을 벌이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흥정에 나섰다는 것은 그들이 나도 배반하고 혁명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그들은 귀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혁명을 배신한 지난날의 동창생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막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적들이 인민혁명군에 대한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보다 악랄하게 벌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3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항일무장부대들과의 싸움에서 귀순공작을 기본전

략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청소한 항일유격부대들과 반일부대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방법외에 그 어떤 방법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쓰지도 않았으며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자그대로 토벌제일주의만을 주장하고 내밀었습니다. 일본군수뇌부는 토벌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귀순놀음같은 것은 벌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놀음은 사무라이정신에 배치되는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어 ≪유도적 귀순엄금주의≫라는 계율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군부가 동북의 항일무장역량을 군사적 방법만으로도 능히 제거해버릴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우리의 활동에 군사적으로만 대응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9.18사변당시 장학량의 휘하에 있던 30만대군이 하루아침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상당한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타격만으로써는 항일유격대가 장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문화토벌이라는 새로운 창안품을 끌어내왔습니다. 문화토벌이란 치본공작이나 사상공작, 귀순공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일제침략자들이 군사토벌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발본색원을 노린 문화토벌전술에 어떻게 되어 매달리게 되었는가를 그들자신의 말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일본의 사법성 형사국에서 내는 사상월보 제77호 (1940년 11월 139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공비의 토벌이 왜 이처럼 어려운가 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공산군은 공산주의에 기초한 끈질긴 투쟁의식에 불타고 있으며 또한 교묘한 선전전술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지리적으로는 산악의 첩첩한 밀림지대를 유격지구로 하여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퇴각하고 적이 물러가면 우리는 전진한다≫는 게릴라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중정치공작에서는 특이한 잠행선전공작에 의하여 민중을 획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력에만 의존하는 토벌로써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 무력에만 의거하는 것은 일시 효과가 있지만 결국 발본색원의 방책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밥우의 파리를 쫓는다든가 잡초의 싹을 베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종래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토벌을 강행하면서 오늘도 아직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한 중대한 원인의 하나는 무력에만 힘을 넣고 그 치본공작, 사상공작을 홀시하였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기관이 이에 협력하지 않고 단지 군에만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적들은 문화토벌의 미명하에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이비정비정책에 따라 항일무장대오를 버리고 투항한 자들과 귀순자들로 토벌대를 무어가지고 다니면서 지난날의 전우들과 상관들, 부하들을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이비정비란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비적으로 비적을 친다는 뜻으로 됩니다.

적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문화토벌과 같은 비군사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만능으로 삼아오던 군사일변도의 정책이 여지없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공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귀순공작과 같은 너절한 놀음도 벌이게 된 것입니다.

1937년-1938년이면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이 전성기에 오른 때입니다. 역량도 대단했고 전과도 대단했습니다. 큰 성시를 한두 개쯤 치는 것은 식은 죽먹듯할 때였

습니다. 무장투쟁의 영향밑에서 대중투쟁도 앙양되였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고조되어가던 항일혁명이 열하원정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양정우의 1군을 비롯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적지 않은 부대들이 원정과정에 많은 유생역량을 잃었습니다. 항일무장부대들에서는 도주자와 귀순자들도 생기였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적들의 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적들은 동북의 항일무장역량이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다 거덜난 오합지졸의 무리이니 그 내부도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갈팡질팡할 것이다, 이렇게 쳐도 넘어지고 저렇게 쳐도 넘어질 것이라고 타산했습니다.

적들이 문화토벌을 중시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그 당시 귀순공작을 통해 달성한 몇 개 성과에서 재미를 본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지휘관들의 투항은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이나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그런 인식을 토대로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와해공작을 추진시키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문화토벌의 기본과녁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두고 한편으로는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의 기본과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1930년대초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주적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대오들 가운데서 제일 전투력이 강하고 소멸하기 어려운 존재로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나니 신문, 잡지들에 우리 부대의 활동이 많이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소식은 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아래에 그 당시 미국에서 발행된 교포신문 신한민보에 실린 자료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제 최근 천진통신을 의지하건대 그 보도가 자못 소상함이 아래와 같다. 한중의 용군중에 가장 용맹스럽게 쌈 잘하는 군사는 한인 **김일성**장군(내지신문과 기타 한국측이 소식을 의지하건대 간도를 근거하고 활동하는 **김일성**씨의 무장부대가 있어 지난 6월에 국경을 넘어 갑산 보천보를 습격하여 왜군경의 간담을 떨어뜨렸고 그 후에도 동군 행동이 동아일보와 기타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 통솔하에 전혀 한인으로 편성한 사단이라고 한다.

그들의 단결존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데 있는 것이며 일종 가족식계통적 지배에다 의협충용 등 전통적 정신훈련을 겸해서 그 단결이 더 굳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수령이 한번 영을 내리면 그 부하가 수화를 헤아리지 않고 내닫는 것이다. ... 그들의 목적은 다만 민족을 위하여 원쑤를 갚는 것 뿐이요, 전략은 많이는 유격방식을 택하여 신출귀몰함으로 왜적으로 하여금 갈팡질팡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쏘련군사가의 관측은 ≪만일 일조에 중일양국이 정식 선전하면 일본이 만주 한 모퉁이의 의용군을 당해내려도 군사 20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의 실력이 몹시 위대한 것이 아니냐.

(신한민보 1937년 9월 30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인 방법도 써보고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선전도 해보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탕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적들이 공세를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오는 철벽으로 다져졌고 우리의 투쟁

소식은 날개를 달고 더 넓은 판도로 전파되어갔습니다.

군사토벌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거짓을 꾸며내는데서도 재미를 보지 못한 일제가 궁여지책으로 매달린 것이 바로 귀순공작 입니다. 적들이 이 공작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를 끌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은 문화토벌의 기본과녁을 큼직큼직한 인물들한테 두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잡도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양정우에 대한 귀순공작은 성귀순공작반이 담당하였고 나에 대한 귀순공작은 만주치안부경무사소속의 중앙특별귀순공작반이 담당하였습니다.

적의 군경들이 나의 무송소학교시절의 교사까지 귀순공작에 이용하려 했다는 일제의 관헌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그가 실지로 나를 찾아왔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연락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이 남패자밀영에 나타난 것은 적들이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에 열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근친들을 통한 공작이 은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지난날의 나의 동창생들을 들이민 것입니다.

내 짐작에는 일본의 모략가들이 박차석은 귀순공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물로 보고 이종락은 결정적인 기회에 써먹을 수 있는 기본인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박차석이 우리 밀영으로 들어온 것은 부대가 남패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초대에서 보초장이 전령병을 시켜 박차석이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나는 그 연락을 받고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차석은 1930년 여름에 공작임무를 받고 국내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남패자에는 갑자기 무슨 일로 나타났겠는가, 설사 그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요시찰인으로 엄한 감시를 받을텐데 그 감시는 어떻게 떼버렸고 적들이 이중삼중의 포위진을 치고 있은 이 밀영에는 무슨 수로 찾아왔을가 하는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명을 다시해보려고 불원천리 찾아왔다면 업고라도 다닐 일이지만 적들이 그에게 그런 자유를 줄 리는 만무한 일이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감은 어떻든 나를 찾아온 사람이니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박차석을 만나게 되면 형권삼촌이랑 최효일이랑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알고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박차석을 만나보니 겉모양은 여전한데 속은 딴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이별한 혈육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옛날의 혈기는 어데 가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되었는가, 감옥살이도 견디어냈으니 이제는 앞을 보고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차석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전향을 했다고 하면서 적의 주구로 전락되어 남패자까지 찾아오게 된 경위를 눈물을 흘리며 실토하였습니다. 그는 형을 받고 형무소에서 몇 해 동안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 점차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형권삼촌을 십자형틀에 묶어놓고 태형을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다음부터는 저항할 기력마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박차석이 동요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그를 다른 감옥에 옮겨놓았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놓아주고는 끝내 전향시켜 귀순공작반에 끌어넣었습니다.

적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조작할 때 거기에 박차석을 끌어들인 것은 장소봉이었습니다. 장소봉은 우리가 중부만주 지방을 개척할 때 김혁, 김원우 등과 함께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1931년초에 이종락과 같이 무기공작을 나가다가 장춘역에서 체포된 후 전향하였습니다. 적들은 그에

게 기생을 붙여 장춘에 가정까지 꾸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를 직업적인 특무로 써먹었습니다. 일제의 정탐기관에서 나와 연고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물색할 때 장소봉은 이종락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세워 박차석이까지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박차석은 적들의 심문을 받을 때 자기가 ≪ㅌ·ㄷ≫시절의 나와의 친분관계도 다 말하고 그 후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던 일과 공청을 조직한 다음 길림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무장소조에 속하여 국내에 파견된 경위까지 다 털어놓았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네가 하는 노릇이 너 혼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고 따져물었습니다.


김혁

박차석은 자기는 아무 벼슬도 하는 것이 없고 일본놈들이 강요해서 여기로 왔지만 성주한테는 그런 놀음이 애당초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성주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나를 보고싶어 찾아왔다는 말은 진정인 것 같았습니다.

박차석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도 이것저것 대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끌어들이려고 만경대에 갔던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평양태생인 그는 소년시절부터 형권삼촌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가 형권삼촌을 만나려고 만경대에 자주 다니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의사소통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차석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내막을 적들에게 알려주고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그를 크게 써먹을 수 있다고 내세운 사람이 이종락이었다고 합니다. 박차석은 할머니를 끌고다니면서 고생시킨 것은 천만 번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죄이지만 할머니의 신변만은 잘 보살펴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나 이종락이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이며 자기 같은 인간은 백번 죽인데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차석이도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정의감이 강하고 반일정신이 높은 청년혁명가로서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이 결성된 후에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체포되어 육체가 철쇄에 묶이게 되자 사상도 변하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래도 예전날의 것을 조금이나마 지니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한 가닥의 정뿐이었습니다.

박차석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지만 의식적으로 그들을 협력하거나 또한 그런 대가로 영달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이 강대하기 때문에 혁명이 승리할 가망이 없다고 보았고 그런데로부터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목숨을 부지하자니 전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향을 하게 되니 일본사람들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순공작에 참가했지만 그것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뜻과 지령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박차석과 같이 혁명적 신념을 저버린 인간들에게 차례진 당연한 비극이였습니다.

나는 박차석을 만나고나서 사람의 참모습이란 무엇이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박차석은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고 얼굴모습은 지난날과 꼭 같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허울은 남아있는데 무엇인가 알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넋이 없는 인간이 돼버렸더란 말입니다. 그러고보면 사람의 참모습은 결국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을 빼놓으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 허울뿐입니다. 사상이 무너지면 인격도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박차석은 사상을 집

어던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란 눈이 없는 얼굴과 같습니다.

나는 박차석이 변질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의 수중에서 다시 그를 빼앗아내는 심정으로 여러 모로 해설도 하고 충고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적이 나의 옛 동지를 빼앗아갔는데 나는 왜 그를 도로 빼앗아내지 못하겠는가 하는 반발심이 작용했다고 해야 할지 ≪ㅌ·ㄷ≫시절의 박차석으로 완전히 개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애국심 하나만이라도 되살려주고 싶은 것이 나의 심정이였습니다. 내 가슴에도 박차석에 대한 옛정은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이 민족앞에 죄를 지으면 사람답게 살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내가 말했더니 박차석은 내 말을 긍정하면서 일제놈들에게 전향한 다음부터는 사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하루가 그대로 고역이다, 이렇게 살 바엔 목숨이나 부지해서 뭘하겠는가, 죽자 하고 결심했는데 용기가 없으니 자살도 못하겠더라, 오늘 성주를 만나서 말이라도 나누고보니 마음만은 가벼워진다,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죽여달라, 죽어도 성주손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너 하나 죽인대야 내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가, 네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난날 함께 혁명을 하던 동지들과의 의리를 봐서도 그렇고 이제부터라도 양심과 체면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박차석은 내 말을 명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박차석을 처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상대가 자기 죄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반성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원들이 잡아온 메돼지고기도 대접하고 그와 마주앉아 술도 몇 잔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령부천막에서 하루밤 재우면서 사람답게 살라는 충고를 해주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박차석은 내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탁대로 조부모님들에게 보내는 내 편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박차석이 남패자밀영에 들어왔다가 무사히 살아나간 것을 보고 적들은 얼마 후 다시 이종락을 밀영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종락을 남패자밀영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임강에 갔던 소조였습니다.

그 해 겨울 우리는 대원들의 겨울옷을 해결하려고 한 소조를 임강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소조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물자거래에 솜씨있는 장사군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장사군은 일본사람들한테도 봉사하고 우리 유격대에도 물자를 대주면서 양다리치기를 하는 사람이였는데 우리의 소조를 만나자 흥정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천과 솜을 조달해줄터이니 그 대신 일본군의 군속 한 명을 혁명군 사령부까지 데려다달라고 했습니다.

소조책임자는 그 흥정에 동의하면서도 조건부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가려면 도중에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겠는데 너희 상급에 말해서 혁명군에 대한 도발을 중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임강, 가재수로부터 남패자에 이르는 넓은 지대에 진을 치고 있던 적 토벌대들은 한동안 작전을 중지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소조는 이처럼 적의 기도와 약점을 역이용하여 많은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남패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군속이 바로 이종락이였습니다.

이종락은 처음부터 처신을 희떱게 하여 우리 동무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혁명군의 군영에 들어왔다는 공포감이나 위축감 같은 것은 전혀 없이 뻔뻔스럽게 웃고 망탕 말하고 주저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보초대를 책임지고 밀영어귀에 나가 있던 오중흡을 보고 추운 산중에서 고생이 많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시계를 선사하

려고 했습니다. 오중흡은 자기의 회중시계를 꺼내보이면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종락은 사양말고 받으라, 시계가 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고 했습니다. 오중흡은 시계는 하나를 기준해야지 오늘은 혁명시계를 차고 내일은 반동시계를 차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고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편에서부터 반동의 편으로 넘어간 이종락의 반역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였습니다.

이종락이 밀영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놀았지만 나로서는 만나자마자 그의 죄상부터 문책할 수 없었습니다. 칼로 단번에 벨 수도 없고 불로 태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그하고 맺은 우정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서주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군기동부대

이종락도 역시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ㅌ·ㄷ≫시절의 이종락은 일가견을 가진 쟁쟁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우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군사에 밝았고 새 사조에도 민감하였습니다. 16살때부터인가 벌써 통의부에 소속되어 독립군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강했고 행동도 용감하고 굵직굵직했습니다. 이종락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종락을 조선혁명군의 책임적 지위에 추천한 것은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인기가 있는 인물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었던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전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종락은 자기가 일본군 군속으로 귀순공작반에 속해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ㅌ·ㄷ≫의 강령에 있는 것처럼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전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물론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ㅌ·ㄷ≫조직에 참가하고 조선혁명군을 내오고 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9.18사변과 7.7사변을 겪고 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이미 공산주의운동이 거덜났다, 내선일체는 확고한 현실로 되고 그에 따라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인으로 되었다, 중원을 쥐는 자는 동양천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중일전쟁의 실태를 보라, 북경, 상해, 남경도 일본군에 함락되고 서주작전, 무한작전, 광동공략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북 3성을 단숨에 삼키고 오늘은 광대한 동아대륙을 반나마 타고앉은 무적의 대일본제국인데 그 힘을 무엇으로 당해내겠는가, 성주는 노상 산에서 지내다나니 대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내가 이리로 찾아온 목적은 산에서 보람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성주를 돕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종락은 마치 나를 위해 굉장한 선행을 베풀려고 온 것 같이 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과 체취에서 이 사람은 이미 썩을대로 다 썩어서 살려낼 가망이 없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는 회의를 마칠 때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훼방을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락을 시켜 적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편지내용은 내가 불러주었습니다. **김일성**군의 군영에 들어와보니 현재 사령부는 백두산쪽으로 이동해 가서 부재중이다, 거기까지는 몇백 리 길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자면 얼마간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지금 **김일성**휘하의 한 부대를 만나 사령부와 연계를 맺을 교섭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차후 통보를 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이종락의 필적으로 된 그 편지를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적들에게 보내고 여유작작하게 회의를 계속하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이종락에게 몸도 좋아지고 손도 매끈해진걸 보니 괜찮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일본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 잘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살게 된 것은 나의 덕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일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일본사람들이 자기네쪽으로 돌려세우려고 **김일성**을 잘 알거나 지난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것들도 그렇게 높이 대우해주는데 **김일성**이 돌아만 선다면 일본사람들이 여북 높은 대우를 해주겠는가, 그들은 **김일성**장군이 돌아서면 어떤 벼슬이든지 다 주겠다고 한다, 조선군사령관자리도 좋고 또 다른 벼슬자리도 좋고 달라면 다 주겠다, 조선군사령관을 하면서 조선을 관할하든지 또 여기에서 한 자리 하면서 만주를 관할하든지 뜻대로 하라, 어느 쪽이든 관할하면서 일본과 합작만 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태평양서부연안으로는 불피코 미국의 세력이 뻗쳐와서 일본도 조선도 만주도 다 삼키자고 할 터인데 아세아사람들끼리 손을 맞잡고 미국을 견제하고 쳐물리쳐야 아세아의 살길이 열린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아주 교활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종락을 들여보낼 때 귀순하라는 말을 해서는 통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이른바 합작이라는 타협안을 가지고 의논해보라는 과업을 주어 들여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아사람들끼리 합작하자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한때 요란스럽게 표방한 대아세아주의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주도하에 아세아사람들을 위한 번영하는 아세아를 만들자는 것이 대아세아주의라고 일본사람들이 굉장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 들을 머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아세아주의는 아세아에 대한 일제의 독점야욕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방패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남을 침략할 때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법입니다. 그들은 야마도족이 우월함을 고창하면서 세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집안이라는 ≪팔굉일우≫의 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을 침략할 때에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민족을 일본이 맡아서 이끌어주며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만주를 칠 때에는 자위권의 발동을 구실로 삼았고 만주국을 날조할 때에는 5족협화와 왕도낙토건설을 떠들었으며 중일전쟁을 도발할 때에는 폭도화된 중국에 벌을 준다는 ≪폭지응징≫이니 ≪갱생신지나건설≫이니, ≪일, 만, 지 3국의 결합≫이니 하는 따위의 구호를 내들었습니다.

이종락이 대아세아주의라는 것을 자꾸 설교하기에 나는 만일 우리가 일본에 쳐들어가 철권으로 일본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 이제부터 조선의 주도하에 대아세아주의를 펴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래도 일본이 대아세아주의를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은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일본을 무적필승의 존재로 묘사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몇해째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해 그토록 골머리를 앓는가, 일본이 무적필승이라면 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평정할 것이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거간군으로 내세워가지고 유치한 귀순공작을 벌이는가고 하였습니다.

이종락은 그 물음에도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거야 일본사람들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아껴서 그런거지 다른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강승약패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치인데 승산도 없는 항전은 그만두고 일본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남패자주변에만도 3개 사단 병력이 물샐틈없는 포위망을 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가스나 무슨 신식고성능대포로 우리를 멸살시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종락에게 일본사람들이 조선군사령관이 아니라 총리대신을 시킨대도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독가스를 뿌리고 고성능대포도 쏠테면 쏘라고 하라,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은 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이종락이한테서 한영애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준비할 때 한영애도 점을 찍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영애가 단연코 반대했기 때문에 동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종락은 한영애가 신의주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징역살이를 했는데 성주에 대한 의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일본사람들의 지령을 받고 한영애를 귀순공작에 끌어넣으려고 말꼭지를 뗐다가 본전도 못 찾고 면박만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한영애는 ≪나는 그따위 너절한 일은 하지 않는다, 당신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주가 그따위 귀순놀음에 넘어갈 사람인가.≫고 하면서 되게 비판을 주더라고 하였습니다.


한영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영애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이종락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라, 한영애같은 여자도 지조를 지켜 전향을 안하고 버티는데 종락이 당신은 혁명을 집어던진 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본놈들밑에서 개질을 하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은가, 사람이 변해도 너절하게 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나를 설복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종락은 대원들에게 낚시를 걸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경위대원 한 사람을 만나서 부모가 있는가, 가족들이 그립지 않은가고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전에는 유격대를 사로잡으면 다 죽였지만 지금은 살려줄 뿐 아니라 신세를 고칠 수 있게 해준다, 부모곁에 가서 고운 색시를 얻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거든 자기와 함께 가자고 구슬렸습니다.

나는 그런 통보까지 받고나서 일본사람들의 심부름을 마지못해 하는 박차석과 달리 이종락은 조국과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고 의식적으로 적들에게 복무하는 일제의 충견이며 심복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사령부는 이종락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를 처형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종락의 시체위에 동창생이건 누구건 배신자는 이렇게 처단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덮어두었습니다.


마동희

내가 남패자에서 이종락과 박차석을 만나던 사연을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그때의 사연을 그대로 엮으면 정말 훌륭한 소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나타나 일본의 강대성을 선전하고 우리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혁명군사령관을 귀순시키려고 하였으니 그런 심각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겪은 수많은 체험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체험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두 사람을 만나고나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주소성명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인물이 그런 공작임무를 받아가지고 왔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ㅌ·ㄷ≫결성할 때에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때 같아서는 누구도 변절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가운데서 배신자가 생기였단 말입니다.

혁명이 상승할 때에는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혁명대오에서 동요분자나 탈락분자 같은 것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인모동지와 상봉하시는 장면 (주체 82(1993)년 7월)

그러나 정세가 혁명의 편에 불리해지고 곤란이 중첩되게 되면 동요분자도 생기고 도주자도 생기고 투항분자도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군들은 정세가 준엄하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혁명대오내에서 혁명적 신념을 잃어버린 동요분자나 패배주의자들을 골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어느 구석에서든지 꼭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일군들은 매개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사상의식상태에 맞게 혁명적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교훈은 무엇인가? 사상이란 신념화되어야지 순수한 지식만으로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념화되지 못한 사상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사상에 변질이 생기면 이종락이나 박차석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다고 보는 사상을 접하면 그것을 철저히 신념화해야 합니다. 풍부한 지식도 혁명적 신념이 안받침되어야 새것을 끝까지 개척해가는 참다운 창조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봅니다.

신념이 무너지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인간자체가 무용지물로 됩니다. 인간의 도덕의리나 양심도 다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도 지닐 수 없고 도덕의리도 지킬 수 없으며 인간적인 체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념이 강할 때 자신의 삶도 훌륭하게 개척해나갈 수 있고 동지들을 위해서도 처신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도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충실성은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동무의 주장입니다. 심오한 철학입니다. 나는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한 **김정일**동무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20장



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향하여

고난의 행군
청봉의 교훈
소금사건
대홍단전투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
여투사들의 혁명절개

■ 시기 : 1938. 12 ~ 1939. 6

1.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1938년 12월초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그 행군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지금도 이 행군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행군을 통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따라배워야 할 귀중할 유산으로 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가들과 작가들에게 들려주신 고난의 행군에 대한 회고담을 편집하였다.

동무들이 그 동안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소개선전하는데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작가들도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는 교양적 가치가 큰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동무들의 요청을 받은 지도 이제는 펴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품을 놓고 말해주자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한 1938년말-1939년초는 항일무장투쟁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 우리가 대부대를 데리고 조국으로 나갈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엄광호와 같은 사람이 혁명의 저조기가 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 정도로 정국은 우리한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런 때에 대부대가 국내진출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큰 모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담하게 국내진출을 위해 압록강연안에로의 행군을 단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혁명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앉아서 걱정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밀영같은데 들어가서 배겨있으면 한 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도 있고 역량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현상유지나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해서 조국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혁명을 계속 앙양시키자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938년은 서간도지구와 국내인민들의 사기가 떨어졌던 때입니다.

혜산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지하조직원들이 잡혀가게 되자 국내혁명운동은 시련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적들은 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드립다 선전해대고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은 것을 망했다고 했지만 그런 선전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갔습니다. 적들의 선전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민들한테 굴러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흉흉한 소식들뿐이였습니다. 한다하는 혁명가들조차도 신심을 잃고 백두산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전활동을 하는데서는 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선전수단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선전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혁명군이 전멸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신문에 그럴듯하게 실어 수만 부 내보내면 그 기사를 수천수만 명이 보았습니다. 방송도 그 선전에 합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전수단이란 대내에서 발간하는 몇 종의 신문, 잡지들과 선동삐라, 격문같은 것들이 고작이였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의 지하조직들에서 찍어내는 얼마간의 인쇄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힘들게 배포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한 장의 삐라를 뿌린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애국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배낭쯤 되는 삐라를 지고 국내에 들어가자고 해도 지하공작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혁명군이 녹아났다고 적들이 선전할 때 그것을 허위라고 까밝히며 혁명군이 살아있다고 선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내에 들어가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였습니다. 총소리만 내면 지하조직도 많이 내올 수 있었습니다.

서간도에서 온 연락원의 말에 의하면 장백지구의 지하조직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는데 살아남은 조직원들은 어디에 가 숨었는지 연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고들을 받고 나서 아무리 다 마사졌다고 해도 그루터기야 좀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조직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장백에 나가서 조직을 수습해놓고 그런 다음 조국에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당거우에서처럼 한 해 겨울동안 밀영에 들어앉아 군정학습을 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진 다음에 새로운 작전을 펼쳐도 되지 않는가, 엄동설한

에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국내의 반일투쟁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은 때에 어떻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란거야 혁명초기부터 밥먹듯 해온 것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에 없는 고생을 한두번만 해왔습니까. 국내의 반일투쟁이 시련을 겪고 있고 국내인민들이 백두산쪽만 쳐다보는데 조국해방의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선 혁명군이 팔짱을 끼고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면서라도 조국으로 가자, 희생도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가야할 노정인데 어찌 간난신고가 없겠는가, 그렇더라도 발자국을 크게 찍어보자, 와지끈 퉁탕 하고 부딪쳐보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내 심정이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의 행군의 목적은 국내를 한번 들었다놓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기간에 어려운 행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32년 가을에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안도에서 왕청으로 갈 때의 행군도 어려운 행군이였고 1차 북만원정을 갔다가 간도로 돌아올 때의 행군도 어려운 행군이였으며 1937년 초 봄의 무송원정도 어려운 원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였습니다. 행군기간이 100여 일이나 되기 때문에 이 행군은 100일행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실 110여 일이나 되는 행군이였습니다. 고생이 너무도 막심했기 때문에 그 행군을 가리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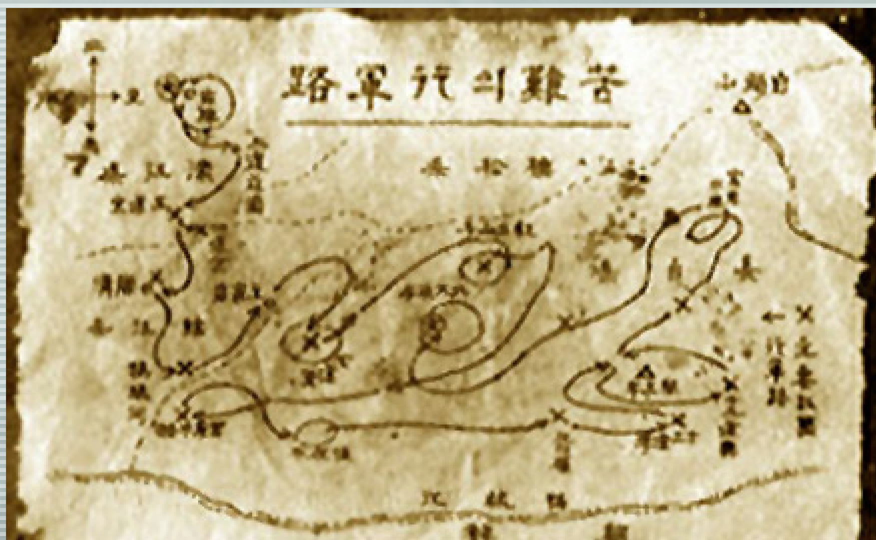
나는 지난날 행군에 대해서 쓴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철의 흐름같은 작품은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과 같이 간고하고 곡절많은 행군에 대해서 서술한 글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학시절에 철의 흐름이란 장편소설을 읽고 세상에 이처럼 고생스런 행군도 다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꼬주흐가 중첩되는 고난을 뚫고나가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겪고나서는 그것이 우리가 체험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것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기본내용이였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진 시련과 난관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추석전에 첫서리가 내리고 추석이 지나서는 벌써 첫눈이 크게 내렸습니다. 초겨울부터 강추위에 박달나무가 얼어터졌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여기에 식량난과 쫄라병까지 겹치고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적들과 싸움을 벌려야 했으니 그 고생이란 참으로 이루헤아릴 수 없는 것이였습니다.

남패자에서 북대정자까지는 도보로 대엿새면 가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들과 싸우느라고 무려 100여 일이나 되는 엄청난 품을 들여서야 거



고난의 행군노정도

기에 가닿을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도 고난의 행군노정도를 보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행군로들이 여간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육체적인 부담이나 고통으로 보아도 종전의 원정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거창한 행군이였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되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역사에서 유례없이 어려운 행군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끊임없는 추격과 포위속에서 행군이 진행된데 있습니다. 그 추격과 포위가 얼마나 집요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동무들도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주력부대에 토벌역량을 총집중하였습니다. 1군은 다 녹고 얼마 없다, 남은 것은 **김일성**부대뿐이다, 전역량을 다 동원하여 **김일성**부대 토벌에 집중하라고 떠들어대면서 야단법석을 하였습니다. 적들은 통신수단으로 비둘기까지 날리면서 싸움에 열을 올리였습니다.

적들의 전술이 어떤 전술이였는가. 혁명군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자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전술을 가지고 수백 명씩 막 들이밀었는데 하루 20번이상 전투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른 원정행군을 떠날 때처럼 슬그머니 남패자를 출발했더라면 그처럼 심한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 몰래 조용히 행군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군벽두부터 총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행군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하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밀영을 뜨자마자 인차 집단부락을 하나 쳤습니다. 적들은 그 총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우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2방면군이 어느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적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남패자밀영을 포위하고 있던 적들은 인차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기동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우리가 50리가량 강행군을 한 다음 밥을 해먹자고 하는데 어느새 적들이 덮쳐들었습니다. 그러니 밥해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아쉬운대로 젖은 쌀을 배낭속에 쑤셔넣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두 번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싸



움이 없는 단순한 행군이라면 뭘 그다지나 속이 탔겠습니까. 추격과 포위가 계속되고 그런 정황속에서 싸움을 노상 하게 되니까 곱절 힘들었던 것입니다. 행군의 가장 큰 간고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겪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시련은 식량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때 식량난을 겪은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1938년 가을에 한 해 겨울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패자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많은 양의 식량을 소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식량은 먼저 떠나는 부대들이 담당지역으로 갈 때 그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어서 산나물이나 풀잎따위의 신세도 질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좀 덜 갈개면 산짐승을 잡아서 생고기로라도 끼니를 잇겠는데 총소리를 내는 것이 재미가 적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은 내가 곰사냥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오백룡이 구새먹은 큰 나무안에서 잠자는 곰을 발견했는데 제발 한 방 갈기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적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단방에 잡을 자신이 있으면 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발명중으로 황소만치나 큰곰을 잡았습니다. 행군초기에 우리 대원들은 하루 두끼씩 죽을 쑤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예비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인차 식사끼수를 하루 한끼로 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한끼마저 먹지 못하고 생눈을 먹었습니다.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되니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군을 하자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눈앞이 가물거리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해방 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배고픈 고생을 좀 해보아야 쌀이 귀한 것도 알고 농민이 귀중한 것도 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혁명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오백룡이 내 허락을 받고 7도구치기에 내려가서 목재소를 치고 여러 필의 말을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식량이 거덜난 때라 우리는 말고기로 끼니를 에우기로

하였습니다. 적들의 포위속에 있는 때여서 말고기를 굽지도 못하고 소금도 없이 날것으로 먹었는데 두 번째끼부터는 메스꺼워서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날것으로 고기를 먹다보니 설사가 나서 굶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원들은 설사로 고생을 하면서도 말고기를 그냥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5일이 지나서는 그 언 말고기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 많은 것은 한창 먹어야 할 나이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한데도 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다나니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음식같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산나물이나 풀뿌리, 나무껍질, 누룩, 쌀겨, 술지게미 같은 것으로 끼니를 에울 때가 많았습니다. 거친 음식을 많이 먹는데다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다나니 소화기관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스트로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보고 항일무장투쟁시기 식량은 어떻게 해결했고 피복은 어떻게 해결했으며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영하 40도나 되는 혹한은 어떻게 이겨냈는가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의 행군 때 식량고생을 하던 일과 혹한 때문에 고통받던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카스트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탄복하였습니다. 그가 유격전을 할 때 아마 우리와 같은 고생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꾸바는 중국 동북지방이나 우리 나라와는 달리 기후가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 전우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시집장가를 갈 나이에 시집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고생시키는 것이 제일 가슴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의 행군의 간고성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해준다 해도 체험자가 아닌 동무들로서는 그 고난의 실상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군의 간고성에 대해서는 노정을 따라가면서 더 이야기해봅시다.

적들은 처음부터 맹공장추전술을 썼습니다. 사납게 공격하고 검질기게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맹렬한 공격에다가 짖궂은 추격을 배합한 전술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과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우리는 그때 밥을 해먹을 사이도 없어 생쌀을 씹어먹으면서 행군하였습니다.

맹공장추전술에서 기본은 진드기처럼 검질기게 달라붙어 상대를 못살게 구는 다니전술이었습니다. 일본말로 진드기를 다니라고 합니다. 다니전술은 토벌대를 요소마다에 미리 배치해 놓고 있다가 유격대가 나타나면 치고 또 일단 발견한 유격대는 꼬리를 물고 끝까지 따라가며 소멸한다는 전술입니다. 그 전술은 유격대가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줄창 쫓겨다니며 얻어맞다가 기진맥진해서 녹아나게 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었지만 유격대는 쉴 짬도 먹을 짬도 없이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간고성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옛 병서에 우세한 적의 교대식장거리추격전에 걸려들면 반드시 패하는 법이니 그런 궁지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함정에 빠져들면 용빼는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함정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적들이 사처에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질줄 모르는데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숙이 빠져들어간 함정에서 빠져나올 묘술을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갈지자전법이었습니다. 나는 연대장들을 불러다놓고 이제

부터 행군로를 갈지자모양으로 잡아나가자, 그리고 굽인돌이마다에 되돌아앉아 지키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기관총으로 적들을 쳐갈기자. 그래야 일본 다니를 떼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지자전법은 눈이 몇 길씩 쌓인 만주산지에서 뒤따라오는 적들을 타격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법입니다. 그 해 겨울은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려서 앞사람이 눈을 다지며 길을 내야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아무리 건강한 대원들도 50-60미터만 가면 맥이 진해서 주저앉군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눈이 너무 깊어서 몸을 굴려 다져가며 길을 냈고 어떤 데는 굴을 파고 지나갔습니다. 눈이 너무 깊은 데서는 대원들이 다리에 감고 있던 각반을 풀어서 한 줄로 이은 다음 모두가 그것을 감고 행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낙오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은 어차피 우리가 낸 갈지자길을 졸졸 따라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중흡은 행군종대의 맨뒤에서 갈지자모양으로 길이 꺾이는 대목마다 기관총을 휴대한 2-3명의 전투소조를 매복시켰다가 적을 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죽은 놈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이에 매복타격조들을 이동시켰다가 적들이 다가오면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소멸하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낸 외통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매번 얻어맞는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피동에 빠져 무리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도권을 쥐고 적들에게 연속 강타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장설행군을 계속하여 1939년 정초에는 마침내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임장현 요구집단부락습격전투와 마의하부근전투, 왕가점습격전투들을 비롯하여 무수한 전투들을 했는데 그것은 동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무력을 토벌에 내몰았습니다. 추격을 거듭할수록 사상자수가 늘어났으나 그들은 부대를 갈아대면서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병력의 예비가 무진장한 적들이니 몇백 명쯤 죽는 것은 꿈만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잠을 자고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걸으면서 잠도 자고 꿈도 꾸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자주 돌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등불조차 마음대로 피울 수 없었습니다. 5호농장에서 농약을 뿌릴 때 쓰는 그러루한 비행기인데 어쨌든 비행기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놈의 비행기들이 매일같이 날아와서는 우리 행방을 탐지해가지고 지상부대들에 연락해주었습니다.


가재수부락전경

어느 날 아군의 행방을 찾는데 성공한 적들은 인민혁명군의 행군종대에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앞에도 적이요, 뒤에도 적이요, 옆에도 적이요, 하늘에도 적이었습니다. 정황이 어찌나 긴박했던지 나는 앞에서 달려드는 적은 기관총소대가 소멸하게 하고 뒤에서 달려드는 적은 7연대가 견제하게 한 다음 나머지 성원들은 측면돌파로 포위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험한 고비는 요행 모면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노상 아

슬아슬하게 줄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군에 참가한 방면군의 큰 병력으로 집단행군을 하자니 여러 모로 불편했습니다. 우선 흔적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식량을 해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수십 명되는 사람들이 허리가 부러지게 지고온 식량도 2-3일만 지나면 바닥이 나는 판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창싸움에 시달려온 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픽픽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살아서 장백까지 무사히 가겠는가. 나는 궁리를 하던 끝에 집단행동으로부터 분산행동에로 넘어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진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면 흩어지는데서 오는 부담과 고충이 따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방면군을 몇 개의 방향으로 갈라서 활동하게 하고 나자신은 7연대와 함께 움직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 참가한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내가 7연대와 같이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7도구치기의 밀영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청봉밀영에 사령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연대가 7연대인데 그들과 같이 다니면 나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청봉밀영에는 부상자들과 병약자들만 들여보내자, 우리 인민에게는 싸움을 하는 **김일성**이 소용되지 팔짱을 끼고 숨어있는 **김일성**은 소용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더니 지휘관들은 더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면군을 세 개의 방향으로 분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를 데리고 청봉밀영을 거쳐 가재수방향으로 나가고 오중흡이네 7연대는 장백현 상강구일대에 진출하여 활동하며 8연대와 독립대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면군이 분산행동으로 넘어가게 된 때로부터 고난의 행군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말로 되었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령부와 헤어지는 동무들은 모두 섭섭해하며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 동무들은 경위중대 대원들을 붙들고 사령관을 잘 지켜달라고 저마다 신신당부하였는데 그 뜨거운 결사옹위의 정신에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 가운데는 옷이 형편없이 찢어져서 살이 드러나고 신발이 헐대로 헐어서 맨발을 각반으로 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소가죽을 발싸개처럼 싸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제몸들은 생각지 않고 사령관의 신변을 걱정해주니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오중흡은 헤어지면서 오백룡에게 자기네 7연대가 적들을 달고갈테니 동무네 경위중대는 절대로 전투를 하지말고 피하라고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나를 청봉밀영에 눌러있게 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에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 바친 오중흡의 희생성과 충실성에 대하여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령부에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7도구치기를 떠나는 첫 순간부터 달려드는 적들을 자기들 쪽으로 유인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기네를 사령부로 가장하다나니 모든 중하를 도맡아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나를 잡자고 혈안이 돼있는데 그 사람네가 **김일성**을 옹위하고 있는 사령부집단인체 하였으니 적들이 더 기를 쓰고 덤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중흡이네 연대는 그때 한 주일나마 낟알구경도 못하고 적을 끌고다니며 쉴새없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홍두산전투 때에도 멀리서부터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 사령부를 잘 보위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적들의 성화를 덜 받았습니다. 사령부에 집중되었던 적의 역량이 분산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량난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굶으면서 청봉방향으로 행군했습니다. 청봉에는 우리가 후방성원들을 보내서 감자를 심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감자가 그대로 밭에 있으면 그것을 캐먹으면서 며칠동안만이라도 대원들을 휴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을뻔 하였습니다.

우리는 청봉부근에서 난데없는 조밭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펴보니 봄에 우리가 신태자밀영으로 가면서 씨붙임을 한 조밭이였습니다. 아마 산골에 와서 아편농사를 하던 사람이 그 밭을 경작했던 것같습니다. 봄씨붙임을 하느라고 밭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우리 대원들을 보자 허둥지둥 어디론가 달아나버리였습니다. 비적이나 일본군대인줄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밭임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 대원들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겁을 먹고 달아났으니 언제 여기 와서 다시 씨붙임을 하겠는가,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달아났는데 밭을 한 해 동안 그저 묵혀둘 수는 없다, 우리가 씨를 뿌려 임자가 가을에 와서 곡식을 거두어가게 하자고 하면서 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조가 가을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눈에 깔려있는 조이삭을 보고 대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원은 전우들에게 농담으로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느님이 아니고야 누가 다 죽게 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대원이 장군님, 지금은 ≪하느님≫도 혁명군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의 덕을 본 셈입니다. 우리가 봄에 밭임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씨붙임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런 횡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새 숙영지에 도착할 때마다 대원들을 동원시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조나 감자나 호박같은 것을 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숙영지에서 좀 떨어진 평평한 곳에 가서 땅을 뚜지고 종자를 뿌린 다음 후날 와서 찾을 수 있게 표식을 해두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령병들은 장군님, 앞으로 여기에 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묻군했습니다. 오지도 않을 곳에 씨붙임은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속대사였습니다.

나는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다, 십중팔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신원도 올 수 있고 소부대도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이 이런 무인지경을 지나다가 배가 고플 때 감자도 캐먹고 호박도 따먹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해주군 했습니다. 우리는 부대가 한번씩 지나간 곳에 1호도로, 2호도로, 3호도로, 15호도로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통신원들이나 소부대동무들이 어디에 가서 공작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어느 길로 갔다왔는가고 물어보면 3호도로로 갔다왔다든지 15호도로로 갔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지 않았는가고 하면 그전날 장군님께서 부대를 인솔하고 행군하다가 숙영할 때 일구게 한 밭에 들려 호박을 따서 삶아먹었다든가 감자를 캐서 구워먹고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 식량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우리는 자작나무진까지도 먹었습니

다. 자작나무진은 약재로 뿐 아니라 식량보탬으로도 썼습니다.

우리는 눈무지속에서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따낸 조이삭을 찧어 죽을 쒀먹었습니다. 발방아도 물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였습니다. 한 주일가량 죽을 쒀먹으면서 지냈더니 좀 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쌀마저 인차 거덜이 났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청봉밀영에 가서 감자를 한 배낭씩 얻어가지고 가는 것뿐이였습니다.

우리는 청봉밀영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강을 하나 만났습니다. 강을 당장 건너야겠는데 물이 얼지 않아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산골물은 원래 겨울에 복판이 잘 얼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자니 적의 보초가 있을 것 같아 선뜻 용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방법은 다리를 돌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사람한사람씩 기여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우리 일행이 다리를 건너서자 적들이 인차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뒤에 달고 재빨리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감자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심은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는 사이에 일부 대원들을 떼내여 감자를 한짐씩 지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는 집도 없고 감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밀영에 가있던 후방조성원들이 다 캐먹었던 모양입니다.


오중흡

토벌대는 어느새 뒤에 따라와서 기관총을 막 쏘아댔습니다. 그러니 야단이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이제는 골짜기로 빠져서 저기 버덩쪽으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느라면 날도 저물 것이다, 그리고 길도 나질 것이다, 눈은 깊은데 먹을 것은 없지 그런데다가 토벌대가 자꾸 뒤쫓아오니 신작로로 나가 강행군을 해서 멀리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행군을 하다가 산림부대들의 병영을 만났습니다. 장졸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어디론가 다 달아나버리고 병실들은 텅 비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영에 갈비를 비롯하여 먹을 것은 많았습니다. 이거 일본놈들이 독약을 쳐놓고간 음식이 아닌가 하고 몇 동무가 말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구들에 투전장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산림부대가 있던 병실이 틀림없었고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도망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구들도 따끈따끈했습니다.

놈들이 추격해오지만 않는다면 한잠 푹 자면서 피곤을 풀다가 가고싶은 아늑한 병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식탁우에 푸짐히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을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눈으로 얼핏 가늠해보니 사령부성원들이 이틀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음식을 다 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산림부대병실을 나서자 적들이 또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정말 지독한 추격이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땅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만두나 건빵 한 개를 먹을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령부가 적의 추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가재수에서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 하나가 적들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김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후 장백에서 입대한 사람입니다. 입대전에는 지하혁명조직에서 일을 했고 입대후에도 싸움을 괜찮게 한 사람이였습니다. 몇 해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함께 싸우다가 지하공작에 파견되었던 사람인데 적들에게 잡힌 다음 지조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적들에게 우리의 행방을 대준 모양입니다.

적들은 장백일대에서 제일 크게 총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오중흡이네 연대가 가짜사령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토벌역량을 몽땅 우리한테로 집중하였습니다. 적의 비행기도 매일같이 우리쪽으로만 계속 날아왔습니다. 사처에서 적들이 우리 사령부쪽으로만 몰려들다나니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청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본 오백룡까지도 얼굴색이 꺼멓게 질려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는 판이라고 생각한 지휘관들은 모두 내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선동연설이라는 것은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쉴참에 사령부성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수풀속에 들어있는 바늘은 만쌍의 눈이 밝혀도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잘만 꾀를 쓰면 대밀림과 대적의 무리속에서 능히 바늘처럼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이순신장군은 명량해전때 적은 배를 가지고 수많은 왜군의 함대와 싸워이겼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대세를 역전시키었다. 이것은 세계해전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이다. 이순신이 무슨 수로 적을 이겼겠는가. 물론 지혜와 책략, 용기로 이겼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애국심이었다. 왜적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놈들의 노예가 된다는 분발심으로 적을 이긴 것이다. 애국심이 강했기에 지혜와 용기도 최대한으로 발동된 것이다.

애국심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험악하다. 그러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으면 우리도 능히 대세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행군을 계속하자…

이런 연설을 하자 대원들은 장군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는 장군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행군길에 나섰습니다. 그런 말에 나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으로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유격전쟁이 창조한 모든 전법과 전술의 종합적인 시험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묘술을 썼는가 하는데 대하여 두어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행군도중에 행처를 감추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는 발자국자리를 메우거나 지워버리면서 슬쩍 사라지는 방법도 있고 자빠진 강대나 진대나무를 타고 옆으로 빠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들을 골탕먹이는데서 그 중 통쾌한 방법은 앞뒤에서 나타난 적들이 제편끼리 맞붙어 싸우도록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빠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망원전술이라고 하는데 적들끼리 싸우게 하고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장백현 홍토산자와 부후물등판에서 적들을 골탕먹일 때 쓴 수가 바로 그런 수였습니다.

홍토산자는 이름 그대로 덩지가 큰 번대머리산입니다. 그때 우리는 추격해오는 적을 뒤꼬리에 단 채 그 산을 두 바퀴째 돌다가 앞에서도 적이 나타나자 진대나무를 타고 슬쩍 옆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를 앞뒤에서 공격하다가 외통길에서 마주치게 된 적의 두 부대는 서로 상대를 인민혁명군으로 알고 맹렬한 총격전을 벌이었습니다. 상대가 제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벌이는 맞불질이니 그야말로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후물등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싸움을 벌이었습니다. 적의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떼여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토산자에서처럼 부후물등판두리를 빙빙 돌게 하였습니다. 한 두어 바퀴 돌았을 때 새로운 토벌대의 무리가 나타나서 우리와 우리를 뒤따르던 본래의 적들짬에 끼여들었습니다. 부후물등판두리를 한

바퀴 돌자면 하루걸음이 잘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없는 두 무리의 적이 겹쳐서 추격하는 괴이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동무들에게 등판을 계속 돌게 하면서 각자가 발구채만한 나무대들을 한대씩 찍어 메게 하였다가 나무그루와 나무그루사이에 건너놓고 슬쩍 옆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포로 몸을 가리우고 숲속에 숨어서 생보리를 씹으며 휴식하는 동안 서로 꼬리를 문 두패의 적들은 제편끼리 기를 쓰고 맞불질을 하였습니다. 제놈들끼리 벌이는 개싸움을 멀리서 구경만 했는데 우리는 총 한방 쏘지 않고서도 숱한 적들을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부후물등판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손실을 당했던지 적들은 우리가 너무나 감쪽같이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는 묘수를 쓰기 때문에 도저히 잡아낼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묘한 싸움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여 적의 많은 유생역량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병력후비는 많았습니다. 땅보다 사람이 많아서 해외팽창을 해야겠다고 떠든 일본이었으니 아무리 토벌군을 없애버려도 인차 보충하군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산중에서 싸우는 우리는 한 사람만 죽어도 병력을 인차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부후물등판싸움을 치른 다음 나는 부대를 데리고 밤새껏 강행군을 해서 가재수쪽으로 쭉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야산지대쪽으로 행군방향을 자꾸 유도하게 되자 대원들은 나에게 장군님, 그쪽으로 빠지면 버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집단부락에 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지금형편에서는 수림지대에 있는 것보다 야산지대로 쭉 빠지는 것이 상책이다, 이대로 추격만 받다가는 우리가 피동에 빠져 아무 것도 못한다, 적은 병력이 많아서 매일같이 토벌대를 갈아대는데 우리야 갈아댈 역량이 있는가, 그러니 인원의 손실밖에 날 것이 없다, 오늘 한 명 죽고 내일 한 명 죽고 모레 한 명 죽고 이런 식으로 역량이 졸금졸금 없어진다면 나중에 몇 사람 남겠는가, 7연대와 8연대 동무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곤궁에 빠져있는 줄은 모를 것이다,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연락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방법이 있는가, 적들을 수림지대에 떼내깔리고 야산지대에 나가야 한다, 적들이 야산에는 주의를 덜 돌리니 그런데로 나가야 우리가 당분간 숨을 돌리면서 역량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지구가 가까운 곳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재수부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야산에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키가 한질반쯤 되는 소나무와 가둑나무들이 꽉 들어선 소담한 야산이었습니다. 산아래는 벼랑이었고 벼랑밑에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가재수부락에서 개가 짖으면 그 야산에서도 다 들리였습니다. 가재수를 물방아간동네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면 천막을 치고 날샐녘이 되면 천막을 거두어 짐을 꾸려놓고 전투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였습니다. 남패자를 떠난 이후 천막을 치고 지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얼마간 피로를 풀었습니다. 나는 사령부성원들과 마주앉아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전술적 문제들에 대해서 무시로 토론하였습니다. 음력설이나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방에 널려있는 부대들을 불러 도처에서 적들을 답새기고 파괴된 조직들도 복구하면서 국경연안과 조국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거덜나서 야단이었습니다. 당장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

는데 우리에게는 한 되박의 쌀도 없었습니다.

나는 경위중대 정치지도원 이봉록을 가재수마을에 내려보냈습니다. 가재수부락에는 김일동무가 꾸려놓은 지하조직이 살아있었습니다. 안 무엇이라는 지하조직원도 그 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던 농민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산림대에 납치되어 갔을 때 그 산림대의 두령에게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빼내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두령은 전날 우리한테 톡톡히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나의 편지를 받자마자 그 농민의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농민은 김일의 영향밑에서 혁명사업을 돕던 사람이였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인차 지하조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봉록

나는 이봉록에게 가재수에 가면 물방아간주인을 만나고 안 무엇이라는 농민과도 연계를 취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봉록은 산에서 내려가자 우선 물방아간부터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는 물방아간주인을 만나자 산에서 싸우다가 적들의 토벌도 심하고 식량곤란도 심해서 이렇게 인가를 찾아왔다고 아리송하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 밤손님이지만 허물하지 말고 말이나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봉록에게 귀순하러 내려왔는가고 냉냉하게 물었습니다. 이봉록은 상대의 마음을 중떠보느라고 일부러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방아간주인은 그 대답을 듣고 몹시 섭섭해했습니다. 산에서 고생이야 막심하겠지만 그렇다고 귀순해서야 되겠는가, 나라를 찾자고 일단 총을 잡았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뒤를 잘 꼬아야지 이왕 하던 일을 중도반단해서야 되겠는가, 고생스럽더라도 귀순하지 말라고 이봉록을 설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건재하신가고 물었습니다.

리봉록은 장군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혁명군을 인솔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적들을 답새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물방아간주인은 그것 보라, **김**장군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군을 그냥 영솔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자기 대장을 버리고 귀순하는게 말이 되는가고 하면서 이봉록을 면박하였습니다.

상대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리봉록은 나는 산에서 귀순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다, 산에는 나의 전우들이 있다, 돈을 줄테니 식량을 좀 구해주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방아를 찧어주고 삯으로 받는 쌀을 겨속에 묻어둘 터이니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지고가군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방아간주인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였습니다.

이봉록은 가재수마을에 내려가서 식량공작을 하는 과정에 물방아간주인이 조국광복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무엇이라는 농민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혜산사건 이후에도 가재수조직이 그냥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우리 공작원들이 조직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물방아간주인에 대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됐다, 우리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우리는 이긴다, 이제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방아간주인은 식량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셈입니다. 그 사람이 식량을 해결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장기나 꼬니

를 두면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배포유하게 설계할 엄두도 못내였을 것입니다. 십중팔구는 아마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물방아간주인 뿐 아니라 온 가재수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나섰습니다. 어느 날 이봉록은 가재수사람들이 식량도 마련하고 설음식도 준비해놓았는데 가지러 가게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 수십여 일을 생쌀과 날고기와 맹물로 끼니를 이어온 대원들을 생각하면 가재수사람들의 성의를 밀어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설음식을 그대로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가재수사람들의 덕으로 1939년 음력설은 궁색스럽게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대원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던 한이 그제야 좀 풀리는 것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재수사람들의 그 성의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봉록이랑 함께 마을로 내려갔던 이호림이 그만 도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봉록은 빈몸으로 돌아와서 이호림이 도주하는 바람에 식량이고 뭐고 다 내깔리고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령부경위대원들 중에서 도주자가 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행군이 아무리 간고해도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변절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때에는 우리 대내에서 도주자가 4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달아나지 않던 사람들이 왜 달아났는가 하면 무서운 고난을 더는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호림은 유격대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선에서 온 대원이라고 해서 좀 표가 날 정도로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는 일본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요해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게 과업을 주군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두 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주대에 올라가 적들의 전화를 도청하군 했습니다. 건장하고 유식해서 지휘관감으로 점을 찍어두고 있었는데 혁명이 다 망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꽁무니를 뺐던 모양입니다.

이호림이 변절하는 바람에 우리는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한시바삐 거처를 옮기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재수마을 뒤산을 떠나 무연한 벌판을 백일행군으로 돌파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들이 오건말건 내처 걸으라고 했습니다.

적이 대부대역량으로 공격해올 때 분산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유격전술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때에도 그 원칙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덕으로 적들의 토벌역량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산활동을 하는 과정에 역량이 얼마 안되었던 우리 사령부는 자체의 존망을 판가름하는 어려운 고비에 여러 번 부닥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적들이 우리가 사령부라는 것을 알고 총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대정자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할 때 전술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분산활동이 대부대공격에 대처



12도구전투장

하는 유격전의 한 개 전술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천편일률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사령부가 대부대의 후원이 없이 단독으로 분산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험은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는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면서 아무리 원칙에 맞는 전술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용하는데서는 교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우리가 백일행군을 방금 시작했을 때 도주자가 또 생기였습니다. 이교관이라고 왕덕림이 보낸 북경대학 졸업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뛰고 중국인대원이 대오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열에는 부상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량이 조금만 더 줄어든다면 보초교대도 못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오백룡

오백룡은 행군명령이 떨어지자 나보고 장군님, 우리가 행군을 시작하면 포대에서 철알이 우박같이 날아오겠는데 어떻게 저 벌판을 돌파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는가, 앞뒤에 기관총을 한 정씩 세우고 적이 앞으로 오면 앞에서 쏘고 뒤에서 오면 뒤로 쏘면서 강짜로 행군해야지 별 수가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가재수의 적들은 포대에서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면서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력은 토벌에 참가하느라고 산에 다 가있고 부락에는 역량이 얼마 없는데다가 우리의 기세에 압도되다나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대낮에 벌판을 뻐젓이 지나 수림지대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잠시 휴식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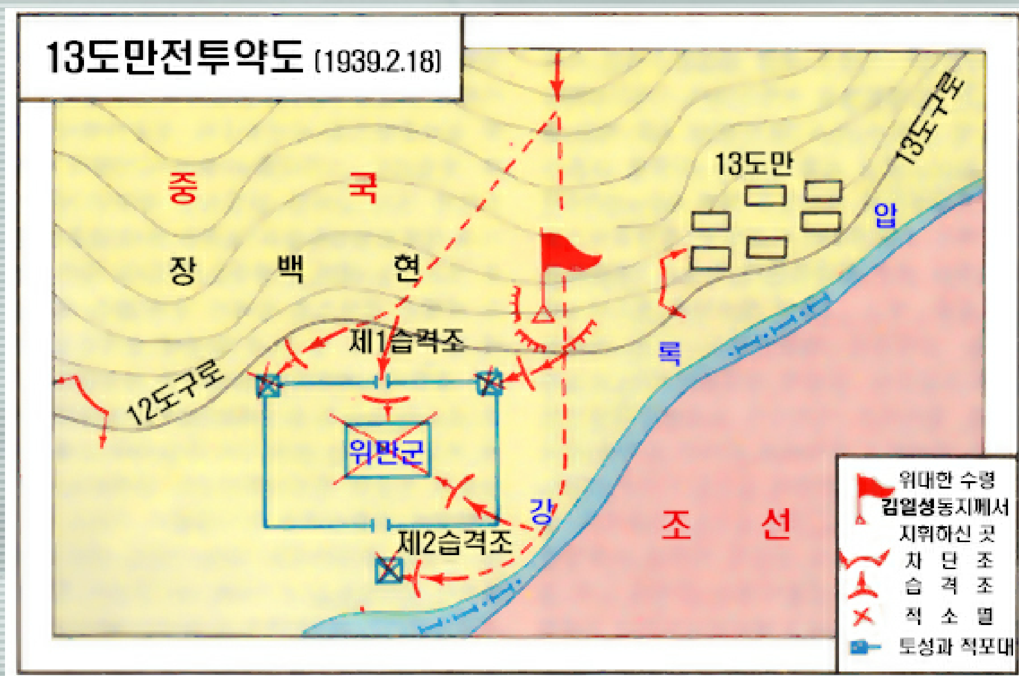
이런 경우를 두고 아마 천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판을 무난히 통과하고 나니 우리자신도 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꼭 불질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불질은커녕 재채기소리도 내지 않고 포대에서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기만 했으니 왜 어리둥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유격투쟁을 하느라면 이런 경우를 가끔 당하게 됩니다.

벌판을 무사히 통과한 대원들은 또다시 하느님이 혁명군편을 들어주었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을 때 너죽고 나죽고 결판을 내자,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는가 하는 배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대담하게 냅다밀면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림지대에서 벗어나 다시 행군을 하고 있을 때 적들이 우리의 뒤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대열에서 도주한 자들이 우리 행군방향을 대주면서 **김일성**이 지금 대부대는 다 떼내깔리고 몇십 명만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인제는 제낄 수 있다고 귀띔질한 모양이었습니다.

얼마후에는 우리의 앞에 적들이 나타났다는 전방척후들의 보고가 또 날아들어왔습니다. 적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다면 그것은 야단이었습니다. 오백룡은 또다시 내 얼굴을 보면서 장군님, 이제는 우리가 사령부라는 것도 다 들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생결단을 하는 것밖에야 다른 길이 있는가, 앞에서 오는 놈들은 우리를 생판 모르는 놈들이고 우리와 조우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놓고 오는 놈들이다, 뒤에서 따라오는 놈들은 우리 역량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때문에 그놈들과 본격적인 대항전을 하기는 곤란



하다, 그러니까 다른 도리가 없다, 한 개 분대쯤 되는 인원을 떼서 뒤에 있는 놈들을 견제하게 하고 기본역량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주 오는 앞에 놈들을 제껴버려야 한다, 그래야 포위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일본군 토벌대였지만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만주국군대였습니다. 만주국군대는 우리 부대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즉 약한 고리는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부대를 데리고 앞을 돌파하라, 약한 고리를 답새겨서 조금만 주춤거리면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돌격해서 적들의 병영까지 따라가 혼쌀을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은 대열앞에다가 기관총을 걸고 적들을 한바탕 족친 다음 나팔을 불면서 돌격을 들이댔습니다. 만주국군대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자 우리가 굉장한 대부대인줄로 알고 지고 있던 배낭이며 짐짝들을 다 내던지고 퇴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던지고 간 배낭들에서 먹을 것들을 걷어서 걸머지고 꿰진 신발까지 갈아신고 대통로가 있는데까지 적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도리어 적들을 추격하는 주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전술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적들을 따돌리는 전술로부터 선손을 써서 적들을 답새기는 주동적인 공격전술로 넘어갔습니다. 묘술을 써서 적들을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전술만으로써는 대오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병서들에도 강한 적의 예봉은 피하고 교란하여 피로케 만들며 적이 동요하면 드센 공격을 들이대고 적이 퇴각하면 맹렬히 추격하며 강한 적을 약한 적으로, 아군의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것이 상등의 용병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술을 광범하게 활용하여 고난의 행군때에도 어려운 고비들을 수없이 이겨내고 피동에서

벗어나 주동을 장악하군 하였습니다.

나는 집단부락을 하나 들이쳐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는 한편 식량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음력설이 오늘내일하던 때여서 여러 달째 주림에 시달려온 대원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조직한 전투가 바로 13도만집단부락습격전투입니다.

우리는 전투에 앞서 적들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12도구로 철수해간 위만군장교가 임강현에 있는 자기 상관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보고하기를 **김일성**부대와 우연히 맞다들었는데 어떻게나 공격을 드세게 하는지 견뎌내지 못하고 퇴각하여 12도구에 와있다. 차후행동에 대한 지시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장교는 이웃 집단부락에도 전화를 걸어 빨치산이 습격해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가까이에 있는 적을 치고 연이어 다른 부락도 하나 더 쳐서 많은 식량과 식료품을 노획하였습니다. 식료품중에는 적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놓은 교즈도 있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더러는 눈속에 파묻고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13도만전투에서 노획한 식량과 식료품으로 그 해 음력설을 푸짐하게 쇘습니다.

유격투쟁이라고 해서 노상 고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못먹고 못입는 것이 일상사이기는 하지만 배불리 먹고 뜨뜻이 입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13도만전투가 있은 후 적들은 우리 사령부에 이전보다 더 많은 토벌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토벌대뿐이였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검질기게 우리를 따라오는지 우리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지에서 며칠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령부 대오는 그런 곤란속에서도 피동에 빠지지 않고 집단부락을 또 하나 들이쳤습니다. 분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대들에 우리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싸움이였습니다. 그 부락이름이 무엇이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백현 상강구일대에서 활동하던 오중흡의 7연대가 사령부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령부에 쏠리는 적의 역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집단부락들을 또 들이쳤습니다. 그 전투들은 우리에게 자기네 부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7연대가 사령부를 찾아온 다음에는 무송쪽에서 활동하던 8연대와 독립대대도 우리를 찾아왔고 청봉밀영에 있던 후방성원들까지 다 북대정자에 모이였습니다. 대열을 점검해보니 전해에 몽강현 남패자를 떠날 때의 인원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패자를 떠났던 대원들의 거의 전부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일전쟁기간에 이별도 많이 해보고 상봉도 많이 해보았지만 아마 그때의 그 상봉만큼 격동적인 상봉은 없었을 것입니다. 북대정자는 온통 축전마당처럼 흥성거렸습니다. 100여 일동안이나 사지에서 고생하다가 만난 대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웃기도 하고 딩굴기도 하면서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고생끝에 이루어진 상봉일수록 그 열도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동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면 서로 헤어져 있어도 보아야 합니다. 피를 나눈 동지들이 서로 이별도 하고 상봉도 하는 과정에 동지애는 더 공고해지고 열렬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동지애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부대의 이동을 위한 단순한 행군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옹근 하나의 전역과 맞먹는 규모가 큰 군사작전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축도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군과정에 우리는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도 다 겪었고 인간으로서 체험하게 되는 온갖 시련도 다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들이며 자기 민족과 민족해방위업에 가장 충실한 혁명투사들임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높은 경지에서 연마하였습니다. 이 행군과정에 형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아름다운 영상은 우리 인민이 후손만대를 두고 따라배워야 할 공산주의적 인간의 훌륭한 전형으로 되었습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지도자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 적들을 타승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며 항일혁명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이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다 영웅들입니다.

모든 대원들이 만난을 이겨내고 불사신으로 살아남아 승리자로 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요인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적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난을 이겨내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무서운 곤란을 겪으면서도 항상 낙망하거나 비관에 잠기지 않고 승리할 앞날을 그려보며 그 모든 곤란을 이겨냈습니다. 말하자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강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당면한 난관에만 집착하여 맥을 놓았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전망을 암담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그처럼 엄청난 시련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눈구뎅이속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감지을 수 있은 요인으로는 혁명적 동지애도 들 수 있습니다. 행군을 끝내갈 무렵 오중흡이네와 만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나도 그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육친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가왔습니다. 너무 반가와서 가슴이 빠근했습니다. 나는 그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귀중한 전우들과 다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해 겨울 전우들에게 분산활동을 시키고나서 내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해 겨울처럼 전우들을 목마르게 기다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무들 중에도 제대군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우애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렬한 감정인가를 잘 알고 있겠지만 세상에 전우애보다 더 열렬하고 생명력이 강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들 사이에 오가는 도덕의리보다 더 숭고한 도덕의리는 없을 것입니다.

혁명적 동지애는 항일혁명 전노정을 관통해온 승리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과정에는 우리 대원들의 도덕의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발양되었습니다. 한 홉의 미시가루와 같은 일화는 그 시기에 창조된 무수한 미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령병들이 사령관을 위해 배낭속에 한 홉쯤 되는 미시가루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원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설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두 번만 있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때 우리 동무들은 자기 전우를 위해 살이 필요하다면 살이라도 떼여주었

을 것입니다. 자기를 깡그리 바쳐서라도 혁명동지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혁명적 동지애입니다.

언제인가도 이야기하였지만 이을설은 한 신입대원이 불곁에서 자다가 옷을 태우고 우들우들 떠는 것을 보자 자기 솜옷을 벗어 그 동무에게 입혀주고 무서운 혹한속에서 홑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얼어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무들이 또 그에게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인 사랑을 기울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100여 일에 걸친 행군의 전 행정에서 모두가 한 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먹는 정신으로 살며 싸웠기 때문에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헤진 옷을 입고 혹한속을 헤치고 다녔지만 늘 몸이 훈훈했고 마음은 후더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불사신처럼 살아남을 수 있은 비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죽음을 타승하게 한 것입니다.


이을설

동지애로 뭉친 집단,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된 대오는 필승불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지원이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과정에 가재수의 물방아간주인과 같은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우리 군대만 참가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행군에는 인민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쌀이나 소금이나 신발이나 천과 같은 후방물자를 지고 사선을 헤치며 우리를 찾아온 이도화원과 요녕구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모두가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자구등판과 천교령에서도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구원자, 방조자, 동행자로 나선 것은 언제나 인민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인민이 있는 한 우리가 고난의 행군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다듬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승리한 행군으로 될 수 있은 것은 또한 부닥치는 정황에 맞는 영활한 유격전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고난의 행군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수십만의 일본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추격하였지만 오늘은 그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이 막강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세력이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시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일혁명선열들이 고난의 행군과정에 발휘하였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전쟁시기 뿐 아니라 새 조국 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낙관주의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천천히 사색 깊게

작사 리정술, 작곡 리학범

1. 반 리 광야에 눈보라 세찼네 ─ 모진 시련도 혈전도 많았네 ─ 장군별을 우러러 떠나온 길 ─ 항도 성─을 우리─리 이 이 가네 ─

(후렴)
수령님을 따라서 천 반─리 ─ 우리 당─을 따라─서 천 반─리─ 2붉
천 반 리 ───

2. 북만원정을 헤쳐 온 투사도
험한 락동강 넘어 온 전사도
당중앙을 받들어 나가는 길
걸음마다 승리로 빛내가네
(후렴)

3. 우리 수령님 찾아 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 준 락원에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여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 가네
(후렴)

4. 백두밀영에 타오른 그 불빛
우리 당중앙창가에 빛나네
온 세상에 찬란한 그 빛발은
인민들이 나갈 길 밝혀 주네
(후렴)

2. 청봉의 교훈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항일혁명역사를 서술한 도서들과 교과서들에는 청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의 두 사적지가 나온다.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실 때 첫 밤을 보내신 유서깊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청봉숙영지이고 다른 하나는 항일유격대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후방밀영으로 개척한 서간도의 청봉이다.

삼지연군의 청봉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렇지만 서간도의 청봉에 가본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다. 그 밀영이 고난의 행군과 함께 항일혁명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거기서 혁명가의 신념과 충실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사건이 벌어져 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기 때문이다. 그 교훈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청봉밀영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청봉밀영으로 보냈습니다. 청봉밀영은 우리의 후방기지였습니다. 백두산주변과 서간도일대에는 그런 후방밀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봉밀영에는 우리 부대의 후방일군들이 감자를 심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이 몇 달쯤은 식량고생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였습니다.

1939년의 13도만집단부락습격전투가 있은 후 나는 전리품들 중 일부를 따로 떼내여 청봉으로 보냈습니다. 청봉에 감자농사를 지어놓은 것이 있다지만 맨 감자로야 어떻게 음력설을 쇠겠습니까. 그래서 색다른 식료품들을 골라 밀영의 전우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짐을 지고 청봉밀영에 갔다온 사람은 부대통신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청봉에 다녀온 통신원은 사령부에 나타나 밀영에서 간첩단사건이 발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령부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눈이 휘둥

그래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영솔하는 혁명군대안에서 간첩단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거야말로 엄중한 사태일 것입니다.

통신원은 간첩단사건의 전말을 요약한 이동걸의 편지와 함께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하는 독약봉지라는 것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동걸의 편지에는 여대원들인 **김정숙**, 김혜순, 김선, 서순옥 등이 모두 일제의 간첩이라는 것과 그들이 독약으로 혁명전우들을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원의 말이 자기가 청봉에 갔을 때 그 여대원들은 포승줄에 묶이어 있었고 고문을 받은 흔적까지 있더라는 것이였습니다.


김혜순

그 보고를 받는 순간의 충격은 장포리나 한봉선과 같은 투사들을 민생단으로 몰았을 때의 충격보다 몇 곱절 더 큰 것이였습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생단문제는 1936년의 남호두회의를 종점으로 하여 이미 결속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부터 민생단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했습니다. 민생단소동으로 해서 받은 손실이 너무나도 크고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봉에서 민생단과 맞먹는 간첩단이라는 것을 적발했다고 하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청봉에서 적발해냈다고 하는 간첩단사건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대원들을 간첩으로 낙인한 밀영지휘관들의 주장에는 믿을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보내준 독약은 사실상 독약이 아니라 치분가루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 가루를 혀끝에 대보기까지 했는데 틀림없는 치분이였습니다. 치분가루를 독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청봉의 여대원들은 혁명실천을 통해 충분히 단련되고 검열된 대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다 혁명 하나밖에 모르는 여성들이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이상은 조국을 해방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이 아니고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총을 메고 설피를 신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씹으면서 시집갈 나이에 시집도 가지 않고 남성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풍상고초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김선

이런 여성들에게 간첩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완전한 억지였을 뿐 아니라 모독이고 우롱이었으며 범죄였습니다.

김정숙이 어떤 여성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적 처지라든가 투쟁경력으로 볼 때 그는 적과 내통할만한 사소한 이유도 없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은 사람이 간첩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김혜순이나 김선이나 서순옥이도 혁명적 각오가 높은 여성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나쁜놈들의 수작질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였습니다.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것도 역시 언어도단이였습니다.

이런 여대원들을 간첩으로 본다면 간도에서 숱한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던 김성도나 조아범의 망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대에는 적의 간첩으로 전락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격구 시절에도 그랬고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그랬고 우리 여대원들속에서는 배신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대오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가운데 여대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임수산이 적들에게 투항해갈 때 자기와 가까이 지내던 여대원을 한 명 데리고 달아났지만 그 여자도 유격대에 있을 때 간첩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대원들은 남대원들보다 고생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정들에서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생각하면 내 말을 누구나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이 사회사업에 종사하면서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을 거의 도맡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어머니들과 안해들, 누나들의 수고야 어디 가겠습니까.


서순옥

항일혁명시절에도 부담은 여대원들한테 더 많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여대원들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도 작식은 작식대로 하였습니다. 화식도구나 식량도 대부분은 여대원들이 지고다니었습니다. 남대원들이 피곤에 몰려 우등불 옆에 쓰러져 잘 때에도 여대원들은 남대원들의 찢어진 옷을 깁느라고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찢어진 옷은 바느질로 꿰매주면 되었지만 불에 탄 옷은 천을 덧대야 했습니다. 덧댈 천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치마자락을 잘라내였습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후부터 군복을 공급할 때 여대원들에게는 치마를 두벌씩 내주게 하였습니다.

여대원들은 고난도 남대원들 못지 않게 이겨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남대원들보다 더 이악했습니다.

여대원들에 대한 말이 난 김에 최순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순산은 이름난 병기창일군인 송승필의 안해입니다. 그는 연길지방에서 지하당사업도 하고 작식공작도 하고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사업에도 참가한 오랜 당원이였습니다. 연길출신투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책임성이 높고 강인한 여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최순산은 유격대에 입대한 후에도 작식공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행군의 쉴참에 그는 저녁준비를 하느라고 쌀을 씻다가 바늘에 손바닥을 찔리웠습니다. 부러진 바늘토막은 살속에 깊이 박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바닥에 박힌 바늘토막을 뽑아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밥을 빨리 지어야 부대가 다음단계의 행군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산

최순산은 그날부터 살을 쑤시는 아픔 때문에 여간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여자들 같으면 당분간 밥을 짓지 못하겠다고 하소연 할 터인데 이 무쇠같은 여대원은 바늘에 손을 상했다는 하소연도 하지 않았고 손바닥에 들어간 바늘을 뽑아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대장이 작식시간이 늦어진다고 나무람을 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손을 놓게 되면 다른 전투원 한 명이 자기를 대신해서 작식공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늘은 손등거죽까지 뚫었습니다. 뾰족한 바늘끝이 손등우에 내밀렸을 때에야 그는 전우들에게 바늘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전우들이 달라붙어 동집게로 뽑아냈습니다.

부러진 바늘토막을 살속에 두고도 아픔을 남모르게 참으면서 보름 동안이나 전우들에게 밥을 지어준 여인,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항일전쟁의 불길속을 헤쳐온 여투사들의 초상입니다.

이런 여투사들에게 간첩이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밀영책임자인 엄광호는 몇 해 동안 정치사업을 한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 아무 건덕지도 없는 여대원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간첩으로까지 몰아댈 수 있는가. 그래 그는 자기가 포승으로 묶어 귀틀집에 가두어넣은 여대원들이 혁명앞에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한 애국자들이란 것을 모른단 말인가. 엄광호의 증언대로 그들이 만일 간첩이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송승필

이동걸의 서면보고만 보고서는 진상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고 뭐가 뭔지 통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로 김평을 불러 사태의 진상을 조사할 것과 간첩단을 적발해냈다는 밀영책임자 엄광호와 정치책임자 이동걸, 그리고 구속된 여대원전부를 사령부로 소환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어 사건현장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김평이 돌아온 다음 나는 사건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청봉밀영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상상이외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청봉밀영은 엄광호가 책임지고 있는 밀영이였습니다. 우리가 엄광호를 후방밀영책임자로 보낸 것은 그의 병집을 고쳐주기 위해 취한 하나의 동지적 배려였습니다. 그는 사상상에서나 작풍상에서나 병이 단단히 든 사람이였습니다.

엄광호는 우리가 도저히 눈을 감아줄 수 없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악습이였는가? 종파적 습성이였습니다. 종파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체하면서 남을 깔보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남을 깔보다나니 자꾸 동지들을 깎아내리게 되고 동지들이 하는 일을 시비하게 됩니다. 종파적 습성에 물젖은 사람들한테는 예외없이 출세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기회가 차례지지 않게 되면 남을 등에 업거나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벼슬자리를 따내려고 애씁니다. 종파분자들이 야심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엄광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엄광호는 혁명대오에 들어서던 첫 시기부터 야심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길지방에서 5.30폭동바람을 타고 혁명운동에 뛰어든 그는 한때 독립1사에서 중대정치지도원을 한 일도 있었으나 처음부터 인망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전우들을 까닭없이 헐뜯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자기라고 하면서 혁명동지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는 인간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엄광호는 반민생단투쟁까지도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아댔습니다. 민생단원들을 고발하고 단죄하는 모임들에서는 그의 초당적인 목소리가 제일 높이 울리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조직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동지들을 고의적으로 버리었지만 조직은 그를 관대히 용서해주고 그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안산일대에서 새 사단을 편성할 때 엄광호는 나를 찾아와 일을 성실하게 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자기 과오를 깨끗이 고쳐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그 믿음을 저버리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앞에서 쩍하면 호령질을 하였고 중대장의 사업을 잘 도와줄 대신 그 꼭대기에 앉아서 훈계질만 하였습니다. 투쟁연한이 길다고 선배연하면서도 힘든 일에는 어깨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전투장에서는 일선에 서지 않고 늘 총알이 미치지 않는 구석쪽에서 어물어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중의 거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정치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엄광호를 정치일군의 자리에서 떼고 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후방밀영에 가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청봉으로 보낼 때 부상자들의 치료와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고 후방일군들과 함께 농사를 잘 지어 부대의 식량예비를 마련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우리가 맡긴 일을 태공하였습니다. 그는 예비병실을 지으라고 한 사령부의 지시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도구치기에서 우리와 헤어져 청봉밀영에 간 부상병들과 재봉대원들은 숙소의 부족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었습니다. 그들은 엄동설한에 천막을 치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밀영에는 약품이나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속에서 단련된 유격대원들은 자그마한 불평이나 조건타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곤란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밀영의 생활일과를 엄격히 지켜나갔습니다. 학습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루속의 송곳은 못감춘다고 이 학습과정에 엄광호의 유해로운 사고방식과 패배주의자로서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밀영에서는 남패자회의방침과 관련된 학습토론을 하였습니다. 엄광호는 그때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어떤 혁명에나 고조기가 있고 저조기가 있기 마련이다, 고조기에는 고조기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저조기에는 저조기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정세의 변화를 보고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저조기의 징조가 보이면 저조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혁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저조기에 있다, 보라, 열하원정도 실패하고 혜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혁명조직들도 죄다 망가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래 저조기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형편에서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세와 정면대결은 피하고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때까지 퇴각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엄광호는 밀영안의 모든 성원들에게 이런 주장을 내리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열하원정과 혜산사건의 여파로 해서 혁명이 몹시 위축되어있던 때인 것만큼 얼핏 들으면 그것은 사리에 맞는 주장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밀영에 가있던 여대원들은 엄광호의 목소리가 사령부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밀영에 가있던 여대원들은 즉석에서 엄광호의 주장을 논박하였습니다. 객관적 정세가 혁명투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혁명가들은 정세가 불리하면 할수록 그에 반작용을 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이것은 사령관동지의 뜻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정세가 유리할 때에도 투쟁을 해왔고 정세가 불리할 때에도 투쟁을 계속해왔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정세가 불리할 때에는 숨어서 지내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만 활동했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상비적인 무장대오

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총검의 숲을 뚫고 국내에 나가서 보천보를 치는 것과 같은 대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맑스-레닌주의가 공산주의학설인 것만큼 혁명활동과 실천에서 그것을 지침으로 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도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지 덮어놓고 적용해서는 안된다, 동무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내용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조선혁명이 중중첩첩한 난관속에서 발전해왔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동무는 지금과 같은 정세하에서는 퇴각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퇴각할 후방이나 있는가, 우리가 퇴각하면 혁명의 고조기는 누가 마련해주는가, 남패자회의에서 사령관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난관을 맞받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노선이나 작전적 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상론자였습니다.

여대원들한테서 이런 반격을 당하게 되자 엄광호는 맑스와 레닌의 명제들을 이것저것 섬겨대면서 어떻게 하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말에서는 구린내가 더 났습니다. 야심가, 기회주의자로서의 엄광호의 정체는 논쟁과정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대원들은 그가 여름내 밀영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위한 치료준비와 겨울나이준비도 하지 않고 건달만 부린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광호에게 배신자나 투항주의자라는 정치적 감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학습과정에 진행된 논쟁인 것만큼 엄광호가 자기의 이론적 착오를 인정하고 동지들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였다면 논쟁은 그것으로 무난히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토론을 통해 발로되는 이러저러한 사상적 착오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수준과 준비정도가 각이한 것만큼 사물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사람이 처음부터 다 같이 사상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미숙성은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해 극복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원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원리에 어긋나는 모호한 소리가 나와도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논쟁의 방법으로 끝까지 깨우쳐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여대원들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상개조를 위해 힘쓸 대신 투항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에 분칠을 하려고 애쓰면서 논쟁상대들에 대한 보복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엄광호의 진면모는 여대원들을 박해하는 과정에 드러날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대원들을 박해하면서 저지른 망동은 간도에서 반민생단투쟁을 벌일 때 숙반공작위원회에 망라되었던 사람들이 한 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동기와 목적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비열하고 음험했습니다.

엄광호가 여대원들을 박해한 목적은 자기의 죄상을 가리우자는데 있었습니다. 엄광호는 여대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기 위해 죄를 날조해서 그들에게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는 여대원들이 죄인으로 되어야 자기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사령부에 보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입니까.

청봉밀영에는 어린 신입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린 대원이 엄광호

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일이 있었습니다. 엄광호는 대뜸 도주자가 생겼다고 떠들어대면서 수색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수색조성원들은 밀영근처에서 모닥불에 감자를 구워먹고 있는 신입대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 돌아가자 엄광호에게 신입대원이 잠시 대오에서 이탈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 시장기를 이겨내지 못해 감자를 구워먹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어린 대원은 배고픈 것과의 싸움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영을 깜짝 놀래울 수 있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던 엄광호는 그 신입대원을 끝끝내 도주자로 낙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대원이 감자를 굽느라고 불을 피운 것도 적들에게 신호를 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들이대면서 그에게 간첩의 딱지까지 붙이었습니다. 신입대원이 그렇지 않다고 거듭 항변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광호는 그 대원에게 적들에게서 받은 지령은 무엇이고 그 지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내에서 흡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대라고 강요하면서 고문까지 했습니다.

어제날까지 한 가마밥을 먹으며 지내던 자기 부하에게 표창은 주지 못할망정 도주자니, 간첩이니 하는 감투를 씌우고 모진 고문까지 들이댔으니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엄광호가 간첩이라고 선언한 그 신입대원으로 말하면 수양은 좀 어리지만 계급의식이 투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열에서 도주할 근거도 없었고 간첩으로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광호는 그가 여대원들을 암해공작에 끌어들이고 밀영안에 있는 혁명동지들을 독약으로 해치려 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백을 근거로 여대원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람과의 사업을 해오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부르짖던 엄광호가 어떻게 되어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는지 나는 그 까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날 그의 죄행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가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광호는 후방밀영에 가게 되자 그것을 강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를 정치일군의 자리에서 해임시킨 사령부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다나니 후방일군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건달을 부렸습니다. 여대원들과의 논쟁이 있은 다음부터는 패배주의자로서의 자기의 깨끗치 못한 본색을 감추기 위해 초혁명적인 요구를 연방 제기하였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실로 비상소집을 자주 해서 병약자들을 들볶는가 하면 식량절약을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하루 두끼씩 하던 식사를 한끼로 줄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정 굶기였습니다.

청봉밀영에 하루 한 끼씩 먹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식량의 예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쌀은 없었지만 움속에는 적지 않은 양의 감자가 있었습니다. 밀영에서 얼마쯤 떨어진 덕지대의 숲속에는 꽤 널직한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자농사도 하고 배추농사도 했습니다. 엄광호가 임무를 잘 수행했더라면 온 부대가 청봉에서 겨울을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광호는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단정한 그 순간부터 혁명에 염증을 느끼었고 국내외의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혁명의 전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적 병집이 결국은 학습토론과정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엄광호가 이처럼 위험한 전횡을 부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밀영의 정치책임자인 이동걸이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인 그는 직급으로 볼 때 엄광호의 상급이었습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7도구치기에서 분

산행동으로 넘어갈 때 밀영의 정치사업을 맡아할 데 대한 과업을 주어 청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동걸은 엄가의 아첨과 권모술수에 녹아서 사태의 진상과 본질을 가려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통신원을 청봉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엄광호의 모략이 실현되어 여대원들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는 과정에 나는 엄광호가 이종락이보다 더 저열하고 악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종락의 범행은 적들에게 체포되어 변절을 강요당한 후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혁명대열내부에 있으면서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되었고 그 부패변질을 가리우기 위해 동지들을 모함하고 학대하는 반동적인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동걸

민생단소동으로 간도의 유격구들이 진통을 겪던 1930년대 전반기를 제외하고 우리 대열내부에는 고문이나 형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열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오나 부족점은 해설과 설복, 비판의 방법으로 고쳐나갔습니다. 지휘관이 대원들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대원들과의 관계를 누가 누구를 하는 불상용적인 적대관계에 놓고 그들을 모해하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원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규율을 좀 어긴 신입대원들을 도주자로, 간첩으로 낙인하고 여대원들이 쓰던 가루치약을 독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루치약의 임자들인 여대원들까지도 간첩이라고 몰아댔습니다.

엄광호는 **김정숙**과 도천리에서 몇 달 동안 지하공작도 같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숙**을 간첩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무뢰한이나 할 짓입니다. 그는 **김정숙**이 어떤 여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는 사람이 출세욕에 빠지면 조직도 동지도 의리도 모르는 악한이 될 수도 있으며 혁명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엄광호 자신도 고백했지만 그는 여대원들에 대한 모략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할 궁리까지 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를 통해서도 느낀 바이지만 혁명에서는 초당분자, 과격파, 독선적인 인간, 양봉음위하는 자, 앞에서는 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끌어당기는 자, 기분주의자, 불평분자, 공명출세주의자들이 늘 말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엄광호사건은 또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상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불평분자, 의지박약자가 되어 어지간한 난관앞에서도 주저앉게 되며 나중에는 패배주의자가 되어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엄광호가 조작해낸 간첩단사건은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크게 해칠 뻔한 비상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광호에 대한 문제를 사령부 당위원회에서 심중히 검토한 다음 북대정자에서 열린 지휘관, 병사대회에 내놓고 군중심판에 붙이었습니다.

청봉밀영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모든 관병들은 최악의 역경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우리의 노선을 고수한 여대원들을 일치하게 지지하였

습니다. 그와 반대로 엄광호와 사태의 본질을 높은 정치적 안목에서 정확히 해부해 보지 못하고 그 범죄를 묵인한 이동걸에 대해서는 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엄광호는 처음에 자기의 죄과를 변명하느라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군중의 규탄을 받고서야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동걸은 처음부터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며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이었으며 자신을 심각하게 뉘우치었습니다.

이동걸은 속대가 단단하면서도 인정미가 있고 구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사업과 지하공작분야에서는 한다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우리가 남패자회의에서 오중흡을 7연대장으로 임명할 때 그를 같은 연대의 정치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자질과 풍부한 정치사업경험을 귀중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급지휘관한테 농락당하는 과오를 범한 것은 밀영에 가있는 동안 엄광호의 방에 숙소를 정하고 있으면서 그의 아부아첨에 녹은 데다가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물론 몸에 중상을 당한 사람인 것만큼 대원들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면 병실에 대원들을 불러서라도 자주 만나야 하였습니다.

밀영에서 간첩단사건이 발생했다고 엄광호가 수선을 떨 때 그가 대원 한 명만 만나도 진상을 인차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걸은 엄광호의 보고를 들은 다음 한 명의 대원도 만나지 않고 그가 마음대로 전횡을 부릴 수 있게 내버려두



신파혁명사적지1-도천리합숙

였습니다. 엄광호가 신입대원을 심문하겠다고 하면 심문하라고 하고 여대원들을 가두겠다고 하면 잡아가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동걸은 엄광호의 말만 듣고 대원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나니 엄광호와 같은 야심가의 농간앞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정치일군으로서의 이동걸의 죄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관병들은 엄광호를 보는 것과 꼭같은 시각으로 이동걸을 보았습니다. 정치일군이 군중과의 호흡을 잘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다루는 일군들은 군중과의 호흡을 한시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이란 인민이 삽을 들 때 자기도 삽을 들고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 자기도 조밥을 먹으며 모든 것을 인민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의 감정과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며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박해하며 그 비판의 도수에 따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희롱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어떤 일군들은 자기에게 알랑거리는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망탕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군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제멋대로 다루게 되면 인민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게 됩니다.

우리 당은 인덕정치를 하는 당이며 우리 나라는 인덕정치의 혜택아래 만민이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덕정치는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 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까지도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할 사명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곧 조직이고 당이며 매개 사람들은 그 집단속에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됩니다. 수백만 대중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생명이 그대로 조직의 생명으로 되고 당의 생명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함부로 칼질을 하거나 먹칠을 하는 것은 곧 당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당이 자기의 최고강령을 실현할 때까지 장수하려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잘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아닌 청봉의 교훈입니다. 동무들은 언제든지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오는 엄중했지만 이동걸은 용서할만한 인물이였습니다. 그가 과오를 범한 것은 정치책임자라는 자각을 버리고 엄광호한테 기만당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는 주동이 아니라 피동에서 엄광호에게 동조하고 그의 모략을 묵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이동걸을 강직시키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엄한 처벌을 면한 이동걸은 나를 찾아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좀더 무거운 책벌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저의 과오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전우들은 나를 용서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날처럼 동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이동걸은 그 후 사령부가 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8.15해방 전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동걸은 이동걸이라는 본명과 함께 김준이라는 이름도 썼습니다.

3. 소금사건

1949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내각소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소금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판매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체험한 데 의하면 소금이 떨어졌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쌀은 떨구는 일이 있어도 소금만은 떨구지 않기 위하여 애썼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예비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소금을 자유판매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소금을 자유로 팔고사는 조치를 취하신 수령님께서는 일군들 앞에서 고난의 행군 때 소금고생하던 일을 회상하시었다. 세칭 소금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연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신 회고의 말씀을 종합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소금사건은 1939년 봄 고난의 행군의 마지막 시기에 있은 일입니다. 그 소금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손발이 붓고 맥이 없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초식을 하는 짐승들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산속의 웅뎅이에 고여있는 염기있는 찝찔한 물이 있는 부근에 낙각이 많은 것은 사슴들이 염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격대의 생활에 4대필수품곤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식량곤란, 신발곤란, 성냥곤란, 소금곤란이였습니다. 그 네 가지 곤란가운데서 제일 참기 어려웠던 곤란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의 항일투사들이 소금곤란이였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워낙 북간도나 서간도 지방은 소금이 바른데다가 관청이 통제를 심하게 하다나니 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은 만주지방에서도 관청의 전매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주민지구의 소금이 인민혁명군의 수중에 넘어가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였습니다.

장사군들이 조선에서 소금을 밀수해다가 주민지구를 돌아다니며 더러 밀매를 하였지만 크게 보탬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간도오지에서는 소금대용으로 나무재를 우려먹는 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만에 있을 때 한세대의 식구가 돌소금 한 알을 가지고 한 끼를 굼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청에서 활동할 때 한번은 최

춘국이네 중대에 내려가 고현숙에게 작식대에서 제일 큰 애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니 첫 순서로 꼽는 것이 소금이였습니다. 고현숙은 오백룡이네 이웃에 살다가 적들의 토벌에 숱한 식구를 잃고 원쑤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한 여자입니다. 그는 입대하자 작식대원으로 임명되였는데 내가 중대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찬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못내 송구해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가 소금을 치지 못한 찬을 밥상우에 내놓은 것이 면구스러워 내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부뚜막앞에 서서 어쩔 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고현숙의 말이 자기네도 온 집안식구가 돌소금 한 알로 한 끼를 굼땔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돌소금 한 알은 보통 당콩알만치나 컸습니다.

2차 북만원정때 소금사정이 얼마나 곤란했던지 어떤 중대에서는 대원들이 저마끔 혁띠에 소금을 넣은 자그마한 비상주머니를 차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머니라야 손가락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도장주머니만한 것이였습니다. 비상주머니의 소금은 그 어디서도 염분을 섭취할 수 없는 막다른 경우에만 소비하였습니다. 소금고생을 해보지 못한 동무들에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옛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빨치산시기에 소금공작을 하느라고 적구에 내려갔다가 희생된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였습니다. 지하조직원들도 소금공작을 하는 과정에 많이 희생되였습니다. 소금을 구해들이는 기본통로는 지하조직선이였습니다. 지하혁명조직들에 돈을 주면 그 조직들이 군중을 발동하여 소금을 사다 놓았습니다. 물론 부대에 들어오는 소금중에는 인민들이 스스로 사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고현숙

적들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금을 구해들이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소금부족 때문에 얼마나 큰 곤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도 손금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들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인민혁명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무서운 작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적들은 소금을 가지고 모략을 잘 꾸미면 총 한방 쏘지 않고서도 혁명군을 몽땅 사로잡거나 전멸시킬 수 있다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순수한 군사정치적 대결만으로써는 우리 인민혁명군을 타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순공작도 벌려보고 집단부락정책이나 초토화작전도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민생단을 조작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는 민족이간전술로 우리의 혁명역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심지어 **김일성**사살설까지 퍼뜨려 우리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 저들한테 잘못된 것처럼 거짓보도를 날리고 이제는 **김일성**도 없어졌으니 독립투쟁도 끝장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선전을 하면서 조선민족의 반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만주의 적지 않은 출판물들은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잘못되였다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엮은 현지보도 형식의 글까지 뻐젓이 냈습니다.

1937년 11월에 경성일보는 만군토벌대가 무려 5시간의 격전끝에 우리를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쓰고 부자가 2대에 걸쳐 항일반만운동을 계속하던 **김일성**도 토벌군에 의하여 궁지에 몰리우다가 드디어 36살을 일기로 파란많은 생애의 막을 닫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만군이 발간하던 잡지 ≪철심≫도 ≪**김일성**비 토벌상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어쨌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상보에 의하면 ≪내가 무송현 양목정자부근에서 위만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고전을 겪던 중 부하 8명과 함께 잘못되었는데 부락민들을 불러다 확인해보니 **김일성**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로 해서 위만군 제7연대 중대장이었던 이아무개란 자는 관동군사령관, 만주국치안부 대신으로부터 특별승급과 상장을 받고 1만원의 상금을 타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김일성**이 다시 나타나 일이 참으로 맹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과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하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군대를 노린 것이고 전망적으로는 동양제패를 방해하는 온갖 적대세력에 대한 생리적 소멸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항일혁명의 불길을 끌 수 없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악에 받친 적들은 우물에도 독약을 치고 빵에도 독약을 치고 지어 소금이나 쌀에도 독약을 쳐서 들여보내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땅에 가자마자 적들의 농간질에 걸려들 뻔했습니다. 서간도에 나가서 첫 싸움을 대덕수에서 하고 연이어 소덕수전투까지 치른 다음 우리가 마순구라는 곳에서 추석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초장이 나한테로 뛰어와서 어떤 노인이 지금 보초소에 나타나 무작정 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나의 결론을 받으러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노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장백에서 구해들인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적들이 소금에 독약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독약이 들어있다는 소금을 짐승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에 독효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제때에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날 뻔하였습니다. 소금에 독약을 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멸살시켜보려는 적들의 시도는 우리가 소금곤란을 당할 때일수록 더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는 1939년 봄에도 소금이 떨어져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분산행동에로 넘어갔던 연대들이 한데 모여 사령부와 같이 움직이며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지어가던 때였습니다.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어서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는 식량도 해결되고 날씨도 푸근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다보니 다들 기분도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행군중에 있던 대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칠거렸습니다.

몇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숱한 사람들이 그러니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모두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부증이 너무 심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맥을 못추는 원인을 소금에서 찾았습니다. 부증이 심한 원인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령부성원들은 그때 열흘쯤 소금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오중흡에게 소금을 언제까지 먹었는가고 물어보니 7연대도 사령부와 헤어진 다음부터는 거의나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금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행군을 결속짓고 다시금 국내에 들어가 적들을 답새길 궁리를 하고 있는 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니 정말 기가 막히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소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대가 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적구에 나가 소금을 구해올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였습니다. 경위중대를 인솔하고 있던 오백룡이 김봉록이라는 신입대원을 추천했습니다. 김봉록은 노획물자를 지고 따라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청년이었는데 유격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활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오중흡도 그를 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가 서강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그가 가게 되면 소금을 꼭 구해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김봉록

김봉록을 불러 소금을 구해올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니 해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맘 때면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내려가면 밀정들의 눈에 걸려들지 않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만 만나게 되면 소금은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봉록에게 임무를 주면서 협조자를 한 명 붙이였습니다. 김봉록은 그 대원을 데리고 소금공작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 몹시 기뻐하면서 네가 김장군의 부하가 되었다니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다, 그분한테 너를 맡겼으니 나는 마음이 푹 놓인다, 그런데 요즈음 왜놈들의 선전을 들어보면 **김**장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하였습니다. 김봉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방금 장군님의 군영에서 그분의 영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그분은 건재해 계십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봉록의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서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사실 우리는 그분이 어찌어찌 되였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른다, **김**장군이 살아계신다니 이제는 됐다고 하면서 좋아서 어쩔줄 모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집으로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들은 노인은 펄쩍 놀라 소금 때문에 혁명군이 싸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는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소금을 구해서 **김**장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늙은이가 아들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나섰지만 소금을 구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두 근을 사면 몰라도 그 이상부터는 적들의 의심을 살 수 있였습니다. 그 당시 만주국관청이나 경찰기관들에서는 상점들에서 소금을 한 도량 이상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수시로 나타나 소금의 판매정형을 가만히 조사장악하였습니다. 장사치들가운데는 주민들의 물자구매정형을 적들에게 정상적으로 통보해주는 끄나불들도 있었습니다.

김봉록의 아버지는 혼자서도 소금을 얼마간 구할 수 있었지만 행군에 참가하고 있는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한두 근이라도 더 사보내려고 평시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노인한테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정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늙은이는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만 친분이 두터운 다른 노인에게 **김일성**장군이 산에서 소금을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한몫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유격대를 돕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재간껏 소금을 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인

도 소금구입에 나섰는데 바로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그 세 번째 노인이 협화회원인 자기 아들이 밀정인줄을 모르고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선무반이요, 귀순공작대요 하는 것들을 무어가지고 귀순놀음을 벌였습니다. 그런 놀음에서는 협화회놈들도 한몫 하였습니다.

적들의 밀정노릇을 하고 있던 아들놈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은 사실을 곧바로 상급에 들고가서 고자질하였습니다.

우리가 늙은이들을 통하여 많은 량의 소금을 사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관동군특무기관에서는 경찰기관들에 명령을 떨구어 서강일대의 상점들에 있는 소금을 몽땅 사들이게 하고 그 대신 장춘에서 비행기로 급송한 소금을 상점들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적들이 비행기로 실어보낸 그 소금은 독약을 뿌린 독소금이였습니다. 그 독소금을 먹으면 인차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 머리가 아프고 다리맥이 없어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봉록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소금을 사러 다니는 영감들이 이런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의 계책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활하게 꾸며졌는지 도가집강아지처럼 눈치가 빠르다는 장사군들도 그 낌새를 전혀 냄새맡지 못하였습니다.



경위대원들과 함께

두 영감은 소금을 사가지고 김봉록과 함께 유격대의 숙영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대에 찾아온 것이 아마 낮 1시나 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금을 부대들에 나누어주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정숙**동무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늘 식초를 가지고 다니였습니다. 사령부의 작식공작은 그가 맡아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몫으로 받아온 소금에 식초를 쳐보고 독약을 친 소금같다고 하였습니다. 식초를 쳐보면 독약을 친 음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인차 알 수 있습니다. 식초는 독약에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령부성원들과 경위중대대원들은 독소금을 먹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령관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도덕으로, 규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내가 회의를 끝내고 천막으로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회의를 하다가 노인들이 지고 온 소금이 독소금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휴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등불에 소금을 넣어보았더니 과연 퍼런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퍼런 불이 납니다.

나는 군수관에게 부대들에 나누어주었던 소금을 모조리 회수해들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소금을 회수하라는 사령부의 지령이 떨어지자 동무들은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대원들이 벌써 소금을 조금씩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대들에서는 소금회수명령을 받고서도 소금에 무슨 독약을 쳤겠는가고 하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어 어떤 대원들은 소금을 자그마한 주머니에 넣어 감추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문제로 된 것은 이미 독소금을 먹고 기습전을 떠난 7연대와 8연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적을 들이치고 식량을 해결한 다음 곰의골밀영 방향으로 가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7연대와 8연대 동무들에게 전투임무를 주어 내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독약을 먹인 적들이 달려들 것이 뻔한데 기본전투부대들을 전투에 내보냈으니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빨리 불러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전령병들을 띄우려고 하는데 출전했던 전투원들이 헐떡거리면서 맥없이들 돌아왔습니다. 오중흡동무가 그렇게 맥없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너무 다리맥이 없어서 숙영지까지 채 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분명 놈들은 우리가 소금을 먹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에 달려들어 일격에 괴멸시키든가 몽땅 사로잡으려고 꾀했던 것 같습니다. 교활한 적들은 소금짐이 몇 시쯤이면 우리 부대에 당도하고 우리가 몇 시쯤이면 그 소금으로 음식을 지어먹으며 또 몇 시쯤 지나면 우리의 전체 성원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쓰러져 있게 되겠는가를 타산했을 것입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사령부성원들을 제외한 전부대가 독약에 마비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대가 전멸당하고 마는가 아니면 천행으로 살아나 반일항전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정황이었습니다.

나는 1937년 봄에 소탕하에서 우리가 수천 명 적들의 포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체험했던 당혹감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탕하에서는 우리가 수천 명이나 되는 대군의 포위속에 들어있었지만 전투원들

이 싸울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경우에는 적을 치면서 돌파하자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독소금에 중독된 부대를 가지고 적과 맞다들게 됐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조성된 사태를 놓고 심중히 논의하였습니다. 격분한 일부 동무들은 소금을 사다준 늙은이들을 당장 처단하자고 하였습니다. 적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놈들의 개가 아니고서야 감히 독약을 친 소금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판단이였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적과 내통했고 그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서강마을에 내려갔던 유격대원들에게 넘겨주고말지 왜 굳이 우리들한테까지 지고 들어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제 자식을 죽이려고 독소금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늙은이를 처단하자고 하는 동무들을 호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잘 싸우게 하자고 생사를 결단하고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온 늙은이들을 따뜻이 대하지는 못할망정 처단하자니 그게 무슨 망령된 소리인가, 동무들은 독약을 먹은 나머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 늙은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적들의 간계에 빠져들었다, 내 짐작으로는 독약의 효과가 절정에 이른 때에 반드시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투준비를 갖추고 시급히 제독대책을 취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날이 밝으면 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으니 오늘이야말로 결사전을 벌려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연대 동무들은 모두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리 맥이 없더라도 적들이 달려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모두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여서라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또 놈들의 지상부대가 포사격을 하면서 포위해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연대동무들을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령부호위성원들과 기관총소대동무들에게는 전투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가 예견한대로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이틀동안이나 가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기본전투연대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데려다 눕혀놓고 얼마 안되는 기관총소대동무들과 사령부호위병들이 달려드는 적들을 답새겨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령부성원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적들이 심신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약을 쓴 것을 보면 우리를 전원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사로잡게 되면 세상에 대고 만주땅에서의 공비토벌전은 종결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김일성**부대만 괴멸하면 유격대 토벌전은 끝난다고 적들이 떠들 때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물리친 다음 연대들을 피신시킨 수림속에 들어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녹두도 달여먹이고 호박도 삶아먹이면서 한 주일가량 치료전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소금사건 때 내가 정말 진땀을 뽑았습니다. 소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제일 혼이 난 것은 김봉록이였습니다. 자기네 부자가 가져온 소금이 독소금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김봉록과 그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어쩔 바를 몰라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소금짐을 지고 왔던 두 노인에게 우리는 노인들을 조금도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성심성의로 도와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어 안심시킨 다음 서간도의 물정에 밝은 김일에게 과업을 주어 그들을 데려가되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안전한 고장에 모셔다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모략작전이 실패한데다가 도리어 숱한 죽음을 당한 적들이 악에 받쳐서 실패의 책임을 죄없는 노인들에게 들씌워 무슨 행패질을 할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격대원인 아들과 내통하여 숱한 소금을 유격대에 빼돌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놈들은 김봉록의 아버지와 이웃집노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김일은 내가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노인에게 먼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준 다음 가족들도 그리로 몰래 빼돌리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지고 왔던 소금에 독약이 들어가게 된 내막도 탐지해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아들놈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김일

지난 전쟁시기 보건부문에 침투한 적의 고용간첩들은 음식물속에 독성물질을 넣어 환자들의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살인행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일군들 호상 간에 불신과 불화를 조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해독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세균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혁명은 혁명을 공격하는데서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동방것들이든 서방것들이든 다 인간도살의 능수들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기교와 능력을 부단히 연마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몇백 명의 혁명가나 몇만 명의 혁명군대를 소멸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사회주의나라 전체를 일시에 붕괴시켜버리기 위한 엄청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항일혁명때 산에서 소금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나는 해방 후 북부국경지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소금사정부터 물어보군 하였습니다. 한번은 후창에서 군소비조합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일군을 만나서 군내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가운데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니 소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1947년 여름에 집무실에서 금강산에 가서 야영생활을 하고 돌아온 창성지방소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도 창성사람들이 소금고생을 몹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산간벽지의 인민들에게 소금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양강도지방은 북간도나 서간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와 떨어져 있는 내륙산간지대인만큼 소금이 바를 수 있습니다. 전쟁 때 고산진에 가보니 자강도에도 소금이 아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후퇴시기의 어려운 정황이였지만 고산진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소금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일군들은 내륙지대 인민들이 소금이 떨어져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잘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사슴목장에서는 사슴들에게도 소금을 정상적으로 먹여주어야 합니다.

4. 대홍단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대홍단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히시는
김정숙동지

1939년 5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오시여 백두고원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그때 조국땅에 들어와 첫 밤을 지낸 곳이 오늘날의 삼지연군 이명수노동자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봉의 수림속이다. 그 숙영지자리는 거의 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연이어 무산, 연사 사적지가 발견되었다.

아래에 수록하는 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 기회에 무산지구전투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을 종합한 것이다.

남패자에서부터 논의된 조국진출문제는 북대정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한시바삐 조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했습니다. 조국에 나가서 보천보전투나 간삼봉전투를 능가하는 큰 규모의 전투를 벌려 세상을 한번 요란하게 들었다놓고 싶어했습니다. 힘이 강성할 때이고 또 100여 일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무쇠처럼 단련된 때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해 봄에 압록강연안에서 수많은 성시들과 부락들을 연이어 답새겼습니다.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조국으로 왜 진출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조국진군이였습니다. 우리는 북만에서 활동하건 동만에서 활동하건 크고 작은 군사작전을 무수히 벌이면서도 그 총적인 지향점은 항상 조국진출과 조국해방이라는 목표에 두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조국진출에서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937년 6월이 조국진군의 적기였다면 1939년 5월도 역시 적기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시의 정세로 보든지 우리 자신의 지향이나 국내인민들의 염원으로 보든지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군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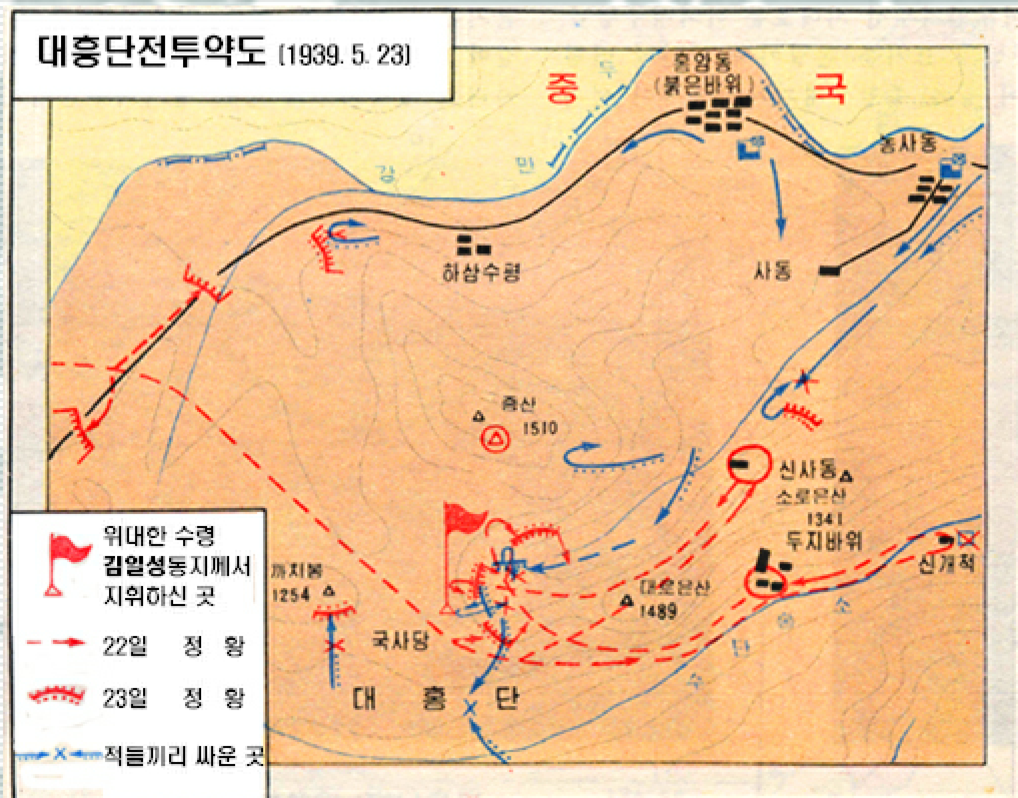
우리는 그 당시 내외의 정세를 깊이 분석해본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다시금 국내깊이에로 확대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39년 5월이면 지구의 동쪽에서는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이고 서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준비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일제는 장기전에 빠진 중일전쟁을 시급히 결속하고 대쏘공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남방으로 진출할 전략을 짜면서 공고한 후방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파쑈적 폭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혜산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서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과 함께 북부조선일대의 일부 혁명조직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조직들도 적지 않지만 핵심적인 조직들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피해를 면한 혁명조직들도 위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적들은 혜산사건 후 조선인민혁명군이 망했다는 선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괴멸과 저들의 무훈을 축하하는 경축대회놀음까지 벌이었습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한 거짓선전에 속아넘어간 일부 지방의 혁명조직성원들은 **김일성**



장군이 잘못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혁명은 다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가망도 없는 혁명을 해서는 뭘하겠는가고 하면서 유격대공작원들이 있는 밀영에 찾아와 내가 잘못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항일혁명을 앙양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쳐갈기고 내외에 자기 존재를 시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공작원들이 국내에 침투해서 혁명군은 죽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도 건재하고 혁명도 전진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그런 선전이 잘 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진군을 하게 된 다른 하나의 주되는 목적은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그것을 확대하자는데도 있었고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더 잘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자는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대오를 제일 크게 늘인 것은 보천보전투 직후와 간삼봉전투 직후입니다. 총소리가 한번씩 울리면 사람들이 각성되게 되고 각성된 인민들이 혁명조직의 품으로 흘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남호두회의 후 서간도에 나와서 싸움을 하지 않고 올방자를 틀고 앉아 인민들이 섬기는 밥만 축내면서 껄렁껄렁 지냈더라면 장백지방에서 혁명조직들이 그처럼 빨리 그리고 그처럼 많이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간도지방에서 혁명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게 된 주요한 요인은 우리가 사상사업을 잘한 데도 있지만 싸움을 많이 해서 혁명군의 본때를 보여주고 항일혁명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준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내진출의 후보지로 무산지구를 선정했을 때 일부 지휘관들은 좀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후 적들이 이 지대에 가장 악질적인 수비무력을 몇 배로 증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대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노릇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로 진출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요정내게 되면 북부조선의 여느 지구로 진출하는 것보다 효과를 몇 배로 크게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무산지구에는 철광노동자들과 수전공사노동자들, 벌목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대에서 총소리를 내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그 소식이 그들을 통하여 전국각지에 급속히 퍼질 수 있었습니다.

몇 방의 총소리로 무산의 노동계급을 각성시키고 함경북도의 노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며 온 나라 인민들을 항일혁명에로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1939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5호물동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오송은 내가 업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강을 건느면서 이게 무슨 강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한테는 국경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압록강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강물속에 내려놔달라고 졸랐습니다. 조국의 강물에 몸을 적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동가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청봉숙영지 사령부자리

들은 조국의 진달래를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펼쳐진 풍경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대원들이 진달래무더기앞에 웅크리고 앉아 꽃구경을 하면서 울고웃으며 감격해 하던 광경이였습니다. 어떤 여대원들은 두팔을 크게 벌려 진달래를 무더기채로 안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리더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진달래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외적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한 부분, 하나의 살점과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진달래는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그저 웃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치산대원들이 진달래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진달래도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애국심이란 참으로 강렬한 감정입니다. 진달래한테야 무슨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진달래라고 하여 오늘의 진달래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국의 설움을 안고 있던 우린 눈에는 진달래마저 그 망국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눈물로써 외적에게 강탈당한 땅에서 피고 지는 서러운 신세를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조국의 진달래라고 불렀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낙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나날들이 회상되어 시라도 읊고 싶은 충동을 받군 합니다. 조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 진달래,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우리가 청봉에 도착하자 안개가 걷히고 해가 났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등불을 피우고 이슬에 젖은 행건을 말리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적정과 지형을 알아보려고 청봉마루에 올라갔더니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이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휘관들에게 적들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행동에서 은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부대들의 숙영장소도 정해주고 보초도 세우고 정찰도 파견하였습니다.

부대가 숙영준비를 다 끝낸 다음 우리 동무들이 나무껍질을 벗기고 구호들을 썼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대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구호들을 썼는데 그때 구호를 쓴 동무들 중에 구원애라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구원애는 한때 흥륭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학습도 잘하였고 글씨도 잘 썼습니다. 입대전에 중학교교사노릇을 하던 연안길도 글씨를 잘 썼습니다. **김정숙**동무가 쓴 것도 여럿이 됩니다.

아까운 동무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함께 글이 살아있으니 그들도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아주 귀중한 재보를 찾아냈습니다.

청봉에 있는 구호나무들에는 우리와 함께 싸운 투사들의 숨결이 배어있습니다. 구호나무들을 보니 산 투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무에 쓴 구호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귀중한 혁명적인 문헌입니다. 그 구호들에는 투사들의 피가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만년재보입니다.



청봉숙영지에 남긴 구호나무
(김정숙동지의 필적)

우리는 청봉에서 하루밤 숙영하고 다음날 건창으로 자리를 옮기였습니다.

우리가 건창에서 숙영할 때 적들은 낚시군으로 가장한 밀정 두 명을 숙영지로 들여보냈습니다. 건창일대에는 낚시질을 할만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낚시군으로 가장한 밀정들은 대낮에 우리 숙영지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들었습니다. 거동이 하도 수상하기에 보초병은 그들을 붙잡아 문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놈은 놓치고 한 놈만 붙잡았습니다. 잡힌 놈의 몸에서는 권총까지 나왔습니다.



갑무경비도로

밀정이 실토한 데 의하면 적들은 벌써 우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숱한 수비대와 경찰대들을 투입하여 밀림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예측한대로 적들의 역량이 이 일대에 쏠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에서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였습니다.

나는 있을 수 있는 적의 준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행동방향을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두 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여 한 소부대는 포태리방향에 나가 적을 타격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놈들을 혼란시키며 다른 소부대 는 우리가 다시 압록강을 건너 장백쪽으로 빠진 것처럼 발자국을 내고 자취를 감추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새벽에 건창을 떠나 베개봉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끼였던지 지척을 가려볼 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척후부대는 향방을 잡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척후부대에 나가 군용지도와 지남침을 가지고 행군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행군이 여간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다. 적수색대가 불의에 나타나서 우리와 조우전을 벌이게 되면 야단이였습니다. 수색대가 나타나도 해제끼는 것은 문제없겠지만 일단 총소리를 내게 되면 차후 행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청봉헌시비 ≪불멸의 청봉숙영지여!≫

베개봉에 도착한 다음 숙영지시를 내리고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찰조들을 파견하였더니 그들이 베개봉 동쪽의 원시림속에서 기막히게 멋있는 신설도로를 발견했다는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신설도로는 우리가 이미 정보를 쥐고 있은 갑무경비도로였습니다. 갑무경비도로는 갑산과 무산의 무인지경을 연결하는 비상경비도로였습니다. 이 도로의 사명은 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기동수단을 동원하여 필요한 지점까지 토벌역량을 급송급파하는데 있었습니다. 공사가 갓 끝났기 때문에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잡인들의 통행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찰조성원들은 도처에 통행금지 패말이 박혀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도처에 그런 통행금지구역이나 출입금지구역을 만들어놓고 조선사람들의 내왕을 엄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왜정시대의 평양시 중심부에는 일본사람들만 사는 거리들이 따로 있었는데 일본의 경관들

이나 장사아치들은 그 거리들에 조선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눈부터 흘기군 하였습니다. 일본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조선아이들이 문전에도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못한 조선아이들이 일본학교 마당에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대뜸 귀뺨을 얻어맞던가 거지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아이들은 조선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나 조선사람들이 사는 주민 지구에 마음대로 나타나하고 싶은 짓을 다했습니다. 한번은 평양성안에서 살던 일본인 불량소년들이 창덕학교 근처에 있는 참외밭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칠골의 가난한 농사군이 여름내가꾸어온 참외를 결단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덕학교에 다니는 학우들과 함께 참외밭을 짓뭉개며 돌아가는 일본인 불량소년들을 되게 혼내주고 성안으로 쫓아버리였습니다.

적들은 국경연선에까지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조선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세를 시위하여 갑무경비도로를 건설한 적들에게 타격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들이 국경일대에 갑무경비도로까지 건설해놓고 삼엄한 경계망을 늘이고 있는 것을 보면 보천보와 간삼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군정간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처한 위급한 정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적들이 쫙 깔려있다. 우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함남북 각지에서 국경수비대, 경찰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벌 무력을 끌어다가 대대적인 포위수색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망친 밀정이 우리를 보았으니 지금쯤 적들은 청봉을 수색하고 건창을 거쳐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산쪽으로 빨리 빠져나가서 우리가 북대정자에서 세운 작전계획을 실천에 옮겨야겠는데 전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완전포위의 그물에 걸려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단숨에 무산으로 진출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지휘관들은 승벽내기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장백쪽에 유인조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적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슬쩍 무산방향으로 빠지자고 하였고 어떤 동무들은 무산지구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다면 차라리 베개봉근방에서 간삼봉전투와 같은 큰 전투를 벌이는 것이 어떤가고도 하였습니다.

어느것이나 다 귀맛이 당기는 방안들이였으나 무산지구로 한 달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묘안은 아니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에 대한 토론까지 조직한 다음 내가 생각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



건창숙영지안내도

안이란 적들이 방금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린다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대로행군을 단행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지휘관들은 그 제안을 듣자 모두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보통달구지길이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토벌하는데 쓰자고 특별히 닦아놓은 도로로 대부대행군을 하자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이 내 방안을 미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대도로를 통한 백일행군방안이 전술적으로 타당하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내가 생각한 방안의 전술적 의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능히 대낮에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의 태도가 증명해주고 있다. 동무들은 내가 대낮에 대로행군을 하자고 하자 다들 아연해하였다.

적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자기들이 특설한 경비도로로 백주에 대오를 지어 행군해가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백일대로행군의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적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담하게 강행하는 여기에 이 행군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전술적 담보가 있다.

지휘관들은 모두 신심을 가지고 베개봉을 떠났습니다.

진달래가 어찌나 많이 피여있었던지 행군중에 있는 우리 대원들의 얼굴이 온통 새빨개보였습니다.

진달래는 삼지연연못가에도 많았습니다. 못가의 진달래와 물속의 진달래가 한데 어울려져 얼마나 수려한 절경을 이루었던지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초막을 짓고 살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백두고원과 같은 고산지대에 이처럼 희한한 명승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산지대의 풍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닮아서 웅건장엄하면서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것이 바로 삼지연의 경치입니다. 고산지대의 미와 별방지대의 미가 한데 조화되었다고 할가, 삼지연과 같은 산천경개는 사실 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삼지연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을 강탈당했는가를 다시한번 뼈에 사무치게 느끼었습니다.

나는 삼지연의 절경에 너무도 심취되어 일제를 내쫓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 듯이 경치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이 이제는 훌륭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삼지연은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오는 혁명전적지로 되었을 뿐 아니라 고산지대의 특이한 풍치를 자랑하는 이름난 휴양지로 전변되었습니다.

1956년 **김정일**동무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끌고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볼 때만 해도 삼지연못가에는 진대나무들과 가랑잎무지들뿐이였고 사람의 손길이 닿





두지바위정치공작소와
신개척정치공작소

은 곳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못에는 헐어빠진 매생이 한 척과 전쟁전 이 고장 사람들이 호수의 풍치를 돋구느라고 지었다는 구식정각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쏘련과 동구라파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 **김정일**동무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답사과정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혁명선열들의 숨결이 그대로 어려있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잘 건설되지 못하고 소홀히 꾸려졌거나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사실과 지어는 혁명전적지들에 답사자들에게 안내해설을 해주는 강사조차 없는 실태를 두고 가슴아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치공작을 벌리신 집

1956년이면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바람이 방금 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제가 확고히 서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관련된 자료들과 유물들도 많이 발굴되지 못했고 혁명전적지도 잘 꾸려지지 못했으며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김정일**동무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뭇고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를 떠날 용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삼지연을 떠난 우리는 갑무경비도로로 해서 무산지구를 향해 최대 급행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술을 두고 일행천리라고 했습니다. 일행천리란 한 달음에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가 일행천리전술을 여러 번 썼습니다. 몇 번 써보았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퍼런 대낮에 경비도로라는 이름이 달린 신작로로 수백 명을 헤아리는 대부대가 일행천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갑무경비도로개통식은 우리가 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곧추 뻗은 적들의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그날로 두만강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숙영하였습니다.

적들은 후날 우리가 자기들이 닦아놓은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증유의 괴사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갑무경비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이행군은 몇 개 연대나 사단의 적을 소멸한 것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하였습니다. 나는 무포숙영지에서 지휘관회의를 열고 행군과정을 총화한 다음 대홍단지구로 진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우선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아침 무포숙영지를 출발한 우리는 대홍단벌에 도착하자마자 국사당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획대로 부대를 두 개 방향으로 진출시켰습니다. 7연대는 두지바위를 거쳐 신개척방향으로 가게하고 나는 경위중대와 8연대를 데리고 소로은산기슭에 있는 신사동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신사동에서 정치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는 개울건너 둔덕진 곳에 사령부를 정한 다음 몇 명의 경위대원들과 전령병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제일 큰 목재소노동자합숙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무산지구에 불쑥 나타난 우리를 보게 된 인민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얼어죽었다더니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많은 군대가 어디에 있다가 무슨 수를 써서 무산땅에 나타났는가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합숙방이라는 것이 소외양간이나 마구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방의 정경가운에서 특별한 것은 한복판에 빨래줄처럼 길게 늘여놓은 바줄이였습니다. 무슨 줄인가고 물으니 노동자들이 잠잘 때 발을 얹어놓는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합숙방이 너무도 비좁아서 노동자들이 그 바줄을 사이에 두고 두 줄로 마주 누워자는데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가 없어 바줄우에 발을 서로 엇걸고 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세옥

노동자들은 사람대접은커녕 소나 말보다 더 열등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나 말과 같은 집짐승들이야 그래도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날밤 그 합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합숙방에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마당에도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그날 신사동인민들앞에서 연설도 하고 그 고장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날밤 신사동인민들에게서 지성어린 대접을 받던 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사동에는 종곡이 모자라 씨붙임을 못한 화전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사동여인들은 **김일성**장군이 거느리는 조선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기장밥을 짓고 농마국수까지 눌러주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 지성에 감동되어 신사동을 떠날 때 배낭속에 남겨두었던 군량미까지 다 털어서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밀가루를 털어내여 주인집사람들에게 수제비국을 끓여주고 그 집딸아이의 튼 손에 크림도 발라주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신사동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나는 이미 신개척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반드시 추격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지형상 유리한 대홍단벌에서 적을 소멸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을 떠나 대홍단벌에가서 둔덕진곳에 매복진을 치고 신개척으로 간 오중흡이네 7연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연대동무들은 내 지시대로 신개척에 가서 총소리를 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개척의 적들을 몽땅 요정내고 일본십장들까지 여러 명 잡아오다나니 좀 들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대열뒤로 적들이 은밀히 따라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개척이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고 출동한 국경수비대와 창평경찰대였습니다.


남동수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7연대의 뒤를 따라오는 적군을 제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적아를 미처 식별하지 못한 것은 안개가 낀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적들이 안개를 이용하여 7연대의 꼬리를 너무 바싹 물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7연대의 뒤를 따르는 철갑모부대가 적이라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정황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조성되고 있었으나 적들의 총구앞에 놓여있는 7연대의 처지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적들이 7연대의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복진을 차지하고 있은 8연대와 경위중대의 대원들은 사격구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총을 특별히 조심해서 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쏜 총알에 우리 동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적아의 간격이 버그러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적들이 선손을 써서 7연대에 먼저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방조성원들과 짐을 지워가지고 오는 목재소노동자들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열에 있는 7연대 대원들을 그냥 매복전 앞으로 지나가게 한 다음 대열후위에 있는 후방조성원들과 목재소노동자들에게 엎디라는 신호를 하고나서 사격명령을 내리었습니다.


三百餘金日成○團과
咸北警官隊와激戰
應援隊急派包圍陣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수백 정의 총들이 일시에 불을 뿜었는데 그 총성이 정말 요란했습니다. 대원들은 그때 상당한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이 총소리를 온 나라가 다 듣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온몸에서 힘과 격정이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대홍단전투 때에는 나도 역시 대원들 못지 않게 흥분했습니다. 우리의 일제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적들은 악을 쓰며 저항하였습니다.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경들은 여느 군경들보다 더 지독하고 포악하였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사람들도 국경지방에는 정수분자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적들 사이에 끼여있는 7연대 후방조성원들과 노동자들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탄에 머리조차 쳐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짐군들속에는 일본사람들도 끼여있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는 아주 묘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조선사람들은 짐들을 진 채 인민혁명군의 진지로 뛰어오고 일본사람들은 짐들을 버리고 일본군경들쪽으로 벌렁벌렁 기여가더란 말입니다.

조선인노동자들가운데서 일본군경들쪽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민족의 피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였습니다.

그날 대홍단에서 우리와 맞다든 적들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두 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희생된 대원의 이름은 김세옥입니다. 김세옥은 마동희의 누이동생인 마국화의 애인입니다. 그는 7연대 사무장과 함께 짐을 지고 7연대를 따라온 사람들을 안전구역으로 피신시키다가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를 보니 살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세옥을 업고간 대원이 김성국이였을 것입니다. 김성국의 군복잔등이 피로 물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널 때 목재소노동자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은인인 김세옥이 중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는가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따라왔습니다.

부대가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도 김세옥은 빈사상태에서 완전히 깨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온 짐군들도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묻힌 곳이 장산령기슭입니다. 해방 후 우리는 김세옥의 유골을 찾아내여 대홍단에 이장하였습니다.

김세옥을 장산령기슭에 안장한 그날 우리는 중상당한 남동수를 부근에 있는 어느 한 밀영으로 후송시키었습니다. 남동수는 밀영에 가서 100여일동안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대와의 연계가 끊어진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육신을 잘 쓰지 못하는 중상자가 식량도 없이 100여일을 지냈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 부조

남동수의 간호를 담당한 사람은 산림대에서 갓 넘어온 정영감이라고 부르는 중국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인민혁명군이 비적이라는 일본인들의 선전을 듣고 돈벌이를 해보려고 우리 부대에 넘어온 사람입니다. 산림대에서 노략질을 하는 것보다 공산비적단에서 비적질을 하면 먹을알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민혁명군이 비적질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 신사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부대는 자기 같은 건달군이 있을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수를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공산군을 한 명 죽이고 가야 고향에 가더라도 무사할 것이라고 타산했던 것입니다.

정영감이 이런 흉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남동수는 밤중에 초막에서 기여나와 가랑잎으로 몸을 가리우고 이틀동안이나 숨어있었습니다. 그는 정영감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나뭇잎과 풀싹을 뜯어먹고 다람쥐와 뱀을 잡아먹으면서 그날그날을 연명해가다가 우리가 파견한 연락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원마저 토벌에 희생되였습니다.

남동수는 또다시 고립무원한 몸이 되였습니다. 그는 부대의 행방을 찾아서 헤매다가 자기 어머니가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 갑산을 거쳐 동만에 들어가 중국혁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부름을 받고 조국으로 나온 것이 어느 해였던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저는 장군님께서 주신 모포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야 찾아옵니다 하고 오열을 터뜨리였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무산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였습니다. 옹조꼬맹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일권동무도 박성철동무와 함께 붉은바위일대에 진출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산지구에 나타나 대홍단벌에서 자기네 군경들을 대량소멸하고 유유히 두만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자 대경실색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절할 지경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백두산서남부의 서간도일대였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한 후 조선과 만주의 신문, 통신들이 모두 서간도일대에서의 유격활동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혜산으로부터 신갈파를 거쳐 중강진일대에 이르는 압록강연안의 군경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월경침입을 막기 위한 방비대책에 혈안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함경남도경찰부에서는 이른바 대안비적상황이라는 표제밑에 우리의 활동상황을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자료들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조선주둔군 사령부,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국경지대의 연관 도경찰부, 나남19사단사령부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해주었습니다.

일본군부와 경찰계의 두뇌진들은 우리가 내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리라는 것까지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백두산기슭, 그것도 국경 수비무력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은 무산지구에 우리가 나타나 토벌에 내몰린 군경의 무리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회오리바람처럼 사라졌으며 적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적들의 실책은 열하원정의 후과에다가 고난의 행군기간의 손실까지 겹쳐 조선인민혁명군의 자기의 존재를 거의 끝마칠 정도로 괴멸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오산한데 있었으며 얼마남 지 않은 우리의 역량이 장백, 임강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이나 몽강, 무송과 같은 북부동변도오지에서 군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하고 있으리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데 있었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홍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보여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기가 죽었던 국내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이 계속 상승일로를 걷고 있다는 신심을 주고 혜산사건의 여파로 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위축되었던 국내혁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강심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이룩한 우리의 군사적 승리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떠들어대던 적들의 선전이 완전한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후부터 우리 인민들은 적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절대로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있은 뒤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조선인민 혁명군이 건재하는 한 조국광복의 새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항일혁명의 흐름속에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삼지연대기념비



삼지연못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삼지연대기념비 - 진군



삼지연대기념비 전경



삼지연대기념비 - 숙영



삼지연대기념비 - 조국의 물



삼지연대기념비 - 조국



삼지연대기념비 - 흠모

5.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

대홍단전투를 치른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활동무대를 백두산동북부로 옮기고 두만강연안 유동하면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그 시기의 군사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올기강전투이며 대중정치사업에서 제일 이채로왔던 것은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놀이였다.

화룡현 옥돌골은 무산군 대안에 있는 두만강 건너편의 산골마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홍단지구를 현지지도 하시던 나날들에 두만강가에서 무산지구전투 후 백두산동북구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시던 뜻깊은 사적내용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옥돌골에서 1939년 단오날에 축구경기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격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축구경기를 했다고 하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격전쟁을 한다고 해서 일년 사시절 퉁탕거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도 유격대의 특성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유격구에서 운동회도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왕청유격대에는 한다하는 축구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2차북만원정을 앞두고 나자구에서 축구경기를 조직하고 옥돌골에서 조직하였는데 별재미였습니다.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축구를 잘했습니다. 간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 것은 용정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홍단전투를 마친 다음 우리는 예정대로 투쟁무대를 백두산동북부로 옮기였습니다. 그 일대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 기지로 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해 5월하순의 안도현 큰골군정간부회의에서 나는 백두산동북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강화하여 이 일대에 또 하나의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격구가 해산된 이후 새로 창설한 우리 혁명의 근거지들은 대체로 서간도일대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에 꾸려져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꾸리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기지와 작전기지 후방기지들을 전국적 판도에로 넓혀갈 수 있었고 그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혁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열을 늘이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거점을 늘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장을 늘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문제, 땅문제, 총문제를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고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곧 혁명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무장이 있으면 혁명을 얼마든지 고수할 수 있고 확대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거지를 확보하자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군사작전으로 적을 제압하고 해당 지

역안의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과 조직건설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혁명군의 활동을 훼방하지 못합니다. 대홍단전투 후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기 바쁘게 동경평전투, 휘풍동전투, 올기강전투, 청두촌전투, 청산리부근목재소습격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투들을 연속적으로 벌이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전투들은 모두가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싸움을 한 번씩 하고나서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도하고 조직건설사업도 하였습니다. 옥돌골에서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단오명절을 즐겁게 쇤 것은 우리가 벌인 특색있는 정치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지역에 갈 때마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생동하게 벌려 대중의 혁명화를 적극적으로 다그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이였으며 일관한 활동방식이였습니다.

원래 옥돌골에서의 단오놀이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의 폭압이 심하고 정세가 삼엄해서 단오놀이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할 때였습니다. 옥돌골에서의 단오놀이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끝낸 다음 우리가 화룡땅에 건너가서 인민들을 만나는 과정에 결심하고 조직한 것이였습니다.

어느고장에 가서나 느끼게 되는 것이였지만 간도지방에서도 인민들은 그 당시 기를 펴지 못하고 몹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룡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약담배에 중독된 젊은 농민형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북지방에는 아편중독자들이 씨글씨글했습니다. 아편이 화폐와 같이 통용되는 때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약담배라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더 심하게 전파되는 법입니다. 농민형제는 조선에서 살다가 이민바람에 간도에까지 굴러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나는 신수가 멀끔한 젊은 사람들이 약담배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농사를 짓자면 심신이 튼튼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당신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기를 뽑는 그 몹쓸 것에 맛을 들이게 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형제는 별로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편도 안하면 고달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약담배라도 피워 세상만사를 잊어야지 다른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술로 달래보자고도 했지만 술이야 모여 앉아 부어라 마셔라 하며 떠들썩하는 멋에 마시는건데 왜놈들이 명절날에 여럿이 모여앉아 노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아 금지시키는 판이니 술이나마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담배로 넘어갔습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농민형제는 이제 좀 있으면 오월단오인데 모여앉아 막걸리도 마시지 못하는 명절이 오면 무슨 소용인가 그전에 고향에서 살적에는 단오날에 씨름도하고 그네도 뛰고 쑥떡도 해먹으면서 재미나게 놀았지만 망국노가 되니 그런 명절놀이를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푸념을 듣고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멋에 살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멋이라는 것은 사는 보람을 의미합니다.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생활을 창조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편에 중독된 그 젊은 형제에게는 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성벽과 철조망에 갇혀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생존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을 떠난 생존이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의도 없

습니다.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아편쟁이들을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농민형제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민족의 존망을 다투는 이 위급한 시각에 약담배를 피우며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는 것은 조선청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보라, 이 어린 전령병들과 여대원들까지도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총을 메고 나섰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아편을 떼라.

형이란 사람은 내 말을 듣더니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아무 의욕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편에 중독된 농민형제를 만나보고나서 인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를 펴고 살아갈수 있게 우리가 군사정치활동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설이나 하는 정치사업만으로는 인민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은 승리하는 혁명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싶어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혁명이란 곧 싸움이었습니다. 닷 말의 연설보다 한 방의 총소리가 은을 더 크게 내던 시기가 19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사업과 함께 군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농민형제가 살고 있다는 휘풍동이웃의 집단부락과 휘풍동의 적들부터 쳐갈기였습니다. 우리의 공격이 얼마나 드셌던지 적들은 총 한방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산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휘풍동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동북부로 이동하여 두만강연안에 있는 10여 개의 집단 부락들을 연이어 습격하여 수백 명의 적을 소멸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자 일제는 우리 부대의 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관동군이 할힌골에서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이 싸움이 터지자 수만 명의 일본군병력이 전선으로 기동하였습니다. 적들로서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고 떠들어댈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저들의 후방종심에서 혁명군의 총소리가 연방 울리게 되니 적들도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룡일대의 산판들에는 적들이 시누렇게 깔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량이 토벌에 동원되었던지 어느 날 망원경으로 적정을 살피고 돌아온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이상 싸움을 더 계속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적아를 따져보면 역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모장에게는 우리는 건군 첫날부터 역량상으로 수십 배, 지어는 수백 배 우세한 적과 싸웠지 열세한 적과 싸우지 않았다, 역량이 달린다고 이왕 시작한 작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숨돌릴 사이 없이 답새겨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기 중국 화북전선에서 특출한 군공을 세워 천황의 표창까지 받은 일본군장교가 백일평에 도착하여 토벌대를 지휘한다는 정찰자료가 사령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교는 원래 무공덕에 일본본토로 표창휴가를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안도와 화룡땅에 나타나 집단부락들을 쳐갈기며 돌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따위 게릴라부대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계속 패전한다는 것은 황군의 수치이자 일본국민의 수치다, 내가 **김일성**부대를 전멸시켜 이 수치를 씻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교도 허영심이 이만저만 강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화북전선에서 온 장교는 가슴팍에 아수라를 입묵해가지고 다니면서 무적용장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불교에서 싸움귀신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백일평에 나갔던 정찰조원들은 아수라에 대한 소식과 함께 화룡현에 있는 일본인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단오명절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이한 정보까지 수집해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천황의 표창까지 받고 고향으로 휴가를 가던 싸움귀신이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자청해서 백일평에 왔다는데 다른 쪽에서는 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명절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니 이런 만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보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적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선물놀음은 분명 동서고금에 없는 희극이였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선물을 준비할 리는 만무한 것이였습니다.

나는 적들이 감히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을 하는 것은 혁명군의 불을 설맞은 탓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백일평의 적들을 올기강쪽으로 유인하여 일격에 섬멸할 전술을 짰습니다.

우리가 전투장소로 선택한 지대는 백일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밭이였습니다. 그 갈밭 한가운데로 올기강이 흐르고 강 한쪽 기슭을 따라 자동차길이 나있었습니다. 강과 길의 좌우쪽은 다 수림지대여서 매복에 유리하였습니다. 적들이 올기강기슭에 나타난 것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늦은 아침이였습니다. 중무장을 한 수백명의 적들이 여러 정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기세좋게 행군해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대오가 우리의 매복권에 모조리 들어섰을 때 긴 칼을 찬 일본장교가 웬일이지 물도랑 옆에 와서 걸음을 멈추더니 수상한 흔적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적의 종대들은 일제히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부하장교 몇 이 달려와서 물도랑을 들여다보며 고개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마 우리 동무들 중 누구인가 거기에 발자국을 냈던 모양입니다. 싸움을 끝내고 전장을 수색할 때 전사한 일본군장교들의 가슴을 헤쳐보았는데 물도랑 옆에서 우리의 흔적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긴칼을 찬 그 장교가 바로 아수라로 자처하는 토벌대 대장이였습니다. 아수라가 물도랑 옆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나는 사격명령을 내리였습니다. 우리는 잠간 사이에 2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습니다. 아수라는 칼집에서 군도를 절반도 뽑지 못한 채 물도랑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고향에 가서 휴가나 곱게 보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황천객이 되었다고 조소하였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백일평전투라고도 불리우는 유명한 올기강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쓴 조명선의 회상기를 나도 보았습니다. 올기강전투에서 쓴맛을 본 다음부터 적들은 감히 그 골안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민들은 올기강유역의 마을들을 폐문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긴 촌이라는 뜻입니다. 올기강유역에 폐문촌들이 많이 생기다나니 우리도 마음놓고 정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옥돌골단오명절놀이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올기강전투를 비롯하여 두만강연안의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는 일종의 축제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만강연안의 마을들은 해방의 날이라도 맞은 듯이 흥성거렸습니다. 청장년들은 이번 단오날에는 마음놓고 놀아보자고 하면서 그네를 매고 씨름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올기강전투를 마치고 철수할 때 흥미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군 한 사람이 담배와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가지고 우리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인민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뜻밖에도 손을 내저으며 그것은 자기의 지성품이 아니고 화룡현경찰우두머리가 **김일성**장군에게 보내는 명절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찰조원들이 물어온 정보가 정확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적들이 보낸 선물보따리속에는 밀봉한 편지도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백룡한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오백룡의 이름을 특별히 지명한 것으로 보아 그가 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일본제국과 10년 가까이 싸워보았으면 그 실력을 똑똑히 가늠하였을 것이다, 단오도 가까워오는데 이 선물이나 받고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한테 연공이나 바치는 것이 어떤가. 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이 경고편지는 일제가 화룡현일대에서 경찰토벌대를 도맡아 지휘하던 우나미를 시켜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나미는 화룡현 경무과장을 경하고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안의 나이에 일찍이 만주에 건너와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한 생을 바칠 것을 맹약하고 영사관경찰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나미와 맞다든 것은 1932년 가을이었습니다.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돈화현성을 습격했는데 우나미는 그때 현성안의 일본영사관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응전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달아난 덕에 그가 상전한테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군대에는 전투의 승패에는 관계없이 죽으면 직급을 한 등급씩 높여주고 크게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에게도 상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본주의군대이니 그런 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도선도 죽은 다음 별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우나미는 동만의 여러 곳을 다니며 경찰정보계통에서 입신출세하여 1939년경에는 수백 명의 무력을 거느린 경찰 토벌대의 우두머리가 되였습니다.

우나미는 후날 기자들에게 이 편지를 경고문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우리가 보건대는 경고문이 아니라 요청서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총칼로써는 안되니 애원을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문이 은을 내게 하자면 그것을 보내는 시기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피동에 빠져 갈팡질팡하든가 지칠대로 지쳐 싸울 의욕을 잃었을 때 보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나미는 시기선택도 대상선정도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피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동에 확고히 서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하강기가 아니라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역량도 전술도 다 강했습니다. 분명 우나미는 우리를 무서워하면서도 밑천이 딸리는 군대로 본 것 같습니다.

우나미가 우리에게 경고문을 보낸 것은 미나미조선총독의 지령에 따라 함경북도 경찰부장 쯔쯔이가 숱한 위문품을 마련해가지고 기자들까지 거느리고 무산군 삼장

면일대에 내려가 우리한테 얻어맞은 군경들을 위로해주던 무렵이였습니다. 미나미는 보천보전투 직후에도 그 뒤조사를 위해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였습니다.

우나미가 경고문이라는데서 큰 봉변이니 뭐니하고 을러댔지만 그것은 한갖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회답편지를 한 장 써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은 문장가가 아니였지만 편지를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토벌하느라고 7-8년 세월을 고생했지만 얻은게 무엇이냐, 우리의 무기조달자, 식량수송대 노릇밖에 한 것이 더 있느냐, 가련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제는 그쯤하고 처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며칠 있으면 단오명절인데 생과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라, 내가 손님으로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주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경한 투로 엮었습니다.


오백룡

나는 단오날 옥돌골 30리골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운동회에 참가시키고 휘풍동을 비롯한 이웃마을들에서 올만한 사람들은 모두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옥돌골에는 몇 정보 잘되는 넓은 등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꼴문대를 세워놓고 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적들이 화룡일대에 숱한 토벌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은 때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여유작작하게 명절놀이를 하면서 축구경기까지 벌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몇 번의 전투나 몇백 마디의 연설로써도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적구에서의 축구경기는 또 하나의 우리 식의 독특한 정치사업방법이였습니다.

혁명군과 마을청년들사이의 축구경기가 정말 볼만했습니다. 기술이라야 뻔한 것이고 경기짜임새라는 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양팀선수들이 번갈아 헛발질을 하고 풀밭에 미끄러져 나딩구는 바람에 장내에서는 폭소가 연방 터져올랐습니다.

늙은이들은 옥돌골에 마을이 생긴 이래 사람들이 오늘처럼 만가지 시름을 다 잊고 태평스럽게 웃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는 승부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의 정치적 득점은 만점이였습니다.

그네경기와 씨름경기도 대성황이였고 군민합동오락회와 연예공연도 재청, 삼청의 연발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오놀이를 조직해준 혁명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날 옥돌골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참군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사업이 마을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육경기와 오락도 정치사업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백수천 개의 극장, 영화관, 회관들이 있습니다. 기관, 기업소들에 있는 회의실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모임장소가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정치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마음대로 전개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군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집을 지어놓았는데 중요한 행사나 회의를 할 때에만 몇 번 쓰고는 노상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서 과학강연이나 정세강연 같은 것도 하고 웅변대회나 시낭송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름난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명수, 영웅, 노력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 같은 것도 자주 조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이크도 없고 극장도 없고 방송국도 없는 빨치산생활이였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벌이였습니다.

그 후 옥돌골과 그 주변 인민들은 우리를 도와 투쟁을 잘하였습니다. 약담배를 피우던 휘풍동의 젊은 농민형제도 아편을 떼고 조직원이 되어 잘 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만강연만의 마을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화룡일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내혁명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였다. 그이께서는 단오명절을 며칠 앞두고 국사봉에 나오시어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국사봉은 두만강의 지류인 소두수연안에 있다.

국사봉회의를 준비하고 소집하는데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정치공작소조책임자였던 이동걸이었다. 국사봉회의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어버이수령께서는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이동걸을 회상하시었으며 그를 충실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하군 하시었다.

우리는 대홍단전투를 치르고 화룡땅에 건너가자 인차 사령부당회의를 열고 이동걸동무의 책벌을 해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에게 국내정치공작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기였습니다.

국내혁명앞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국내혁명의 중심과제는 혜산사건 때문에 파괴된 지하혁명조직들을 하루속히 복구확대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무산지구에 이동걸을 파견하여 거기에 전날의 이제순이나 박달이 꾸린 것과 같은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동걸에게 국내에 나가면 무산경내의 적당한 지점에서 국내 지하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가질 계획이니 그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두만강가의 중국인마을들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을 먼저 장악하고 그줄을 타고 국내에 드나들면서 조직선도 찾고 회의준비도 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령부와 이동걸사이에서 통신을 책임지고 보장하면서 적극 도와준 사람은 **김정숙**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두만강연안의 국경마을에 내보내어 이동걸과 자주 연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사령부와 이동걸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면서 우리의 지령과 의사를 제때 제때에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무산군 삼장면일대에서 사는 농민들은 부침땅이 모자라 여름 한철을 중국땅에 건너가 농사를 지으며 지내다가 가을철이 되면 곡식을 베여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군 했습니다. 무산사람들은 이것을 간도농사라고 했습니다. 갑산지방 농민들가운데도 간도농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먼저 간도농사를 지으러온 사람들부터 장악하고 그들을 통하여 국내와의 연계를 보장하였습니다.

무산, 연사 지구를 혁명화하는데서는 이동걸과 **김정숙**이 주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동걸은 공작임무를 받은 지 스무날도 되나마나해서 벌써 회의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날 나는 이동걸의 안내를 받으며 두만강 물동다리를 건너 회의장소로 내정된 국사봉에 올랐습니다. 국사봉회의에서는 지하혁명조직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를 마친 다음 나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꾸려놓은 삼장지구의 조직을 국사봉회의방침대로 연사일대에로 확대발전시켜 당조직의 본보기, 조국광복회조직의 본보기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조직책임자들에게 정치사업방향을 배워주기 위해 국사봉회의참가자들을 다 옥돌골단오명절행사에 참가시키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제기를 모두 승인해주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가 끝난 다음 옥돌골에서 우리와 함께 단오명절을 쇠고 비밀아지트에 가서 조국광복회조직들에 국사봉회의 방침을 침투하는 한편 한 국내조직원과의 연계밀에 연사지구로 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지트에서 불의에 습격을 받고 총상을 당한 몸으로 적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이동걸이 체포된 후 한 조직원이 그가 맡겨두었던 비밀수첩을 가지고 올기강밀영으로 찾아왔댔습니다. 그 수첩에는 안도현 큰골과 화룡현 옥돌골 그리고 국내 삼장, 연사 일대의 지하조직실태와 연사지구에서의 활동계획이 암호문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동걸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적어서 조직원의 집에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걸

박달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걸은 옥중에서도 감방벽을 두드려가며 혁명동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법정투쟁도 잘했습니다. 법정에 나설 때면 그가 노상 선참으로 조선혁명 만세! 를 불러 공산주의자의 기개를 시위하였다고 합니다.

이동걸은 김주현처럼 사업과정에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지만 혁명실천을 통해 그 과오를 씻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을 하노라면 더러 과오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한 과오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수양에 달려있습니다. 이동걸은 자기비판도 잘했지만 연대정치위원의 자리에서 해임된 후 사상단련도 잘했습니다. 그런 덕으로 동지들의 신임을 인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처벌을 받았을 때 제일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처벌을 주면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근하게 받아들일 대신 지나치다거니, 억울하다거니 과장되었다거니 하면서 불평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형태로 비판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합니다. 그리고 동지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한 혁명초소에서 일하는 동지들끼리 서로 속을 주지 않고 지내서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동지들에게 속을 주지 않으면 집단의 변두리밖으로 밀려나게 되며 종당에는 딴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동지들이 아무리 가혹한 비판을 해도 그것을 항상 허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동지들이 자기에게 주는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합니다. 김주현과 이동걸이 지휘관의 자리에서 떨어져나가는 무거운 책벌을 받은 다음에도 실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과오를 깨끗이 고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의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의 비판에 대한 소화능력을 보면 사람의 인격과 수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동걸은 인격과 수양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이동걸은 비록 희생되었으나 그가 바친 심혈은 두만강연안과 국내 깊이에서 수십수백 개의 불씨로 자라났습니다. 이동걸이 체포된 후에는 **김정숙**이 그를 대신해서 연사지구에 나가 그 고장 조직원들에게 선을 이어주고 그가 바라던 대로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려놓았습니다. 그 조직들은 전민항쟁을 준비하는데서 큰 밑천으로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여투사들의 혁명절개


최희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장과 교수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여투사들과 마지막까지 혁명적 의리에 충실하였던 여대원들에 대해서도 자주 회고하시었다.

이 절에서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던 나날들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혁명의 이익을 지키고 공산주의자의 영예를 고수해낸 여투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회상교시들 중에서 그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건립된 혁명열사능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능을 건설하느라고 동무들이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안치된 투사들 중 여투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투사들이 10여명이나 여기에 안장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신상을 세우고 비석에 이름을 새겨줄만한 동무들입니다.

이순희는 공청일군으로서 투쟁을 잘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왕청지방에서 아동국장사업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잘 압니다. 이순희는 절개가 강한 여자입니다. 적들이 나어린 그를 좀 숙보고 지하조직의 비밀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많이 당했지만 비밀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사들은 응당 후대들앞에 내세워 주어야 합니다.

장길부여사는 유격대원은 아니지만 마동희를 낳아키운 혁명가의 어머니답게 한생을 값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딸과 며느리도 유격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은 혁명가들의 뒤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 며느리는 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무장을 들고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영웅들입니다. 영웅칭호를 주는 제도가 없었으니 그렇지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장길부어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웅을 셋이나 키워낸 어머니이니 마땅히 혁명열사능에다 모셔야 합니다.

장길부여사는 고령의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도 잘 참가했습니다. 장길부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손에 무장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항일혁명의 길을 걸어온 여대원들입니다.

김책, 강건 동무들이 있는 열에 여투사를 2명 배치하였는데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역할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 임춘추, 최현을 비롯한 노투사들은 나에게 인민의 일치한 염원이고 전우들의 한

결같은 소망이라고 하면서 **김정숙**을 거기에 세워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최희숙을 그 열에 추천한 것은 나입니다. 그는 웃열에 세워줄만한 당당한 투사입니다. **김정숙**과 최희숙을 동열에 놓은 것은 항일혁명의 나날 그들 사이에 맺어진 우정을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김정숙**이도 도천리일대에서 어려운 적후공작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최희숙은 요방지라는 마을에 침투하여 그의 활동을 은밀히 도와주었습니다. **김정숙**이 신파에 건너가서 조직건설활동에 마음껏 투신할 수 있은 것은 최희숙이 요방지에 틀고앉아 그의 사업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최희숙은 1939년 가을에 올기강일대에서 수많은 군복을 제작할 때에도 **김정숙**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가며 일을 본때있게 하였습니다. 그 군복을 제작하는데서 발휘한 최희숙의 높은 책임성과 노력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는 그에게 금반지와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

최희숙은 조선인민혁명군 여대원들 중에서 노병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입대연도가 아마 1932년일 것입니다. 1932년이면 동만 각현에서 반일무장대오들이 앞을 다투어 태어나던 해가 아닙니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여대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1932년에 입대한 여성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32년에 총을 멘 대원이면 응당 노병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1936년 봄일 것입니다. 그 해 봄에 연길, 화룡 지방의 부대들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우리 주력부대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김정숙**과 최희숙도 그때 주력부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대원들은 다들 최희숙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대원들 중에는 그를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희숙은 나이로 보아도 우리의 누이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여러 살이나 나이가 더 든 여자였습니다. 여대원들 중에서는 김명화나 장철구 다음가는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최희숙이 전우들속에서 언니나 누이로 불리운 것은 비단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과 임무수행에서 항상 남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우들을 잘 보살펴주었습니다. 지방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공청활동과 부녀회활동, 반일부대공작을 해온 그는 정치적 자질도 높고 통솔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힘든 일거리를 많이 맡기였습니다. 최희숙이 소할바령회의 이후시기에도 조선인민혁명군 재봉대책임자로 계속 활약한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주력부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최희숙의 남다른 충실성과 혁명성을 언제나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늘 전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도 그의 숭고한 의리와 인격에 탄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때 목격한 일인데 최희숙은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도 우등불가에서 언 손을 녹여가며 전우들의 꿰진 옷들을 기워주었습니다. 그는 맹물로 끼니를 에워가면서 이틀이건 사흘이건 맡은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업의 성과를 논할 때면 매번 전우들을 내세워주었습니다. 군복제작이 끝난 다음 공로자들을 표창할 때 금반지와 시계를 받고 군복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나만 이런 특대를 받으면   하고 송구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할바령회의 후 소부대공작에 참가하였던 최희숙은 중요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오다가 적들의 만산토벌을 당하였습니다. 만산토벌이란 빗으로 훑듯이 온 산판을 샅샅이 뒤진다는 뜻입니다.

소부대를 발견한 적들은 유격대원들을 사로잡으려고 기를 쓰고 따라왔습니다.

최희숙은 포위속에서 그만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적들에게 붙잡히였습니다.

적들은 비밀을 뽑아내려고 그에게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두 눈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문과 위협도 최희숙의 송죽같은 절개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여투사의 이 외침앞에서 혼비백산한 적들은 최희숙의 심장까지 도려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는 것이였습니다. 혁명가의 심장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에는 혁명가의 표식도 없고 반역자의 표식도 없습니다.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 동지들을 위해 고동친다면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만을 위해 고동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들은 최희숙을 체포하자마자 우리가 그에게 표창으로 준 금반지를 빼앗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놈들은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우리에 대한 믿음과 의리는 결코 빼앗아낼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최희숙의 심장을 도려냈지만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혁명절개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생명관에 깃든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높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희숙이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대원들은 목이 메여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오래동안 슬픔에서 헤어날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말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원쑤들에게 두 손을 묶이우고 두 눈을 빼앗긴 최악의 상태에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한 최희숙의 말속에는 얼마나 견결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 기개가 높뛰고 있습니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그 말은 여투사 최희숙의 한 생의 총화이기도 하였습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되였습니다. 여투사의 그 외침소리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를 주장하며 낙천적인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 내가 중시하고 있은 좌우명의 하나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어떤 동요나 편향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올 수 있은 것은 이 낙관주의의 덕입니다.

나는 한줄기의 빛조차 볼 수 없는 실명상태에서 남긴 최희숙의 마지막 말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강의한 의지와 불변의 신념을 담고 있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최희숙은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대오의 대열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여성혁명가입니다.

최희숙의 남편 박원춘은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서 옥중생활을 했습니다.

최희숙처럼 최후를 마친 여대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순화의 최후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후를 그렇게 마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순화는 이봉수의 안해입니다. 이봉수가 군의로 활동할 때 안순화는 같은 부대에서 재봉대책임자로 일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섯 명의 자식은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모두 죽었거나 부모들과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동상으로 두 발의 발가락을 모조리 자른 맏이는 중환자들과 함께 쏘련으로 들어갔고 둘째는 홍역을 앓다가 죽었으며 셋째는 유격구에 쳐들어온 일본군의 총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넷째는 굶어죽고 다섯째는 남의 집에 주었는데 그 생사여부와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봉수의 회상기가 여러 편 세상에 소개된 것만큼 그 다섯째가 살아 있으면 분명 아버지를 찾아올 텐데 나는 아직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순화

그 아이를 두 돌 전에 남의 집에 주었으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양부모들이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순화는 1938년 봄에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밀영에 있던 유격대원들이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남만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적 토벌대가 갑자기 밀영에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그 밀영에는 주로 병원일군들과 재봉대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안순화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험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적들은 유격대원들의 행방과 식량창고, 약품창고의 위치를 대라고 하면서 안순화를 악착스럽게 고문했습니다. 토벌대 대장은 승산도 없는 싸움에 피를 바치고 청춘을 바치는게 아깝지 않는가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그를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안순화가 고문이 두려워 놈들의 물음에 고분고분 대답했더라면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들은 귀순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혁명대오를 와해시키려고 날뛰였습니다. 귀순신청서에 보증인을 밝히고 손도장이나 찍으면 어제날까지 타도일제를 부르짖으며 무력항쟁을 하던 사람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안순화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적들의 회유와 고문을 이겨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적들은 처음에 그를 발길로 차고 짓뭉개다가 머리칼을 마구잡아 뜯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순화가 이놈! 저놈! 하며 점점 더 완강하게 저항해나서자 총알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의 가슴과 배에 참나무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육중한 나무말뚝이 살과 뼈를 문지르며 육신을 깊숙이 박힐 때 안순화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안순화는 그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 지킬 것을 다 지키였습니다. 참나무말뚝이 몸에 박히는 순간에는 마지막 힘을 모아 조선혁명 만세! 와 여성해방 만세! 를 부르짖었습니다.

안순화가 희생된 후 전우들은 그의 배낭을 풀어헤치고 유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유물들 가운데는 안순화의 남편 이봉수가 1920년대말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부두노동을 하여 번 돈으로 사준 세루치마와 채 뜨지 못한 책상보가 있었습니다.

세루치마는 10년동안 한번도 입어보지 않고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만 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루치마를 왜 그처럼 고이 간수해왔겠습니까. 안순화

는 틀림없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 그것을 입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유물을 통해서도 그가 혁명이 승리하게 될 내일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헌사쓰의 실을 풀어 짬짬이 떠왔다는 책상보도 역시 조국이 해방된 다음 남편의 책상우에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숨진 안해의 시신을 세루치마로 덮어줄 때 이봉수는 10년 전에 세운 치마의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희숙, 안순화와 같은 여성들은 북만의 항일무장부대들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만에서 싸운 조선여성들이 얼마나 혁명절개를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은 한주애의 실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봉대책임자인 한주애는 후방밀영에서 유격대원들의 솜동복을 짓다가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나어린 딸애와 함께 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전우들을 뒤로 빼돌리느라고 한주애는 자기를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승산없는 맞불질을 하다가 토벌대 놈들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철창속에 갇혀있었습니다. 적들은 어머니와 딸이 한 감방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호강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 모녀를 따로따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주애의 마음을 굽히기 위해 이따금씩 딸애를 데려다가 면회도 시켰습니다. 모성애를 역이용하려는 심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술책도 한주애의 지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들은 우쑤리강변에서 한주애를 총살하였습니다. 일본헌병대의 형리들이 그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였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재봉대원

북만유격대에서 활동한 안순복, 리봉선을 비롯한 8명의 재봉대원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달려드는 적들과 생사결단의 싸움을 벌이다가 사로잡힐 고비에 이르자 목단강의 깊은 물에 꽃같은 몸들을 던지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은 동만의 여대원들속에도 있었습니다. 7명의 여대원들이 내도산으로 가던 도중 적들의 포위에 들자 푸르허강물에 뛰어들어 청춘을 마치였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최후는 항일혁명사의 한 페이지에 새로운 전설을 남기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나는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목단강 8열녀의 투쟁을 형상한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만여성들 뿐 아니라 남만유격대원들의 친근한 누나인 이순절도 혁명가답게 절개를 잘 지키였습니다.

김수복은 장백현 주경동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희생되었습니다.

영웅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희숙이나 안순화, 동만의 7열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합니다.

벽성군여맹위원장이었던 조옥희가 일시

적 후퇴시기 적구에서 빨치산투쟁을 하다가 적들에게 붙잡혀 학살되였을 때 우리는 그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도 최희숙이나 안순화처럼 혁명절개를 끝까지 지켜낸 강한 여자였습니다. 적들이 손톱, 발톱을 뽑고 두 눈과 젖가슴을 도려내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지지였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추상같은 목소리로 적들을 호령하였으며 조선노동당 만세! 를 부르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였습니다.

조옥희가 빨치산투쟁을 하면서 적들을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살상한 적의 수자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머리를 떳떳이 쳐들고 적들의 멸망을 선고한 그 높은 기개와 혁명적 지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를 표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나 짓고 여맹사업이나 몇 해 하던 평범한 여성이 그처럼 빛나게 일을 마치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양심앞에 조옥희를 내세우고 싶어 그를 형상한 영화도 만들라고 하였고 그의 조각상도 만들어 세우게 하였으며 그의 고향 농장에 조옥희라는 이름도 달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다가 그곳에 소장되어있는 항일투사 이계순의 달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것은 이계순은 16살 때 혁명에 한 몸을 바칠 굳은 결심을 담아 어머니에게 잘라보낸 머리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이계순의 달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귀중한 유물이니 잘보관하라고 당부하시었다. 그 후 수령님께서는 이계순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달비에 깃든 사연을 보더라도 이계순동무가 대단히 훌륭한 혁명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달비를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들과 누이들, 우리 나라 여성혁명가들의 깨끗하고 굳센 절개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됩니다.

원래 조선여성은 외유내강하고 절개가 굳습니다. 나는 항일혁명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이계순의 달비는 여성혁명가들의 절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주에서 지하활동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신발바닥에 달비를 깔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조선에서 살 때부터 여러 해 동안 고이 간수해오던 달비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울부짖는 무인지경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걸으면 걸을 수록 발바닥이 후끈후끈해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신발을 벗어보니 바닥에 달비가 깔려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해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따를 사랑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가 깔아준 달비는 모성애의 표시였습니다.

상해에 조선사람들의 임시정부가 서고 중국 동북지방에 정의부니 참의부니 신민부니 하는 독립군단체들이 생겨나 인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아낼 때 나는 적지 않은 여인들이 달비를 팔아 독립헌금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달비는 애국심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왜 이계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달비와 관련된 과거사를 돌이켜보는가 하면 그 달비 하나만을 통해서도 그의 인간상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순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싸운 김일동무와 박영순동무가 잘 압니다. 이계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김일제1부수상과 박영순동무를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제1부수상이 과묵해서 취재할 멋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김일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한 자랑은 잘 안하지만 남에 대한 이야기는 곧잘 합니다.

이계순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은 그의 오빠 리지춘이였습니다. 리지춘은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있는 사범학교에서 우리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투쟁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후 그는 부모들이 살고 있은 화룡땅에 돌아가서 공청사업을 지도하다가 그만 적들에게 붙잡혀 학살되였습니다. 적들은 그를 총살한 다음 시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리지춘은 두벌죽음을 당한 셈입니다.


이계순

이계순은 어랑촌유격구에 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의 소식을 들은 다음날 새벽 이계순은 머리채를 풀고 그것을 가위로 뭉청 잘라 다리를 지었습니다. 다리란 달비라는 뜻입니다. 그는 달비와 함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떠난 후 오빠마저 세상을 떠났다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쑤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머님께 저의 다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래동안 어머니 곁에 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듯이 이 다리를 보십시오.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디 몸 성히 계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이계순의 마지막 고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혁명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화룡에서 여러 해 동안 지하사업은 해온 박영순의 말에 의하면 이계순은 어릴 때부터 혁명에 대한 감수력과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군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33년 여름에 그는 당조직으로부터 용정시내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주되는 임무는 파괴된 지하조직들을 복구하거나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였습니다. 적의 중요한 통치거점중의 하나인 용정지구에는 군경들과 밀정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이 고장에 둥지를 틀고 있던 첩보기관들은 촉각이 매우 예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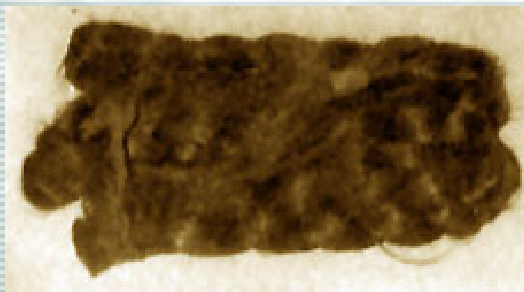
유격구의 혁명조직이 지하공작경험이 별로 없는 이계순을 이런 고장에 파견한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 용정시내에 있는 당조직들과 부녀회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대부분 파괴되고 조직원들은 거의 다 검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순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리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국수집에 잡부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국수집에서 부엌데기노릇이나 하는 촌티나는 여자를 공산당이 파견한 지하공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국수집은 공작지점으로도 훌륭하였습니다. 이계순은 물도 긷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했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복덩이가 굴러 들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도 내오자면 하루종일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바로 국수배달이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만 해도 돈냥이나 있고 세도 깨나 쓰는 집들에서는 국수를 주문해다 먹었습니다. 집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농마국수 몇 그릇을 가져오라고 호통치면 배달원이 목판에 국수와 육수물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주문자들한테까지 날라다주었습니다.

이계순은 주인마누라의 신용을 얻어 국수배달원의 자리를 따냈습니다. 그는 국수를 배달하러 나갈 때마다 짬을 내여 필요한 조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선대조직부터 복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목판에 국수그릇을 담아 이고 하루에도 수십 리 걸음을 해야 하는 배달원노릇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어느 날 목판을 머리에 이고 주문자의 집으로 바삐 걸어가던 이계순은 미친듯이 달려오는 왜경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그만 목판을 떨어뜨려 국수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계순이 남긴 달비

이계순은 그 바람에 주인한테서 된 욕을 먹고 배달원의 자리를 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루영업이 끝나면 피곤을 무릅쓰고 국수집뒤뜨락에 나가 목판에 돌을 담아이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걷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계순의 이런 직심스런 열의가 주인의 눈을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계순의 나이가 아마 그 당시 열일곱 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투사들은 벌써 15살, 16살만 되어도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10대의 나이에 선동연설도하고 적구공작도 하고 조직건설활동도 하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들은 세상물계를 다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속에서 자라난 세대여서 지금 청년들보다 조숙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여 덮어놓고 선각자가 되고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적으로 준비되어야 혁명투쟁에 일찍이 뛰어들수도 있고 혁명을 해도 본때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견실하지 못하면 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순이 혁명을 잘한 것은 사상이 견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20살이라고 하면 젖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20대라고 하면 아직 세상물계를 모르는 철부지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0대나 40대, 50대가 돼야 간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20대의 청년들도 맡겨만 주면 책임적인 임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방 직후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을 수행할 때 이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는 20대의 청년들이 현당서기도 하고 성당서기도 하고 사장도 하고 군장도 하였습니다. 나는 20대에 혁명군사령관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으면 간부대열이 노령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진운동이 활력을 잃게 됩니다. 간부사업에서는 철저히 노중청을 배합해야 합니다.

이계순이 동만사람들의 화제에 제일 크게 오른 것은 화룡현당서기로 일하던 그의 남편 김일환이 민생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배타주의자들한테 희생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간도지방사람들은 김일환을 학살한 주범들을 한결같이 저주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의 미망인인 이계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정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계순이 동만당지도부의 처사에 환멸을 느끼고 혁명에서 손을 떼거나 유격구를 떠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간도지방의 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속에서는 동만당지도부의 좌경망동주의에 침을 뱉고 유격구를 등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에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에 때가 많이 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 혁명에 염증을 느끼고 유격구를 떠나갔거나 손맥을 놓고 신세타령을 하며 세월을 보냈겠지만 이계순은 그와 반대로 강심을 먹고 일어나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혁명에 보탬을 주려고 했으며 남편이 혁명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결백하고 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창즈유격구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계순은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는 임신부였지만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계순은 자기자신과 태어날 새 생명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유격구의 인민들을 걱정하면서 매일 같이 산채를 뜯고 나무껍질을 벗기였습니다. 그런 것조차 바닥이 나면 개구리를 잡고 그 알을 모아다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완하였습니다.

그 후 이계순이 해산을 했지만 젖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때에 유격구마저 해산되었습니다. 이계순은 어린 딸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겨 적구로 떠나보내고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맡긴 젖먹이는 김일환이 학살된 다음에 낳은 유복녀였습니다.

그 유복녀와의 이별이 아주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두 살밖에 안된 어린애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을 치고 시어머니도 울지 이계순자신도 아이가 불쌍해서 몇 번이고 되돌아가서는 부둥켜안고 흐느끼지 그러니 그 이별이 왜 눈물겹지 않았겠습니까.

유격구해산과 함께 일가친척들과 친지들, 혁명전우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던 그 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처럼 눈물속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계순의 시어머니가 손녀애를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동냥젖도 한두 번이지 노상 남들의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알과 강냉이알을 짓씹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계순은 이처럼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과 모진 아픔을 안고 총대를 잡은 투사였습니다. 그는 무송에서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이계순을 후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동상을 당한 몸이였기 때문에 전투부대에서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계순은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였습니다. 일선에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계순을 위해서 그 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싸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 우리 아버지도 동상 때문에 돌아가셨다, 발가락이 뭉땅 썩어 문드러져서 지팡이를 깊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더니 그는 마지못해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치료해주던 유격대의 후방병원이 곰의골밀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두산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1937년 음력설에 나는 횡산지구의 후방밀영들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박영순이네 무기수리소 동무들이 깡통으로 국수분통을 만들어가지고 농마국수를 눌러 나에게 대접해주었다는 음력설이 바로 그 해 음력설입니다.

우리가 후방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이계순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쳤습니다. 송의사가 하는 말이 그는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병원노릇도하고 작식대원노릇도 하면서 몸을 혹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병원을 떠나면서 이계순에게 딴 일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병을 떼는 일 하나에만 전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한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신원을 통해 병원동무들에게 편지와 후방물자를 몇 차례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를 잠깐 뜬 사이에 적들은 우리 부대의 후방밀영들에 토벌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송의사가 책임진 후방병원도 불의습격을 당했습니다. 박순일은 격전끝에 전사하고 이계순은 적들에게 사로잡혀 장백현으로 끌려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두수뿐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줄도 모르고 김정필과 한초남에게 식량을 지워 병원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다 나았을 터이니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상스럽게 변모해버린 이두수만 데리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후방병원에 들이닥친 재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방에 정찰조들을 내보내어 이계순의 행처와 생사여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정찰조들이 그가 적들에게 붙잡혀간지 10여일만에 학살되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정찰조원들은 이계순의 최후를 직접 목격했다는 장백 사람들을 만나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계순을 총살하는 날은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그날 전향한 공산군여자의 반성연설이 있다는 광고를 내면서 주민들을 학교운동장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혜산쪽에서 넘어오는 장사군들도 모조리 그 운동장으로 끌고갔습니다.

그러면 이계순이 무엇 때문에 주민들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적들에게 요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공산주의자로서의 이계순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인민들과의 영별을 반일혁명선전으로 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반성연설을 몇 마디 하면 적들은 그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계순은 그런 비루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총칼을 겁내지 않으며 무슨 말이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이계순은 나는 비록 죽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며 그 사령관도 건재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않아 온다, 모두다 일치단결하여 적의 폭압을 박차고 반일항전에 떨쳐나서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다고 합니다.

이계순은 마지막까지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 교양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연설을 한다고 소개했던 공산군여자가 반일을 선동하는 혁명선전을 했으니 적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백지방의 토배기들이 지금도 그때의 광경을 생생하게 회상한다고 하니 그 연설이 그 고장 인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순이 유명한 여투사로 된 것은 그가 이처럼 최후를 잘 마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에서의 정점은 바로 이 최후에 있습니다. 생애의 정점이란 사람의 정신력과 활동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점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맞이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60대나 70대에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한때 명성을 날리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한 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이계순이나 최희숙처럼 인생의 끝을 쇠소리가 나게 맺는 사람들을 역사는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계순을 잊지 못해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계순과 같은 여투사는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영웅적인 생애는 혁명적인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이계순은 조선민족이 낳은 참된 딸이며 여성혁명가의 훌륭한 본보기의 한 사람입니다.

이계순의 친정어머니는 오래동안 외손녀의 생사여부를 몰라 남모르게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전후에야 종합대학에 다니는 외손녀를 만나 딸이 남기고 간 달비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3대를 오르내린 그 유물은 단순한 달비가 아니라 이계순열사의 값높은 인생의 상징이였습니다. 두 살 때 생이별을 당하여 얼굴도 목소리도 알길 없는 어머니가 한 줌의 달비로 되어 딸을 찾아왔으니 세상에 이런 상봉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딸은 그 달비에 볼을 비비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이계순의 딸은 지금 부모들이 목숨을 바쳐 개척해온 혁명의 대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절개를 지켜낸 여성들의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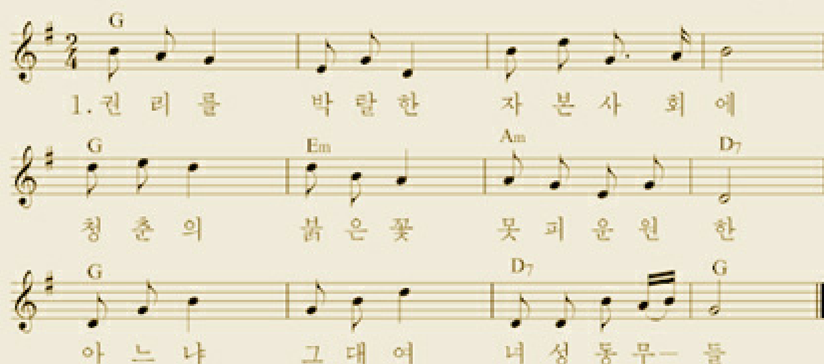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역사와 우리 나라 여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혁명열사릉

여성해방가

빠르지 않게(♩=87) 혁명가요



2.남 몰래 조용히 우는 눈물로
청춘의 고운 낯에 주름 생기고
매 맞아 얻은 병 살기 싫어요

3.골방안 감옥살이 언제 끝나나
꿈에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멸시와 천대는 더욱 싫어요

4.아버지 어머니 나의 오빠여
지주놈 장리빚에 날 팔지 말고
차라리 이내 몸을 없애 버려요

5.녀성들 우리 동무 다 일어 나라
부르죠아제도를 없애버리고
동등한 권리 위해 총들을 들자

6.뎔매어 하는 결혼 멍에를 벗고
구속에서 용감히 뛰쳐들 나와
동등한 권리를 다같이 찾자

제21장



대부대선회작전의 총성

밀영에 찾아온 여인
중국인지주 류통사
수십만의 ≪대토벌군≫과 맞서
오중흡과 7연대
평안도사람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마에다토벌대≫의 종말

■ 시기 : 1939. 7 ~ 1940. 3

1. 밀영에 찾아온 여인

1956년가을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기는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부터 긴 전화를 받았다. 학포탄광탁아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기가 해방 전에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싸웠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청하기에 평양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에 그 여성이 내각첨사로 찾아왔다. 찾아온 사연을 묻는 서기에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자꾸만 뵙고싶어서 하고 간신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대표단과의 사업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계시었다. 대표단과의 사업을 마치신 수령님께서는 서기가 여인이 찾아왔던 전말을 보고드리자 강흥석의 처 지순옥이 그 여자가 살아있었구만 라고 하시며 깊은 추억에 잠기시었다.

지순옥이란 어떤 여자일가?

어버이수령님께서 1972년 5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실 때와 1976년 3월 음악무용서사시극 대부대선회작전을 보실 때 그리고 1985년 10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돌아보실 때 하신 교시들을 종합하여 아래에 지순옥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한다.

우리가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백두산동북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며 8연대의 사업을 지도하고 있을 때이니까 그게 아마 1939년 여름일 것입니다.

어느 날 7연대장 오중흡이 나를 찾아와서 부대실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끝에 사령부로 오던 도중 올기강상류에서 강흥석의 처를 만나 8연대밀영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순옥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면서 밀영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열정에 탄복하였습니다. 송화강이나 올기강유역의 산악지대는 적의 군경들과 밀정들이 무시로 싸다니는 위험한 유격전구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눈먼 총알을 맞을 수도 있고 통비분자로 몰려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남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소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순옥의 남편 강흥석은 명사수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애처가로서도 소문난 사람이였습니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의 배낭속에는 안해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가 여러 통 있다고 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혼을 한 그는 결혼 직후 인차 혁명을 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안해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안해 역시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정보선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내탐한 일제는 지순옥을 위협하여 그를 간첩활동에 끌어들이였습니다.

아무튼 강흥석이란 사람이 안해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으니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강흥석이 식량공작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령부로 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지순옥을 만나보니 몸가짐이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밝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그 여자에게 이 산천어는 장군님께서 부인을 위해 손수 낚은 것이니 많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지순옥은 몹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셈인지 밥을 몇 술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흥석

나는 그에게 여대원 한 명을 붙여 말동무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포속에 누워 밤새껏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그들 부부의 상봉을 앞두고 경사가 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면서 처음 보게 되는 상봉이었기 때문에 나도 축복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강흥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을 만나고나니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남편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사지판이나 다름없는 산속으로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대의 위치를 어떻게 면바로 알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담화를 해본 동무들도 그가 하는 앞뒤말이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반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밀영에 들어온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되었을 때 오중흡과 오백룡이 헐떡거리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중흡은 제가 인정에 사로잡혀 알아도 보지 않고 일제의 밀정을 사령부로 끌고왔습니다하고 청천벽력같은 보고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였습니다. 오백룡은 혁명군소대장의 안해라는 것이 유격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일제의 개가 되어 들어왔으니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당장 총살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강흥석의 처와 함께 한 천막안에서 자는 여대원이 지순옥의 거동도 이상하고 말도 아귀가 맞지않아 미타하게 생각하던 중 밤중에 바느실로 잡아맨 그의 겹옷속을 깐깐히 살펴보다가 독약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독약공세에 얼마나 신물이 났던지 우리 동무들이 그런 것쯤은 인차 식별해낼 때였습니다.

독약봉지가 들장났다는 것을 그 여자가 아는가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감시만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동안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밀정이나 암해분자들이 우리 부대에 잠입했다가 적발된 실례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간첩들 중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일 수 없는 기본계급 출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순박한 머슴군이나 노동자들에게도 간첩임무를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혁명군에 남편을 보낸 여자를, 그것도 혁명군에서 소대장을 하는 사람의 안해를 밀정으로 길들여 우리 군영에 들여보낸 전례는 없었습니다. 혁명군소대장

의 안해가 간첩임무를 받고 나타났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상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첩보모략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약하였습니다.

오중흡의 보고를 받고 나는 강흥석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중흡과 오백룡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순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적 오랜 담화를 했습니다. 강흥석이네 가정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혁명군으로 찾아들어올 때 고생하던 일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그의 친정집형편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화제는 자연히 강흥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강흥석이 내일이나 모레쯤 공작지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자 지순옥은 별안간 얼굴을 싸쥐면서 와락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저고리에서 제손으로 꿰맨 자리를 뜯더니 독약봉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군님, 저는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죽어 마땅한 년입니다! 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래 물 한 모금을 먹이고 그 여자를 좀 진정시킨 다음 부인이 자백을 했으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기 죄과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명군은 관대하게 처리한다, 더구나 부인은 강흥석소대장의 안해가 아닌가, 그러니 겁내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라, 어떻게 되어 간첩이 됐고 간첩이 된 다음 무슨 훈련을 받았고 혁명군으로 찾아올 때 임무는 어떤걸 받았는지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순옥은 간첩으로 흡수된 전말과 간첩훈련내용, 간첩임무와 입산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습니다.

훗날 이 광경을 목격한 오백룡투사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아마 10년은 감수된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독약을 가지고 감히 장군님앞에 나타나다니. 그걸 작식가마나 밥그릇에 슬쩍 쳤더라면 어쩔 뻔 했는가. 그 조그마한 여자가 아예 조선혁명을 망쳐놓을 뻔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항일투사들이 지순옥을 회상하기조차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훈춘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영사가 작성한 정보기밀자료는 지순옥을 간첩으로 파견한 목적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파견상황:

1. 지령내용

(1) 강홍석을 획득하는데 따르는 내부분열공작

(2) 간부의 독살

(3) 유격대의 취조에 대해서는 부모의 강요에 따라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왔다고 말할 것

2. 연락방법

본인과 본인이 획득한 유격대측 인물에 대하여 특무과 가다다경좌 혹은 미나미경위에게 직접 연락할 것.

3. 입산날자. 시간 및 장소

부모에게 본 공작을 승인시키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연길에서 본인에게 각종 필요한 지식을 준 다음 8월 10일 계원과 동행시켜 유격대잠복지로 지목되는 화룡현 맹하동 서남쪽 1088고지와 서쪽 의란구 방면에 목표를 두고(8월8일 오후 10시 **김일성**주력부대 120명이 화룡현 용택촌을 습격하고 서남쪽 밀림지대로 도주한데 의하여 이렇게 판단함)입산시키었다.

4. 귀래예정

똑똑치는 않으나 대체로 2-3개월을 필요로 한다고 예견.

(훈령정기밀 제 186호. 소화15년(1940년) 7월 26일 훈춘영사 기우찌 다다오보고)

일제특무기관에서는 지순옥을 생간이라고 했습니다. 생간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술어인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지순옥을 생간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적들이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직업적 스파이로 써먹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지순옥에게 네 남편이 유격대기관총수가 되어 황군을 수없이 해쳤으니 그 죄는 3대를 멸살시켜도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네가 공산군부대에 찾아가서 남편을 귀순시키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상금도 후히 주고 잘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를 멸살시키겠다고 하니 지순옥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백을 받고 보니 가슴이 여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깨끗한 사랑과 순정마저 우리와의 대결에 서슴없이 악용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비렬성과 악랄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처자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까지도 악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습성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짓뭉개다 못해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마저 초토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사람들을 야수화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외세에 의해 강탈당한 영토와 국권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지켜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고수하기 위한 야수들과의 대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을 야수화, 불구화, 기형화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입니다. 안해에게 간첩훈련을 주어 남편이 하는 일을 훼방하게 하고 남편의 사령관과 전우들을 독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래 야수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 몹시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이 인류를 위협하는 큰 골치거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도덕의 붕괴와 인간오염입니다. 이 세계의 하수도와 오물장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사환군들에 의하여 사람의 탈을 쓴 야수들과 기형아들과 불구자들이 산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오염은 역사발전을 저애하는 가장 큰 제동기입니다.

나는 엎드려 우는 지순옥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말라, 늦게나마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 우리는 부인을 조금도 다르게 생각지 않는다, 강압에 의해 죽지 못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하겠는가, 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지순옥이 간첩임무를 받고 온 여자라는 것이 부대에 알려지게 되자 밀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나는 원래 지순옥의 문제를 비밀에 붙이려고 했으나 오중흡, 오백룡동무들이 부대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실을 공포하여 경각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사령부로 달려온 강흥석은 밀영에서 쉬쉬하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지경이였습니다. 그가 제손으로 안해를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권총을 들고 돌아가는 바람에 나는 강흥석이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를 설복하여 자기 연대가 있는 홍기하막치기로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부부를 그렇게 갈라놓자니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군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진한장 같은 사람도 자기를 귀순시키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행패를 하려고 했다니 강흥석의 심정은 이해할만한 것이였습니다. 아량이 있고 인정이 헤픈 안길도 어느 해인가 귀순을 권고하려고 온 자기 가문의 사람을 제손으로 처단해버리겠다고 하다가 충고를 받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루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총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생각해 보라, 혁명적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자기 혈육을 쏴죽인다면 그런 군대를 누가 지지해주겠는가, 적들은 바로 우리 혁명군이 동무네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부자간, 형제간이 서로 원쑤가 되어 골육상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이치를 왜 모르고 헤덤비는가고 일깨워주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흥석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꾸중이 잘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한동안은 밀영에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지순옥을 믿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지어는 마땅히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순옥을 믿었습니다. 그는 일가친척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간첩임무를 받은 사람이고 적의 강압과 기만선전에 넘어가 혁명군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게 되었던 여성이였습니다. 사람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순옥은 혁명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교양을 받은 여자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우리군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게 되자 즉시 죽음을 각오하고 죄과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면 자백은커녕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쳤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인은 반드시 우리 편으로 되면 되였지 적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인가 김책동무한테서 이계동살해사건의 경위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계동은 김책과 함께 감옥살이도하고 주하유격대도 무은 오랜 당원입니다. 운남강무당 졸업생인 그는 전투지휘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군사정치일군을 주광아라는 간첩이 죽였습니다. 주광아는 유격대에 침투한 후 한 개 부대의 비서장자리에까지 기어오른 자였습니다. 그자는 부대의 규율이 해이된 틈을 타서 이계동을 암살했습니다.

이런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 대원들이 지순옥을 경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순옥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왜 용서해주었는가. 자기 죄를 제입으로 자백한 그의 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한 존재로 되는 것은 이성과 양심, 도덕과 의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빼놓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더럽히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지순옥은 비록 한때 양심을 어지럽혔지만 자신과 싸워 그 양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오점을 털어놓은 여자입니다. 사람

이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기는 쉬워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순옥은 우리의 도움을 받고 힘겨운 자체투쟁을 통해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갱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구렁텅이에 밀어던지겠습니까.

혁명은 인간의 양심을 지켜주고 빛내어주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순옥의 그 양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가문에 한 명의 혁명가만 있어도 그 혁명가를 혈육들로부터 고립차단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우리의 애국역량을 닥치는대로 압살하고 분해시키고 각개격파시키자는 것이 적들의 시종일관한 책략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내부의 혈연적 연계를 귀순공작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의 하나가 혈육끼리 서로 경계하고 증오하고 잡아죽이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적들의 간계와 수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미욱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설사 간첩임무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대죄를 짓지 않은 이상 다 용서해주고 개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 번은 총독부에서 파견한 밀정이 예수교신자로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밀정은 밀가루 몇 포대를 가지고와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위해 조선서 가져온 선물이니 만두라도 빚어잡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작식대원들을 시켜 그 밀가루로 몽땅 만두를 빚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작식대원이 그릇에 만두를 담아가지고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밀정은 우리가 권하는 만두를 사양했습니다. 어서 들라고 거듭 권고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밀가루에 독약을 섞어가지고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밀정에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도 배가 아파서 나라를 찾겠다고 한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가, 조선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조선사람답게 처신해야지 그렇게 너절하게 살아서는 무엇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개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타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전박에 두고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잡지엔가 그 사실이 실렸다고 합니다.

나는 오백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순옥을 그냥 밀영에 두고 교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후에는 그를 재봉대로 보냈습니다. 재봉대에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600벌의 군복을 만들 과업을 받았는데 일손이 딸려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위룡도 재봉대에 동원되어 있었지만 그 역시 지순옥이 오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희숙을 비롯한 여당원들에게 지순옥을 따뜻이 대해주고 잘 교양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순옥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추석을 쇤 다음 화라즈쪽으로가면서 홍기하막지기에 있는 강흥석을 그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화라즈의 깊은 밀림속에서 마침내 그들 부부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라즈에 얼마간 머물러있으면서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순옥은

우리가 만든 학습교재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소학교물도 먹은 식자가 있는 여성이였습니다. 그 후 행군기간에도 용케 부대를 따라다니며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해주었습니다. 생소하고 힘든 생활이였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노상 웃음기가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잘돼나가던 일이 그만 비극으로 번져갔습니다. 강흥석이 육과송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지순옥이한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운신

지순옥은 행군 때마다 김운신이 메고가는 기관총을 가끔 유심히 살펴보군 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강흥석이 다루던 것이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가 지방공작을 나갔기 때문에 김운신한테 기관총을 인계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무 소용도 없는 숨박꼭질이였습니다.

우리는 육과송전투를 치른 후 송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예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공연장소에서 나는 수심에 찬 지순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없는 그를 부대에 그냥 두어둘 수 없어 그 후 우리는 지순옥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를 보내주지 않으면 일가친척들이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밀영을 떠날 때는 물론 여비도 주고 길안내자도 붙여주었습니다. 밀림속으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정전후에 지순옥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래저래 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까지 왔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순옥이 떳떳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면 우리와 헤어진 후에도 조국과 민족앞에 죄될 일은 그리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를 만났더라면 산에서 내려간 후 그가 살아온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부서 동무들이 현대사자료라는 책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경위의 일단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자기를 빨치산밀영에 파견한 적들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했고 혁명군의 내부생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우찌 훈춘영사가 상급에 제출한 보고내용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간부들은 모두가 사상이 견실하고 시종 혁명승리를 위한 노력에 열중하며 대원들은 이에 자연히 매혹되어 전적으로 간부들을 신뢰하면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어 제반 공작의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과 제2방면군이 사기왕성하고 단결력이 있는 것은 군지휘관 **김일성**이 맹렬한 민족적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고 완강하고 건강한데다가 통제의 묘술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어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부대의 실상이 비교적 공정하게 서술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순옥이 우리 혁명군의 생활과 우리 대원들의 정신상태에 대해 편견없이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적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기

우찌영사의 보고내용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사항만 훑어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 소견과 처치

1. 소견

(1) 본인은 공술은 현하의 각종 정세에 비추어볼 때 논리가 정연하여 일단 수긍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산초기 독약을 감추어가지고 갔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형도 받지 않고 1년나마 비단과 행동을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무사히 놓여나오게 된 것은 혹은 유격대의 속심에 따라 위장귀환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되어 금후의 언동에 주의를 요한다.

2. 처치

(1) 지순옥은 안도에 잇는 가다다공작반장에게 넘겨 은밀히 감시하면서 위장귀래자라는 전제밑에 회유에 힘쓰며 보충적 취조를 추진함과 함께 특별공작을 따로 시키고 있다.

(훈령정기밀 제186호, 소화 15년(1940년) 7월 26일 훈춘기우찌 다다오보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순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돌아간데 대해 몹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을 한갖 말하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써야 어떻게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순옥을 징벌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처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시집과 친척들은 모두 반동가족이라는 누명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혁명은 인간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간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입니다. 인간을 매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인간으로서 참된 생활을 해나가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고 부활 시켜주는 것이 가장 값높고 위대한 혁명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간을 막돌처럼 쉽게 버리지만 우리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아끼고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김정일**동무의 성품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장점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일동무는 언제인가 아래일군들에게 나폴레옹은 그대들이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데 자기자신은 그와 반대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 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동무의 철학적 신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김정일**동무를 대할 때마다 나는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장래에 대해 마음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운명을 망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이며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원리,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만 일관된 숭고한 도덕과 의리로 얽혀져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었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신성한 윤리도덕이다.

2. 중국인지주 유통사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팽진을 만나주신 일이 있다. 그이께서는 그날 조중량국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무장투쟁을 벌이던 시절에 대해서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팽진은 민족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만민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숭고한 계급적 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을 높이 평가한 다음 동북해방작전당시 많은 중국인지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이라는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내보이면서 지난날 자기네가 항일연군을 도와준 사실에 대해 역설하더라는 것을 여담삼아 말씀드리었다. 동북해방작전당시 팽진의 직함은 동북민주연군 정치위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이 그 확인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회억의 말씀을 하시었다.

확인서이야기가 나오니 유통사가 생각납니다. 유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원군확인서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사는 우리가 백두산동북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 화룡현에서 만난 유명한 중국인부호입니다. 장백현에서 만났던 조선인애국지주 김정부에 못지 않게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유의현입니다. 조선말을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그는 중국사람들과 조선사람들사이에 의사를 소통하여야 할 일이 생기면 스스로 통역을 맡아나서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유통사라고 불렀습니다. 통사란 지금말로 통역이라는 뜻입니다.

백두산동북부로 넘어가 올기강전투를 한 다음에 우리는 화룡과 국내 삼장 지구, 안도현일대를 한 바퀴 돌고 올기강밀영에 머물러있으면서 정치군사활동을 맹렬히 벌이였습니다.

그 당시 기본부대는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사령부에는 기관총소대와 경위중대 대원들이 있었는데 식량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밀영부근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다 가난한 농민들이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작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부대가 자기네 관할구역에 나타나자 화룡현의 적들은 혁명군이 와서 쌀을 빼앗아간다고 선전하면서 지정된 몇몇 장소에 식량을 다 모아놓고는 하루 한 사람당 식량소비기준을 정해놓은 다음 부락에서 달구지를 가지고 오는 대표들에게 이틀치씩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어 적들은 현내 주민들에게 석유를 두 병씩 구해놓게하고 혁명군이 와서 식량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다

가 쏟아 부으라고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식량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심하던 중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담화를 하다가 그 전날 소왕청유격구역에서 살다가 유격구가 해산될 때 화룡현으로 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담화를 하는 과정에 중국인부호 유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통사만 쟁취하면 반일애국역량을 장악하는데도 좋고 후방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재일이나 강위룡과 같이 입대전에 화룡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유통사가 한때 자위단장까지 한 지독한 반공분자이기 때문에 징벌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주재일과 강위룡은 유통사의 내막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유통사네는 화룡현 소재지에서 약 30리가량 떨어진 우심산기슭에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용담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유통사네 집은 네귀에 포대를 박은 긴 토성안에 들어앉은 어마어마하게 큰집이였습니다.

유통사의 형은 그때 이미 칠순이 넘은 늙은이로 앉아서 가문의 좌상대접만 받고 있었고 둘째인 유통사 자신은 가문의 기둥으로서 관청 같은데 드나들며 주로 바깥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셋째 유의청은 서사들을 거느리고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이봉록과 박정숙의 말에 의하면 유통사네 집에서는 토지만 해도 100상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 상이 3,000평이니 100상이면 30만평 100정보나 되는 광대한 토지이다. 유통사네는 콩기름공장, 분탕공장, 양조장도 경영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상점들도 가지고 있었다. 화룡시내에는 백화점, 음식점, 소금전매점 같은 것을 두고 대리인을 시켜 운영하였다고 항일혁명투사들은 회상하고 있다.

유통사네 집안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였지만 반공을 하는데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화룡출신의 유격대원들은 그 가문 사람들을 가리켜 악질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아들이 화룡시내에서 위만경찰관노릇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유통사의 아들은 경찰관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부들이나 작인들을 종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또 그 아비인 유통사는 공산당과 연줄이 있다고 짐작되는 집사람들을 아들네 경찰서에 알려 문초를 받게 하든가 소작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살길을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통사네를 당장 징벌하고 그 가문재산을 강제로 수탈하자는 일부 사람들의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부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통사에 대하여 달리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에 대하여 깊이 요해해보지도 않고 서뿔리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유통사에 대하여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그가 조선말을 잘한다는 사실과 군중들과 허물없이 어울린다는 점이였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관청에서 조선인 작인문제가 제기되면 스스로 통역을 서주면서 작인들의 역성까지 들어주는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 와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조선작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특별히 돌보아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복동에 사는 유통사의 작은댁이 조선여성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흥미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국살이를 하는 조선농민들을 동정하고 조선여성을 작은댁으로 두고 있으며 조선말과 풍습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천하에 못된 악질지주라는 평을 받고 있는가? 어째서 동정심이 많다는 유통사가 주재일이나 강위룡과 같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경찰서 걸음을 시키며 못살게 굴었는가?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우리 동무들을 용담촌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용담촌에 가서 유통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해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유통사가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된 것이 바로 5.30폭동때문이었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5.30폭동 때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습니까. 땅뙈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일이고 반일이고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한 몽둥이로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그자들의 선동을 받은 폭동자들은 지주집대문을 두들겨 패고 곡식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별별 망동을 다 부렸습니다. 그런 극좌적인 망동은 공산당에 대한 영상을 아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통사는 공산당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생각하고 공산운동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집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한사코 박해를 가한 반면에 지주들을 보호해주는 군벌들과는 더욱 가깝게 지냈습니다.

9.18사변 후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생겨나면서 공산당이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을 갈라놓고 백색구역사람들을 적대시한다는 말을 듣고 유통사는 더욱 반공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만주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일본사람들도 미워하였고 공산주의자들도 미워하였습니다.

공산당은 나의 숙적이야.

유통사는 늘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비록 일시적 오해 때문에 반공을 하고 있지만 좋은 영향만 주면 그를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돌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통사는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다음 그들이 자기 집 가병들을 해산시키고 무기를 회수해간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 반일감정에 특별히 유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징벌이나 재산몰수가 아니라 유통사의 반공의식을 바로잡아 주고 반일애국정신을 더욱 조장시켜 그를 우리 혁명의 지지자, 후원자로 교양개조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7연대의 오일남을 책임자로 하는 공작소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오일남은 유통사를 만나자 **김일성**장군님께서 통사님과의 면담을 위해 자기를 파견하였는데 그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통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유창한 조선말로 잡아가겠으면 그저 잡아갈 것이지 면담이라는 보자기는 왜 씌우는가, 공산군 대장이 지주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는거야 잡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겠는데 당신네가 화룡현지경안에 들어와 돌아친다는 소문이 나돌 때부터 이 유의현이 칼도마우에 오른 물고기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각오하였다, 내 이미 죽음까지 각오한 바이니 의논이고 뭐고 빙빙 에돌 것없이 죽이겠으면 죽이고 끌어가겠으면 끌어가고 재물을 털어가겠으면 털어가고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오일남이네 공작소조가 자기를 납치하러 온 줄로 알고 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영감의 기상이 이만저만 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통사가 자기네를 얼마나 차겁게 대했던지 처음에 오일남은 이번 공작은 실패로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통사가 빽빽하게 나올수록 오일남은 어떻

게 해서든지 이 영감을 후려서 사령부로 데려가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은 5.30폭동 때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애국과 매국에 대한 구별도 없이 부자일반을 상대로 닥치는대로 두드려부시던 그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으로서 조중인민의 민족적 해방과 생명재산의 보호를 신성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군대라는 것을 해설해준 다음 통사님이 우리 사령부의 요청에 정 응할 수 없다면 조용히 그대로 물러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일남이 정작 물러가겠다는 말을 하자 유통사는 한참동안 입을 꾹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꾸어 이왕이면 눌러앉아 시국이야기라도 하다가 갈 것이지 그렇게 훌쩍 떠나갈 바에야 무엇 때문에 예까지 왔는가고 하면서 김사령이 나를 부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면담요청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후환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오일남이란 사람이 처신을 점잖게 하지 시국이야기도 구수하게 잘하지 하니 유통사도 좀 호기심이 동하고 노여움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김정부

김사령부대가 쌈 잘하는 부대라는 말은 나도 많이 들었소. 그렇지만 김사령도 공산당이라는데 부자들을 밉게 보는 그 본색이야 어디가겠소. 하긴 이야기를 좀 들은 것도 있고 또 당신네의 말과 행동거지를 보면 다른군대들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김장군이 부른다니 가긴 가겠소.

유통사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자기를 데려가겠거든 포승으로 묶어서 죄인 호송하듯이 데려가달라, 내스스로 김사령의 요청에 응하여 순순히 당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일본놈들이 눈치채게 되면 토벌대를 보내서 내 목을 칠 수 있다, 우리 집안사람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납치해가듯이 데려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오일남은 유통사가 묘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한테서 받은 명령은 유통사를 점잖은 방법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였지 붙잡아오라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사령부의 승인이 없이 그를 포승으로 묶어 데려간다면 장백현에서 김주현소조가 김정부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그는 판단하였습니다. 오일남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 유통사가 내놓은 안이 묘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지해주려고 하였는데 일부 지휘관들이 유통사가 내놓은 안대로 하면 경찰관노릇을 하는 그의 아들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수비대무력까지 떨쳐나서서 야단법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촌에서 총소리를 내면 화룡현 소재지에 있는 적들이 인차 증원을 올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가 내놓은 안대로 하자면 무대를 넓게 잡고 판을 크게 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유통사의 집이 있는 용담촌을 중심으로 3개 부락의 적을 동시에 치기로 하고 7연대, 8연대와 경위중대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유통사네 사돈집이 있는 용담촌 옆부락에 지휘부를 정하고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작전에 앞서 우리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유통사는 당분간 집에 있게하고 그 대신 유통사의 동생 유의청을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통사의 아들과 군경들이 신경을 덜쓰게 하면서도 유통사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의청이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예로부터 형제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고유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씨집안사람들이 유의청을 빼내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것을 구실로 내걸고 우리와 연계를 맺어도 적들과 주변사람들이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부대들도 3개 부락에서 일제히 철수하였습니다. 혁명군부대가 마을을 떠나갈 때 유통사는 형의 셋째아들을 불러내여 삼촌의 시중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유의청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유통사가 형의 아들을 산으로 보낸 것은 유의청의 고독을 덜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밀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의청이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몸이 뚱뚱해서 잘 걷지 못하는데다가 아마 아편기운이 다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편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가에 태웠습니다. 혁명군이 아편쟁이를 담가에 태워가지고 수십리길을 걸어가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실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때 우리는 못해본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경위중대장인 오백룡에게 과업을 주어 유통사의 동생과 조카를 잘 보호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경위중대동무들은 손님들이 들 천막을 치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었습니다. 식량곤란을 겪고 있은 때였지만 그들에게만은 끼니마다 흰쌀밥을 해주고 고기국을 푸짐히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의청은 음식을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 끼니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리고 먹던 부호의 자식이니 입맛이 당기지 않아서 그러겠거니하고 짐작했는데 까닭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달게 들지 않는 것은 아편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유의청은 우리 경위대원들에게 밥은 못먹어도 좋으니 아편을 달라고 매일같이 성화를 먹이었습니다. 아편만 주면 값은 부르는대로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무들은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당시 군의처에서 마취제대용으로 쓰던 비상용아편이 얼마간 있었을 뿐입니다. 아편 때문에 발광이 난 유의청은 마침내 경위대원들에게 별별 험담과 욕설을 다 퍼부어대게 되었습니다.

지주집자식이 혁명군밀영에 와서 아편을 내라고 성화를 먹이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나는 손님들을 사령부천막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정상이 말이 아니였습니다. 아편중독자가 아편을 못쓰게되면 눈정기가 풀리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비상용을 다 털어서라도 유의청에게 매일 아편을 조금씩 공급하라고 군의처에 지시하였습니다. 유의청은 아편을 쓰자마자 눈에 생기를 띠고 벙글벙글 웃으며 들떠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육신을 놀리는 일이라고는 해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지어는 잠자리도 거둘줄 몰라 조카가 거들어주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의호식해온 무위도식자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이말저말 하던 끝에 사람이란 제힘에 맞게 오륙을 놀려 일을 해야 사는 멋도 있고 밥맛도 난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공주는 무슨 일이든 남만 시켜먹다나니 사과 한 알 제손으로 깎지 못하는 병신이 되었다는데 남의 덕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런 머저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그 말을 듣더니 자기도 그 공주와 다름없는 머저리지만 한 가지 일만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만두를 잘 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인이 다되었다고 단정한 사람한테 비록 굉장한 기술은 아니지만 만두빚는 재간이라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사령부작식대원을 시켜 만두감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반죽한 밀가루를 얇고 고르롭게 밀어서는 속감을 다져넣고 만두를 빚어놓군 했는데 그 솜씨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두모양도 고왔지만 만두를 빚는 속도가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나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유의청이 빚은 만두를 먹으면서 그의 뛰어난 솜씨를 칭찬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유의청은 만두를 빚는 일만 생기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식대원들을 도와나섰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는 말수더구가 많아지군 했습니다. 지어는 나와 농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던지 그는 만두를 빚고 돌아와서 **김**사령님 말대로 일을 하니 사는 멋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두를 빚는 일도 노상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감이 없는 날이면 유의청은 몸살이 날 지경으로 갑갑해하면서 약담배질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교훈이 될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와 맹자에 이르기까지 안해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역사에 이름을 남긴 애국적인 자산가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다나니 장울화와 진한장과 같은 부호가문출신 혁명가들의 이름도 자연히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의청은 내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붓과 종이를 청하였습니다. 장울화처럼 비록 혁명을 위해 자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돈과 재물로 **김**사령을 돕고 싶다면서 형 유의현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의청의 편지내용을 보니 우리가 그 동안 그를 인간답게 대해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의청은 먼저 자기자신과 조카의 안부를 썼습니다. 그는 나와 한 천막에서 같이 지내며 만두도 같이 빚군 한다는 것과 혁명군대원들이 자기를 친형제를 대하듯이 성심성의로 보살펴준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동안 대접도 잘 받았으니 은공에 보답해야겠는데 형님이 쌀과 천, 신발 같은 물자들을 보내준다면 혁명군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자기들도 인차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교양하고 계몽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조카를 산에 보내고 은근히 불안속에서 보내던 유통사는 동생의 편지를 받아보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아무날까지 당신네들한테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해놓을 테니 짐을 지고갈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봉록에게 한 개 소대가량의 대원들을 붙여주어 유통사가 준비해놓은 원군물자들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운반대가 지고온 물자들 가운데는 수백 벌의 군복을 지을 수 있는 광목천과 지하족도 있었고 흰쌀, 밀가루, 전병 같은 것도 있었으며 돼지고기와 콩기름도 있었습니다. 유통사는 우리 밀영에 그런 물자들을 세 번씩이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동무들과의 교제가 잦아지게 되자 그는 정식으로 나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자기를 밀영에 데려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왕 혁명군을 도와주는 바 치고는 사령을 만나 인사라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밀영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유통사가 밀영으로 올 때 경찰서에 다니는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각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삼촌이 보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혁명군밀영으로 찾아갈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삼촌이 보낸 편지를 보면 삼촌과 사촌동생이 **김일성**장군과 한 천막에서 숙식도 하고 만두도 같이 빚는다고 했는데 그

것은 믿지 못할 소리다. 혁명군사령관이 어떻게 사민과 침식을 같이할 수 있는가, 게다가 삼촌은 지주집자식이 아닌가, 공산당은 지주들을 타도대상으로 보고 있다, 혁명군대장이 적대계급의 자식과 침식을 같이하고 여염집아낙네들처럼 만두를 빚는다니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김**사령의 부하들 중 누군가가 그렇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는 아들에게 당치않는 소리는 하지 말라, 내가 요즈음 **김**사령부하들과 몇번 교제해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의바르고 인정미가 있는 젊은이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김**사령이 수하에 좋은 부하들을 두었다고 생각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만 보아도 **김**사령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부대의 기강을 알 수 있다, 이왕 혁명군과 인연을 맺은 이상 내 아무래도 산에 가서 **김**사령도 만나보고 너의 삼촌이 편지로 전해온 것이 사실인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올 때 고급천인 스크노직으로 지은 군복과 코트, 장화와 모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몇 번 말을 나누어보니 인격상으로나 학식으로나 동생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였습니다 점잖으면서도 언행이 도고하고 위엄이 있었었습니다

유통사는 나에게 조선말로 산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면서 그 동안 동생과 조카를 잘 보살펴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사이 많은 원군물자를 보내주고 또 연로한 몸으로 우리를 찾아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유통사를 위해 천막 하나를 따로 쳐주고 거기서 그가 동생과 조카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형에게 공산군이 붉은마귀라는게 무슨 소리요 그건 다 헛나발이요. 세상에 이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은 없소. **김**사령부대는 신사부대요 라고 하면서 혁명군에 대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어 **김**사령덕에 개명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유의청이 우리에 대한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유통사는 동생을 만난 다음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였습니다 내가 유통사를 만나보고 제일 놀랍게 생각한 것은 그가 조선말과 조선의 풍습 뿐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내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와는 아주 쉽게 언어가 통하였습니다.

유통사의 말가운데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그가 나라를 잃고 고생스러운 이국살이를 하는 조선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이였습니다. 내가 중국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유통사도 조선사람들을 퍼그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사는 나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김**사령부대를 ≪공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사령이 공산당이라는게 사실입니까?≫

≪우리 부내를 ≪공비≫라고 한 것은 왜놈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사령은 지금껏 반공을 해온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나를 만나러 밀영에까지 찾아온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가기 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만큼 나는 심사숙고해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초기부터 반공을 하는 사람들과 담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사영도 반공을 하였고 오의성도 처음에는 반공을 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인 양세봉도 애국자였지반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다가 생애의 말년에야 연공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사령이나 오사령, 양사령과의 담판에서는 통일전선을 위해 내

가 매번 공산주의를 변호하고 연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연공이냐 반공이냐 하는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주동적인 자세에서 담판을 끌고나가면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사와의 담화에서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나는 그의 반공행위를 규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유통사는 그 판결을 귀담아듣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하여 자기의 반공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간에 그는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였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반공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멸공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반공이요 다른 하나의 부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의 비행을 보고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을 듣고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경원시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맹목적인 반공이였습니다. 유통사의 경우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를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 돌려세우자면 그에게 우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원군물자나 받아먹자고 그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해도 안되었고 또 그가 반공을 해온 지주라고 해서 덮어놓고 몹쓸 놈이라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행적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밝혀주어 반공대신 연공애국의 길을 택하도록 잘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사님이 반공을 해온데 대하여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사님을 징벌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통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잘 몰라서 반공을 했고 또 반공은 하면서도 중국을 사랑하고 중화민족을 사랑해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공을 해도 망국은 원치 않고 있으며 지주를 해도 나라가 있는 중국지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통사님입니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공의 길로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유통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내손을 잡았습니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이 화룡판에 인종이 많고 입이 많아도 나에게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신 분은 **김**사령밖에 없습니다. 그 평점 하나면 나는 발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기 소갈머리가 좁아서 반공을 해왔는데 연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공이란 별 것이 아니다, 반만항일을 하고 우리 혁명군을 후원해주는 것도 다 연공이다, 통사님은 우리에게 동생과 조카를 보낸 그날부터 벌써 연공을 시작하였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공산주의를 이해하게 되고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된다, 공산주의자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조선지주들한테나 중국지주들한테나 연공항일은 첫째가는 애국대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유통사는 **김**사령덕에 때늦게나마 자기의 금새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는 별나게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편치 않은 데가 있는가고 물어도 그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을 불러다가 그 동안 경위중대에서 유통사를 돌보는 과정에 무슨 불

미스러운 일이 없었는가고 물었습니다. 오백룡은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유통사가 밀영을 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기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모습도 보여주고 오락회도 구경시켰는데 그가 작식터를 돌아보는 과정에 수수쌀과 산나물을 반반씩 섞어 끓이는 죽가마를 보고 좀 언짢아하였다고 했습니다.

유통사는 자기가 수십 석의 쌀을 보내주었는데 왜 밥은 해먹지 못하고 저런 음식을 해먹는가, 쌀을 아끼느라고 죽을 쒀먹는다면 물론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식량이 바르다고 사령관한테까지 죽을 대접한다는거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사령관이 부하들과 한 가마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아마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군의처를 돌아보다가 거기에서 환자치료에 쓰려고 비상용으로 아껴오던 아편을 자기 동생한테 써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감격해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덕

나는 오백룡의 말을 듣고나서 유통사네 일행을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자신은 자기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동생과 조카는 당분간 밀영에 더 머물러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더많은 물자를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러자면 자기가 혁명군에 물자를 넘겨주지 않을 수 없는 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조카가 밀영에 남아있게 되면 물자를 들여보내는 것이 탄로되어도 왜놈들에게 둘러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유통사가 없는 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리를 더 도와주겠다고 자청해나선 것은 아주 좋은 일이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각방으로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유통사와의 작별을 앞두고 간단한 송별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사는 그 송별모임에서 지가 공산주의자 일반에 대해 적대시하고 우리 혁명군을 ≪비적≫으로 오해하고 있은데 대해 사죄하면서 앞으로 혁명군을 돕는 일이라면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헤어질 때 앞으로 8로군이 동북을 해방하는 경우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확인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명주천에 한자로 유통사는 훌륭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항일연군을 물심양면으로 원호해주었다고 쓰고 그 밑에 사령관 **김일성**이라고 쓴 다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팽진이 보았다는 증서가 바로 이런 확인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만주지방의 적지 않은 중국인지주들은 겉으로만 일본사람들과 협력하는 체 하였지 내막적으로는 가만가만 항일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제가 망하고 괴뢰만주국이 다시 중국에 귀속될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지주들은 ≪쭈시강≫이라고 하면서 인민혁명군을 도와주고는 반드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증서를 장백현의 지주들에게도 써주고 액목현과 돈화현의 지주들에게도 써주었습니다.

원래 중국말로 ≪쭈시강≫이라는 말은 돼지 ≪저≫자와 먹을 ≪식≫자, 겨 ≪강≫자의 중국식발음인데 돼지가 쌀겨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붉은 ≪주≫자와 먹을 ≪식≫자, 편안 ≪강≫자로 쓰면 그것도 발음은 ≪쭈시강≫으로 되지만 이때에는 주덕이 강덕을 먹는다는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8로군을 주덕과 모택동의 성자를 따서 주모군이라고도 했습니다. 강덕은 일본사람들이 세운 만주국황제 부의의 연호입니다. 중국사람들은 8로군이 동북을 해방하게 된다는 의미의

은어로서 ≪쭈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가 우리한테 왔다가 돌아간 다음 올기강밀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군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각종 원군물자들을 자동차로 아낌없이 실어보냈습니다. 그 물자들은 우리가 그 해 겨울나이준비를 하는데서 큰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유통사는 자기 동생이 우리 군의치의 비상용아편을 쓴 대가로 목침만한 아편덩이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유통사의 동생과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의청은 우리와 작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편부터 끊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 우리도 인차 올기강밀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유통사형제와 두 번 다시 연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유통사를 잊지 않았으며 그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통사의 친척들 중에 조카벌이 되는 유진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역사역구소앞에로 써보낸 편지에 의하면 유통사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자주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밀영에서 돌아간 다음 자기의 항일의지도 명백히 표시하고 우리에 대한 선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통사는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가 올기강밀영에서 써준 증서를 가보로 간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한 다음에는 동생네 집에서 그 증서를 보관해두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 밀영에서 만나 흉금을 터놓은 것이 인연이 되어 나와 유통사는 일생을 두고 서로 잊지 못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면서도 늘 가깝게 지낸 셈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라도 민족도 혈육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산가들과는 뜻을 같이할 수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자산가들은 국적과 당파, 정견에 관계없이 우리의 동행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나 재산의 유무는 인간을 평가하는데서 절대적 기준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람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애와 민족애, 인민애, 인간애일 것입니다.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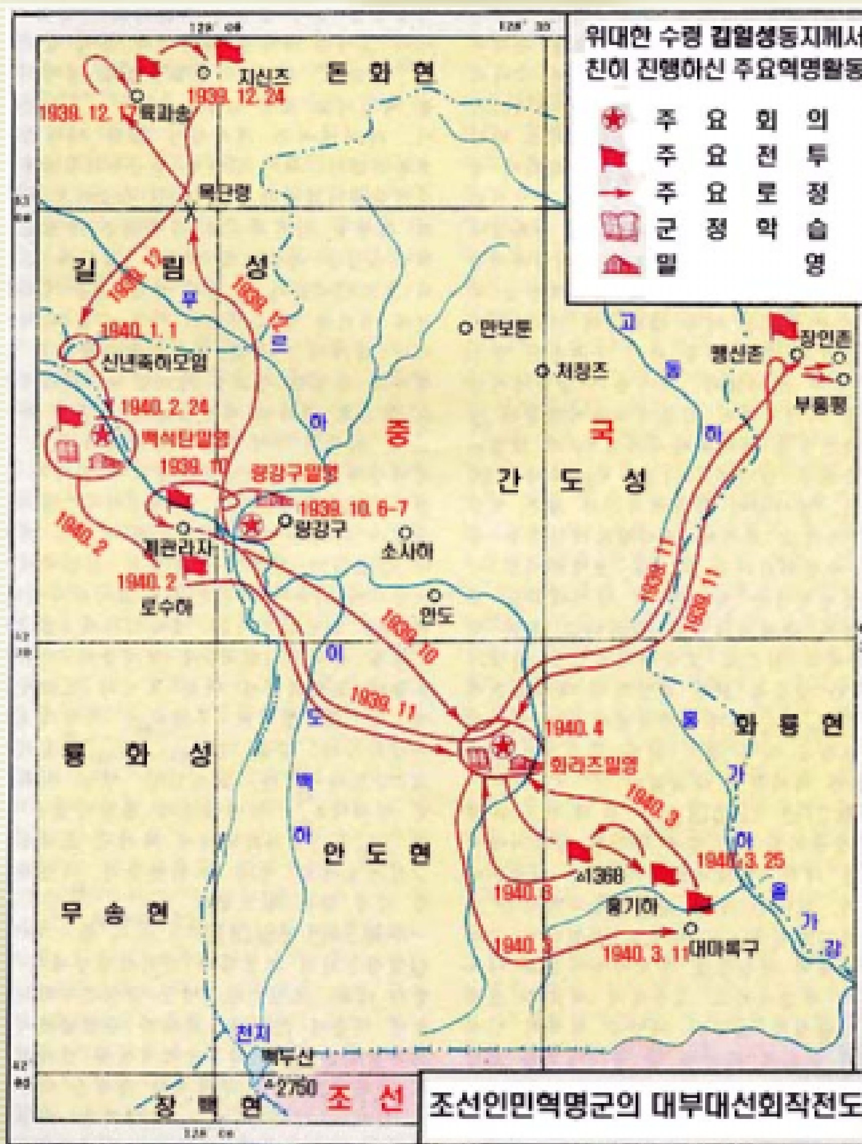
이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에서 좌우경을 범하게 됩니다. 한때 항일혁명투쟁역사를 소개선전하는 일부 글들에서 유통사를 악질적인 반공지주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신과 경력만을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경솔하게 다루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를 매국자로 볼 수도 있고 혁명의 지지자를 반혁명분자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매국자를 애국자로 보게 되고 반혁명분자를 혁명의 지지자로 잘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교포 손원태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자리에서 주석님, 남조선에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그 많은 자산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주시었다.

그때 외세에 붙어서 민족을 팔아먹는 극반동이 아닌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의 이런 입장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3. 수십만의 대토벌군과 맞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도

일제는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봄까지 동남부 3개성에 대한 치안숙정 특별공작의 명목밑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미증유의 대토벌을 강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전의 주담당자였던 노조에와 그 산하 토벌대장들의 패전고백을 담은 글을 보시다가 검질긴 일본군이 이렇게 김빠진 소리를 한걸 보면 그들도 그때 몹시 혼이난 것 같소. 우리 동무들의 고생이야 더 말해 뭘하겠소.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결전이었소 라고 하시면서 적아의 대결에 대하여 상세히 회상하시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입니다. 고난의 행군도 어려웠고 일제가 치안숙정특별공작의 명목밑에 동남부 3개성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던 때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남부 3개성이란 길림성, 통화성, 간도성을 말합니다. 매 단계의 투쟁이 다 간고하고 복잡했지만 이 시기에 겪은 고생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적들이 1939년 가을부터 장기적인 대토벌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은 그 해 6월에 있은 올기강전투에서 우리에게 포로되었던 봉천부대의 한 중대장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에서 많은 장교들과 사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들은 혁명군이 자기네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노자까지 주어 돌려보내는데 대해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군을 희망하는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적군속에서 우리를 도울데 대한 임무를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교양을 받고 위만군으로 돌아간 장교들 가운데 중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사람이 바로 그 중대장이였습니다. 그는 간도지구토벌대라는 것이 새로 조직되었는데 자기 중대도 거기에 망라되었다는 것, 대토벌은 10월초부터 개시되는데 이번 작전은 전례없는 큰 규모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 혁명군이 즉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정보의 도움으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방대한 규모의 새로운 작전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처할 준비를 비교적 여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전모를 발가놓고보니 그 잡도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토벌 작전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일만군경일체의 대토벌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관동군사령관 우메즈와 만주국 치안부대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무려 20여만에 달하는 일만군경과 각종 반군사인원을 동원시킨 하나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선포한 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매해 우리를 반대하는 토벌작전을 감행해왔는데 그 규모가 해마다 커졌습니다.

1934년이후의 위공작전과 1936년 가을부터 북부동변도에서 감행된 토벌도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의 미명하에 준비된 새로운 토벌작전은 그것이 수행되는 지역의 규모에서도 종래의 모든 토벌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의 북부동변도치안공작 때 사사끼를 위수로 한 통화토벌사령부의 작전무대가 1개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면 1939년 노조에 토벌사령부의 작전무대는 걸림, 통화, 간도의 3개성과 목단강성의 영안현까지였는데 결국 4개성인 셈이었습니다.

만주국군에 실린 글에는 동낭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단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관동군이 예정한 예산금액은 300만원으로서 그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 토벌개시의 첫날인 10월 1일 관동군사령부에서 이이무라참모장, 만주국총무장관 호시노 나오끼, 치안부차장 스스기다 미조와 노조에소장의

대리로서 기다베참모가 회담하여 기다베참모는 치안숙정계획을 설명하며 도로의 신설보수, 통신, 집단부락 등등에 대하여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여 토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호시노장관은 비용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이이자와 주계처장도 비용은 짜낼테니 꼭 3성 토벌을 성공시킬 것을 요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철저한 치안공작을 추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만주국군 란성회400페지)

노조에토벌사령부의 새 작전은 그전의 통화토벌사령부의 작전보다 지역상으로는 3-4배, 역량상으로는 12.5배, 비용상으로는 13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이수자들을 통해서만도 일본군부가 이 토벌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일만군경수뇌들은 이 토벌작전을 단순한 군사적 토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귀순공작과 사상공작, 치본공작 등을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그 폭과 심도라든가 방법과 수단의 치밀성으로 볼 때 종전의 토벌들을 훨씬 능가하는 전례없는 작전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토벌작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성전 또는 성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성벌이란 성스러운 토벌이란 뜻인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 토벌을 미화한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일본사람들은 해외침략전쟁을 여러 번했지만 선전포고를 한 적이 별반 없고 또 처음부터 그것을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을 사변이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전쟁행위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습성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새 작전을 성벌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부가 인민혁명군과의 대결을 일방적인 토벌이나 숙정으로 보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전관계, 전쟁관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왜 이 시기에 와서 어마어마한 총력전의 체제로 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들이 작전을 세우면서 달성하려고 한 목표는 무엇이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중일전쟁과 할힌골싸움에서의 연속적인 실패로 하여 일본군내부는 몹시 소란했습니다.


토벌대행렬

석 달이면 결속될 수 있고 길어서 반년이면 막을 내리게 되리라고 장담하던 중일전쟁은 2년이 지나도록 승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주력은 전쟁의 진흙탕속에 깊숙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일본군부의 일부 계층속에는 중국대륙과 할힌골에서의 패전원인을 군부안에서의 파쟁이나 군사기술기재의 낙후성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군부관료들과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과 그로 인한 후방의 불안정, 보급로의 차단, 전쟁심리의 혼란 등에서 주되는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 때문에 적들이 큰 손실을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부터 일본사람들이 정신을 단단히 차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후방에 인민혁명군부대들을 그냥 두고서는 중일전쟁도 대쏘작전도 다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이것은 적들이 항일유격대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새로운 작전을 꾸미고 총력전체제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인민혁명군과의 교전과정에 대한 총화로부터 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숙정공작에서 적들이 달성하려고 한 목적은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였습니다.

노조에의 훈시를 보면 내용전반이 우리 부대를 완전소멸 해치우겠다는 호통으로 일관되여 있였습니다.

그는 그 훈시라는데서 이때까지 여러 해 동안 길림, 간도, 통화의 3개성에서 거듭되는 토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격대들이 쇠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중임을 받고 정마를 백두산에 내몰아 한 칼에 짓부셔 비적의 화를 근절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부하들에게 인민혁명군부대성원들을 한 사람도 놓침이 없이 전멸시키라고 호통질하였습니다.

정마를 백두산으로 몰아 한칼에 짓부셔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째보겠다는 말이였는데 이 훈시를 통해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의 주공목표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력전체제하의 대규모작전에서 적들이 어떤 전략전술로 나오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는데 일본군부가 우리의 유격전술을 오래동안 연구총화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새로운 전술, 말하자면 유격전을 유격전으로 소멸하는 전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유격전을 유격전으로 소멸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토비공작 참고자료라는 것을 입수한 후 더욱 똑똑히 확인하게 되였습니다. 그 시기 적들은 우리에 대한 토벌 경험을 묶은 이 자료집을 각 토벌대들에 배포하여 사전연구를 충분히 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반유격전교범이였습니다.

일본군부는 반유격전을 목적한 특수부대의 복장도 우리와 같은 것으로 하고 훈련도 행동도 역시 빨치산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군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얼마나 깊이 있는 조사와 새로운 전술을 모색해왔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노조에와의 대결이 아주 준엄한 싸움으로 되리라는 것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종전에는 쓰지않던 전혀 새로운 전술을 탐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공세를 파탄시키고 혁명의 지속적인 고조를 이룩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적극적인 작전을 뒤받침할 수 있는 묘술을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묘술로 대부대선회작전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대부대로 비밀통로를 따라 광활한 지역을 빙빙 돌아가는 장기적인 유동작전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법으로 적을 답새기며 돌아가는 작전입니다. 이러한 유동작전을 하지 않고서는 20만의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가 늘여놓은 지구토벌대, 소지구토벌대의 그물은 길림, 간도, 통화 3성은 물론, 북만에 있는 목단강성의 영안, 동녕, 목릉 등지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그물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촘촘한데도 있고 성글게 쳐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물을 이미 친 데가 있는가 하면 치는 과정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물


토벌대의 비행대

코의 크기도 각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활동 구역인 간도성은 모든 현에 다 토벌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선회의 지향점을 돈화와 액목의 서쪽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두 지방에는 우리가 꾸려놓은 지하조직들이 많았습니다. 군중들도 혁명화되어 있어 발을 붙이기가 좋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부대로 그 고장들을 짓부셔 놓으면 적들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지향점을 몽강, 무송, 장백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로 급선회를 해서 또 한바탕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적들이 우리의 흔적을 따라서 몽강과 무송과 장백으로 나올 때 우리는 다시 간도성 남단으로 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나의 구상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선회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보았습니다.

선회작전은 대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였습니다. 적들을 피하자는 것이 대부대선회작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곳마다에서 적들을 소탕해버리자는 것이 이 작전의 목적이였습니다. 적을 칠 때에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섬멸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반드시 선회작전을 대부대로 해야 했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수행에서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본 것은 선회통로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였습니다. 통로의 비밀이 새기만 하면 적의 진드기전술에 걸려들 수도 있고 포위망속에 들어가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격대가 고정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식량을 미리 장만해서 밀영에 저축해두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온 겨울 대부대로 유동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식량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부대선회작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작전안을 생각해낸 다음에도 그것을 인차 공포하지 못하고 얼마동안 보류해둔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나는 부대의 이동노정을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서 7연대와 8연대, 경위중대를 동원하여 우리가 지나가게 될 중요지점들에 미리 식량을 저장해놓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도현 북부와 화전현, 돈화현 일대에 먼저 식량을 마련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가을걷이를 하지 않은 때여서 식량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곤란했습니다. 가을걷이를 하고 탈곡을 해야 쌀을 사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도회지의 미곡상들을 찾아다니며 쌀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나는 식량공작을 떠나가는 지휘관들에게 곡식을 밭에 세워 놓은 채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쌀을 해결해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량을 해결하자면 매매가 끝난 다음 우리 스스로가 밭에 가서 곡식을 베여들여야 하고 낟알털기도 자체로 해야 했습니다. 전부대가 다 동원되어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식량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던 그 해 10월초 나는 안도현 양강구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할 데 대하여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양강구와 그 부근에서 활동할 때의 사실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농민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열네댓 살밖에 되지않은 작은아들을 혁명군에 입대시켜달라고 간청하던 일입니다.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큰 시련을 앞두고 어린 소년을 부대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소년에게 우리는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는 군대다, 하루에 100리를 행군할

때도 있고 200리를 행군할 때도 있다, 그래도 따라 다닐만한가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오송을 가리키며 저 군대형님이 걸으면 자기도 따라다닐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농민에게 아들을 유격대에 보내놓고 걱정스럽지 않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그만한 각오도 없이야 어떻게 아들을 혁명군에 바치겠는가, 다북쑥도 삼밭에 나면 곧아진다고 했는데 장군님만 믿고 마음을 놓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소년도 똑똑하고 아버지도 훌륭하였습니다.

나는 그 소년을 입대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고생을 사서한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사령관동지가 저런 소년을 입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번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이번 작전이 승산없는 작전이라면 사령관이 저런 짐을 스스로 걸머지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였습니다.

그 소년을 전령병들속에 두고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였는데 눈썰미가 있고 행동이 민첩하여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 후 나는 양강구로 회의하러 갈 때에도 그 어린 대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인차 귀로에 올랐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조에의 1기 토벌이 시작된 때인 것만큼 정황이 몹시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척후를 세우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계관라자부근에 이르러 적들의 불의습격을 받았습니다. 계관라자란 산봉우리가 마치 닭의 볏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닭의 볏처럼 생긴 그 봉우리가 바로 우리의 전방 왼쪽에 솟아있었습니다. 계관라자부근의 지형은 적들이 매복전을 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고 행군중에 있는 우리가 적의 기습을 막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였습니다. 적 토벌대들이 만약 계관라자일대에 와있다면 이런 지형을 놓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격전의 방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소탕하겠다고 덤벼든 놈들이니 매복진을 치고 대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군노정을 바꾸어 품이 많이 드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오앞에 기관총을 세우고 속보로 위험구역을 통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계관라자의 바위밑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산봉우리쪽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적들은 외가닥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행군대오를 향해 집중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적의 이 불의습격에서 조꼬맹이란 별명을 가진 구대원과 김정덕이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때 양강구에서 입대한 소년이 걱정되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글쎄 고지의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위급한 순간에 그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놀라왔습니다.

소년대원은 사령관동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법 나를 돌보기까지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니다. 움직여야 한다. 자리를 옮겨가며 사격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까이에 있는 흙무지뒤의 웅뎅이진 곳으로 그를 끌어당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적탄은 계속 우리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실로 진퇴양난이였습니다. 나는 벌판쪽으로 100미터쯤 되는 곳에 홈타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날 따르라는 구령을 치며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대원들도 부상자들을 부축해가지고 나를 따라 그 홈타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안전한 곳은 못되였습니다.

우리는 강기슭에 내려가서 얼마간 달리다가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절벽쪽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에게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장에 서서 적진쪽으로만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대원들이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10명안팎의 적은 역량으로 적의

대부대를 향해 돌격할 리는 없겠는데 어쩌자는 것일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뒤를 따랐습니다. 나에게 대원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원들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접근한 때부터 탄막은 머리우로만 지나갔습니다.

대원들이 나의 전술적 의도를 파악한 것은 그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적들은 우리가 벌판쪽으로 빠진 줄 알고 그쪽으로만 눈먼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지에서 쓸어내려와 벌판을 포위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밀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옆고지에 올랐습니다. 벌판을 3면 포위한 적들은 한참동안 저들끼리 미친듯이 맞불질을 했습니다.

계관라자전투는 노조에토벌대와의 첫 조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새 작전을 앞두고 우리의 유격전술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나는 이 전투를 통해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대부대선회작전안이 전술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계관라자전투는 그 해 겨울에 우리가 부닥치게 된 군사적 정황의 축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강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는 사이에 우리 동무들은 이미부터 진행해오던 식량공작을 전부 끝냈습니다. 재봉대원들도 나의 지령대로 군복을 거의 다 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를 돈화원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단계의 노선은 화라즈에서 돈화로 쑥 빠졌다가 그 다음에 몽강, 무송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화라즈를 떠난 다음 백두산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돈화오지를 왔다갔다하며 큰 싸움을 몇 번 하고는 몽강현 동패자나 무송현 백석탄의 대수림속에 들어가 로독도 풀고 군정학습도 하면서 대소한추위를 밀영에서 넘기자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1단계의 작전준비를 하면서 임수산에게 경위중대 1개소대와 독립대대를 주어 동패자로 보내고 소부대를 백석탄으로 보내여 밀영을 준비하고 대부대가 먹고 살아갈 량식과 피복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준비를 끝낸 다음 돈화원정을 떠났습니다. 돈화원정을 쉽게 이해하려면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를 상기하면 됩니다. 이 두 전투가 바로 돈화원정기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대이동노정을 위장하느라고 원정의 첫 시작에 삼장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도강상류쪽으로 진출했습니다.

화라즈에서 20-30리가량 빠지니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벗어나 발자국을 없애고 가까운 숲속에 들어가 피곤을 풀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는 외발자국 행군법을 쓰면서 백두산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도산 근처에 가서는 행군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삼도백하의 얼음을 타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적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행군방향을 그렇게 역전시키면 그것은 전투를 몇 탕 한 것만치나 큰 은을 냅니다. 적들은 혼란에 빠져 이곳저곳 헤매다가 백색지대에 들어가서 얼어죽을 수도 있었고 맥이 진해서 전투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짓소문도 퍼뜨리면서 흔적을 공개한 것은 적들을 될수록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최대한 맥을 빼고 춥고 지쳐서 움짝달싹할 수 없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우리는 목단령을 넘을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면서 영의 돌바위를 모조리 얼음판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여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나니 행군속도가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력부대는 목단령을 무사히 넘어 돈화의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이처럼 시작부터 간난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장쾌한 출발이었

습니다. 우리는 돈화원정을 시작하면서 적들을 요란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비밀통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측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화원정과정을 회상하실 때마다 행군도상에 있었던 반일청년동맹회의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돈화원정과정에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반일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남호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개편한 청년조직입니다. 우리가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소집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돈화에 가면 사도황구라는 곳이있습니다. 사도황구는 내가 길림감옥에서 출옥한 후 한동안 파괴된 지하조직을 복구하며 정양생활을 하던 고장입니다. 우리가 목단령을 넘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사도황구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요해하려고 주민부락에 내려갔던 대원이 박득범사건과 관련된 그 고장 지하조직의 반영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선전화
≪적을 소탕하자≫

박득범사건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혁명군지휘관의 한 사람인 박득범이 혁명군의 명예와 후방물자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들은 한때 식량과 피복의 부족으로 심한 곤경에 빠지었다고 합니다. 후방물자가 떨어지면 적을 치거나 혁명조직들을 발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인민혁명군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박득범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지하조직들을 발동할 궁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적용한 방법은 어디에 내놓고 말하기도 거북한 것입니다.

박득범은 밀정을 통해 적들에게 1개 사단을 데리고 당신들한테 투항하겠는데 옷이 다 해지고 식량이 없어서 곤란하다, 식량을 얼마 내고 천을 얼마 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 그러면 그것으로 옷도 갈아입히고 대원들의 원기도 회복시켜가지고 당신들한테로 내려가겠다, 그런데 밀정인 당신의 담보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니 식량과 천을 가져올 때 우리가 내려가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밀정은 동의를 표시하고 곧 자기가 속해있던 특별공작반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적들은 이 흥정에 큰 흥미를 느끼었습니다. 길림성과 돈화현의 우두머리들이 통보를 받은 즉시로 모여앉아 대책을 모의하고 접선장소에 모모한 자들을 대표로 파견하였습니다.

박득범이 그들을 영접하고 담판을 하였습니다. 담판도중에 수하지휘관이 들어와서 약속된 물자가 다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자 그는 적측 대표들을 그 자리에서 몽땅 죽여버리었습니다. 그 후 박득범은 된비판을 받고 경위여단에 가서 일하였는데 조직의 신임을 저버리고 1940년에 적들한테 체포된 다음 귀순하고 말았습니다. 가짜귀순이 진짜귀순으로 되었습니다.

박득범은 적의 진영으로 도주한 후 박특설대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지난날의 전우들을 귀순시키기 위해 돌아쳤습니다.

박득범사건이 주는 교훈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박득범이 귀순했

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짜귀순놀음을 꾸민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귀순놀음은 진짜로 귀순할 요소가 있는 사람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박득범의 전향은 가짜귀순놀음을 고안해내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진짜 귀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중하게 생각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후방물자를 해결한 박득범의 이 행위를 무슨 굉장한 거사라도 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황구에 갔다온 정찰조성원은 박득범이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응당한 평가도 받지못하고 과도한 제재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한테 주민들의 동향을 다 보고하고 나서 사도황구 사람들이 박득범을 유격대의 위신을 다 말아먹은 지휘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정찰조성원은 반일청년동맹원이었습니다.


이두익

반일청년동맹원이 박득범의 행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청년사업을 담당한 지휘관을 만나 담화를 해보니 방면군안에 정찰조성원처럼 박득범사건을 평가하는 동맹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반일청년동맹원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맹원들의 모임을 하자고 지휘관에게 말했더니 숙영지에 도착하자마자 다 곯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지금까지 그러루한 일이 없었습니다. 숙영지에 도착하면 전체 대원들이 총도 닦고 옷도 깁고 면도도 하고 나무도 해오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긴장하고 절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밤은 딴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정과정에 피곤이 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숙영준비도 하지 않고 모두가 곯아떨어지면 야단이 아닙니까.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유동작전을 끝까지 근기있게 내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밤 오중흡연대장에게 한 개 중대 천막을 내게 하고 거기서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나도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일청년동맹원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리멍텅한 사상적 경향이 비판되고 청년들속에서 곤란극복정신이 부족한 현상, 위생문화에 무관심한 현상, 문화오락사업에 잘 참가하지 않는 현상들이 비판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박득범사건의 엄중성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매개 대원들이 인민혁명군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상들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런 현상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할 데 대해서와 인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지휘관들도 각성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대원들이 숙영준비를 하지 않고 곯아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눈감아주었으며 오히려 동정까지 하면서 시정시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나서 정신을 차리였습니다.

반일청년동맹회의는 육과송과 쟈신즈를 치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동원이 큰 은을 냈습니다. 회의가 있은 후 육과송을 쳤는데 모두가 잘 싸웠습니다. 대원들은 쟈신즈전투도 본때있게 해제꼈습니다. 이 두 전투를 치르고 나서 대원들은 무엇때문에 사령관이 반일청년동맹회의를 갑자기 소집했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사업은 일이 힘들고 정세가 엄혹한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상지상주의자이며 사상을 그 어떤 재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20여만의 대적과 맞서서 판가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엄청난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강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군의 일치단결과 강인한 혁명사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인민이 있고 대원들이 있고 경무기가 있고 그밖에야 다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사상동원을 하고나서 싸움을 연거퍼 했는데 그것이 은을 내더란 말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정과정에 임수산의 태공으로 인해 당초에 계획했던 작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연에 대해서도 회고하시였다.

반일청년동맹회의에 앞서 **김정숙**과 이두익이 사령부에 찾아와 동패자밀영의 실태를 보고 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돈화원정을 떠나면서 동패자에 가서 제일 추운 시기를 한두 달 보내고 무송현과 장백현을 에돌아 국내를 거쳐 화룡에 들렸다가 출발지점인 안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패자에 파견된 임수산은 대부대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준 과업을 집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과 이두익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수산이 받은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느라고 애썼으나 동패자에 가있는 성원들의 겨울나이식량이나 얼마간 마련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였던 기본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였습니다. 식량도 없는 밀영에 가서 대부대가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임수산은 그때 벌써 골병이 단단히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 적들한테로 달아나버렸지만 변절행위라는게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도 준비가 있어야 하고 사상적 발효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상의 부패변질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임수산이 말끝마다 혁명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벌써 혜산사건 후부터 사상적으로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신임하던 나머지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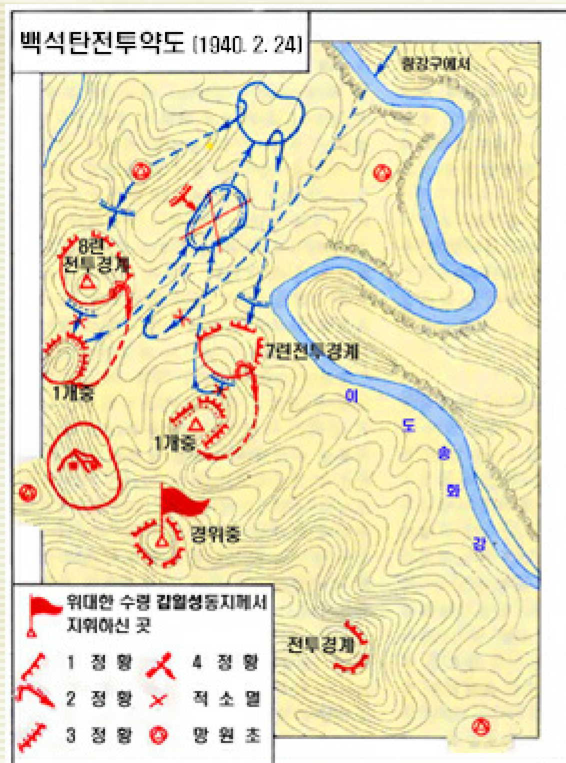
예비통로로 설정했던 무송현 백석탄은 지세는 좋으나 주민부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습니다. 밀영으로부터 3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마을을 몇 개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꾸린 지하조직이 얼마 없었습니다.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전에 파견한 소부대와 오백룡이 송화강을 이용하여 저장해놓은 식량이 얼마간 있었지만 그것은 저장장소도 멀고 또 차후에 소비하기로 했던 것이였습니다. 백석탄일대에 선발대를 보냈으나 대부분이 여성들이 아니면 허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부대가 곧추 예비통로인 백석탄으로 간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도가도 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강추위가 사정없이 들이닥치는데 설정된 통로는 준비되어있지 않지, 새로운 통로를 준비하자니 시간적 여유가 없지, 적들이 우리의 꼬리를 바싹 물고 있은 조건에서 목단령밑에서 오래 지체할 수도 없지 이래저래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쌀만 있으면 다른 곤란은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에게 가을걷이를 하지 않은 콩밭을 알선해주어 바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육과송과 쟈신즈 목재소를 되게 들이쳐 식량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자를 노획한 다음 인차 행군로를 180도로 바꾸어 남쪽으로 노정을 잡고 백석탄밀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를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과송과 쟈신즈 전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를 빛나게 장식한 전투들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마다가 토벌대들의 촘촘한 그물로 뒤덮인 화룡-안도지대에서



빠져나온 것만 하여도 놀라운데다가 전격적으로 돈화의 적의 주요주둔지들을 연속 들이친 우리의 영활한 작전은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적들은 육과송, 쟈신즈가 습격당하고 저들의 부대가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고서야 허둥지둥 돈화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벌써 우리가 은밀히 남으로 빠져 송화강유역에 이른 뒤였습니다.

첫 단계의 작전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내가 보는 것은 육과송과 쟈신즈의 목재소노동자들속에서 입대한 200여명의 신입대원들로 우리 무장대오를 확대한 것입니다.

전투를 치른 후 송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예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있은 후 짐을 지고 우리를 따라왔던 노동자들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습니다.

노동계급출신의 청년들속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 대오에 받아들인 것은 항일유격대의 건군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입대한 대원들에게 미처 무기도 주지 못하고 군복도 공급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대에 받아들이는 족족 신입대원들에게 붉은별이 달린 완장을 팔에 끼워주었습니다. 여대원들이 그 완장들을 만드느라고 밤을 패던 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백석탄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학습은 대부대선회작전의 2단계에 속하는 동시에 제1단계의 총화로도 됩니다.

우리는 백석탄에서 준비를 잘 갖춘 다음 작전 제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작전 2단계의 활동노정은 백석탄에서부터 백두산동북부의 무인지경인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지대를 지나 국내에 진출했다가 화룡현을 거쳐 안도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한창하고 있을 때 밀영이 그만 적들에게 노출되였습니다. 식량공작대가 마대에 넣어가지고 온 콩이 사달을 일으켰는데 일이 아주 맹랑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대에 구멍이 난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으로 콩이 한알두알 새서 밀정의 눈에까지 걸리였습니다.

밀영을 발견한 적들이 우리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공격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자 우리는 그에 대처할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우리 부대의 한 지휘관에게 1개 중대를 데리고 적구에 가서 양강구를 친 다음 하왜자쪽으로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위중대 1개 소대는 백석탄 뒤고지의 여러 초소들에서 달려드는 적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노수하쪽으로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력을 이끌고 적들의 공격개시 30분전에야 밀영을 떠나 노수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자면 우리가 밀영에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자마자 적들이 밀영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는 고요한 밀영을 보고 적들은 다 먹어놓은 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돌격을 들

이댔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위중대의 명사수들은 총을 쏘지 않고 적들이 노는 꼴을 보기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적의 비행대가 밀영상공에 날아와밀에서 좋아라고 손을 흔드는 제편을 향해 폭탄을 마구 던지였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에 들어갔던 적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기관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적들이 계획했던 육공협공은 결국 인민혁명군과 일본군비행대가 협동하여 일만군보병들을 소탕한셈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백석탄에서 복닥소동을 벌이는 사이 우리는 유유히 백두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뒤따르는 적을 노수하에서 치고는 이도백하를 건너 내도산동쪽의 수림속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화라즈부근의 목재소를 치고 양강구에 간 중대와 백석탄에 남았던 경위중대 동무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산 삼수평으로 정찰을 파견한 것이 그때 일 것입니다.

정찰조는 국경경비가 너무 삼엄하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정찰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추격만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대부대가 국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이였습니다.

나는 국내진공을 당분간 뒤로 미루기로 하고 식량도 해결하고 조선 쪽에 있는 적들의 반응을 보기도 할 겸 큰 목재소를 하나 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두만강가까이에 있는 대마록구목재소를 쳤는데 조선쪽 반응이 아주 예민했습니다. 나는 적들이 국경경비를 철통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적들을 꼬리에 달고 며칠간 싸우면서 화라즈의 남쪽수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홍기하에서 마에다부대와 한바탕 싸움을 하고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일단락지었습니다.

노조에토벌대와의 대결을 어느 한 지역 군사령관과의 대결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노조에토벌대와의 대결은 곧 일본군부와의 대결이였고 대일본제국과의 대결이였습니다. 적들은 이른바 숙정래강에서 그토록 요란하게 선전하던 치표, 사상, 치본의 3대공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패전 후 퇴역하여 규슈의 어느 농촌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던 노조에는 그 당시의 일을 놓고 이런 글을 남기였다.

김일성부대는 여러 개의 분대로 나누어 행동하면서 저마다 **김일성**부대라 칭해 이쪽에도 저쪽에도 **김일성**부대가 있는 것 같은 위장전술을 잘 썼다. 또 **김일성**이란 사람 본인은 하나겠지만 **김일성**이란 이름을 쓰는 자는 몇 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김일성**이가 어떤 인물인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간도폭동을 탄압하고 상급의 신임을 얻어 노조에토벌대에서 특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나가시마의 술회에 의하면 그도 조선인민혁명근의 신출귀몰한 전술 때문에 고배를 톡톡히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노조에부대에서 특수공작을 맡게 되었을 때 **김일성**부대란 것이 있다기에 알아본즉 이 부대의 작전이 아주 묘했다. **김일성**부대가 여기에 나타났다해서 그쪽을 쫓아가면 이번에는 또 저쪽에 나타났다 한다. 마치 **김일성**부대가 신출귀몰하는 것 같았는데 실인즉 한부대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쪽저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대를 여러 개로 쪼개여 이쪽저쪽에 나타나게 하면서 그 소부대들에 모두 **김일성**부대라고 하게 했던 것이다.

나가시마는 계속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의 힘겹던 싸움에 대해 회상하면서 항일연군의 고위간부는 다 사살되었거나 체포 또는 투항했는데 **김일성**만은 용케도 살아남아서 종전 후에 북조선에 돌아와 수상까지 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오중흡과 7연대


오중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해인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읽으시다가 오중흡이 희생되는 장면에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 더 읽지 못하고 오래 전에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그를 생각하며 밤을 밝히시었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의 1단계를 빛나게 장식한 돈화현 육과송전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오중흡의 최후를 회상하시었으며 오중흡의 영웅적 생애를 돌이켜보실 때마다 항일혁명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7연대의 결사옹위정신과 투쟁업적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회상하시었다.

우리가 오중흡을 잃은 것은 육과송전투에서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중대장 최일현과 기관총소대장 강홍석이도 잃었습니다. 3명 다 내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던 지휘관들이었는데 분하게도 한날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항일전쟁을 하는 과정에 많은 전우들을 잃었는데 오중흡을 잃은 것이 제일 분하고 가슴아팠습니다. 오중흡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리는 작지만 그림자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크다는 것은 발자취가 크고 이루어놓은 업적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 중에 최춘국이나 오중흡이만큼 소리를 작게 내는 지휘관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작게 낸다는 것은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은 군사지휘관으로서는 드물다고 할 만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였으며 소리는 작게 내면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소박한 일군이였습니다.

최춘국을 가리켜 새색시같은 사람이라고들 했는데 오중흡은 그보다 더 얌전한 사람이였습니다. 부족점을 찾아내자고 하면 어느 것이라고 딱 찍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였습니다.

오중흡은 일상생활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혁명실천에 들어가서는 매우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심만 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호랑이같은 사나이였습니다. 어지간한 난관 같은 것은 탁탁 퉁겨버리면서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보고야 말았으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잠도 휴식도 몰랐습니다.

오중흡은 정의를 옹호하는 정신이 강한 반면에 부정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보다 일찍 계급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정의에 대한 강한 옹호의 정신과 부정의에 대한 비타협성 때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인가 오중흡이네는 가물이 들어 농사를 망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중흡

의 아버지는 농사형편이 여사여사하니 금년만은 좀 사정을 보아달라고 지주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포악한 지주는 동정은 고사하고 도적놈이라는 당치않은 감투를 씌우며 오중흡의 아버지를 단장으로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오중흡은 참다못해 단장을 휘두르는 지주를 도리깨로 후려갈기였습니다. 그 당시 오중흡의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이였다고 하니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계급적으로도 빨리 각성되고 혁명에도 빨리 뛰어듭니다. 그리고 대오의 선봉에서 생사를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훌륭한 투사로 성장합니다.


강흥석

오태희노인의 말에 의하면 어린시절에 그는 독립군놀이를 몹시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김좌진이 청총말을 타고 왔다 갔다하던 곳이였습니다. 그러니 독립군물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촌형 오중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공산주의물을 먹었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혁명에 눈을 뜬 것은 나라를 강탈한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오중흡이만큼 담차고 용감한 지휘관은 드물었습니다.

예로부터 명장들은 무인의 도를 닦는데서 지, 인과 함께 담과 용을 중시하고 그것을 배양하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벼랑에서 굴리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중흡은 강무당에도 간 적이 없고 도사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가가 지녀야 할 담력과 용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1939년 추석을 앞두고 화룡현 3도구부근에 있는 금광을 습격할 때 전쟁터에서 보기 드문 일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싸움을 지휘할 때 적탄이 오중흡의 이마에 와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빗맞은 탓인지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가 이마에 적탄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전투지휘를 계속한 것은 기적이였습니다.

사람의 얇팍한 두 개골이 아무리 빗맞는다 해도 탄알을 막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였습니다. 나도 전령병이 붕대를 감아주었다는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동무들이 오중흡더러 당신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느님 덕을 단단히 보았다고 말해주자 그는 일본놈들의 눈먼 총알이 겁쟁이의 이마는 뚫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공산주의자의 이마는 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마에 적탄을 맞고도 전투를 계속 지휘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적들이 던진 수류탄이 성벽을 넘어와서 대원들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오중흡은 발밑에 와떨어진 수류탄을 잽싸게 집어서 성벽너머로 힘껏 던지었습니다.

적들은 자기네가 던진 수류탄이 되넘어오자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오중흡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수류탄이란 투척시간부터 폭발시간까지 불과 2-3초의 여유밖에 없는 근거리살방무기입니다.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손에 집어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모험입니다. 오중흡은 바로 그런 위태위태한 모험을 눈섭 한 오리 까딱하지 않고 해낸 사람입니다.

이 두 일화를 통해서도 동무들은 오중흡의 인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은 싸움을 아주 재치있게 하는 군사지휘관이였습니다.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장점은 우선 정황판단과 결심이 빠르고 전투조직이 치밀한 것이였습니다. 그는 일단 결심이 선 다음에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성있게 밀고 나가는 특기를 가지고 마치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묘한 수를 써서 힘을 센 적수를 넘어뜨리듯이 아무리 우세한 적과 맞다들어도 그에 알맞은 전술을 적용하여 실수없이 소탕해버리군 하였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최현이나 최춘국에 못지 않은 세련된 싸움군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상 사령부와 같이 다니다보니 그에 대한 소문이 적게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동안 혁명을 해오면서 오중흡만큼 조직성이 강하고 규율성이 강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조직성이 강하고 규율성이 강한 투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급의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임무를 받을 때에는 예! 하고 무조건 접수하였으며 무슨 일이든지 변명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중흡은 우리가 주는 명령과 지시를 1분1초도 어기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군 하였습니다. 어디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언제까지 어느 연락장소에 도착하라고 하면 꼭꼭 어김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제시간에 도착하였으며 간혹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면 소부대를 남겨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기자신은 기본부대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한 날자에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가 제때에 돌아가지 못하면 사령관동지가 근심한다고 하면서 대원들을 교양하고 고무하였습니다.

오중흡연대장은 부대를 관리하며 대원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하라는대로만 하는 모범적인 지휘관이였습니다. 그처럼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그는 정규군에서처럼 부대관리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7연대에는 꿰진 신을 신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는 대원들이 없었습니다. 오중흡은 행군하다가도 옷이 꿰진 것을 보면 도중휴식시간에 옷을 다 기워 입게 하였습니다. 그가 부대관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서는 한 건의 사건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중흡동무는 내 입에서 무심결에 흘러나오는 혼자소리도 다 사령관의 요구나 명령으로 받아들이였습니다.

1939년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올기강밀영에서 오백룡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추석이 가까워오는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새 오중흡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의 의도나 지향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하고 받아들일줄 아는 오중흡은 그 말을 그저 스쳐보내지 않고 사령관동지가 왜 추석이 가까워온다고 했겠는가, 혹시 신입대원들이 추석을 맞으면서 고향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고 명절준비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자기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후 추석준비를 위한 전투를 조직해서 많은 식량과 식료품을 노획해가지고 왔는데 월병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오중흡의 요청으로 7연대 대원들과 사령부성원들에게 월병의 유래를 이야기해준 것이 바로 그 해 추석입니다.

오중흡은 내가 내는 총소리까지도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충신이였습니다. 고난의 행군도중에 우리는 집단행군을 하다가 얼마동안 분산행동에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오중흡이와 헤어지면서 봄에 삼수골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사람들은 13도구골짜기를 삼수골이라고 불렀습니다. 1939년 3월초순에 나는 삼수골의 어느 한 부락을 습격하는 전투를 조직하였습니다. 오중흡은 그때 우리가 내는 총소리를 듣고 이것은 사령관동지께서 울린 총소리요. 불과 1개

중대의 역량밖에 안되는 사령부가 노출되어 적들의 포위에 들 수 있소. 동무들,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오! 라고 하면서 앞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달리였다고 합니다.

오중흡은 사람이 워낙 진국이었습니다.

그가 왕청현 원가점이라는 곳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유격대에 갓 입대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당시 왕청유격대에는 총이 부족하였습니다.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도 많고 입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총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이 없는 대원들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차고다니거나 창을 메고 다니었습니다.

오중흡도 역시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만들어낸 칼을 차고 다니었습니다.

왕청유격대에서는 총이 없는 대원들을 늘 대열의 맨뒤에 세우군 하였습니다.

오중흡은 보초를 설 때마다 다른 대원들의 총을 빌려가지고 나가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금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중흡이 몇 달 동안 칼만 차고 다니기 때문에 동무들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늘 놀려주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중흡에게 ≪중흡동무, 동문 밤낮 칼을 차고 남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섭섭하지 않은가≫ 고 정색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중흡은 ≪이 칼도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이 어떻게 다 차례지겠습니까, 총이야 싸움을 하면 아무 때건 생기게 되겠지요.≫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총을 메고다닐 때 칼과 작탄을 차고 남들의 뒤를 따라다니자니 사실이야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칼을 차고 다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유격대원들에게 총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전투를 조직하였습니다. 총을 얻자면 전투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문에서 삼차구를 거쳐 목단강으로 들어가는 철도공사장을 습격하였습니다.

오중흡동무는 이 전투에서 보총을 여러 자루나 빼앗아냈습니다. 그는 적장교가 차고 있던 권총까지 빼앗아왔습니다.

노획한 무기를 누구에게 수여하는가 하는 것은 전투총화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용감성을 발휘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총을 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철도공사장습격전투와 관련된 총화모임에는 나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오중흡은 비로소 무기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후 오중흡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등의 군직을 차례차례 밟아가며 연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는 혁명군대지휘관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중흡의 장점을 들자면 그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얌전한 사람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쾌활하고 낙천적이었으며 붙임성이 좋고 향학열도 높았습니다. 그는 허튼소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였고 동지들이 어떤 비판을 주든지 그것을 다 접수하고 성실하게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부대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정신도 남보다 높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서의 오중흡의 성장은 그대로 7연대의 성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7연대의 전신은 독립연대였습니다. 독립연대는 왕청, 연길,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각 현들에서 1개 중대씩 선발하여 편성한 연대입니다.

왕청현에서는 7중대가 독립연대에 망라되었습니다. 왕청 7중대라는 것은 왕청 1

중대에서 생겨난 중대인데 독립연대에 들어가서는 2중대로 되었습니다. 오중흡은 독립연대 2중대에서 청년간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독립연대는 1935년에 독립1사 제2연대로 되었다가 남호두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역사단이 새로 편성될 때 사단의 7연대로 되었습니다.

7연대는 새 사단의 핵심부대였습니다.

오중흡, 오백룡, 강증룡 등은 이러한 변천과정을 걸어온 7연대의 역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연대장으로도 되고 중대장으로 되고 소대장으로 되었습니다.


김주현

7연대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우리는 왕청시절부터 오중흡을 체계적으로 키워온 것처럼 7연대도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단위보다 지도를 심화시켜 새 사단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모범연대로 꾸리였습니다. 우선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비롯하여 연대의 지휘간부들을 좋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연대의 지휘관들에게 유격전에 필요한 각종 교범은 물론, 숙영법, 작식법, 행군법, 방위판정법, 가설무대를 만드는 방법과 연예공연종목을 작성하고 소개문을 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워주었습니다.

7연대를 모범연대로 꾸리기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사단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그들은 연대에 자주 내려가서 지휘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계몽시키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7연대는 모범연대로 되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자랑으로 되였습니다.


이동학

우리는 7연대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다른 부대들에 지휘관으로 많이 파견하였습니다. 위증민도 우리에게 군정간부들을 달라고 제기할 때에는 7연대의 지휘관들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7연대에서 단련된 지휘관들이 다른 부대들에 가면 그들이 또 많은 지휘관들과 모범전투원들을 길러냈습니다. 7연대는 그야말로 군정간부들을 키워내는 원종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동학인가 박수만이 지휘하던 경위중대도 후에 모범중대로 되었습니다. 이 중대에 7연대출신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혁명군에 정치군사간부들을 양성하는 상설적인 교육기관들이 없는 조건에서 7연대를 통해 계통적으로 육성한 간부들을 다른 부대들에 끊임없이 파견하는 방법으로 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한 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을 하는 과정에 축적한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이처럼 항일혁명과정에 창조된 경험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 중에는 7연대에서 배출된 지휘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중흡, 김주현, 이동학, 이동걸, 오백룡, 김택환, 최일현, 오일남, 손태춘, 강흥석, 강증룡 등은 7연대출신들입니다. 7연대의 중대정치지도원들 가운데는 처처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은 최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무엇이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언저리가 늘 젖어있는 것 같다고 하여 처처별이라고 불렀는데 잘 싸우다가 소탕전투에서 김산호와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최일현은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장감으로 지목해 두었던 사람입니

다. 김택환중대장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이 쇠소리가 나는 사람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쇠소리가 나는 사람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장은 연대장을 닮고 소대장은 중대장을 닮으며 대원들은 소대장이나 분대장을 닮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휘간부들의 인품과 성미를 닮게 됩니다. 7연대는 통털어 오중흡을 닮아서 강철같은 연대가 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오중흡이네 7연대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강증룡

백두산근거지에 있을 때 1군 조국안사장이 우리 부대와 함께 얼마동안 생활해보더니 똑똑한 사람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서 기관총을 잘 다루는 사람을 주었으면 했습니다. 조국안이 욕심낸 사람이 바로 7연대의 이름난 소대장이며 기관총수인 강증룡이였습니다. 강증룡은 박록금의 남편입니다.

강증룡에게 1군 2사에 갈 의향이 없는가고 물으니 그는 대번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박록금이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안해와 갈라지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장군님 슬하를 떠나기가 싫고 오중흡이 있는 7연대를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중흡에게 정이 푹 든 사람이였습니다. 오중흡과 강증룡은 왕청시절의 죽마고우였고 왕청1중대시절부터 줄곧 한 중대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였습니다.

오백룡이도 8연대의 기관총수로 가게 되었을 때 오중흡이 지휘하는 7연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오중흡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연대 대원들이 자기 부대에 대한 애정과 단결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과오를 범했거나 정치군사적 실무가 약한 사람들도 7연대에 보내어 단련시켰습니다.

1938년 임강현 신태자부근의 한 밀영에서 기관총소대를 책임진 사람이 과오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무능력도 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임시로 7연대 4중대에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그 기관총소대장을 오중흡이네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부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줄 모르면 벌써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숱한 대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줄 알아야만 간부구실을 할 수 있다. 동무는 7연대에 가서 좀더 배우고 단련하는 것이 좋겠다.≫

기관총소대장은 7연대에 가서 오중흡의 도움으로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원직으로 돌아왔습니다.

7연대는 조선인민혁명군 관하부대들 중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부에서는 가장 긴급하고 책임적인 과업은 항상 7연대에 주었습니다. 7연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타격수였습니다.

나는 행군 때나 숙영할 때에도 전투력이 강하고 책임성이 높은 7연대를 늘 후위에 배치하군 했습니다. 적들의 추격과 불의습격이 노상 뒤따르는 유격대의 생활에서는 후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숙영을 조직할 때마다 항상 사령부로부터 행군해오던 방향으로 300-500미터쯤 되는 거리에 전투력이 강한 1개 부대를 후위부대로 남겨두군 했습니다.

사령부에서 후위부대까지의 거리가 1-2킬로미터 정도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후위부대와 사령부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초를 세우거나 감시성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인민혁명군 토벌에 동원된 적들은 전방에서 길목을 지키다가 공격해오는 전법을 별로 쓰지 않고 뒤에서 유격대의 꼬리를 물고 추격해오는 전법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후위에 세운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이권행

1939년 봄에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우리는 청봉숙영지에서 7연대를 후위에 배치하였습니다. 7연대 대원들은 밤에 우등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적들에게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힘들다거나 고달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인민군대에서 오중흡과 같은 사람들을 전형으로 내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오중흡을 전형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오중흡을 따라 배우라는 뜻입니다.

김정일동무는 벌써 1960년대초에 인민군대안에서 7연대를 따라 배울 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오중흡이 어떤 지휘관이고 7연대가 어떤 연대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군군인들이 오중흡에게 무엇을 배우고 7연대에서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겠습니까.

오중흡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장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라고 봅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였습니다.

오중흡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상과 노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관련된 우리의 사상과 노선을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오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 사령관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였으며 그 사상과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맹호가 되어 투쟁하였습니다.

오중흡은 우리의 사상과 사령관이 지시한 군사작전적 방침들을 법으로 여기였고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오중흡이한테는 잡사상이 붙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잡사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상적으로 결백하면 구정물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습니다.

연대장의 사상이 견실하다나니 7연대는 모두가 자기 사령관과 같은 숨을 쉬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은 또한 자기 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그 명령, 지시 관철에서의 높은 책임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중흡은 사령관이 주는 명령, 지시라면 한치도 드티지 않고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집행하였습니다. 그 명령, 지시가 아무리 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타발하거나 불평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령관이 준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꼭꼭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명령, 지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에 대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총화하였습니다.

사령관이 준 명령, 지시에 대한 오중흡의 태도에서 우리 일군들이 본받아야 할 다

른 하나의 우점은 한 가지 일을 해낸 다음에는 연이어 다른 일거리를 맡겨달라고 간청해나서는 점이였습니다. 오중흡은 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는 꼭꼭 다른 일거리를 붙잡군 하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7연대가 다른 연대들보다 고생을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오중흡이 일욕심이 많은 연대장이였다는 사정과도 관련됩니다.

오중흡은 쉬운 일거리를 맡길 때보다 어려운 일을 맡길 때 더 기뻐하는 특이한 기질을 가진 군사지휘관이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 자기 사령관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은 사령관을 정치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결사옹위정신에서도 표현되였습니다. 오중흡은 사령관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연대와 함께 육탄이 되어 뛰어들었고 어떤 간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홍두산에서 이두수중대를 데리고 수백 명의 적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오중흡은 사령관동지의 신변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적의 숙영지를 불이 번쩍나게 기습하였습니다. 후방이 기습당하게 되자 살아남은 적들은 하는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오중흡의 덕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만강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부대의 철수를 지휘하는 나를 육탄으로 막아나선 것도 오중흡이였고 7연대 성원들이였습니다. 단두산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적을 꼬리에 달고 사령부가 철수하였는데 그 후위에서 7연대가 우리를 엄호하였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오중흡의 남다른 충실성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중흡은 행군의 첫 시기 갈지자전술을 쓰면서 근 보름동안이나 결사적인 후위전을 벌려 사령부를 보위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기회에도 말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7도구치기에서 대부대집단행동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집단행동으로부터 분산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와 헤어진 오중흡은 자진해서 사령부로 가장하고 두 달 남짓이 험준한 용강산줄기와 장백산줄기를 누비면서 적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느라고 7연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으로 사령부는 얼마동안 적들의 성화를 덜 받았습니다.

7도구치기에서 우리와 헤어질 때 오중흡이네 연대에는 식량이 한 알도 없었습니다. 식량을 해결하자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중흡은 부대의 행군노정을 가이허, 사등방등성이, 홍두산서쪽, 쌍차두북쪽으로 하여 덕수골로 떨어지게 잡았습니다. 이 노정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백색지대입니다. 있다면 탕자막 같은 것이 있을 뿐이였습니다. 여기에 한 번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미궁에 빠져 다시 살아나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중흡은 배를 곯면서도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자기네 연대에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험로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목재소를 치고 얻은 소고기나 말고기로 끼니를 에웠지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란 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중흡은 적들이 더는 자기네 연대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원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령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들이 혹시 눈치채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수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소. 기어이 뒤쫓아가서 꽁무니에 적을 달고 와야겠소. 모두 나의 뒤를 따르시오.



그는 싸창을 빼들고 천신만고하여 뚫아온 길을 수십 리나 되돌아가서 적의 숙영지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적을 뒤에 달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 7연대는 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아가서 한두 번씩 성화를 먹이군 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코뀐 송아지처럼 졸졸 연대를 따라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연대는 왜놈군대들이 잡아먹고 버린 소가죽을 우려 나누어먹으면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오중흡이네는 그 해 음력설을 언감자로 쇠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우리는 이 산상에서 이런 것이라도 먹는데 사령부는 무슨 식량으로 지내는지 하고 우리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행군노상에서 허기증과 무력증으로 신고하는 대원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10년을 하루같이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고생끝에는 낙이 오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가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해방된 조국땅을 향해 행군할 때를 생각해보라, 조선사람으로 태어나 이 이상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의 이 간고한 행군이 해방조국으로 잇닿은 걸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은 **김일성** 사령관의 말씀이다, 모두다 사령부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오중흡은 이런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큼직한 불덩어리를 안고 싸워온 사람이였습니다. 무슨 불덩어리였는가 하면 혁명에 대한 열정이였습니다. 그 열정의 핵이 다름아닌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이였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나 모든 병사,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사령부의 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7연대의 고유한 특성이며 사령관의 명령, 지시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며 사령부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할 뿐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온몸이 육탄이 되어 앞장서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관철해나가는 것이 바로 7연대의 생활과 투쟁의 전투적인 기풍이였습니다.

나에게로 날아드는 적탄을 몸으로 막고 전사한 이권행도 7연대출신이였고 사령부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오일남, 손태춘, 김혁철도 7연대출신이였습니다.

오중흡, 최일현, 강흥석도 바로 사령부를 옹위하는 길에서 한 생을 살다가 육과송전투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내 그래서 육과송전투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군 합니다. 물론 싸움 자체는 아주 맵시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중한 지휘관을 셋이나 잃었습니다.

그날밤 10시 오중흡은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를 인솔하고 맨앞장에서 육과송

에 있는 적병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주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던지 나는 그날 오중흡에게 몸을 조심하라는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한다고 몸을 아낄 오중흡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부대의 앞장에 서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나는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를 보낸 다음 그 뒤로 인차 8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8연대에는 목재소노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는 한편 적의 군수창고를 열고 식량과 군수품을 해결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오중흡은 돌파조를 이끌고 나무울타리안으로 감쪽같이 돌입하여 철조망을 끊고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7연대는 적이 정신을 차릴 새 없이 벼락같이 포대와 병실들을 점거하였습니다. 바빠맞은 적들은 병실밑에 파놓은 비밀지하도에 들어가 숨어버렸지만 오중흡은 제꺽 지하도의 입구들에 불을 지르도록 하였습니다. 지하도입구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밑에 있던 적들은 더 배겨내지 못하고 밖으로 벌벌 기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군의 승리가 확실해진 때에 뜻하지 않은 일격을 당했습니다. 지하도에 숨어있던 적들이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오중흡연대장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전령병 김철만이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패잔병들이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7연대의 유능한 지휘관들인 최일현과 강흥석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오중흡이 역시 원통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생 험한 길을 헤쳐오면서 혁명을 위해 그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던 그 불덩어리같은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동무들에게 늘 그 어떤 전투에서나 마지막 결속단계에서 특히 주의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고는 흔히 그 마지막단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과송전투에서도 결국은 전투를 결속하는 마지막 5분에 귀중한 세 전우를 잃었습니다.

아마 오중흡이 그때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국면이 우리에게 유리했던 데다가 적들이 솜타는 냄새에 취해서 손을 들고 나오게 되니 너무도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흡은 원래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활도 깨끗이 했지만 싸움도 맵시있게 하였습니다. 경각성으로 말하면 그 어느 지휘관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왜 자기 발밑에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정찰조원들이 적병영내부에 대한 정찰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찰만 잘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참으로 분하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김철만이 내앞에 나타나 왕왕 소리쳐 울면서 오중흡이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전할 때 처음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자 나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중흡을 죽인놈이 어디에 있는가? 오중흡을 죽인 놈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소리를 치며 적병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대원들앞에서는 마음을 억제하는데 습관되어 있었지만 그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던 오중흡입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 날 우리는 숱한 적을 소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게 다 귀찮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가슴이 그때처럼 아팠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철수명령이 떨어지자 우리 동무들은 전우들의 시체를 떠메고 육과송을 떠났습니다. 몇 백 명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말소리 하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서 추도모임을 하였습니다. 추도사를 하려고 나섰는데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곤란앞에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지만 슬픔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습니다.

육과송전투는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적들의 제2기 토벌 작전은 혼란에 빠지게 되였고 우리 군대는 대부대선회작전 제1단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적들이 백두산동북부 두만강연안일대에 대병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돈화오지에 와서 한바탕 총성을 크게 울렸으니 놈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는 역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기둥부대인 7연대가 제일 잘 싸웠습니다. 7연대는 강철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무적의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가 일당백의 부대로 될 수 있은 것은 연대의 지휘를 담당한 오중흡의 공로에 속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충신이고 명장이기 때문에 7연대가 강한 부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혁이나 차광수를 잊을 수 없듯이 오중흡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중흡은 나에게 있어서 혁명전우이고 동지인 동시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오중흡연대는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발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철통같이 호위해온 방탄벽이였고 난공불락의 성새였습니다.

오중흡이 전사한 후부터 우리는 대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개 대원들이 전투에 들어서면 시야를 최대한으로 넓혀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처신을 신중하게 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오중흡을 잃은 손실만은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그를 훌륭한 혁명가로 길러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중흡동무를 놓고 가정혁명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왕청을 포함한 간도전역에서 첫손가락으로 꼽은 애국혁명일가가 바로 오태희일가였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일혁명에 참가하였습니다. 지하공작원이나 인민혁명군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사람들만 하여도 20명 가까이 되니 나라를 위해 바친 이 가문의 애국충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동무가 그처럼 쇠소리가 나게 혁명을 할 수 있은 것은 일찍이 오씨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좋은 교양을 받은 데 그 주되는 요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씨네 집안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쟁쟁한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정확한 인생행로를 그어준 오태희, 오성희, 오창희, 오정희 등 4노인형제의 피어린 노고가 어려있습니다.

오씨가문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도덕교양을 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교양, 반일교양, 혁명교양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였습니다. 오씨가문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웠지만 자식들의 교육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문중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오씨가문에 중학교 졸업생이 10여명이나 되지만 관리가 되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 오중화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중흡이 최후를 마친 륙과송전투장

오중화는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하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중에서

였습니다. 우리가 남북만원정을 마치고 왕청에 갔던 그 무렵에 벌써 오씨가문의 청장년들과 부녀들은 모두 혁명조직에 망라되어있었습니다.

오중흡이네 집안은 오씨가문에서 그 중 가난하게 산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혁명화도 빨리 되였습니다. 오중흡은 먼저 자신을 혁명화한 다음 동생들을 혁명화하고 온 가족을 혁명화하였습니다.

오중흡이네 3형제는 모두 연대와 대대의 군정일군으로 활동하다가다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1941년 여름에 나자구일대에서 소부대활동을 할 때 오중흡의 아버지 오창희와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과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오씨일가는 나자구에서 살았습니다. 산에서 망원경으로 오씨네집을 보면 집안식구들이 지게에 나무짐을 가득 지고 사립문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보였습니다. 오씨네 집안 사람들은 나자구에 와서도 혁명군대의 후방가족답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김일동무를 통하여 오창희, 박덕심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나자구일대의 후방가족들로 지하조직을 무어주었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백두산동북부로 진출했을 때 우리는 오창희노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노인의 도움으로 경원(새별)지구에 건너가서 혁명조직들을 꾸리였습니다.

오씨일가는 정말 역사책에 기록해둘만한 혁명일가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오중흡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 나라에 수많은 7연대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동무가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난날 내곁에는 오중흡과 같은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오중흡과 같은 충신들을 많이 길러내여 **김정일**동무의 곁에 세워주어야 합니다.

김정일동무는 조선의 미래이고 조선혁명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국이 영원무궁토록 번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자면 **김정일**동무가 건강해야 하며 전당, 전군이 **김정일**동무의 영도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김정일**동무를 혁명의 수뇌로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야 하며 오중흡연대가 사령부를 보위한 것처럼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인 당중앙위원회와 **김정일**동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5. 평안도사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에는 상봉과 이별로 엮어진 기이한 사연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연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진 후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한 사연도 있고 다시 만나기로 되어있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감 소식이 없다가 뒤늦게야 그 행적이 알려져 수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사연도 있다.

1993년 10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앞에서 대부대선회작전에 대한 회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육과송에서 잠깐 만나신 평안도사람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항일혁명편 7권에 절을 따로 설정하여 평안도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걸어오신 혁명활동노정에는 그런 기이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었다.

말이 난 김에 육과송에서 만난 평안도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중흡의 추도식을 끝내고 숙영지로 갈 때였습니다. 전령병이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웬 낯선 사람이 육과송에서부터 부대를 따라오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나를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나보았습니다. 적통치구역이나 국내에서 찾아온 인민들을 만나보는 것은 유격전으로 여념이 없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만은 어떤 손님이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 오중흡을 잃은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애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최일현과 강흥석이까지 잃고 나니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중흡이 전사한 것은 나에게서 오른팔이 떨어져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령병에게 오늘밤엔 누구도 만나주지 못할 것 같으니 양해를 구해서 손님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전령병은 몹시 난처해하며 벌써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은 **김일성**장군과 자기는 잘 아는 사이인데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만나서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전령병의 말을 듣고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육과송에는 내가 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대는 우리가 처음 밟아보는 생소한 고장이였습니다.

전령병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니 배낭을 진 중년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손님이라는데 나로서는 어디서 만났던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자 대뜸 접니다, 평안도집입니다 하고 덥석 내 손을 잡아쥐였습니다.

평안도집이라는 말에 나는 그가 누구인지 인차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였던지 우리는 부대를 이끌고 수림속으로 행군해가다가 외진 골안에서 불탄 집 한채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집터에서 등에 사내애를 업은 중년사나이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최일현

나는 주인을 안정시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몇 시간 전에 도끼를 차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 사이에 토벌대 놈들이 달려들어 집에 불을 지르고 안해와 아이들을 총으로 쏴죽였다고 했습니다. 업은 아이는 자기를 찾아 산에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나니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원쑤를 갚아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이 몇 명이나 되며 떠나간지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더니 토벌대는 40명쯤되고 떠나간지는 반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자, 보라! 일본놈들이란 이런 야만인들이다. 아무 죄도 없는 이 가정이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대원들은 당장 복수전을 하자고 하면서 저마끔식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파람있는 대원들을 50명쯤 선발해가지고 돌격대를 무었습니다. 그 돌격대가 토벌대를 뒤쫓아가서 숙영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을 모조리 요정내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불탄 집을 떠날 때 집주인에게 돈 50원을 꺼내주면서 당신의 정상을 생각하면 집이라도 지어주고 싶은데 줄 것이란 이것밖에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고장에 가서 살길을 찾으라, 앞으로 나라가 독립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50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였습니다. 그 돈이면 부림소같은 것도 한 마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좁쌀 한말 값이 30전 정도였습니다.


강흥석

집주인은 제 본래 평안도에서 살다가 서간도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이런 봉변을 당했소이다. 내 흙이 된들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어른의 성함이라도 알고싶소이다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가 너무 조르기에 우리 동무들이 내 이름을 대주었습니다.

나는 봉변을 당한 사람이 평안도에서 살다가 왔다는 말에 친근감과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안도사람이면 나의 동향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의 구성상태를 보면 평안도지방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만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간도지

방에는 평안도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번은 내가 서간도에서 평안도사람이 사는 집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건뎅이젓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땅에서 건뎅이젓이 어데서 났는가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풋강냉이에 건뎅이젓을 발라먹었는데 별맛이였습니다. 나는 어린시절을 서선지방에서 보냈기 때문에 건뎅이젓이나 백하젓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세 식구를 잃어버린 평안도사람의 불행을 목격하고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돈을 얼마간 주고 떠나기는 하였지만 마음이 가볍지 못했습니다. 평안도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될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해도 없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중화

그렇지만 우리는 아쉬운대로 그와 헤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참 넓고도 좁은 것이였습니다. 이름모를 산골에서 얼핏 만났다 헤어진 그 평안도사람을 돈화의 오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중흡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정말 대단히 반가왔을 것입니다.

전우들을 잃고 너무나 큰 슬픔속에 잠겨있다보니 반가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슬픔을 억지로 눌러가며 육과송에는 어떻게 되어 왔고 이 밤중에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평안도사람은 우리와 헤어진 후 아들애를 데리고 육과송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후처도 얻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하면서 저의 부자가 살아난건 장군님덕입니다. 그 돈 50원이 아니였더라면 우리 부자는 거지가 되였거나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산판노동을 하면서 흰쌀 한말을 마련해놓고 마음속으로 장군님을 만날 날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이 고장에 오시게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의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였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나는 그 흰쌀 한말에서 우리 혁명군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사랑을 보았고 깨끗한 지성과 의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여 다시 일어나 천백 배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날밤 나는 평안도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갈길이 총총했지만 그 사람도 오래 머물러있을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갈 때 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바래주었습니다.

그 후 나는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사람의 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의주에서 학생소요가 일어났을 때이니 1945년 11월일 것입니다.

신의주학생사건은 동중학교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반동놈들의 사촉을 받아 도당청사를 습격했는데 소요를 제때에 수습하지 않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가야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신의주에 갔습니다.

동중학교에는 원래 애국적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홍동근목사도 아마 동중학교 출신일 것입니다. 해방 전부터 민족주의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이 학교 학생들

에게 가짜공산주의자들의 비행을 걸고 반공의식을 불어넣게 되니 그들이 화약처럼 확 달아가지고는 도당청사를 습격하는 망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신의주에 간 나는 동중학교 마당에 시민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연설을 듣고 자기네가 반동놈들에게 이용되어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것과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나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나 백해무익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번 다시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설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육과송에서 헤어졌던 평안도집이 천만뜻밖에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날 군중대회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사람앞에서 옛친구들처럼 반갑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나는 동행했던 간부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육과송전투 때 만났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좋은 친구는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기 마련입니다.

옛날 노인들이 즐겨 쓴 말가운데 삼익우라는 말과 삼손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익우라는 것은 사귀어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이로운 벗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삼익우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삼손우라는 것은 사귀면 손해를 보게되는 세 가지 벗이라는 뜻입니다. 즉 편벽한 사람, 착하기는 하나 주대가 없는 사람,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사람들이 하던 말이니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귀어서 이익을 주는 벗과 손해를 주는 벗을 비교적 정확하게 찍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행군도상에서 잠간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을 삼익우나 삼손우의 범주에 넣고 논한다면 좀 무리하다고 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집은 분명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지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미더운 사람이라는 것은 육과송에 우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쌀을 지고 찾아온 사실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견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골에서 살던 사람이 견문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그가 삼익우에 속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잠깐 입은 은혜일지언정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정에 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안도사람에게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옛친구로 생각하고 아무 때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별스럽게도 그날 우리는 만나기 바쁘게 또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일이 바빴고 그 사람은 나한테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세 번 다 비상한 정황속에서 만났다가 총총히 헤어지다보니 이름이 무엇이었고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1945년 말경이면 만 사람이 다 해방바람에 들떠있던 때였고 제일 바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나도 역시 건국사업으로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나니 그처럼 기이한 인연을 가진 평안도사람과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후회가 됩니다.

토벌에 처자와 집을 잃고 울 때 그 사람의 등에 업혔던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쯤 환갑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의주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평안도사람이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시기 신의주시에서는 미군의 폭격으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가 그 도시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폭격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육과송전투와 관련된 회상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자료제출자가운데 평안도사람이라고 짐작되는 회상자는 없습니까? 그 사람을 전쟁전에 다시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평안도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둘도 없는 락입니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을 추억하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 은인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알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김치범이라는 농민도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서울근방에서 농사군으로 일해온 그는 1950년 8월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동자, 농민, 청년, 문화인들로 구성된 인민관광단성원의 한 사람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나는 8.15해방 5돐이 되는 날 내각청사에서 백수십 명이나 되는 관광단의 전체 성원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담화를 하는 과정에 폭격 때 헤어졌던 관광단원 한 명이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치범이라는 농민이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고 관광단원들에게 물었더니 1943년경부터 서울지구에 침투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애국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단원들의 말이 그 농민은 해방 후에도 온 가족을 구국투쟁에 내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승만정권을 반대해서 싸우다가 사형언도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 농민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관광단원들도 그가 나의 접견을 받지 못하는데 대해서 몹시 섭섭하게 여기였습니다.

나는 접견시간을 여러 번 연장해가면서 인내성있게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 농민은 어디에 가있었겠습니까. 접견 후에 들어 알게 되었지만 그는 대오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폭격에 무너진 어떤 유치원건물안에서 부상당한 어린애를 안아내다가 병원에 입원시키느라고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연까지 듣고 나서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농민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서운해할 것을 생각하니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만경대를 참관한다고 하기에 나도 우정 시간을 내여 만경대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그 농민을 만나볼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농민이고 그도 농민이니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의사가 잘 소통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그 농민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만사를 다 제껴놓고 고향집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함께 김치범을 기다렸는데 그날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되도록 남에서 온 그 농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나를 대신해서 손님을 만나주라는 부탁을 남기고 내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날아침 도착시간을 어긴 것은 공교롭게도 관광단일행이 팔동교근방에서 폭격을 당했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내 부탁대로 그를 만나고 나의 선물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평양관광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간 후 김치범농민은 전선원호사업을 잘했습니다. 온 가족이 떨쳐나서서 전선에 식량과 탄약을 날랐습니다.

그의 집 식구들은 인민군부상자들에 대한 간호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단원으로 들어왔을 때 환갑이 다 된 사람이였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100살이 넘을 것입니다.

그때 급한 일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못한 것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이 정말 섭섭하게 되었을 뻔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격언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와 집단과 동지와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도사람은 내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 사귄 벗입니다.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등에 아들애를 업고 불탄 집 마당에서 슬프게 울던 그의 모습과 쌀을 지고 육과송에 찾아왔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합니다.



6.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한 쏘련은 사회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지향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이상향으로 되고 있었다.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지난날 이 이상향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해 사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낫과 아치를 새긴 쏘련의 붉은 국기에는 영웅적 쏘련인민이 바친 심혈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국제주의전사들의 뜨거운 피도 어려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쏘련에 대한 군사적 위험이 조성될 때마다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제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였다.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과정에는 희생된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던 나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혁명에 관심하는 것은 맑스주의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전에 쏘련혁명이나 세계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한 좌우경적인 인식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서는 한때 적지 않은 사상적 혼란과 대립이 조성되었댔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면서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한테 공



붉은군대 기병

산주의자들을 헐뜯을 수 있는 언질을 주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일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우리더러 쏘련의 희생물이 되지 말며 스탈린의 제물이 되지 말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국제주의에 대한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쏘련을 피로써 도와주자고 하면 그것을 무익한 희생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민족혁명을 하면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쏘련사람들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준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쏘련은 그 당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포위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것은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필요한 것이였지만 도덕의리상으로 볼 때에도 정당한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던 첫 시기부터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높이 쏘련을 지지하고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홍범도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투쟁은 1930년대 뿐 아니라 192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홍범도는 초기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였지만 공산주의운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운동으로부터 애국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였으나 그 울타리안에서만 맴돌지 않았고 민족운동자체에 대해서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가운데 3 인민봉기 후 쏘비에트러시아에 들어가서 무장활동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민전쟁당시 붉은군대와 원동빨치산에서 쏘비에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과정에 홍범도도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으며 레닌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일제는 1920년대초에도 백파도당을 지원하며 러시아 원동지방에 대한 무장간섭을 부단히 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원동의 공산당조직에서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범도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독립군상층부의 일부 인물들은 조선사람이 제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머저리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홍범도는 왜놈을 치는 군대는 다 우리편이라고 하면서 붉은군대를 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홍범도가 관여한 전투들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이만격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만은 우쑤리강변에 있는 고장입니다. 독립군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던지 이만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일본군과 백파군이 조선말구령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쏘련사람들은 이만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사이에 맺어진 공동투쟁의 유대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쏘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산자들의 공화국을 세운 나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이니 어려운 일인들 얼마나 많겠는가, 잘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공부깨나 했다고 으시대던 사람들보다야 얼마나 궁냥이 넓습니까.

쏘만국경일대에서 붉은 군대와 직접 대치하고 있던 관동군의 움직임만 놓고보더

라도 제국주의자들이 그 당시 쏘련을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적으로 준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32년부터 1939년사이에만도 널리 알려전 하싼호나 할힌골 사건을 비롯하여 근 1,000번의 크고작은 국경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며칠에 한번씩 무장도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쏘만국경지대에서는 초연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쏘일간의 적대관계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1904-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가 일본에 많은 이권과 영토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월혁명후 신생쏘비에트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열강들의 무력간섭이 진행될 때 일본제국주의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에 군대를 출동시켜 노골적인 무장간섭의 방법으로 백파도당들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쏘비에트러시아에 대한 무력간섭에 동원된 제국주의열강들의 군대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인 것이 일본군대였다고 합니다. 일본침략군은 그때 연해주지방을 피로 물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빨치산대장 나조를 체포하여 기관차화구에 넣고 태워죽인 것도 바로 그때에 있은 일입니다. 공동출병을 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군대들이 붉은군대의 반격에 못이겨 철퇴한 다음에도 일본군만은 계속 병력을 증강해가면서 검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눌러놓은 다음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과대망상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정복하지 못할 나라란 있을 수 없으며 일본군이 타승하지 못할 강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쭐해져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차례질 분배몫을 타산하며 거기에 매번 코를 들이밀군 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의 대립은 중일전쟁발발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7.7사변을 일으키자 쏘련은 중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쏘일관계는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7년 8월에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쏘련은 일본관할지역에 있는 자기 나라 영사관의 일부를 스스로 폐쇄한 다음 자기 나라에 있는 일본영사관의 일부도 폐쇄할 것을 상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쏘일사이의 모순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38년 1월에는 일본당국이 만주땅에 불시착륙한 쏘련비행기를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여 또다시 쏘일관계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쏘일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국지전쟁이나 전면전쟁으로 번져가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다보았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6년 8월의 5상회의에서 대쏘침략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대쏘침략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원동에 있는 쏘련군무력을 개전벽두에 즉각 소멸할 수 있도록 만주와 조선에 있는 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독일이 2차 세계대전전야에 바르바로스라는 대쏘작전계획을 세웠다면 그보다 앞서 일본군부는 오쯔라는 대쏘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쏘련을 넘겨다보는데서는 일본이 독일보다 한 수 더 앞선 셈



공격준비를 다그쳐
초원을 강행군하는 일본군보병

입니다.

관동군사령관 우에다는 만쏘국경분쟁처리요강이라는데서 국경선이 불명확한 지역에서는 현지사령관이 자의로 국경선을 정하되 충돌이 일어나면 병력의 다과, 국경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승리를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본군의 부당한 국경분쟁도발로 하여 쏘련은 어느 시각에 전면전쟁에 말려들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쏘련에 대한 일본군의 강도적인 도발행위를 보고 의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쏘련을 무장으로 지원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관동군과의 피어린 싸움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지적 감정의 발현이였습니다.


박광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자, 농민의 정권이 수립된 쏘련은 문자그대로 이상향이였으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기생충의 무리들을 쓸어버린 사회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놀라운 현실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더라도 쏘련을 보호하고 고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들사이에 이간을 조성시키던 수법대로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사이에도 쐐기를 치는 정책을 부단히 실시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훈춘출신의 친일적인 조선청년들을 기본으로 국경감시중대라는 것을 조직하여 쏘만국경계선에 배치해놓고 쏘련사람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주국 군정부대신의 상금을 주는 놀음까지 벌이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간도에 있는 조선사람들 중에서 첩자를 많이 양성하여 쏘련에 침투시킨듯한 여론을 내돌리면서 쏘련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사람들을 증오하고 경원시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 훈춘연대동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간책동 때문에 자기네 연대와 쏘련국경경비대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나빠졌다고 하면서 어떤 중대장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쏘련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진 줄도 모르고 종전의 질서대로 그들과 접촉하려다 억류당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1938년 여름에는 쏘련원동내무인민위원부의 한 고위장령이 훈춘을 통하여 일본으로 망명해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1930년대 중엽에 원동에 살던 조선사람들을 중앙아세아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카자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경내에로의 조선족의 집단적 이주가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망국민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의를 위해 쏘련옹호의 기발을 계속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우리가 쏘만국경일대에서 진행한 모든 전투들은 작전상으로는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쏘련을 돕기 위해 주동적으로 조직한 전투들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쏘련과 군사적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또 홍범도네처럼 쏘련측으로부터 무슨 청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쏘련에 대한 동지적 유대와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결심하고 단행한 군사행동들이였습니다.

쏘련을 옹호하고 지원하려는 우리 대원들의 열의와 지향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

는 것은 1934년 겨울에 쏘련비행기가 연습도중 광풍에 휘말려 만주의 호림땅에 떨어졌을 때 벌어진 비행사 구출작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쏘련비행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박광선이였습니다. 그 당시 박광선은 호림으로부터 몇 십리 떨어진 곳에서 반일인민유격대연락소 공작원의 신분으로 우양부대라고 부르는 중국인반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쏘련비행기가 우수리강반에 떨어진 그날은 50여명의 끌끌한 조선청년들을 우양부대에 입대시킨 뜻깊은 날이였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발견한 박광선은 연락소에 뛰어가서 전우들에게 쏘련비행사를 구원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놈들은 일본놈들대로 쏘련비행사를 사로잡으려고 밀려왔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적은 역량으로 기관총과 소구경포까지 쏘아대는 100여명의 적들과 결사전을 벌였습니다. 적수송대를 습격하려고 출동하던 우양부대의 대원들도 싸움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쏘련비행사는 안타깝게도 적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비행기곁에 속수무책으로 서있었습니다. 박광선이 조선말로 안심하고 어서 오라고 고함을 쳤지만 비행사는 오히려 유격대를 적으로 알고 권총까지 쏘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박광선을 도와준 것은 우양부대에 침투하여 반일부대공작을 하던 조선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말로 우리는 혁명군이니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비행사는 그제서야 아군쪽으로 기여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쏘련비행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건강을 추켜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유격대원들은 강냉이죽조차 없어서 먹지 못하는 형편이였으나 쏘련비행사를 위해서는 적의 수송대를 쳐서 노획한 밀가루로 빵도 해주고 메돼지사냥을 해서 고기도 보장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수리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생선도 잡아들였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고 포로의 수치를 당할 뻔했던 비행사는 우리 유격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인민혁명군부대들에서 국제주의교양자료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1938년 여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하싼호사건을 도발하였습니다.

일명 장고봉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그때까지 일제가 도발한 국경분쟁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파렴치한 것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고봉이란 당시의 웅기군 사회리 대안에 있는 쏘련의 자그마한 고지입니다. 쏘련사람들은 그 고지를 무명고지라고 불렀습니다. 고지근처에 하싼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하싼호사건이니, 장고봉사건이니 하는 말들은 다 이런 지리적 개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처음에 하싼호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장고봉에 있는 쏘련의 국경초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장고봉을 점령한 다음 병력을 증강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의 연



하싼호에서 국경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쏘련군대

해주지역을 제압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일본군은 쏘련측의 초소를 점령한 다음 그 일대에 나남 19사단을 기간으로 하는 숱한 병력을 집중시키였습니다. 쏘련측은 큰 병력을 동원하여 조국강토를 침노한 일본침략자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하고 그들을 자기 나라 영내에서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하싼호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임강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적의 배후를 타격하였습니다.

일본군부는 쏘련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항상 자기들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인민혁명군의 존재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썼습니다. 일본통치의 암으로 되고 있는 항일유격대를 없애버리지 못한 것, 이것은 일본의 정계나 군부가 제일 큰 두통거리로 여기고 있던 최대의 고달픔이었습니다.


할힌골에서 쏘일정전교섭

우리가 임강현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적배후타격전을 과감히 벌일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자 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철하였습니다. 인민들도 혁명군의 투쟁에 호응하였습니다.

일제의 쏘련에 대한 도발적인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작전과 함께 국내의 애국적 인민들속에서도 항일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정무국이 발행한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상황≫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하싼호침공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8월 2일 밤 청진부두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작업을 포기하였으며 부두에서 파업에 참가하였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갔다고 한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조선인민 쏘련과학원출판사)

하싼호사건이 있은 다음 쏘일간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치리하는데서 쏘련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강경하였습니다.

일본의 군부호전계층은 쏘련의 강경자세에 위축되었습니다. 쏘련은 러일전쟁당시의 무능한 러시아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국력을 가진 대국이였습니다. 일제는 쏘련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던 대쏘침략계획을 놓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쏘련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쏘련의 강경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심산으로 만몽국경일대에서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칭 노몬한사건이라고도 부르는 할힌골사건은 이렇게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할힌골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쏘련군포병대

할힌골이란 쏘만국경 가까이에 있는 몽골의 강이름이며 노몬한이란 몽골말로 평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할힌골사건을 도발한 목적은 할

힌골강 동쪽의 몽골영토를 점령하고 저들이 부설하려고 하는 제2철도를 엄호하기 위한 방어지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시베리아철도간선을 절단하여 러시아로부터 원동을 떼여내자는데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쏘련이 일본의 군사적 침공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쏘련의 대일전략은 무엇인가, 쏘련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탐지하고 가늠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쏘련의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나 공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습니다.


쥬꼬브

그 무렵 쏘련군부에서는 적지 않은 고위군사지휘관들이 전열에서 제거되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군부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쏘련의 군사력에 얼마만큼한 영향을 미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몹시 알고 싶어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래동안 일본 정계와 군부에서는 북진론과 남진론이 대두하여 쏘련을 먼저 치느냐 남방을 먼저 먹느냐 하는 전략문제를 가지고 맹렬한 논전을 벌이였습니다.

할힌골에서의 군사적 도발은 북진의 가능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전쟁이였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할힌골일대는 광막한 모래언덕과 초원으로 된 곳이라고 합니다. 할힌골사건은 몽골국경수비대원들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당치않은 트집을 걸어가지고 일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도발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직접적인 동기를 마련해준 것은 할힌골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들이였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국경이 무엇이고 통행금지구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그런데 일제는 만주국경찰들로 하여금 양무리들이 월경했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몽골사람들을 수색체포하게 하고 그것을 기화로 할힌골사건을 도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5년에 벌써 위조지도를 찍어내여 만주국의 국경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몽골쪽으로 20여 킬로미터나 더 들이그어놓았습니다.

일본이 할힌골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주공을 담당한 일본의 고위지휘관들 중 한 사람이 한때 일본대사관 무관으로 모스크바에 가있던 고마쯔바라장령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마쯔라는 반쏘모략에서 수완을 보인 덕으로 대쏘작전에서 1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르주둔사단의 사단장이 된 사람이였습니다.

사건초기에 그는 사단을 이끌고 몽골령내에 깊숙이 쳐들어가서 할힌골 서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을 일본군의 교두보로 확보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몽골군이 얼마 없었습니다. 쏘련군대는 거기서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마쯔바라는 이 약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쏘몽군대가 연합하여 고마쯔바라사단을 비롯한 적의 대부대들을 괴멸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일제는 본토에서 병력을 끌어다가 대규모적인 집단무력을 편성하고 새로운 작전을 벌이였습니다.

쏘련측에서는 백러시아군관구 부사령관인 쥬꼬브를 할힌골전선에 파견하였는데 쥬꼬브는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부대를 탱크와 비행대에 의한 타격을 기본으

로 하여 높은 기동력과 불의성으로 괴멸시키였습니다.

할힌골에서의 국지전은 그 해 9월 중순 쏘몽군의 승리로 결속되였습니다. 쏘몽연합군이 할힌골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해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 적배후교란작전을 벌일 데 대한 새로운 명령서를 작성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 명령서에 따라 그 해 여름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은 수많은 전투를 벌려 일제의 쏘련침공을 저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싸움으로는 1939년 8월의 대사하, 대장강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는 적들이 할힌골에 투입할 제6군을 새로 편성하느라고 병력이동과 군수물자수송에 한창 혈안이 되어 날뛰던 시기에 벌인 교란작전이였습니다. 그 싸움을 이틀동안이나 했습니다. 적 500명을 소멸한 큰 전투였습니다.

김진은 대사하전투에서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습니다.

김진의 모범을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시기에도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이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습니다.


김진

김진은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갔을 때 영안현 팔도하자에서 입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팔도하자마을에 들어갔을 때 오진우가 한 머슴군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청년이 바로 김진이였습니다. 그가 혁명군에 받아달라고 너무 조르기에 입대시켰습니다.

김진에 대해서 오진우동무가 잘 압니다. 김진네 소대장이 바로 오진우였습니다.

김진은 서당공부를 며칠밖에 하지 못한 청년이였으나 입대 후 전우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내가 끼고 다니면서 직접 글을 배워주었습니다. 소박한 청년이였는데 우리 혁명에 큰 공헌을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김진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후대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이 바로 쏘련의 할힌골격전을 지원하는 싸움에서 배출된 것을 매우 뜻깊은 사실로 생각합니다.

할힌골전투를 돕는 적배후교란작전에서 희생된 여대원 허성숙도 잊을 수 없는 동무입니다.

허성숙은 자위단장을 하는 아버지와 의절을 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유격구에 찾아들어왔다가 혁명군에 입대한 여대원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위단장질을 하는 것때문에 그가 이만저만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성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위단장모자를 벗으라고 했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딸의 애원을 매번 마이동풍으로 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설복해내지 못한 허성숙은 분연히 집을 뛰쳐나와 삼도만류격구로 들어갔습니다. 1933년에 있은 일이니 그가 16-17살 나던 해였을 것입니다. 내가 허성숙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몇 해 후였습니다.

사연은 어떻든지간에 나는 허성숙이 아버지와의 의절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것은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성중대를 조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성숙을 만났을 때 그에게 동무는 아버지에 대한 입장부터 고쳐야겠다, 아버지가 자위단장을 하면 반역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설복하고 도와줘야지 그렇게 원쑤처럼 대해서야 되겠는가고 가볍

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손부터 내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허성숙에게 설사 아버지가 친일분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동무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를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생각을 해야지 결별부터 선언하고 원쑤의 편으로 밀어던지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버지 하나를 개조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이 혁명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멀지않아 우리는 여성중대를 꾸려보자고 하는데 동무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중대에 망라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허성숙

그러자 허성숙은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그 동안 처신을 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아버지를 잘 설복하겠으니 여성중대에만은 꼭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여성중대에 망라되어 잘 싸웠습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였기 때문에 전우들은 그를 가리켜 허장군 또는 여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간삼봉전투가 있은 날 저녁 최현을 만나 허성숙에게 얼마동안 말미를 주어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부녀간의 상봉을 마련해서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생각에서 그런 권고를 했더니 최현도 얼른 동의해 나섰습니다. 그는 부대가 명월구부근에 가면 허성숙을 꼭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성숙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허성숙이 아버지한테 찾아가려고 길차비를 하고 있을 때 할힌골작전을 지원하여 대사하, 대장강 전투를 벌이기 위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허성숙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큰 작전을 앞두고 어찌 사사일부터 먼저 치르겠는가고 하면서 집에 가는 일을 뒤로 미루겠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가 벌어지던 날 그는 보초소에서 불의에 적군용자동차편대와 조우하였습니다. 그날의 보초는 원래 허성숙이 아니라 부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구대원이었다고 합니다. 허성숙은 식사 후 늙은 대원을 도와주려고 보초소를 찾아갔습니다. 보초소근방으로 적군을 실은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밀려오자 허성숙은 로대원을 시켜 지휘부에 정황을 보고하게 하고 혼자서 적들을 막아나섰습니다.


양형우

그가 총소리를 낸 것은 적들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더라도 적의 공격을 다문 몇 초동안만이라도 저지시키자는 것이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적들의 화력은 자연히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허성숙은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으나 휴대하고 있던 수류탄을 다 터뜨린 다음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소행으로 하여 그날 부대는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때에 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허성숙이 희생될 당시의 나이가 아마 22살이나 2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꿈을 그는 쏘련의 할힌골격전을 지원하는 싸움에 바치였습니다. 국제주의의 꽃입니다.

전동규연대장과 양형우연대정치위원도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모두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훈춘출신들이었습

니다. 대원들이 그들을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높은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이신작칙하는 지휘관들이였기 때문입니다.

양형우는 훈춘유격대 초창기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 대사하를 친 다음 소사하의 고지를 차지하고 달려드는 적을 견제하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사하전투가 너무 시간을 끄는 바람에 소사하의 고지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지를 먼저 차지한 것은 적들이였습니다. 소사하고지를 쟁탈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 대사하, 대장강 전투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에서 양형우는 기관총을 틀어잡고 싸움의 앞장에 나섰습니다. 대원들은 그를 따라 고지로 육박해갔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고지를 거의 점령할 무렵에 양형우는 그만 적탄에 복부를 부상당하였습니다.


전동규

그는 왼손으로 총상자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기관총을 휘두르면서 왜놈들은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다. 놈들은 지금 쏘련을 침공하고 있다. 저 원쑤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쳐부시자,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자고 웨치며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키였습니다. 대원들은 노도와 같은 공격으로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훈춘시절부터 양형우와 어깨를 겯고 성장한 전동규연대장도 적의 부대를 전멸시키고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희생된 유격대원들은 모두 혁명위업에 충실한 국제주의열사들입니다.

요차전투도 인민혁명군부대들이 쏘련을 돕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조직한 전투였습니다. 새로 연대장으로 임명된 이용운이 이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연대는 이 전투에서 만도 수백 명의 적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지휘한 이용운은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총상자리는 다행히도 아물었으나 그는 소할바령회의 후 쏘만국경지대에서 국제당과의 연계를 취하며 소부대공작을 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수행한 소부대공작도 역시 국제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였습니다.

화룡현 3도구 금광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대습격전투, 안도현 푸르허습격전투, 왕청현 백초구습격전투를 비롯하여 할힌골사건 당시 인민혁명군이 쏘련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적배후교란작전의 실례를 들자면 많습니다.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에 적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쏘만국경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들과 철도주변의 100-200미터 구간에 있는 초목들을 모조리 베여버린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음으로는 인민혁명군의 매복 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대담무쌍한 활동에 의해 쏘만국경지대로 통하는 철도들에서는 군용열차폭파사건과 탈선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룡운

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적의 후방을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많은 유생역량을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유격대의 활동구역에 수많은 적을 붙들어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쏘련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에 인적역량을 원만히 동원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적들은 하싼호사건 때 우리의 역량을 견제하기 위해 간도지구에만도 2개 여단의 역량을 투입하였습니다. 할힌골사건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역량을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보는바와 같이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할 데 대한 구호를 들고 우리가 진행한 배후타격전은 일제의 대쏘침략을 좌절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산병선이 전진할 때 약진하는 선두대원을 위해 온 대오가 그를 엄호하는 것은 군사학의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시점으로 볼 때 이 행성에 하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국가 쏘련은 산병선의 선두에서 약진하는 병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두에서 약진하는 쏘련을 엄호하기 위해 관동군의 배후를 타격하였습니다.


레닌

승리한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혁명의 전취물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국제주의적 임무인 동시에 의리이고 도덕이기도 합니다. 앞선 혁명을 잘 도와야 뒤떨어진 혁명도 그 연관속에서 성과적으로 약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연합은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할힌골격전은 관동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5만에 달하는 사상자와 포로, 행방불명, 그것은 불질을 즐기는 호전광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가였습니다. 자기 부대의 유생역량을 다 잃어버린 일본군 지휘관들은 스스로 군기를 불사르고 자결하거나 상급으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하였다고 합니다. 관동군사령관 우에다를 비롯하여 참모장, 작전과장, 작전참모 등 관동군의 수뇌부는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전원 철직당하고 말았습니다.

할힌골격전에서 쓴맛을 본 다음부터 일제의 대쏘정책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그때부터 쏘련에 대한 강경정책을 일시적인 유화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 이 항일전쟁당시 쏘련을 피로써 도와주고 옹호한 것이 옳았는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오늘의 현실은 지난날 쏘련을 옹호하여 기울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지원이 헛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그런 문제를 설정하고 가타부타하고 시비질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린 사람들이나 할 짓입니다.


붉은군대 장갑차

우리는 쏘련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지원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쏘련이 붕괴되였다고 해서 지난날 우리가 쏘련의 혁명투쟁을 지원한 것이 헛된 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바친 의리나 노력은 헛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인류의 이상이고 역사발전의 응당한 노정인 것만큼 그 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부



정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사회주의가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 첫 체현자인 쏘련을 도와준 것도 정의롭고 성스러운 것으로 되지 허무한 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쏘련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 때 무장을 들고 피로써 그들을 도와준데 대하여 지금도 긍지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쏘련이라는 국호도 없어졌고 쏘비에트국가를 건설하던 초창기의 노혁명가들도 없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땅에는 할힌골격전에 직접 참가한 노병들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절에 우리가 쏘련을 위해 적의 배후에서 교란작전을 벌인데 대해서 회상할만한 사람들도 거의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억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가 심혈을 바쳐 가꾸어온 국제주의의 화원이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런 것에는 관계없이 무장을 들고 쏘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쏘련을 위한 일인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에 대하여 국제주의로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은 민족이기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말건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이기주의도 반대하지만 민족이기주의도 반대합니다. 자기만 잘살내기를 해서야 그게 무슨 인간다운 생활입니까. 사람이 누리는 낙중에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그라드전투

7. 마에다토벌대의 종말


홍기하전투에서 전멸된 마에다부대의 격전비

1940년 3월의 홍기하천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 시기를 빛나게 장식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것으로 혁명군을 괴멸시킨다고 떠들던 적들은 이 전투로 해서 이만저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옹근 하나의 토벌 중대가 전멸되는 비참한 종말을 당한 것으로 하여 저들은 어쩔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기인가. 중일전쟁이 장기적인 대치전으로 들어가고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으로 해서 쏘일관계가 극도로 팽팽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관동군수뇌들은 동북항일운동을 최종적으로 박멸한다 어쩐다 하면서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적을 부단히 치면서도 싸움을 한번씩 하고난 다음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군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겨우내 돈화와 무송의 오지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때에 다 얼어죽었다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안도-화룡현경에 불쑥 나타나 홍기하에서 마에다토벌대를 전멸시켰으니 적들로서야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홍기하전투는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동녕현성전투, 무송현성전투와 같은 큼직큼직한 전투들과 더불어 우리가 벌인 군사작전들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작전의 하나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에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룡현 경찰토벌대의 한 개 중대장에 불과하였던 마에다로 말하면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이 상대할만한 그런 존재는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송의 왕가대장이나 안도의 이도선같이 가장 악질적인 토벌대장이었습니다. 직급은 보잘 것 없었지만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해쳐보겠다고 날뛰다가 녹아난 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대선회작전에 따라 계획적으로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적들에게 거듭되는 군사적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홍기하전투를 한달가량 앞둔 때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하던 우리는 밀영으로 기습해 들어온 적들을 불이 번쩍나게 답새겨 주고 안도쪽으로 쭉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제2단계라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에서는 첫 시작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패자밀영에 들어가 있던 임수산이 사령부가 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공했기 때문에 원래의 비밀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다른 통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한 통로가 다름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백두산동북부의 백색지대였습니다.

일본군대에 한다하는 측량쟁이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 일대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측량을 하지 못한 지대이니 지도에 백색을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동북부의 일부 지역을 백색지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석탄을 떠날 때 백색지대를 지나서 무산, 삼장에 나가 총소리를 다시한 번 크게 내고는 화룡현을 거쳐 안도현 중심부로 되돌아오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을 떠나면서 새로 세운 대부대선회작전의 2단계 계획이란 이런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로수하에서 한차례의 전투를 한 다음 두도백하, 이도백하, 삼도백하를 가로지르면서 안도현남단으로 행군해갔습니다.

백색지구를 참으로 힘들게 돌파했습니다. 그때는 눈무지도 적이고 설한풍도 적이였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 없었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곤란한 것은 길을 자주 헛갈리는 것이였습니다. 만물이 죄다 백색으로 치장을 하다나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표적을 정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마록구근방에 와서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의복도 신발도 다 해졌습니다. 우리는 대마록구를 쳐서 후방물자를 해결하였습니다. 대마록구라는 말은 큰 말사슴골이라는 뜻이고 소마록구라는 말은 작은 말사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대마록구의 사슴들이 두만강을 건너 우리 나라 땅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겨울에는 대마록구에 돌아가 새초를 먹느라고 두 나라 지경을 왔다갔다했습니다.

적 토벌대의 본거지인 대마록구에는 산림경찰중대본부도 있었습니다. 대마록구는 국경방면의 토벌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장이였습니다. 일제는 이 고장에 있는 산림채벌회사와 작업장들을 통하여 군수용목재들을 대대적으로 약탈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에 앞서 대마록구에 정찰조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찰정형을 보고하고는 눈알이 뿌옇고 키가 꺽두룩한 이상한 인종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코가 한자나 되고 손등에 털까지 부르르한 이상한 족속들인데 무슨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원 한 명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목재소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백계러시아인들이더라고 했습니다. 하얼빈지방에 백계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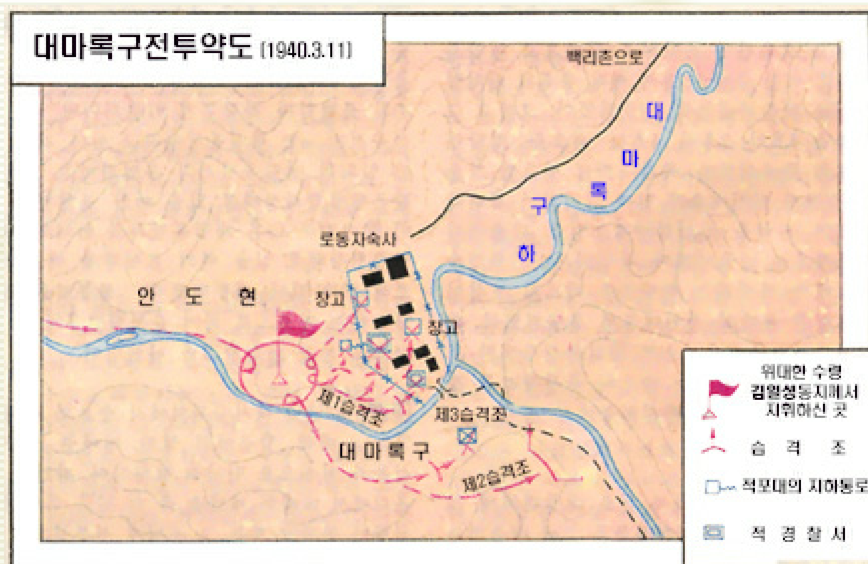
나도 1930년 여름 하얼빈에 가서 백계러시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의 주력이 출전한 틈을 타서 급행급습하는 전술로 순식간에 대마록구를 타고앉았습니다. 백계러시아인운전사들은 우리 대원들을 만나자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대를 비적부대로 본 모양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금반지를 받지 않고 되돌려주자 그들은 천하에 별난 사람들도 다 본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만큼 낙후했습니다.

대마록구를 치고 노획한 밀가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밀가루를 대마록구인민들에게 한포대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노획한 물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대원들이 모두 한 짐씩 지고도 남아서 수십 명의 목재소노동자들이 자진하여 짐을 져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백계러시아인들을 설복해서 자동차로 일정한 거리까지 쭉 빠지자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어를 아는 사람을 백계러시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백계러시아인운전사들을 설복하여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백계러시아인들과 직접 담화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조국에서 살지 않고 중국에 와서 사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와 같은 지주, 자본가 출신들은 공산당이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자기네한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쏘련에 보내주면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해볼 용의가 있는가고 묻자 있다고 했습니다.

노획물자들을 지고 우리를 따라나선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노동자도 한 명 있었



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좋은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혁명군을 만나보니 사람들이 다 좋더라,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편이더라,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없이 대해주면서 일본인노동자들도 조선인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일본제국주의를 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보고 들은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재소감독에게 잡혀 딴곳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마록구를 기습하자 안도와 화룡 일대의 적들은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력부대를 소멸해보겠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앞장에 선 것이 화룡현 경찰토벌대 대장인 현경무 과장 우나미와 마에다였습니다.

화룡현 경찰당국이 경찰토벌대를 조직한 것은 1939년 5월 우리가 무산지구전투를 끝마친 다음 두만강연안에서 큰 전투를 연속 벌이던 무렵이었습니다. 화룡현 경찰토벌대는 순전히 우리를 견제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급작스레 만들어낸 무력이었습니다. 이 토벌대는 마에다의 중대를 포함한 4개의 중대와 철도경비대 2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간도지구 토벌대장의 지휘밑에 유격대 토벌에 미쳐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북쪽에 있는 줄 알았던 우리가 불쑥 화룡, 안도 현경에 출몰하면서 대마록구를 들이치게 되자 화룡 경찰토벌대는 악이 날대로 나서 우리를 추격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마에다는 곧잘 **김일성**부대주력은 자기네가 맡아 제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우리에 대한 토벌에 그 누구보다도 악질적으로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우리의 목에 자그만치 1만원이라는 많은 현상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걸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만주국치안당국이 경찰상을 제정하면서 보통상 10원으로부터 치안부대신의 명의로 된 최고상의 액수를 200원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1만원이라는 현상금은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하급경찰관노릇을 하다가 만주로 들어온 다음 수도경찰청산하 경비사령부와 주로 조선국경대안의 여러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바 있는 마에다는 간도일대에서 벌인 치안숙정공작에서 세운 공로로 치안부대신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마록구를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이 오른 마에다는 유격대를 전멸시키겠다고 하면서 혈서를 쓴 다음 토벌출정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만군경합동토벌대는 총출동하여 백두산 기슭의 대수림을 포위하고 개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나는 그때 토벌대들이 반드시 우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적을 교묘하게 뺑돌리기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한 개 소부대 성원들과 노획물자들을 지고 우리를 따라오던 40여명의 사람들을 대마록구로 되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여기저기에 발자취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金日成〇〇一派

警察本部襲擊

食糧多數〇〇〇〇去

대마록구전투를 보도한 일제의 신문보도자료

적들은 그들의 발자취에 속아 모처럼 잡았던 유격대를 놓쳐버렸다고 통탄하다가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김일성**이 아무리 신출귀몰한들 땅속에 잦아들겠는가, 백두산만 다 뒤지면 공산군사령부는 문제없이 찾아낸다고 장담하면서 매일같이 산속을 헤매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따돌리고 얼마동안 화라즈밀영에서 배심좋게 주력부대의 군정학습을 조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휴식도 하면서 피곤을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쪽으로 행군을 계속 하였습니다. 화라즈일대에 흩어져서 혁명군의 행방을 찾느라고 돌아치던 적들이 마침내 우리의 행방을 탐지해내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상에서 토벌대에 인부로 징발된 농민들을 만나 1,000명 가량되는 적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이라고 하지만 허리를 치는 적설 때문에 적아쌍방이 다같이 행군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행군속도가 우리보다는 빨랐습니다. 우리가앞에서 생눈길을 내면 적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부대에는 쫄라병환자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명뿐이었는데 나중에는 15명가량의 환자가 생기였습니다. 나는 임춘추에게 쫄라병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작정인가고 물었습니다. 임춘추는 유격대정치일군이었지만 임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먹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아편을 쓰든지 무엇을 쓰든지 재간껏 치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아편을 먹고 급한 고비를 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행군을 할만한 정도로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적들을 멀리 떨구어놓아야 하겠는데 환자들 때문에 행군속도가 떠지게 되다나니 적아의 거리가 10-15리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홍기하상류의 대마록구하는 여러 갈래의 골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골에 이르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재소노동자들이 사용하다가 버리고간 헌집이 있길래 보초를 세우고 그 집들에 대원들을 숙영시키었습니다. 대원들을 푹 쉬우지 않고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적들이 꽁무니를 바싹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군을 멈추고 그런데서 숙영하라고 하자 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자리에 드러눕자 안심했습니다.

나는 마에다토벌대를 홍기하골짜기에서 족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기하골짜기를 매복지점으로 택한 것은 화라즈까지 들어온 적들이 기지로 돌아가자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리라는 것을 타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곳 지형은 적을 매복소멸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고장이였습니다. 후에 화룡현경무과장이 말한 것처럼 그 골짜기에서 매복에 걸리기만 하면 정말 전술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형이였습니다.

내가 홍기하골짜기를 전투장소로 선택한 것을 알고 오백룡은 장군님, 적들이 우

리의 전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함정에 스스로 찾아들어오게 될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적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인매복전술이었습니다. 적들은 이 전술에 라와전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라와에 걸리지 말라는 말이 하나의 경구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의 유인매복전술에 얼마나 혼쌀났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들은 빨치산이 매복해 있을만한 곳으로는 될수록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백룡이 한 말은 이런 실정을 염두에 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일본군이 라와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산군이 그런 전법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산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홍기하골짜기에 매복진을 치고 거기서 추격해오는 토벌대와의 싸움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적들이 더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전법을 다시금 적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행군길에 나선 우리는 소마록구쪽으로 능선을 타고 나가다가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 골짜기 양옆의 산들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상류를 향해서 오른쪽에는 3형제같이 생긴 3개의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매복진지로는 명당자리였습니다. 골짜기 왼쪽에도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봉우리기슭에 자그마한 수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지물이었습니다.

나는 지휘관모임을 열고 간단한 전투조직을 했습니다. 골짜기 오른켠에 있는 3개 봉우리에는 기관총소대와 경위중대를 배치하고 왼켠봉우리의 변두리에는 7연대와 8연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되 각 부대들은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고지로 올라오는 발자국만을 메우면서 제가끔 지정된 장소에 매복하고 유인대는 발자국을 크게 내면서 계속 골짜기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태춘을 책임자로 하는 한 개 소조는 골짜기의 첫 고지 북쪽을 차지하고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게 했습니다. 유인대는 골짜기끝에까지 가서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홍기하골짜기에서 계획대로 전투를 하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스해졌기 때문에 양지쪽에서는 눈이 녹아버리었습니다. 길도 질적질적 했습니다.

적들은 정오도 지나고 해가 퍼그나 기울어진 때에야 홍기하골짜기에 나타났습니다. 망원경으로 골짜기어귀를 내려다보니 척후였습니다. 척후치고는 큰 척후였습니다. 적들이 척후를 파견할 때에는 한두 명씩 내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화라즈골짜기들에 있던 토벌대란 토벌대는 다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척후병들의 뒤로는 첨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첨병들이 마지막 고지의 앞을 지나갈 때 군도를 찬 장교가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가 바로 마에다였습니다.

부대의 앞머리가 매복권안에 깊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걸음을 멈추고 눈우에 찍힌 발자국과 골짜기의 묘한 지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나는 그가 골짜기우에 척후대를 파하거나 부대를 뒤로 뽑을 궁리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일이나 산악지대를 돌아치며 허탕만 치는 통에 지칠대로 지친 마에다는 냉철하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할 그 운명적인 시각에 탕개를 늦추고 방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에다가 독립수밑에 서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부하장교들이 그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에다는 군도를 짚고 서서 그들에게 무슨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적의 기본대오는 전부 매복권안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격신호를 내렸습니다.

적들은 첫 타격에 벌써 반수이상이 쓰러졌습니다. 골짜기 좌우쪽에서부터 불의에 협격을 받은 마에다는 즉시 전대오를 행군하던 그 자리에 산개시키고 주력으로

북쪽고지를 점령하려고 했으나 서쪽 잡관목림속에 매복해 있던 우리 대원들이 맹렬한 측면사격을 하게 되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에다는 정황이 불리해지게 되자 최후결전을 결심했던지 돌격명령을 내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군도를 뽑아들고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중상을 당한 후에도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나머지 적들도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에다의 부하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바치고 투항한 30명쯤 되는 적을 내놓고는 모두가 소멸되었습니다. 살상자수가 140여명 잘되었을 것입니다.

홍기하전투때 우리 동무들이 참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때 육과송에서 전사한 오중흡을 대신하여 연대장이 된 오백룡도 잘 싸웠고 김일도 돌격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전장을 수색해보니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리품가운데는 무전기도 있었습니다. 탄알도 수만 발 노획하였습니다. 무기가 남아돌아가던 때여서 처치곤란이였습니다. 그래서 노획한 무기들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어 낡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대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대사변의 시기를 예견하여 유지로 싸서 땅에 묻거나 구새먹은 나무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전리품정리를 끝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위만군 봉천부대가 불을 피우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달려들지 못하고 눈먼총질만 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노획한 기관총을 전부 걸어놓고 성능검사도 할 겸 요란하게 위협사격을 퍼붓게 하였습니다.

그날밤 오백룡이 봉천부대가 슬금슬금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놈들을 답새기라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은 내버려두라, 구경군들까지 때릴 것이야 있는가, 그들을 때려눕히는 것보다 살려보내는 것이 낫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여 마에다부대가 벼락맞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줄게 아니냐고 말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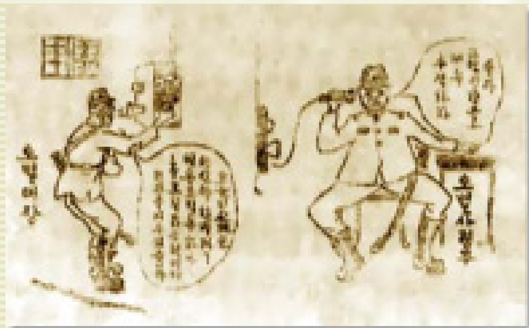
마에다가 부하들에게 유서를 씌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홍기하에서 싸움을 한 다음 전장을 수색할 때 전사한 장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비단천에 싼 유서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비장했습니다. 포로병들의 말에 의하면 마에다는 출전직전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중대는 지구 토벌대의 일원으로 **김일성**부대와 싸워야 한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야마도 다마시(일본정신)를 키우고 천황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유서까지 씌웠다는 것입니다. 지어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쓸 유골함까지 만들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에다가 비록 직급은 하나의 토벌중대장에 불과한 자이지만 정말 지독한 국수주의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에다를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와 반공광신자로 만들어놓은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사상이라고 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체 국민을 철저한 국수주의의 신봉자들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국수주의라는 것은 항상 애국주의의 외피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국수주의의 독소가 쉽게 침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만주를 먹어야 자기네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침략사상을 집요하게 주입시키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소비하는 빵이나 과자같은 음식물에



선전화 ≪거덜난 <토벌>≫

다가도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자극적인 글자를 새겨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남의 땅을 삼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전을 이런 정도로 집요하게 해대면 그 독소가 사람들의 머리속에 침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조아지들에게는 마치 아무런 사상도 없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이 있는 것처럼 부르조아지들에게는 부르조아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네 사상을 신봉하는 충견들을 길러냅니다.

한때 혁명군안의 일부 지휘관들은 일본군대내에서 황도정신을 주입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일면적으로 그 기만성과 허황성만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일본병사들을 총을 쥔 목석으로 보는 편향을 발로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들에게 사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이 적들의 사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적들이 똑똑한 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얕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일군들에게 적의 사상적 취약성만 강조하지 말고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극악한 반공독소로 병사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은 홍기하전투를 통해 쓴맛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뒤꽁무니를 아무리 쫓아다녀보아야 차례질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마에다토벌대의 종말과 같은 비참한 결과만 맛보게 된다는 것과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쓰디쓴 교훈이였습니다.

우리는 홍기하전투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굴복하지도 사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홍기하전투는 국내인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홍기하에서 조선땅이 지척이였기 때문에 혁명군한테 마에다가 쫄딱 녹았다는 소문이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으로 인차 날아갔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운명이 어떻게 돼가는가고 가슴을 조이며 주시하던 인민들이 그 소문을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혁명군이 망했다는 선전을 아무리 들이대도 믿지 않았습니다.

홍기하전투를 계기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전파되어갔습니다. 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자기들의 장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게 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였습니다. 그것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조선의 모든 반일애국역량이 신심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홍기하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와 반대로 **김일성**부대만 소멸하면 동북에서의 항일유격전쟁은 조만간에 종말을 고한다고 선전하던 일만군경측으로 볼 때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상사였고 비참한 패전이였습니다.

화룡현경찰당국은 마에다부대의 전멸을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저들이 천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수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영활한 전법앞에 마에다부대의 패망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에다토벌대의 괴멸은 일만군경수뇌들이 그토록 큰 힘을 넣었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마에다의 직속상관이였던 화룡현 경무과장 우나미는 패전 후 일본에 돌아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간도성의 만주국경찰로 있은 내가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항일부대의 토벌에 참가

한 것은 1938년부터 1941년에 걸쳐서였다.

...

정보수집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확실한 정보로서 ≪**김일성**장군은 길림시의 학교를 졸업하였다. 매우 우수하여 정치적 판단력, 조직지도력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웠다.≫는 것이었다.

...

김일성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은 항일유격투쟁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 것 같았다. 특히 교묘한 유도작전이라든가 매복전에 의하여 혼쌀난 일이 많았다.

...

1940년 3월 11일 홍기하계곡에 있는 대마록구가 **김일성**부대의 습격을 받다. 대마록구는 산림경찰중대본부가 있는 토벌대의 거점이었다. 본부가 얻어맞고 자동동차수리소가 불타고 무기, 탄약, 식량, 피복을 빼앗았다.

누노가미지구토벌대장은 경찰토벌대대에 일본군의 오오바, 아까호라부대와 협동작전으로 **김일성**부대를 추적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마에다 다께이찌중대에 그 임무를 주었다. 3월 25일 마에다중대는 대마록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일성**부대와 맞다들어 대격전을 벌였으나 마에다중대장이하 전멸하는 결과로 끝났다. 매복작전에 걸렸던 것이다. 이 마에다중대의 전멸은 토벌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부대는 지리에 밝고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림에서의 토벌작전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

당시 **김일성**빨치산부대는 ≪우리는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조국광복을 위한 싸움에서는 타협이 없다.≫, ≪토벌대는 우리에게 무기 식량, 의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환영할만한 손님이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수상의 영도밑에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밑에 전진하고 있는 조선인민은 기필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나는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홍기하전투와 관련된 회고를 하시면서 군국주의의 재생에 경각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 말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본지배층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나서 세계제패라는 어리석은 몽상에서 깨여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이웃나라 인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지배층이 하는 노릇을 보면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이나 세계제패를 꿈꾸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적지 않은 반동세력은 지금까지도 조선인민과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한 죄과, 수십수백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는 20여만의 아녀자들을 성노리개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취급한 야수적 죄행까지도 똑똑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밑천으로 하여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참망하고 있습니다. 구라파나라들에서 신파쑈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재미가 없는 일입니다.

군국주의의 부활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